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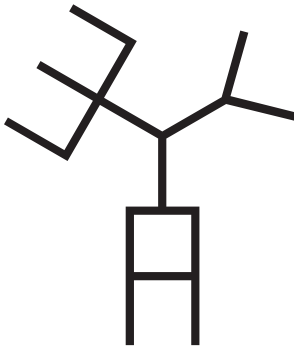
E T Y P O J A N C H I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일러두기

작품과 글 제목은 〈 〉,
전시 및 책 제목은 《 》로 표기했다.
작품 크기는 세로(h), 가로(w), 깊이(d) 순이다.

Note

The size of each work is marked in order
of height (h), width (w) and depth (d).



타이포잔치 2015: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편집 박활성
2015년 12월 1일 초판 인쇄 2015년 12월 8일 초판 발행	디자인 이경수, 전용완
퍼낸이 김옥철	사진 김진솔, 싸우나스튜디오
퍼낸곳 (주)안그래픽스 디자인사업부	번역 김연임, 김현경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DMCC빌딩 15층	영문 감수 리처드 해리스
전화 02 743 8065 팩스 02 743 6402 이메일 contact@ag.co.kr www.ag.co.kr	인쇄 인타임

ISBN
978-89-7059-837-6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있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제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TYPOJANCHI 2015: Seoul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Editing Park Hwalsung
First Printing 1 December, 2015	Design Lee Kyeongsoo, Jeon Yongwan
Publisher Kim Ok-chyul	Photography Kim Jinsol, SSSAUNA STUDIO
Publishing house ahn graphics Graphic Design Dept.	Translation Kim Yunim, Kim Hyunkyung
15th floor, DMCC building, 48-6, Sangamsan-ro, Mapo-gu, Seoul 03909, Korea	English Supervision Richard Harris
tel +82 2 743 8065 fax +82 2 743 6402 email contact@ag.co.kr www.ag.co.kr	Printing intime

ISBN
978-89-7059-837-6

©2015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by any electronic or mechanical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C ()
T ()

- 10 인사말
Greetings
- 19 들어가는 글
Introduction
- 20 타이포그래피, 도시의 단면
Typography: A Cross-Section of a City

() 온 더 월
() on the Walls

- 30 루도비크 발란트
Ludovic Balland
- 32 시기 에게르트손
Siggi Eggertsson
- 34 엘모
Helmo
- 36 키트라 딘 딕슨
Keetra Dean Dixon
- 38 에런 니에
Aaron Nieh
- 40 리카르트 니션
Richard Niessen
- 42 이재민
Lee Jaemin
- 46 이노이즈
INNOIZ

본전시
Main Exhibition

- 50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 + 고든 영
Why Not Associates + Gordon Young
- 56 캐서린 그리피스
Catherine Griffiths
- 62 김두섭
Kim Doosup
- 68 최병일
Choi Byoungil
- 74 대니얼 이톡
Daniel Eatock
- 78 하준수
Ha Joonsoo
- 82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Research and Development
- 88 산드라 카세나르 + 바르트 더바에츠,
토마스 라르
Sandra Kassenaar + Bart de Baets,
with Tomas Laar
- 92 국동완
Kook Dongwan
- 98 조규형
Cho Kyuhyung
- 104 조현열
Joe Hyounyoul
- 110 다이니폰 타입 조합
Dainippon Type Organization
- 116 하라다 유마 + 이다 쇼헤이
Yuma Harada + Shohei Iida
- 122 로만 빌헬름
Roman Wilhelm
- 126 스튜디오 스파스
Studio Spass
- 132 알투
R2
- 138 헬로우미(틸 비데크)
HelloMe (Till Wiedeck)
- 142 왕츠위안
Wang Ziyuan
- 148 브라운폭스
Brownfox
- 152 레슬리 다비드
Leslie David
- 156 코타 이구치(티모테/세카이)
Kota Iguchi (TYMOT/CEKAI)
- 160 우판
Wu Fan
- 166 엘로디 부아예
Elodie Boyer
- 172 헤잔느 달 벨루
Rejane Dal Bello
- 178 이지성
Yi Jisung

특별 전시
Special Exhibition

- 184 여섯 이미지, 여섯 텍스트, 한 개의 재구성:
도시 타이포그래피의 절정
Six Images, Six Texts, One Remix:
The Urban Typographic Apotheosis
- 188 로라 주앙
Laura Jouan
- 194 서머 스튜디오
Summer Studio
- 200 앤드루 브래시
Andrew Brash
- 206 서베스천 코세다
Sebastian Kosedá
- 212 요나스 베르토틀
Jonas Berthod
- 218 외르크 슈베르트페거
Jörg Schwertfeger
- 224 심규하
Shim Kyuha

아시아 도시 텍스트/처
Asia City Text/ure

- 236 자빈 모
Javin Mo
- 240 홍창렌
Hung Chang-Lien
- 244 류징샤 + 리샤오보
Liu Jingsha + Li Shaobo
- 248 프랍다 윤
Prabda Yoon
- 252 장응우옌
Giang Nguyen
- 256 쉰 켈빈 쿠
Sean Kelvin Khoo
- 260 신신(신동혁, 신해옥)
ShinShin (Shin Donghyeok, Shin Haeok)
- 264 모리무라 마코토
Makoto Morimura

종로 ()가
Jongno () Ga

272 안마노
Ahn Mano

274 윤민구
Yoon Mingoo

276 오디너리 피플
Ordinary People

278 COM
COM

280 마빈 리 + 엘리 파크 소렌슨
Marvin Lee + Eli Park Sorensen

282 코너스
Corners

284 반윤정 (홍단)
Ban Yunjung (Hongdan)

286 이송은 + 김성욱
Lee Lara + Kim Oui

288 신덕호
Shin Dokho

290 전재운
Jeon Jae

292 정진열
Jung Jin

294 장문정
Jang Moonjung

296 김정훈
Kim Hoon

298 박찬신
Park Chanshin

300 김동환
Kim Donghwan

302 김욱
Kim Uk

304 서울의 동네 서점
SEOUL () SOUL

318 책 벽돌
Book Bricks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PaTI

도시 언어 유희
Urban Wordplay

334 김가든 x 스탠다드스탠다드
Kim Garden x StandardStandard

336 워크스
Works

338 박경식
Fritz K. Park

340 김형철
Kim Hyunchul

342 스튜디오 줄
Studio Jot

344 마이케이씨
mykc

346 박영하
Park Youngha

348 배달의민족 x 계한희
Baemin x Kathleen Kye

350 스팅스 에디션
Sparks Edition

도시 환영(幻影/歡迎) 문자
City Welcomes You

354 조현 + 닐스 클라우스
Cho Hyun + Nils Claus

356 심대기
Shim Daeki

358 이충호
Lee Choongho

360 두성종이 디자인연구소
Doosung Paper Design Lab

362 디자인 메소즈
Design Methods

366 송봉규
Song Bongkyu

368 매튜 니븐
Mathew Kneebone

370 팀 서즈데이
Team Thursday

372 클라크 코프
Clark Corp

374 베르게르 + 슈타델 + 월시
berger + stadel + walsh

376 마수나가 아키코
Akiko Masunaga

378 심효준 + 키이스 웡
Shim Hyojun + Keith Wong

382 강문식
Gang Moonsick

워크숍 프로젝트: 결여의 도시
Workshop Project: A City without ()

388 김소희, 권영찬
Kim Sohee, Kwon Youngchan

390 홍동오, 김리원, 권예지
Hong Dongoh, Kim Riwon, Gwon Yeji

392 윤진, 장광석
Yoon Jin, Jang Gwangseok

394 윤충근, 강민경, 전다운
Yun Chunggeun, Kang Minkyung, Jeon Dawoon

396 이경진, 박수현
Lee Kyungjin, Park Suhyun

398 송민재, 김태호, 도연경
Song Minzae, Kim Taeho, Do Yeongyeong

도시 문자 르포르타주
City Letter Reportage

404 구트폼 + 유지원
Gute Form + Yu Jiwon

협력 작가들 2014/2015
Collaborating Artists 2014/2015

418 도시 문자 탐사단
City Type Exploration

420 이재원
Lee Chae

422 플랫
Plat

424 이재민
Lee Jaemin

426 다페르튀토 스튜디오
Dappertutto Studio

428 제로랩
Zero Lab

430 강이론
E Roon Kang

432 놀공
Nolgong

434 미디어버스 x 신신
Mediabus x Shinshin

436 두성종이 디자인연구소
Doosung Paper Design Lab

438 레벨나인
rebel9

440 C () T () 토크 프로그램
C () T () Talk Program

442 감독 및 큐레이터 소개
About Director & Curators

제4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1년에 첫걸음을 시작한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어느덧 4회째를 맞이하고
세계 유일의 국제 타이포그래피 행사로,
그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어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일상생활과 다양한 예술 분야에 깊이 관여하며,
소통의 매개 역할은 물론 오늘의 전시가 조명하듯
‘국가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방문해도
우리는 그 나라에 와 있다는 인상을 주는 타이포그래피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풍기는 이국적인 조형성은 우리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도시와 문자’를 주제로 개막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은 도시 속의 타이포그래피와 도시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탐색하고 재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영역과 경계를 허물고,
늘 새로운 곳을 향하는 예술 본연의 도전과 실험정신은
우리 정부가 국정 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기초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한 작가들의 실험 또한
타이포그래피의 공공적 가치와 문화 예술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상 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신 안상수 조직위원장님,
김경선 총감독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정철 원장님,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한재준 회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은 작품으로 전시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작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everyone involved with the 4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The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took its first steps forward in 2001
and is now in celebrating its fourth exhibition.
I am also extremely proud that *Typoganchi*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only international typography event in the world.

Typography is not only connected to various fields of art
but is also deeply related to people's day-to-day lives.
As can be seen through this exhibition,
typograph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image of a country and a city,
while working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as well.
When we visit a new country/city,
typography helps us to recognize where we are.
At the same time, the exotic forms of letters and symbols
can often be mesmerizing.
At this exhibition, whose theme is "City and Typography,"
visitors will have a chance to explore and rediscover typography in cities
and within urban culture through many new means.

In addition, the bold, experimental spirit of the arts,
which often breaks down barriers while also spurring on efforts to find new limits,
provides the fundamental eleme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ursue the core values of cultural enrichment and a creative economy.
The artistic experimentation each participant carries out at this exhibition
will help expand the public value of typography and
the capability of both culture and the arts.
As a result,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cultural development for all Koreans.

I would like to pass on a special thanks to
ahn sang-soo, head of the Organizing Committee,
Kymn Kyungsun, the Biennale Director,
Choi Jeongcheol, Director of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Han Jaejoon, Chairperson of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and everyone else who was involved in putting together this spectacular event.
Furthermore, my sincere appreciation to
all the designers and artists from Korea and overseas
who made this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so memorable and important.

Thank you,

Kim Jongdeok
Minister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제4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5’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 주신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안상수 조직위원장님,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한재준 회장님,
김경선 총감독님,
전 세계 22개 국에서 오신
모든 참여 작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4회 차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 예술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5》의
올해 주제는 ‘도시와 문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공간인 도시는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즉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문자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며,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전통 문화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번 《타이포잔치 2015》에서는
바로 그 문자들이 어떻게 도시 속에서,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며,
수준 높은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탐색해보는 즐거운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단지, 광고판, 도로표지 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쉽게 소비되는 존재들이었던
도시 속의 문자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가치와 의미가
이번 전시를 통해 재발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도시’와 ‘문자’라는
매우 흥미로운 디자인 요소들을 가지고
약 한 달 동안, 여기 문화역서울 284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서 펼쳐질 축제의 한마당에
기꺼이 동참해주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타이포잔치’가
국제 타이포그래피 문화 교류와 디자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everyone
who helped make the 4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Typojanchi 2015*,
such a successful exhibition.

I would like to extend special thanks to
ahn sang-soo, head of the Organizing Committee,
Han Jaejoon, Chairperson of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Kymn Kyungsun, Director of *Typojanchi 2015*,
and all of the designers and artists
who are participating in this event from 22 countries.

The only typography art biennale in the world,
Typojanchi 2015 marks the fourth time this event has been held,
with this year’s theme being “City and Typography.”
Cities are manmade spaces that contain the life stories and culture of its residents.
Typographic characters are an important cultural asset
that captures the identity of a country.
In Korea, however, they are more than just a cultural asset,
as they represent one of the greatest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icons in the country.

At *Typojanchi 2015*, visitor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witness thought-provoking experiments
on how typography co-exists and interacts
with urban residents within a city.
These same experiments will also explore
how typography creates heightened artistic value.
Urban typography is commonly found and easily consumed
in the form of flyers, billboards, and street signage all around us.
It is my hope that the artistic value and meaning of this urban typography
will be discovered anew through this exhibition.

This festival, with its fascinating design elements
involving both cities and typography,
will be held for about one month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as well as several other artistic venues in the city.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encouragement in staging this exhibition.
As *Typojanchi* continues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typography
through cultural exchanges and design development,
I kindly ask that you offer your heartfelt support.

Thank you very much.

Choi Jeongcheol
Director,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글짜와. 도시.

.
글짜들. 모여. 글짜숲을. 이룬.곳.
그곳이. 도시일. 것이다..
.
도시에서. 글짜는. 박테리아처럼. 번식하며. 자연을. 먹어치운다..
자연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나..
인간들은. 글짜편에서. 자연을. 공격하고. 있다..
점령지에서. 인간은. 글짜로. 집짓고. 울타리. 만들어..
그. 속에. 도사리고. 겁없이. 살아간다..
.
글짜는. 도시. 표면에서. 가로세로. 붙박히고..
글짜는. 걷고.. 운동하고.. 차로. 달린다..
글짜는. 도시. 하부를. 휘돌고..
전선을. 타고. 빛으로. 흐른다..
급기야. 모든. 허공에. 가득. 찬. 글짜들은.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뇌마져. 관통한다..
가끔. 불꽃처럼. 글짜가. 튀어오르기도. 한다..
너무. 소란스러워. 백색이. 된. 글짜숲에서.
글짜는. 글짜끼리도. 으르렁거리고. 있다..
.
우리. 한. 번. 골똘히. 생각해보기로. 하자..
한. 발. 물러서.. 이. 글짜들을. 응시하며..
글짜. 체로. 도시를. 걸러내어. 보자..
소리만. 남은. 도시는. 형해로. 남아.. 우리의. 정신을. 요구할. 것이다..
.
그. 도시가.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묻는다면..
그저. 예!. 할. 뿐이다..
.
안상수.
타이포잔치. 조직위원장.

letters.and.cities

where.letters.gather.and.become.a forest.
there.will.be.a.city..
.
in.a.city.letters.reproduce.as.bacteria.and.consume.nature..
nature.protects.desperately..
people.attack.nature.on.the.letters.side..
in.occupied.territories.people.build.houses.and.fences.with.letters..
sit.in.there.live.without.fear..
.
letters.remain.here.and.there.on.the.city.surface..
they.walk.. exercise.. and.drive.in.a.car..
letters.go.around.the.bottom.of.a.city..
riding.a.wire.floating.as.light..
in.the.end.all.letters.fill.the.air.even.casually.penetrate.human.brains..
sometimes.they.fly.up.like.sparks..
in.the.woods.of.letters.that.turned.white.with.extreme.noise.
letters.even compete.with.themselves..
.
let.us.think.hard.about.this..
let.us.step.back.staring.at.these.letters..
and.filter.out.city.with.letters..
then.a.city.left.only.with.sound.remains.as.a.skeleton.. and.a.call.for.our.spirit..
.
if.the.city.asks.us.something..
we.just.say.yes!
.
ahn.sang-soo
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5》 개최를 축하합니다.

‘도시와 문자’라는 올해의 주제가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키워가는 땅,
세종 이도가 태어난 문자 도시 서울에서,
세계의 타이포그래퍼, 예술가들이 함께 어울려
즐긴다고 하니 더없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더구나 그 한가운데에 문자라는 깃발이 펄럭거리고
문명을 실어 나르는 활자들이 수없이 늘어섰으니
이것은 인류사에 보기 드문 슬기 사람의
지적인 호사이자 흥미를 더하는 문화적 사건입니다.

국내외 초대 작가와 역량 있는 큐레이터,
전문가들이 정성껏 차려낸 《타이포잔치 2015》는,
도시의 타이포그래피 생태 환경을 생생하게
파헤쳐 드러낼 것입니다. 문자가 점령한 도시,
이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인의 욕망과
삶에 얽힌 이야기들이 타이포그래피로 발현됩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문자 이전 생활과 문자 이후
생활을 되돌아보고, 활자로부터 촉발된 타이포
그래피의 내일을 논의하고, 천년 후의 더 나은
문자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소리 골 뜻의 이치를 하나로 이어내려는
여러 노력과 성취를 음미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타이포그래피, 사람과 도시가 더 잘 어울려
살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2년간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그리고 행사 조직위원회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두 손 모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며,
특히 2015 행사 총괄을 맡아주신 김경선 총감독님,
안병학, 고토 테츠야, 이재민, 이기섭,
크리스 로, 최문경, 박경식, 조현, 민병걸,
아홉 분의 큐레이터 님, 콜라보레이터 제로랩,
권오현, 양선희, 유지원 세 분의 리포터 님,
협력 프로젝트를 맡아주신 강이룬, 이경수,
농공발전소, 다페르튀토 님, 행사 주관 업무를
협조해주신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사무국과
여러 이사님 그리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큰절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재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회장

Congratulations on the 4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Typojanchi 2015*.

I am very excited about the theme of this
year’s event, “City and Typography.” I am also
looking forward to meeting with typographers
and des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enjoying this wonderful festival in our nation’s
capital city. In Seoul, where Hangeul was
created in the 15th century and has since
flourished, King Sejong the Great was born.
There is a wide array of typography works
being presented here and this will facilitate
exchanges between different civilizations.
As a result, this biennale will provide a venue
for a uniquely cultural and intellectual event.

Typojanchi 2015 was made possible by
domestic and invited foreign artists, leading
curators, and numerous specialists.
This exhibition will help display the city’s
organic typographic environment in a very
clear way. Typography, which has long
governed the city — coupled with stories of
desire and the lives of those who live here —
will be presented as typography. Through this
event, I hope we can look back on our lives
both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of
letters and text. I also hope we have a chance
to imagine what the next thousand years of
typography will be like. *Typojanchi 2015* is
a great achievement in terms of harmonizing
sounds, forms, and meaning. I expect this
event to provide us with an opportunity to
seek ways for cities and typography — as well
as cities and their residents — to live in greater
harmon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nd many other organizations and private
individuals have supported the Typojanchi
Organizing Committee over the last two years.
I especially want to thank curatorial director
Kymn Kyungsun and the nine other curators
who worked on this event — Ahn Byunghak ,
Tetsuya Goto, Lee Jaemin, Lee Kisob,
Chris Ro, Kelly Moonkyung Choi, Fritz K. Park,
Cho Hyun, Min Byunggeol. Thank you also to
Zero Lab for the exhibition design and
construction, and the event’s three reporters,
Kwon Ohyun, Yang Sunhee, Yu Jiwon,
as well as E Roon Kang for the design of the
website, Lee Kyeongsoo for the catalog
design, Nolgong for the docent project, and
Dappertutto Studio for the opening
performance. Finally, thank you once again to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Secretariat,
its board of directors and members.

Han Jaejoon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이 시대, 지구상의 현대인들 중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며, 그들이 머무는 도시에는 고유의 문화, 언어, 관습 등의 흔적이 곳곳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물리적인 형상을 통해 주로 도시의 인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어쩌면 도시를 운용하는 자들의 방식에 따라 구축된 신기루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진본성(The Authentic)' 있는 고유한 도시만의 문화적 특징은 전통이든 버네클러든 간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도시 속 여기저기서 피부병처럼 표출된 '거리 문자'들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그러한 삶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텍스트가 난무하는 광고판과 거리에 흩어진 전단지들은 속도를 제한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표지판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지하철 가판대에 있던 신문과 잡지 속 정보들은 손안의 전자기기 속으로 들어와 도시인들의 시선을 독차지하며, 다소곳이 건물 한켠에 자리 잡았던 간판들은 다양한 형태와 기술로 치장하고 도시 전체를 뒤덮는다.

《타이포잔치 2015》는 도시 속에 존재하는 진본성 있는 장면들을, 회복해야 할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자 문화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때론 불편하기도 한) 대상들 역시 시민들의 중요한 환경으로 인식하여 그곳에서, 어쩌면 그것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보고자 한다. 이는 타이포잔치만이 가진 고유한 방법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로써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제안하며, 도시 환경 속에서 문자 문화에 관심을 가져온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시선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김경선
총감독

C()T()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any city can be found in its airports, train stations and public signage, all of which are marked with symbols, numbers and/or letters. This trait can also be found in places of natural heritage, such as rivers and parks, or even with artifacts like buildings and monuments. However, the authentic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city, which can be either traditional or inherent, are derived from people's lives. The resulting languages and structures which exist throughout the streets of a city can actually resemble something akin to a religious confession, emanating from the very people who make up its population.

Today, commercial signage and street flyers compete with public signs for things like speed limits and directional markers, while information from newspapers and magazines now rests in the palm of your hand through mobile screens; for many, it would seem, their eyes are permanently occupied. Although signs erected on and around buildings are static, they are equipped with the necessary technology to cover entire facade of a cityscape.

Typojanchi 2015 considers authentic scenes within a city as the intrinsic phenomena of the city related to text culture. Despite the existence of unsightly or perhaps disagreeable objects and structures around an urban center, we also consider these as meaningful components of a diverse urban environment. And with all of these components, we embark on a form of typography *janchi* (Korean for "party/celebration"). This is the way in which artists at *Typojanchi* interpret this era we live in and the essential values not only of this generation, but also of society and communities interested in typographic culture and urban environments. Whether designers or artists, it is their perspectives and points of view on the culture of typography that we hope to share in the present age.

Kymn Kyungsun
Director

타이포잔치가 도시를 주제로 삼은 것은, 아마도 사람의 삶이 가장 복잡하게 뒤섞인 곳이기 때문에 도시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문자들의 생태가 궁금해서였을 것이다. ‘C () T ()’라는 타이포잔치의 로고에 포함된 ‘()’는 다양한 해석과 참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도시를 횡단하는 여러 단면을 끌어내어 담아내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거대하고 다양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의 복잡한 내부를 조금이나마 세밀히 살펴보는 방법은 그 단면을 표본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별 뾰족한 수가 없을 듯싶다. 도시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충분히 체감해왔지만, 오히려 시간을 지금 순간에 멈추어 두고 도시를 내려다보면, 지역이나 공간은 부여된 기능으로 서로 나뉘고 다시 경제적인 차이로 점차 구별되며 다시 그에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구분되어 다른 무늬의 단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경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무늬가 바로 문자이다.

이런 문자를 표현 재료로 삼는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기능적으로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과 논리를 축적해가며 나름의 학문적 영역을 구축해왔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문자에도 언어에 버금가는 조형적 뉘앙스를 부여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독자적 표현에 끝없이 몰입해왔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메신저, 댓글 등이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 언어를 말과 글로 선포명히 나누어 다룰 수 없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구분해 사회와 문화를 관찰하는 방법은 이제 참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문자를 매개로 도시를 살펴보는 일이 그리 만만할 리 없지만, 타이포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작가들은 자기 나름의 새로운 시선과 방법으로 도시의 단면을 잘라내 전시장으로 옮겨보려 시도한다.

이번 타이포잔치에서는, 각기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온 여러 작가들이 전시 주제인 ‘C () T ()’의 개념을 해석하여 포스터 연작을 만들고, 타이포그래피와 컬러, 형태만을 이용해 세계의 여섯 도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아시아의 다양한 도시에 거주하는 디자이너와 타이포그래퍼들이 국가의 프레임이나 아시아의 보편성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그 풍경을 모아 기록하여 거대한 도시의 텍스처를 생성하는 도전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도시를 여행하는 이방인을 환영하는 매개물로 호텔이라는 공간을 표현의 집점으로 삼거나, 서점과 같은 문자 밀집 공간을 네트워크로 묶어 관찰 대상으로 제안하기도 하며, 종로를 지배하고 있는 거리 미디어들을 도시의 단면으로 삼아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파주출판도시에서 버려지는 책들의 껍적을 추적하여 규격화된 벽돌로 치환하는 작업, 또는 도시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결여’라는 개념을 선택하여, 학생들과 함께 불안정한 도시를 설정하고 그 본성을 관찰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자 현상을 표현하고 전시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도시 공간이 서울역 안으로 연장되는 풍경이 연상된다. 타이포잔치도 이제 점차 글자 너머의 다른 세상으로 연장되고 있는 도중인 듯하다. 다행히 수년에 걸친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타이포잔치는 이제 비엔날레라는 이름에 걸맞는 주기도 갖추어가고 있다. 이렇게 잔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민병길

‘결여의 도시’ 프로젝트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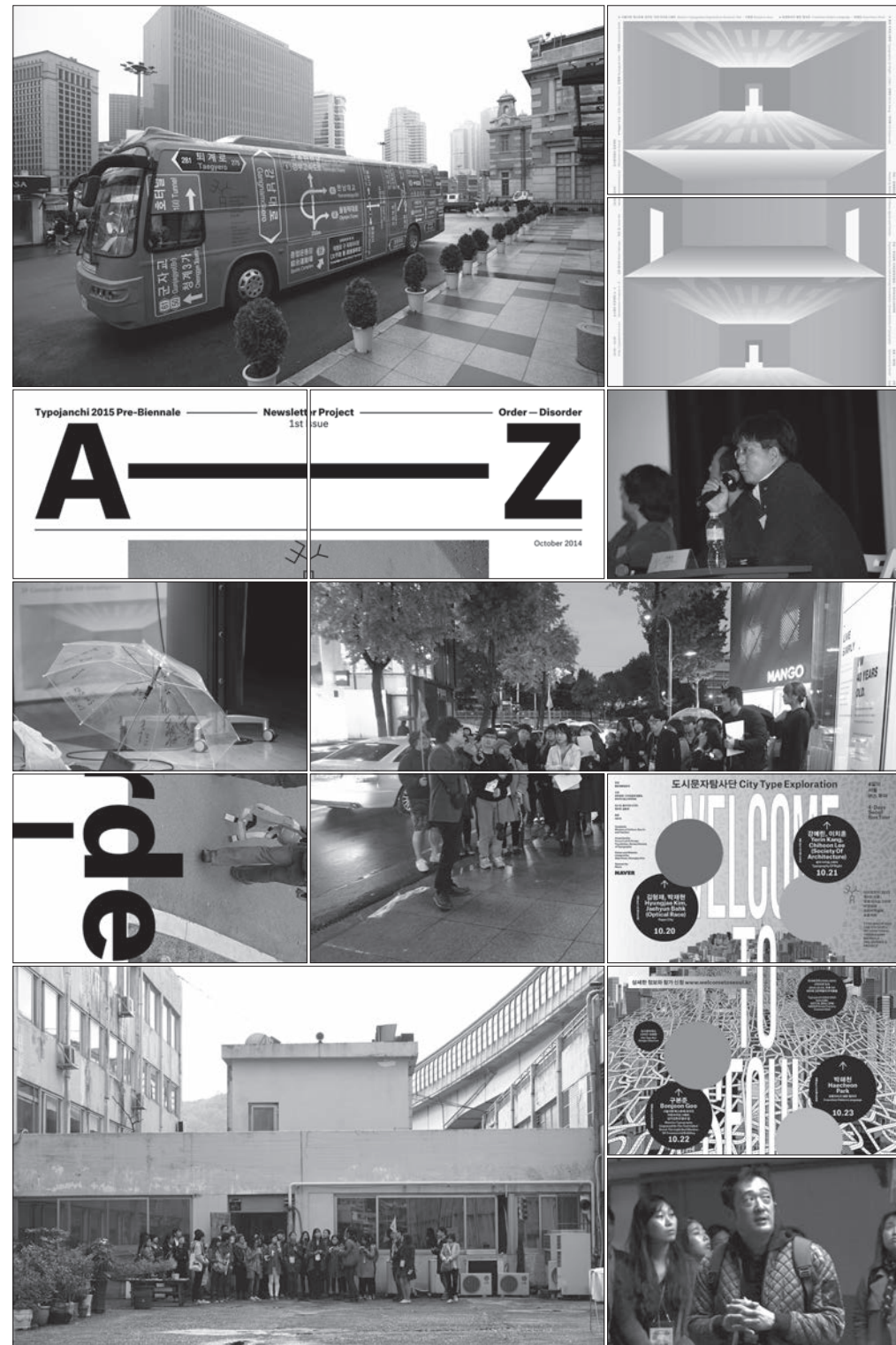
One reason why *Typojanchi 2015* decided on cities as its theme is that a city is where human lives become intertwined in the most complicated way. Another reason is that we would like to better understand how typography exists in a city. The parentheses in the logo of this particular *Typojanchi*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but most of all it implies the organizers’ wish that each participant will draw different aspects of a city from their own point of view and fill in the parentheses. It seems there is no better way to understand massive, diverse, and ever-changing cities than to observe aspects of cities as samples. When we look at different aspects of cities right now — assuming that the rapid flow of urban time can stop for a moment — cross-sections of cities are separated according to topography as well as economic and social functions. At the same time, they are also connected with one another showing different patterns. The most important pattern to distinguish the boundaries between them is nothing but text.

Typography, which uses these letters as an expressive material, has been established as an academic field while accumulating various rules and logic so that text can function in an optimized condition. On the other hand, designers have constantly immersed themselves in their own expressions in order to give typography a delicate nuance of language. Today, as communication via smartphones, messenger functions, or online comments is universalized, spoken words and writing are not as clearly separable. In this age, it is difficult to explain society and culture by distinguishing colloquial culture from literary culture. As such, examining cities through the medium of letters is not as easy as it used to be. However, many participating *Typojanchi* designers tried to bring cross-sections of cities to the exhibition venue using their own points of view and new methods.

Designer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different cities interpreted the concept of the theme, “C () T (),” o make a poster series and hold a special exhibition that delivers messages about six cities in the world by using only typography, colors, and forms. Moreover, designers and typographers living in various Asian cities ask questions towards the frame of countries and Asian universality, taking a bold initiative to collect landscapes and show the texture of sprawling cities. In addition, they assume an imaginary hotel to welcome strangers traveling to these cities and use the place as a medium of expression; suggest numerous bookstores where text is concentrated in a city for observation by networking them; or bring part of a street named Jongno, Seoul (which is dominated by urban media such as signs and banners) into the exhibition venue as it is. Designers trace the lifecycle of books that are ironically discarded in Paju Book City, where many publishing companies are located, and countless books are published, as well as substitute bricks (which become the basis of a city) for discarded books. Some designers conduct a project in which they choose the concept of “absence” as a way to observe a city, assume an imaginary city that lacks something, and observe the true nature of the city.

These scenes, which contain many different aspects of cities, have come together as if the city space itself were extended to the exhibition venue, Culture Station Seoul 284, rather than an exhibition expressing various typographic phenomena that occur in cities. Marking its 4th anniversary, *Typojanchi* also seems to extend its influence to a wider world beyond the world of text itself.

Min Byunggeol
Curator for the “A City Without ()”







WALLS

포스터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도시와 함께 탄생해 줄곧 그 안에서 함께 살아 숨 쉬어왔다. 이는 우리가 '포스터'라는 매체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한편 포스터는 여러 매체의 융합성식에 적응하며 키오스크나 스크린에 이식되는 등 그 소통 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겪은 것도 사실이다.

'() on the Walls' 프로젝트는 각기 다른 도시에서 살아가며 활동하는 작가들이 도시에 대해 갖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이 포스터라는 매체를 통해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동시대 활발하게 활동하며 포스터나 엽서, 잡지와 같은 도시 속 매체를 다뤘은 일곱 명의 그래픽 디자이너를 선정, 자신만의 해석이 담긴 《타이포잔치 2015》 공식 포스터를 의뢰했다. 이들은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대도시부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까지 다양한 출신지를 갖고 있으며, 또한 유럽, 아시아, 북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유럽의 도시 바젤, 바르샤바, 베니스를 대상으로 한 세 장의 포스터에 있는 요소들을 추출해 한 장의 포스터로 압축하거나 (루도비크 발란트), 베를린에서 흔히 발견되는 편의점 슈페트카우프를 활용해 우리 일상의 일부로서 도시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하고 (시기 에게르트손), 단어들을 이용해 견고한 도시의 구조물을 구축해내기도 한다. (키티라 딘 딕슨) 또한 도시에 과잉된 타이포그래피 요소에 대한 피곤함과 그 복잡성에 대한 매혹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엘모), 각종 기호와 상징, 읽을 수 없는 문자 등을 같은 공간으로 가져와 일종의 전시장으로 기능하는 포스터를 만들기도 한다. (애런 니에) 교통 표지판과 여행객을 위한 안내판, 축제 장식을 활용한 형광 실크스크린 포스터로 '잔치'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고 (니카르트 니션),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결된, 혹은 단절된 시선을 통해 도시가 품고 있을 저마다의 속내와 이야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감춘다. (이재민)

Participants
Aaron Nieh
Helmo
INNOIZ
Lee Jaemin
Keetra Dean Dixon
Ludovic Balland
Richard Niessen
Siggi Eggertsson

Curator
Lee Jaemin

Powered by INNOIZ

THE

이 일곱 개의 공식 연작 포스터는 전시 한 달 여 전부터 웹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타이포잔치 2015》를 홍보하며, 동시에 전시 작품으로서 비엔날레 기간 동안 문화역서울 284에서 전시된다. 또한 종이 위에 인쇄된 포스터들은 미디어 협력자들의 작업을 통해 또 다른 매체와 환경에서 재해석된다.

이재민

ON

Posters are a traditional means of visual communication. Born in cities and alongside its residents, this is precisely the reason we decided to concentrate on this particular medium. Over the years, posters have undergone a series of vicissitudes with respect to communication in the media. Even today, they are still very present in places such as kiosks and screens.

The "() on the Walls" project displays how artists who live and work in different cities can present their various thoughts and experiences about cities through the medium of the poster. I selected seven graphic designers who have been working with the media through such mediums as posters, postcards, and magazines for this exhibition. The aim was for these artists to design the official poster for *Typojanchi 2015* through their own interpretive lens. The designers hail from multiethnic cities to relatively small and unknown towns, working in regions as diverse as Europe, Asia, and North America.

참여 작가
루도비크 발란트
리카르트 니션
시기 에게르트손
애런 니에
엘모
이노이즈
이재민
키티라 딘 딕슨

큐레이터
이재민

협찬
이노이즈

The designers used a variety of methods to accomplish their goal. One, for example, extracted elements from three European city posters (Basel, Warsaw and Venice) to create an abstract poster (Ludovic Balland). Another used the Spätkauf, something commonly found in Berlin convenience stores, to express the city's typography as a part of our lives (Siggi Eggertsson). Then there was the designer (Keetra Dean Dixon) who established a substantial city structure using nothing more than words, and yet another who exhibited ambivalent feelings, the fatigue of a city's superfluous typography elements, and a fascination with complexity (Helmo). Aaron Nieh designed a poster after taking all kinds of signs, symbols, and unreadable characters to the same space in order to function as an exhibition space, while Richard Niessen's design highlighted the meaning of the word "festival" through fluorescent silkscreen posters using traffic signs and signals, signboards for travelers, and festival decorations. The last design concealed and later revealed every intention and story a city contains through connected/disconnected views of the people living there (Lee Jaemin).

One by one, a total of seven official posters were shown through the official Typojanchi website and on social media platforms before the exhibition. They were used to promote *Typojanchi 2015* prior to the exhibition and concurrently were exhibited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as artworks. The posters, which have been printed on paper, were reanalyzed through different media outlets and environments in collaboration with our media associates.

Lee Jaemin

1973년 출생한 루도비크 발란트는 바젤 디자인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했다. 2002년 레밍턴스 스튜디오를 공동 설립했으며, 2006년에는 타이포그래피와 편집 디자인 작업에 주력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루도비크 발란트 타이포그래피 캐비닛'을 설립했다. 2003년 스위스 연방 디자인 어워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수많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으며, 2009년 바르샤바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로잔 국립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취리히, 바젤, 베를린, 라이프치히,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타이포그래피 워크숍을 진행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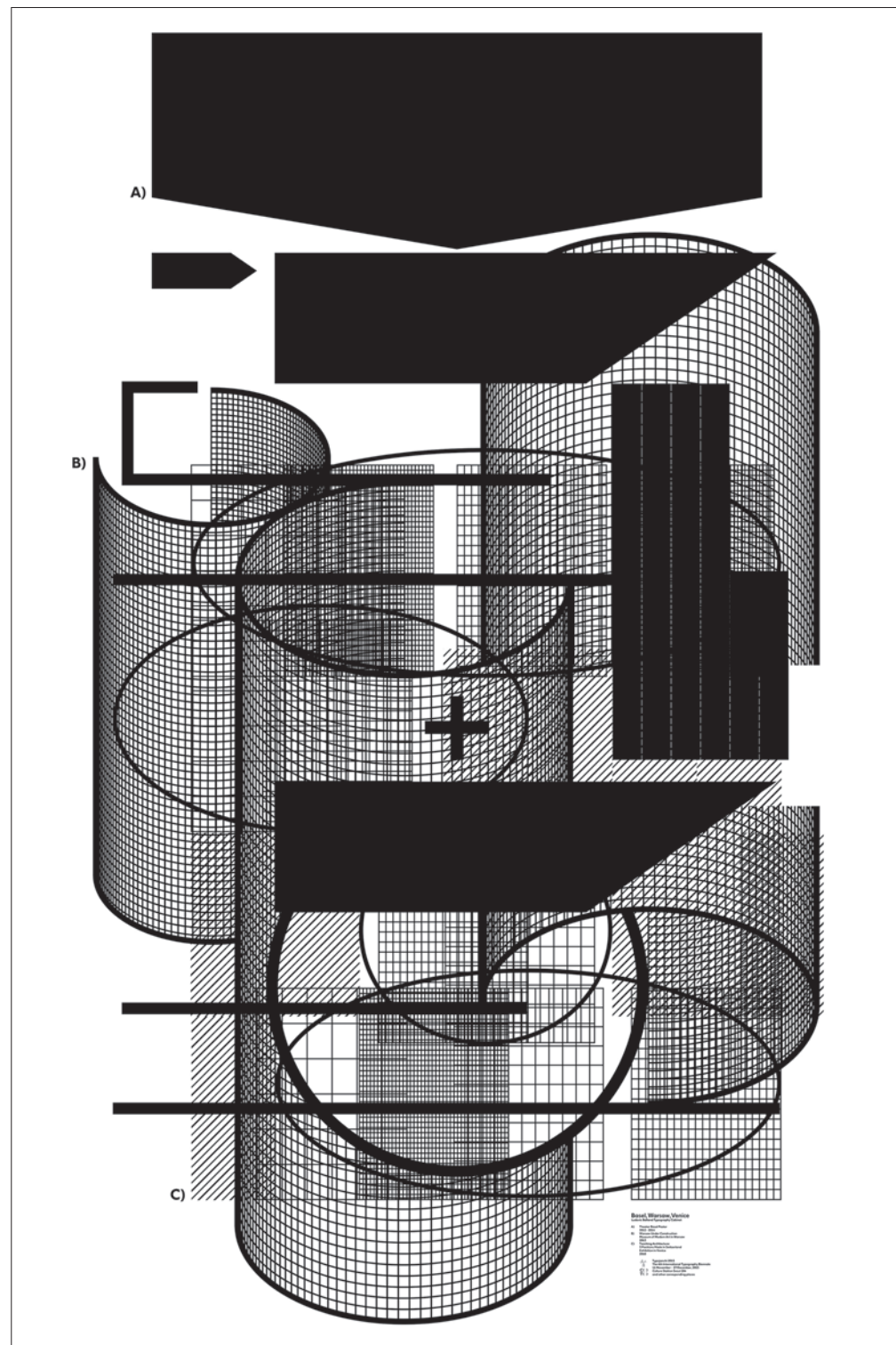
타이포잔치 2015:
바젤, 바르샤바, 베니스
실크스크린,
160×106.7cm, 2015

Ludovic Balland

Switzerland

Born in 1973, Ludovic Balland studied graphic design at th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in Basel. In 2002 he co-founded the studio, The Remingtons Studio and in 2006 Balland founded his own studio, Ludovic Balland Typography Cabinet that focuses on book design and more generally in editorial design and new visual identities for international brands and cultural institutions. He teaches at th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in Lausanne (ECAL) and has held several workshops across Europe and the US, including: Swiss Institute,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Zuercher Hochschule der Kuenste, Universitaet der Kuenste, etc. In 2009, He held solo exhibitions at Museum of Modern Art, Warsaw.

Typojanchi 2015:
Basel, Warsaw, Venice
Silkscreen,
160×106.7cm, 2015



아이슬란드 북쪽의 작은 해안 마을 아쿠레이리에서 태어난 시기 에게르트손은 열네 살 때 지방의 한 디자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래픽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에 위치한 아이슬란드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 입학한 첫째 타이포그래퍼 아틀리 힐마르손을 만난 이래 그는 타이포그래피이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이미지 제작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해왔다. 졸업 후 2005년 뉴욕으로 건너가 카를손빌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으며, 뒤이어 베를린-바이센제 예술학교에서 공부했다. 2007년 런던으로 이주한 그는 디자인 스튜디오 빅 액터스에서 일하며 《데이즈드 앤드 컴퓨즈드》, 《뉴욕 타임스》, 《아키텍》 같은 잡지에 기고하는 한편, H&M, 스투시를 비롯해 다양한 뮤직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현재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디자인 접근법은 숨겨진 깊이와 명확한 목표를 지닌 결과물로 귀결된다.

시기 에게르트손

아이슬란드

타이포잔치 2015: 스페터

피그먼트 프린트,
160×106.7cm, 2015



Siggi Eggertsson was born in Akureyri, a small town on the north coast of Iceland. He first showed an interest in Graphic Design at the age of 14 when he became involved in local design programs creating posters for jazz concerts and art exhibitions. When he turned 18, his vision started to expand beyond his remote home, so he applied to the Iceland Academy of Arts in Reykjavik to study graphic design. During his first year he met the typographer Atli Hilmarsson and they began working together on design briefs. Here Siggi Eggertsson developed not only as a typographer and designer but also, increasingly, as an Illustrator and image maker in his own right. In 2005 he moved to New York to work at the Karlssonwilker Design Studio followed by a move to Berlin to study in the Kunsthochschule Berlin-Weissensee. Early in 2007 Siggi moved to London to become part of the Big Active family and contribute to publications like *Dazed and Confused*, *The New York Times* and *Arkitip* plus commercial work with H&M, Stussy and various music projects. In 2008 Siggi moved back to Berlin, where he still lives and works. Siggi has a unique and complete visual identity; his approach to work takes in his design background, which results in work of hidden depth and sense of purpose.

Siggi Eggertsson

Iceland

Typojanchi 2015: Spä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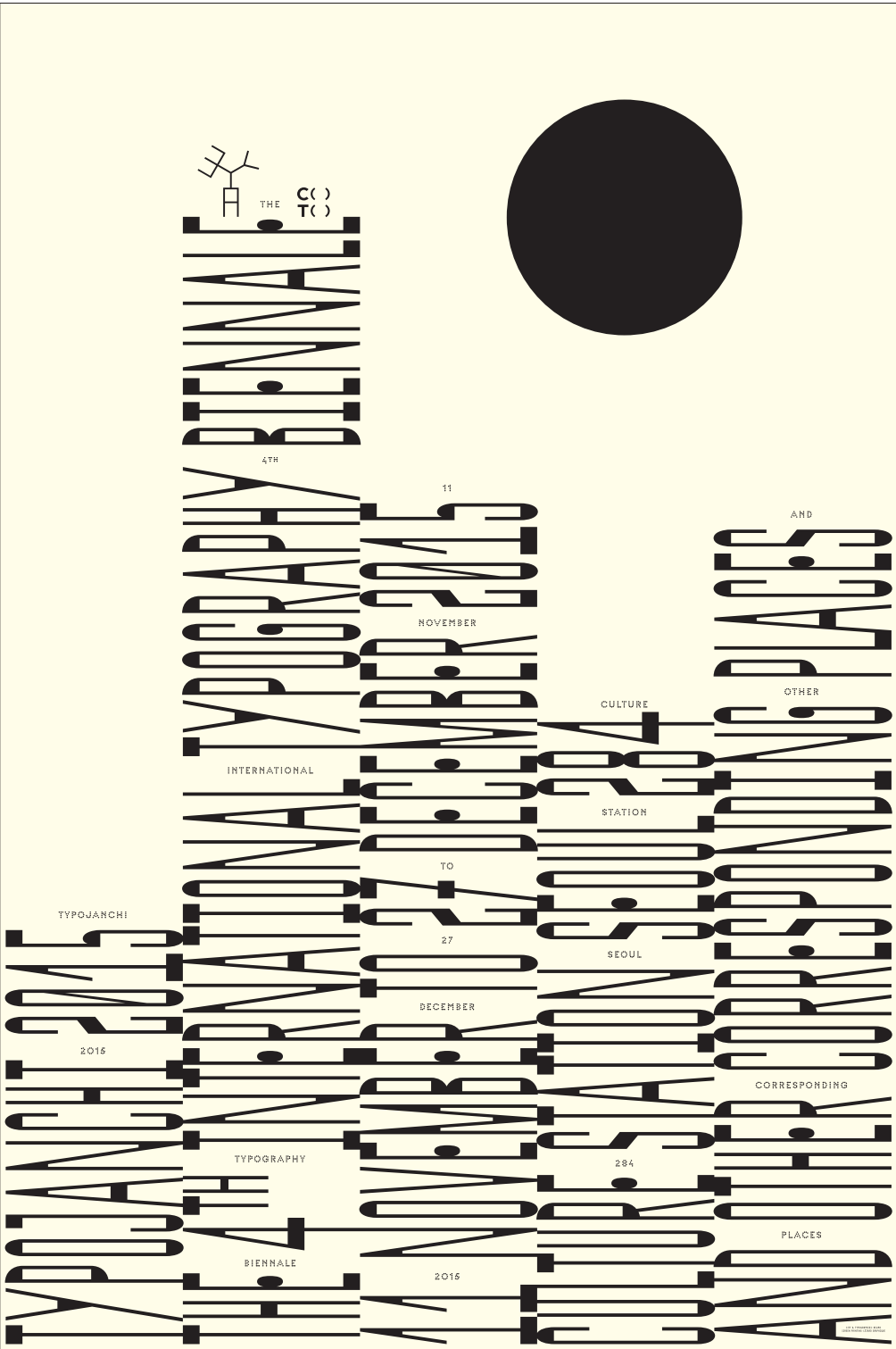
Pigment print,
160×106.7cm, 2015

엘모

프랑스

엘모는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
토마 쿠데르와 클레망 보셰가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둘은 1997년 프랑스
동부 도시 브장송에서 공부하며 처음 만났다.
졸업 후 클레망은 파리의 에콜 에스티엔느에서
2년간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하고 텔레비전
그래픽 스튜디오 기드온에서 일했으며,
토마는 2년간 디자인 스튜디오에 다니다
독립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2003년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한
이들은 2007년부터 엘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주로 문화예술 기관이나 축제를 위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타이포잔치 2015
실크스크린, 2점,
각 160 x 106.7cm, 2015



Helmo

France

Thomas & Clement met in 1997
during their studies in Besancon, France.
Both took their own way in 1999.
In Paris, Clement studied typography
for 2 years (DSAA typographie in
Ecole Estienne), then worked with TV
graphic studio Gedeon. Thomas first
worked with studios for 2 years
(Malte Martin, H5) before becoming
a freelance graphic designer. In 2003,
with T. Dimetto, they founded "La
Bonne Merveille," graphic design studio.
The group split in 2007, and Thomas &
Clement continued their collaboration
as a duo under the name "Helmo."
They work in various fields of graphic
design, mainly for cultural institutions
or festivals in France. Their body of
work plays with concepts like
variation, mutation, randomness, and
combination... Helmo studio is
based in Montreuil, near Paris, France.
Thomas & Clement are AGI Members
since 2014.

Typojanchi 2015
Silkscreen, 2 pieces,
each 160 x 106.7cm, 2015

디자이너이자 작가 키트라 딘 딕슨은 2014년 “나는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다”는 말을 입증하기 위해 뉴욕에서 알래스카의 외진 곳으로 이주해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실험하고 있다. 그녀의 작업은 레터링부터 조각, 제품 디자인을 아우르며, 더욱 독립적인 작업을 위해 실험적 디자인 디렉터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녀의 혼종적인 디자인은 새로 출현하는 테크놀로지와 제작 프로세스 등 불확실한 영역으로 그녀를 이끈다. 주요 클라이언트로 《뉴욕타임스》, 나이키, 폴크스바겐, 코치 등이 있으며 US 대통령상 등의 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작품은 워커아트센터, 스미소니언 쿠퍼휴잇 뮤지엄, 뉴욕 미술디자인 뮤지엄 등에 전시되었으며, SFMOMA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키트라 딘 딕슨

미국

타이포잔치 2015
피그먼트 프린트,
160 × 106.7 cm, 2015

Keetra Dean Dixon is a designer and artist who relocated from NYC to rural Alaska in 2014 where she tests the claim “I can work from anywhere” by building a new studio practice with a remote home base. Dixon traded in her team leading role as an Experiential Design Director for more independent practices, including lettering, sculpture, and product design. Her hybrid design background continues to lead her work towards speculative terrain, leveraging emergent technologies and process focused making. Dixon has been recognized on several fronts including a U.S. presidential award, a place in the permanent design collection at the SFMOMA, and the honorable ranking of ADC Young Gun. Her clients have included The New York Times, Nike, VW, and Coach. She’s shown at the Walker Art Center, the Smithsonian’s Cooper-Hewitt, and the Museum of Arts and Design in NYC and can often be found waxing poetic in front of student bodies and fellow makers.

Keetra Dean Dixon

USA

Typojanchi 2015
Pigment print,
160 × 106.7 cm, 2015

Typojanchi
2015:

The 4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2015.
11. 11 - 12. 27

Culture
Station
Seoul
284
and other
corresponding
places



C ()
T ()

에런 니에(aka 용첸 니에)는 타이완 국립
기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타이완 국립
예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응용 미디어아트를
수학했다. 미묘한 세부를 다루면서도
매우 도발적이고 야심찬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의 작업은 출판과 공연 예술,
만다린 팝 뮤직계에 참신한 상상력을
제공하며 새로운 풍경을 형성하고 있다.
2012년부터 AGI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에런 니에

대만

타이포잔치 2015: 불가역
피그먼트 프린트,
160×106.7cm, 2015

Aaron Nieh (aka Yung-Chen Nieh)
completed his BA degree in design
from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Technology; he was once enrolled
in the Graduate School of Applied
Media Arts at NTUA. Aaron deals with
details subtly, yet his visual
presentation is highly provocative
and ambitious. He has brought
novel imagination and shaped a new
landscape in the Mandarin Pop Music
industry, as well as in the world
of publishing and performing arts.
He has been an AGI member since
2012.

Aaron Nieh

Taiwan

**Typojanchi 2015:
Lost in Translation**
Pigment print,
160×106.7cm, 2015



1996년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를 졸업한 리카르트 니선은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그가 '타이포그래피 쌓기'라 명명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사인과 심벌, 장식물이 긴밀하게 혼합된 이 수공예적 작업은 주로 비선형적 구조물 형태를 취하는데, 이러한 혼합적인 그래픽디자인 접근법은 그의 프로젝트에 일관되고 배타적인 어법을 부여한다. 제니퍼 티, 아트 더용, 코브라 미술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등과 작업하는 한편, <잭>, <1:1:1> 등과 같은 개인 작업을 펼치며 다른 디자이너 및 작가들과 실험적인 전시와 협업을 병행하고 있다. 개인전으로 《TM 시티》(2007), 《타이포그래피 쌓기의 밀폐된 개요》(2014)를 열었으며 2007년부터 에스테르 더프리스와 함께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리카르트 니선

네덜란드

타이포잔치 2015

실크스크린,
160 × 106.7 cm, 2015

Richard Niessen (Edam-Volendam, 1972) graduated from the Gerrit Rietveld Academy in 1996. Since then, he has been working in Amsterdam on a body of work that he calls "Typographic Masonry." It is the almost hermetic craft of forging amalgams of signs, symbols & ornaments in mostly nonlinear structures. This syncretic approach to graphic design, with a predilection for printwork, creates a coherent formal language exclusively to the project at hand. Richard works for various clients including artists like Jennifer Tee and Ad de Jong, exhibition spaces as Cobra Museum and the Stedelijk Museum Amsterdam and organizations like the Fonds BKVB and Res Artis. In addition, the self-initiated projects (such as "JACK", "1:1:1", "Based on Bas Oudt") lead to experiments with exhibition and presentation forms and collaborations with other designers and artists. He created two traveling overview exhibitions of his work: *TM City* (2007) and *A Hermetic Compendium of Typographic Masonry* (2014). His most recent project is "The Palace of Typographic Masonry": an ongoing series of workshops, debates and exhibitions, organized as an imagined game-like architecture, structuring his method of graphic design and archiving and researching its sources. He shares a studio space with Esther de Vries since 2007 and is a member of AGI since 2014.

Richard Niessen

Netherlands

Typojanchi 2015

Silkscreen,
160 × 106.7 cm, 2015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스튜디오 fnt를 설립했다. 《벨트포르마트 15》, 《코리아 나우! 한국의 공예, 디자인, 패션 그리고 그래픽디자인》, 《그래픽 심포니아》, 《타이포잔치 2011》 등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극단, 서울레코드페어 조직위원회 등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와 공연을 위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는 정림문화재단과 함께 건축, 문화, 예술 사이에서 교육, 포럼, 전시, 리서치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도시, 주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이재민

한국

타이포잔치 2015:
블루바드 솔리투드
피그먼트 프린트,
160 × 106.7cm, 2015

Graphic Designer. Lee Jaemin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ounded "studio fnt" in 2006. He took part in several exhibitions such as *Weltformat 15: Plakatfestival Luzern*, *Korea Now! Craft, Design, Fashion and Graphic Design in Korea*, *Graphic Symphonia* and *Typojanchi 2011*, and worked with clients lik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and Seoul Records & CD Fair Organizing Committee on many cultural events and concerts. Since 2011, he has actively worked with Junglim Foundation on projects about architecture, culture, arts and education, forum, exhibitions and research in order to explore meaningful exchanges with the public about subjects like the social role of architecture and urban living. He also teaches graphic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Seoul.

Lee Jaemin

Korea

Typojanchi 2015:
Boulevard Solitude
Pigment print,
160 × 106.7cm, 2015





이노이즈는 UX 전문 그룹으로 미디어를 통한 경험을 디자인한다. 2003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UX 통합 가이드라인을 디자인하는 등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 선두 기업들과 작업해왔으며, 현재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새로운 시각의 경험을 발굴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작업하고 있다.

이노이즈

한국

〈포스터 — 포스팅〉은 《타이포잔치 2015》의 포스터 프로젝트 작업으로 그래픽 디자이너의 포스터 작품을 미디어로 재해석한 프로젝트이다. 포스터라는 매체가 눈에 띄기 좋은 길에 붙여지듯 하나의 방향에서 읽혀지기 쉬운 완성된 '것'이라면, 포스팅은 글이나 사진, 영상 등에 게시하듯 여러 각도에서 오려지고 붙여지며 전달되는 '짓'이라는 공감각적 경험을 디자인한다.

포스터 — 포스팅

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2015



INNOIZ is a UX specialist group that designs creative experiences through media. Starting 2003, INNOIZ has been working with leading companies of mobile services centered around smartphon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and SK Telecom, on mobile interface design and UX integration design guidelines. Currently, they are working with companies like Coway and Hyundai to discover a new visual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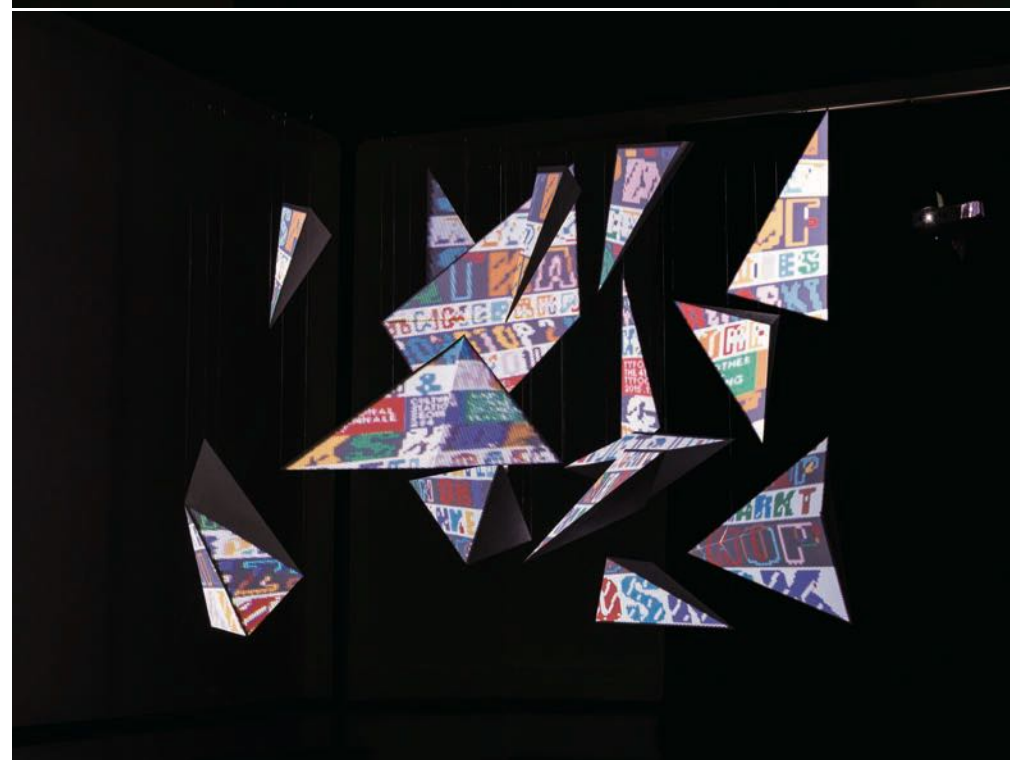
INNOIZ

Korea

Poster — Posting

Media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2015

Poster — Posting is a reinterpretation of *Typojanchi 2015* poster project “() on the Walls,” which illustrates posters designed by graphic designers through media. If “Poster” as a medium is a “thing” that is made to be read on a wall, “Posting” is an “action” that just like exhibiting pieces of text or images and videos online, transfers sensory experience by cutting and pasting from various angles.



HIBITION

참여 작가
국동완
김두섭
다이니폰 타입 조합
대니얼 이톡
레슬리 다비드
로만 빌헬름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브라운폭스
산드라 카세나르 + 바르트 더바에츠, 토마스 라르
스튜디오 스파스
알투
엘로디 부아예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 + 고든 영
왕초위안
우판
이지성
조규형
조현열
최병일
캐서린 그리피스
코타 이구치 (티모테/세카이)
하라다 유마, 이다 쇼헤이
하준수
헤잔느 달 벨루
헬로우미 (틸 비데크)

EX-

MAIN

전시

부

Participants
Brownfox
Catherine Griffiths
Cho Kyuhyung
Choi Byoungil
Dainippon Type Organization
Daniel Eatock
Elodie Boyer
Ha Joonsoo
HelloMe (Till Wiedeck)
Joe Hyoun Youl
Kim Doosup
Kook Dongwan
Kota Iguchi (TYMOTE/CEKAI)
Leslie David
R2
Rejane Dal Bello
Research and Development
Roman Wilhelm
Sandra Kassenaar + Bart de Baets, with Tomas Laar
Studio Spass
Wang Ziyuan
Why Not Associates + Gordon Young
Wu Fan
Yi Jisung
Yuma Harada, Shohei Iida

50 1987년 영국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한 앤디 엘트먼, 데이비드 엘리스, 하워드 그린할프가 결성한 디자인 그룹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는 25년 넘게 전시, 우표, 광고, 출판, 방송, 기업 아이덴티티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1991년에는 에드워드 부스클리번, 릭 포이너와 함께 당대의 타이포그래피 흐름을 집대성한 《타이포그래피 나무: 다음 물결》을 편집 및 디자인했다. 1998년 10년간의 작업을 모은 첫 번째 모노그래피를 부스클리번에서 출간했으며 2004년 램스 앤드 허드슨에서 두 번째 모노그래피가 나왔다. 끊임없이 그래픽디자이너의 경계를 탐색하는 그들의 작업은 최근 작가 고든 영과 협력하며 공공 예술의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2013년 6월, 도쿄의 GGG 갤러리에서 회고전이 열렸다.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 + 고든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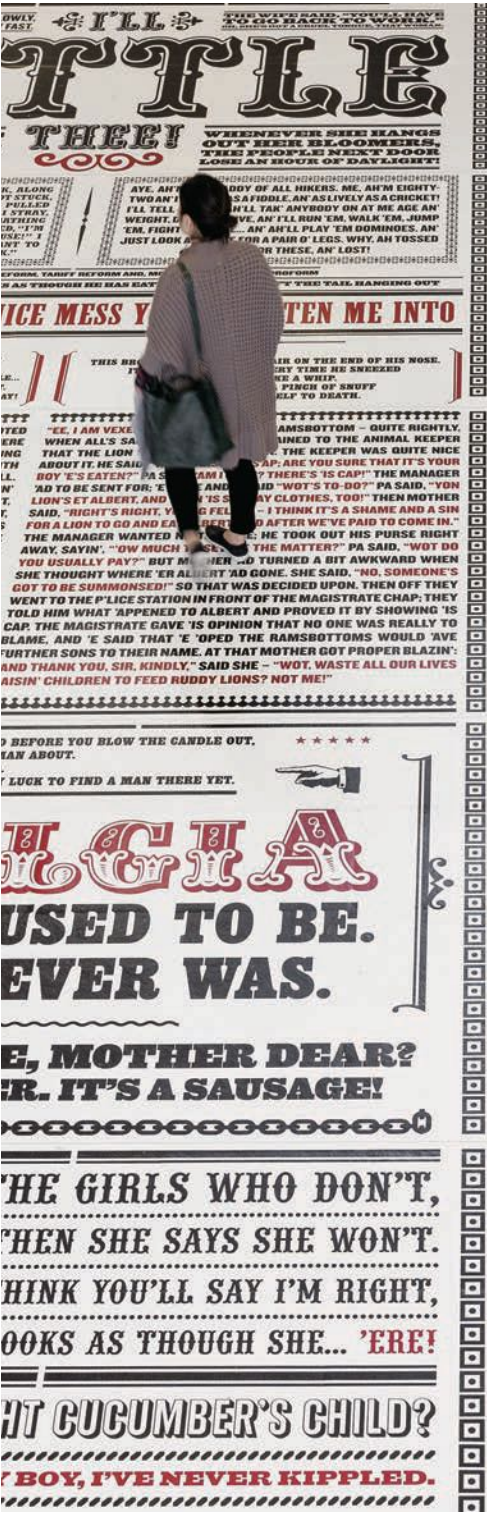
영국

고든 영은 공공 예술 영역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작업으로 유명하다. 주요 작품으로 블랙풀에 세워진 20미터가 넘는 조각품이자 등반 암벽, 크롤리 도서관에 있는 〈타이포그래피 나무〉, 브리스톨 학교의 〈소망의 벽〉, 칼라일에 있는 〈저주하는 돌〉 등이 있다.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와 함께 작업한 〈코미디 카펫〉은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Why Not Associates + Gordon Young

UK

Gordon Young is one of the UK's leading artists in the field of public art. With over 20 years experience he has created projects as diverse as a series of 20m sculptural/climbing walls in Blackpool, a forest of typographic trees in Crawley Library, a *Wall of Wishes* in a Bristol school, and a *Cursing Stone* in Carlisle. Gordon's most ambitious project to date is the *Comedy Carpet*, a 2,200m² granite typographical pavement made up of jokes, songs and catch-phrases of comedians and writers which will is permanently set into the promenade in front of Blackpool Tower, England.



<코미디 카펫>은 영국인이 사랑하는 1000명 이상의 코미디언과 그들의 유머, 농담, 노래와 어록에 시각적 형태를 제공한 작업으로 영국 코미디의 역사에 기념비적 존재로 남아 있다. 영국의 블랙폴 타워 앞에 위치한 이 작업은 서울역 광장의 절반 정도인 2200제곱미터 넓이의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된 16만 개 이상의 화강암 문자 작업을 통해 공공 예술과 타이포그래피의 한계를 시험한다. 작가 고든 영과 와이 닷 어소시에이츠가 협업한 이 거대한 작업은 영국 전역에 웃음을 안겨준 이들에게 바치는 오마주이자, 영국 오락 문화의 본고장 블랙폴의 문화 자재를 기념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코미디 카펫 블랙폴>은 문화역서를 284와 블랙폴 사이의 흥미로운 접점을 찾아내 원래의 코미디 카펫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적합한 부분을 엄선한 결과물이다. 특히 이 작품에는 찰스 펜로스의 <웃는 경찰관>(1922)의 한국어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서영춘의 <서울 구경>(1970)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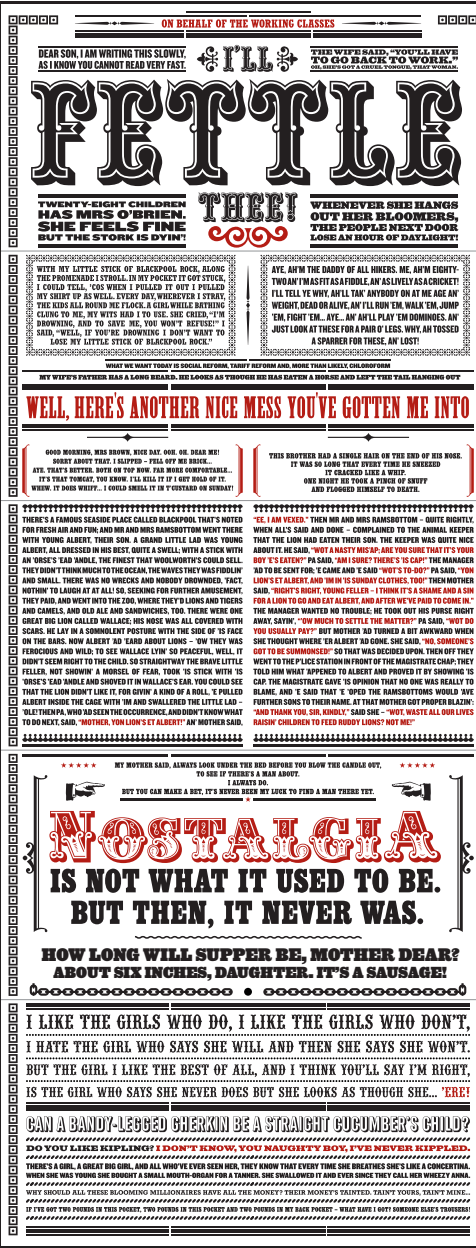
코미디 카펫 블랙폴
시트지, 1000×800cm, 2015

한국어 디자인 도움: 이다은

The Comedy Carpet is a monument to the history of British comedy. It gives visual form to jokes, songs and catchphrases. Sited in front of Blackpool Tower, the 2,200m² (which is approximately half the size of the Seoul Station square) work of art contains over 160,000 granite letters embedded into concrete, pushing the boundaries of public art and typography to their limits. Created by artist Gordon Young, and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Why Not Associates, this celebration of comedy in an extraordinary scale is an homage to those who have made the British nation laugh, it's also a stage for popular entertainment that celebrates entertainment itself. In the process of presenting such work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more research had to be done so as to build a stronger connection between the work and the venue. With the findings from the study, carefully chosen designs from the original carpet were amended to appropriate the work to a new city, Seoul. Notably, this work illustrates a Korean version of the *Laughing Policeman* (Charles Penrose 1922), by a Korean comedian Seo Young Choon (1970).

The Comedy Carpet Blackpool
Coloured vinyl, 1000×800cm, 2015

Design Assistant (Korean Section):
Lee Daeun





캐서린 그리피스는 오클랜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자 타이포그래퍼다. 종종 파리를 오가는 그녀의 작업은 타이포그래피 설치, 커뮤니케이션 및 공간 디자인, 자가 출판, 디자인 저술을 아우른다. 작가와 건축가, 과학자,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일하며 강의하고, 'typ gr ph c' 시리즈와 같은 비정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주요 작업으로 대형 콘크리트 조각 연작인 <웰링턴 작가 산책로>, 현재도 진행 중인 '모음(母音)' 연작, 뉴질랜드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 타이포그래피 심포지엄 <TypeSHED11>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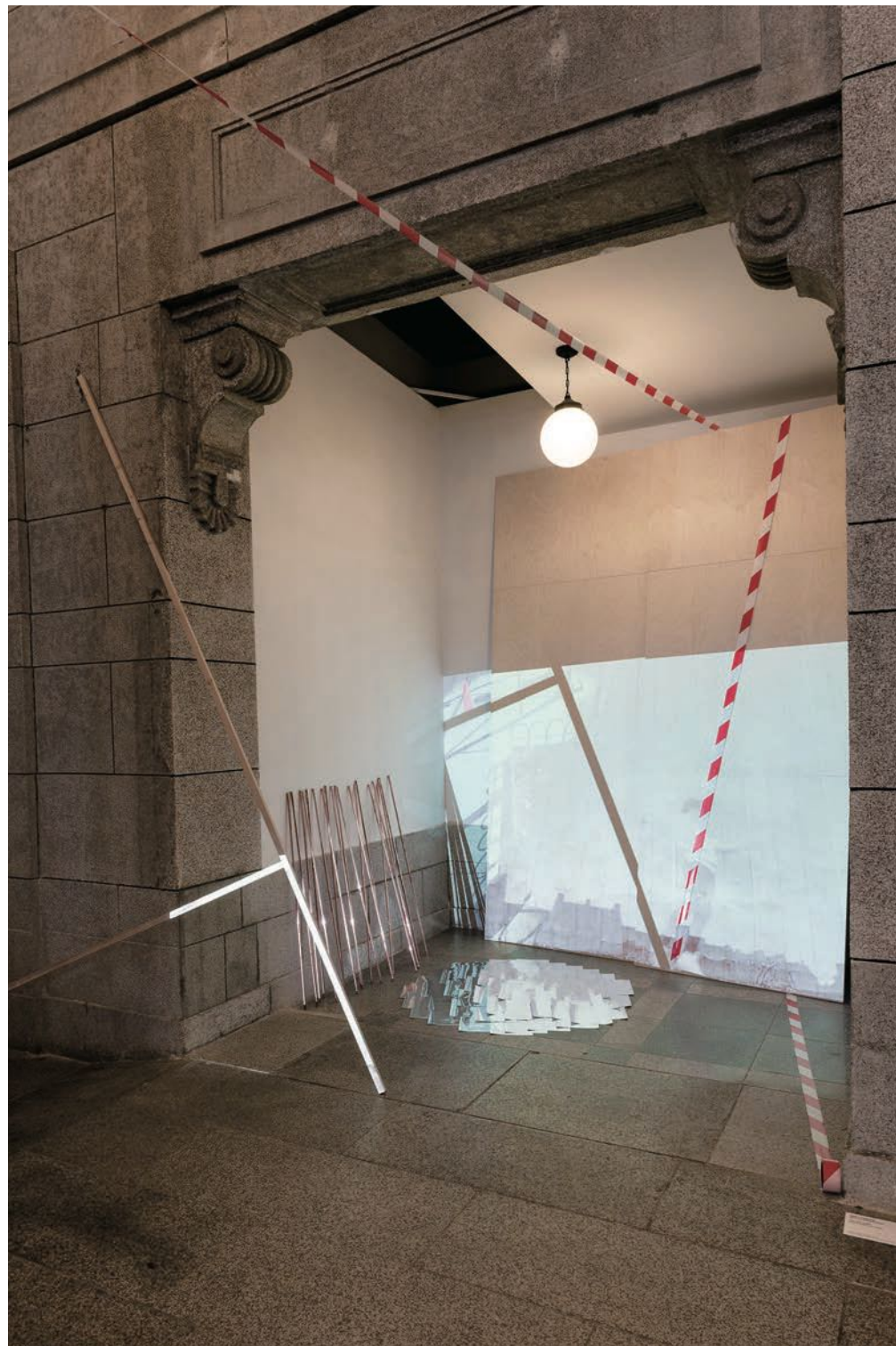
캐서린 그리피스

뉴질랜드

Catherine Griffiths lives and works in Auckland, and sometimes Paris. She is an independent designer and typographer. Her work is a mix of typographic installations in public and private spaces, visual communication design, self-publishing, and occasional writing on design. Catherine works with artists, architects, designers, scientists, engineers, assists students, gives talk and hosts occasional workshops, including the compact "typ gr ph c" series. Notable projects include the *Wellington Writers Walk*, a series of large-scale concrete text sculptures, her ongoing "Vowel" series (*AEIOU*, *Sound Tracks*, *Fifth Movement*), TypeSHED11 — New Zealand's first ever international typography symposium, and the design (and build) of a small house and two studios. Recent work includes a mirror-faced, brass-backed "O" awaiting suspension, the design of a small park, and twice being short-listed on teams for the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New Zealand 2014, and Australia for 2016). She contributed the letter "U" to the Fitchburg Alphabet Project, with 25 other international typographers. In November, *Body of Work*, a new edition from Vapour Momena Books, the pocket-sized publishing arm of Catherine and photographer Bruce Connew, will be released.

Catherine Griffiths

Newzealand





〈아에이오우 — 구성된/투사된〉은 물질적 및 맥락적 조건, 직선이나 곡선, 원 등으로 구현된 모음들의 추상적 구성, 그리고 이들이 끌어낸 발화된 소리를 탐색하는 캐서린 그리피스의 '모음(母音)' 연작 중 네 번째 작품으로, 이번 타이포잔치를 위해 세심히 계획된 장소특정적 작품이다. 각 모음을 상징하는 목재와 동파이프, 영상, 반사 종이, 그리고 빛줄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수집된 이미지와 글자, 전화번호, 몸동작, 보도 구조물,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사이의 중첩된 레이어를 만들어낸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또한 투사된 영상 사이를 지나가며 예기치 않은, 그러나 의도된 개입을 통해 작품의 일부가 된다.

아에이오우 — 구성된/투사된

목재(A), 동파이프(E), 영상(I, 7분 55초, 수집한 이미지 및 영상: 캐서린, 춤: 올리버 코뉴, 작곡: 알프레도 이바라, 목소리: 친구와 가족 등), 반사 종이(O), 빛줄(U), 290 × 280 × 550 cm, 2015



AEIOU — Constructed/Projected is the fourth formal work in the "Vowel" series. The installation continues to explore material and contextual terms, the abstract construction of the vowels (line, curve, circle), and the speech sounds that these elicit. *Constructed/Projected* is site specific, made in response to C () T () and the biennale theme of "city and typography." Layers of interaction — extrinsic > extemporaneous < intrinsic — between body movement, political manoeuvre overhead, telephone numbers collected, signs and letterforms identified, pavement infrastructure underfoot, and the recording of speech and sound are presented in a short film, with remaining objects placed in situ. An additional layer of viewer/s intervention (un-tested but expected) may cause varying levels of confusion, perhaps a loss of clarity, or clarity, as the viewer moves through the constructed and the projected, inadvertently/purposefully inserting themselves into the work.

AEIOU — Constructed/Projected

Timber (A), copper pipe (E), film (I, 7 minutes 55 seconds, collected image and footage: Catherine, dancer: Oliver Connew, composer: Alfredo Ibarra, voices: strangers, friends, family), reflective paper (O) and rope (U), 290 × 280 × 550 cm, 201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부터 여러 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디자인을 가르쳐왔으며,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부 겸임 교수 및 그래픽디자인 회사 논디자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1, 2회 타이포잔치를 비롯해 수많은 국내외 전시에 참여해왔으며 1994년 결성된 그래픽 디자이너 모임 '진달래' 활동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함께 추구하는 조형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성과 감성, 디지털과 아날로그, 디자인과 미술이 만나는 지점에 관심을 둔다.

김두섭

한국

김두섭은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 이념이 외견상 가장 잘 반영됐고, 그 수명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모듈로 구축하고, 그 외피를 따라 글자를 나열한다. 아무리 역사성을 거부하는 무도한 신흥 예술 종교의 세례를 받은 작가라 할지라도, 글자로 인해 표상되는 서사를 막아낼 방도는 없다. 그래서 작가는 늘 글자 사용에 관한 당위성을 자문하거나, 혹은 관람자의 상상을 의식해야 한다. 김두섭은 글자 획의 다양한 굵기를 마치 동아시아 화가들이 원근을 표현할 때 쓰는 농담(濃淡)으로 연출한다. 타입페이스에서 굵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정량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먹의 농담과 상통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김두섭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대담한 미장센으로 그 당위를 가로막아 버린다. 수사가 서사의 앞길을 버려장머리 없이 막아선 형국이다. (글: 김재훈)

아파트입

혼합 매체, 332.5×695.5cm, 2015

Kim Doosup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s BFA and MFA program with a focus o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Since 1995, he has been teaching typography and graphic design in many schools, he is an Affiliated Professor of Hongik University and a Director of nooNdesign. He has participated in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including the first and second *Typojanchi* and as a member of the graphic designer club, Jindallae, which was founded in 1994. He is interested in the meeting point between reason and emotion, digital and analog, and design and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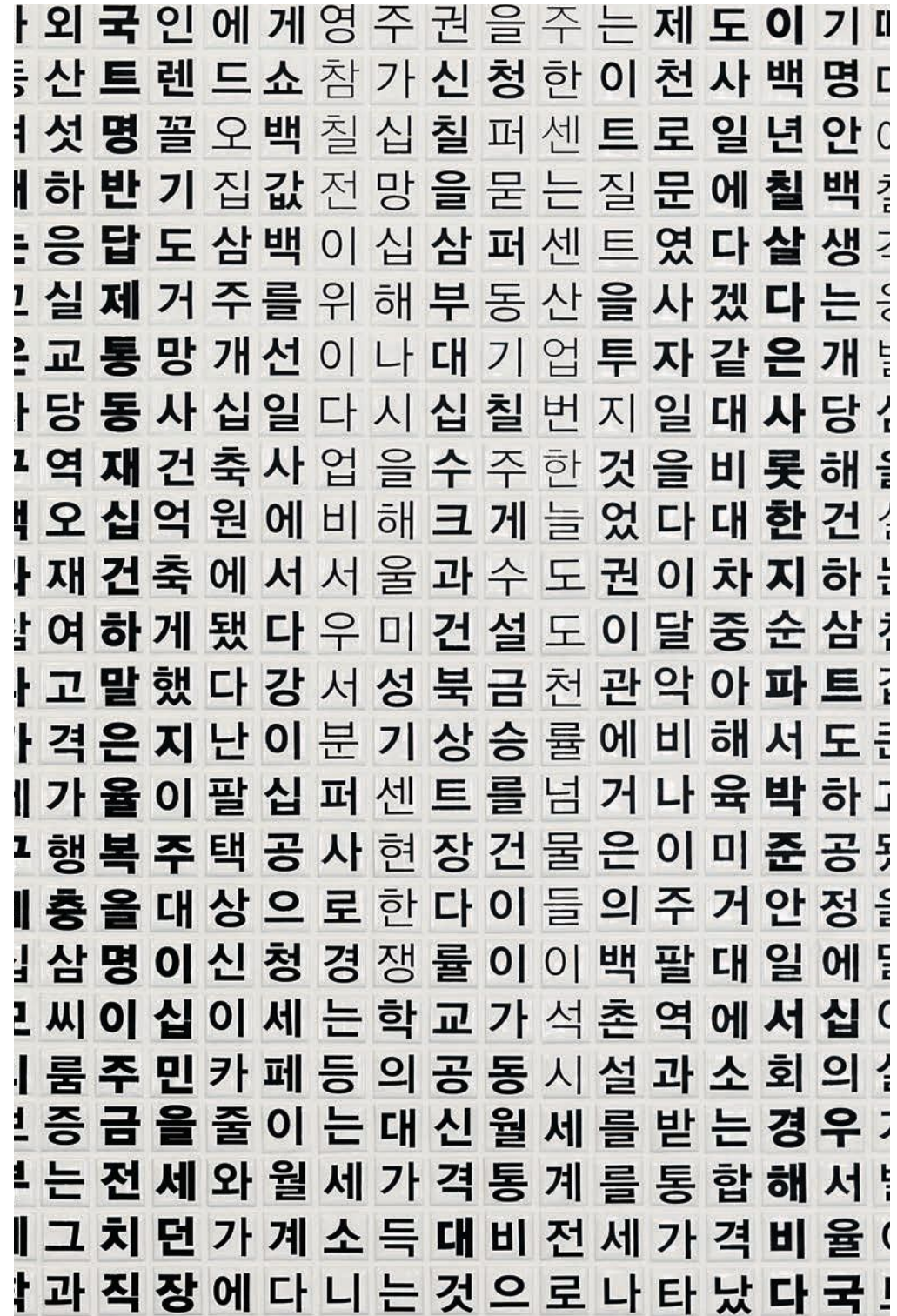
Kim Doosup

Korea

Kim Doosup establishes the Korean apartment complex, which is most well applied to the internationalist architecture style ideology, as a module that enumerates the letters following the surface. Even though how brutal artist, there is no way to refuse the narration of the letters. Therefore, an artist should ask him or herself on the letters using justifiability and have to be conscious of the audience's imagination. Kim Doosup expresses the letter stroke's various thicknesses as the light and shade of East Asian painters' distant expression. In terms of a typeface, the thickness is a concept which is always dealt with quantitatively, therefore, it is basically not the same concept of the ink stick's light and shade. However, his work boldly breaks such rules instinctively like *mise en scène*. It seems like a rhetoric that boldly prevents the narrative's way. (Text by Kim Jayhoon)

Apartype

Mixed media, 332.5×695.5cm, 2015





사다 고있 한면 트심는 자는 구영 참찰 전이 위이다 업비서우서분 퍼사로경는 등는 세소니고으 할들 해라 육이 암변
 치하이 위고 르센 팔치란 하가 게소 백값 백을 선일사에서 다강이 심공으 청세 페이월 게다세 중피가 리트 싹다 등자
 대소성기 따 퍼백미치만 하가 생육에 렌골기 도거 망사 친원 에했 단판대 심이 민을 세한가 에세 행회 문걸아 총박 암입
 나최관려로 일사 할필지 구국트 명발답 제통 동재입 축하 했지 유주대 심이 카줄와 가에세 팔진을 전결아 총박 암입
 이기연경료 일사 할필지 구국트 명발답 제통 동재입 축하 했지 유주대 심이 카줄와 가에세 팔진을 전결아 총박 암입
 것분 득과 리울자 팔해영가 까 백외산 첫하 응실 교당역 오재여 고격가 행충 삼씨를 증는 그과이 업위 있돼 짜역가 구
 간로 소것우로 계백을 에도 말삼다 동여 해는 고은 사구 백과 참다 가세 구계 심모 디보 부에 참은 사의 돼게 원구 기평
 어의 질은으 통삼도 역제 원는 이부 중 다성 구삼이 발로 있매 전은 구터세 토배 대령 구락 사있역 발
 들 만실지 구의이 균셋근나 해가 정다 명이이 센나 동사이 재공수의 을삼등이 백가 전
 세심했늘 임을인국 천시나 단센의 결덕사 육택을이 됐두아 지격이 부있서
 증삼중를 선금내 전인다으 다퍼살 한난을 심평서은 곳복모 돌이가 심흔고균
 은약 급비원 증국은 에서 있켰심산하안 이고 일설흠 회립로 다세 심신티늘 평
 는이 소구보 청이 문면면 시삼이우 는가 심우해구 개연으니 전로 생생에를 경전이 특
 준터표의에가 월전비세각 심증공르



영화와 비디오 작업을 주로 선보여온 최병일은 2001년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관한 내용을 다룬 석사 논문 작업 이후 설치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각적인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비디오, 프로그래밍, 기계, 거울 등을 주된 매체로 삼아 작업한다. 2004년부터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병일

한국

최병일이 만든 기계는 정밀한 움직임을 반복하며 불규칙함을 생성해낸다. 거울 위의 글자들은 흔적을 남기며 주변을 끊임없이 담아내고는 있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시의 글자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사라져간다.

메모리아 테크니카

혼합 매체, 180 x 87 x 250 cm, 2015

Choi Byoungil's main works were films and videos. However, since his MFA graduation installation work on the boundary of reality and imagination in the Cranbrook Academy of Art, he mainly focuses on installation art. Rather than the visual object itself, his concern is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object and he works with the mediums of video, programming, machine, and mirror. Since 2004, he has been working at the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of Konkuk University as a professor.

Choi Byoungi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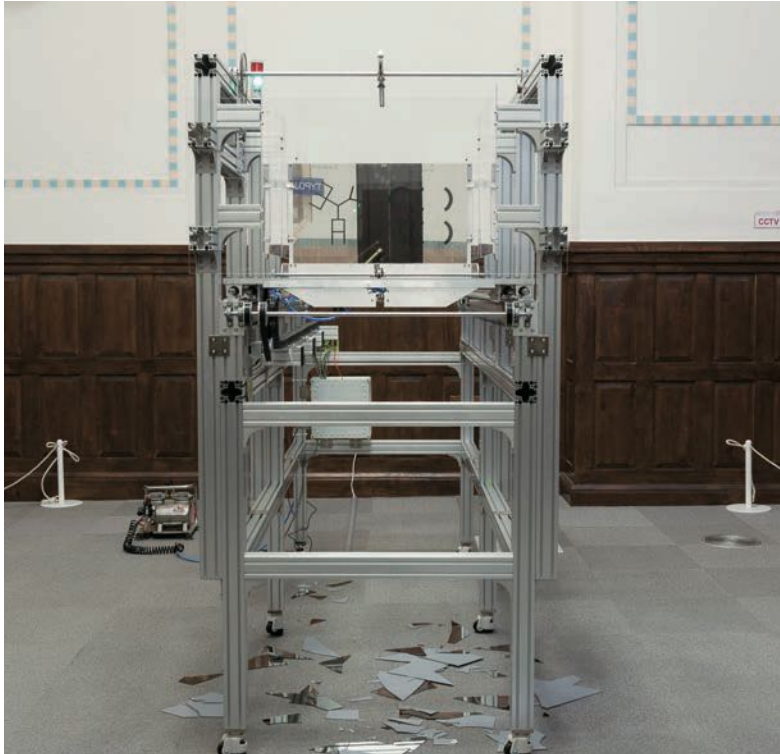
Choi Byoungil's machine repeats precise motion and makes irregularity. Typeface over the mirror leaves a trace and includes the surroundings ceaselessly, it is not the perfect form. The city typographies are generated and disappear in a similar way.

Memoria Technica

Mixed media, 180 x 87 x 250cm, 2015







대니엘 이득은 런던에 거주하며 작업하는 작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영국 왕립예술학교를 나와 잠시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위커아트센터에서 일한 그는 1999년 영국으로 돌아와 ‘파운데이션33’을 설립했다. 2004년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제프리 바스카와 함께 표준 웹 어플리케이션 인덱스하빗을 만들었다. 2008년 프린스턴 아키텍트 프레스에서 첫 모노그래프 《임프린트》가 출간되었다.

대니얼 이득

영국

<캡션 포스터>의 개념은 원래 뉴욕의 아티스트 스페이스에서 열린 건축 전시에서 대니얼 이득이 작업한 <인포텍처>에서 비롯되었다. 원래의 작업은 “모든 전시 작품의 제목, 캡션, 작품 설명 등의 정보를 모아 A1 크기의 포스터 한 면을 채우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포스터는 각 작품 옆에 배치되어 함께 전시되었는데, 옆에 있는 작품에 해당하는 캡션을 제외한 다른 정보는 모두 손으로 직접 지워 놓았다.”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든 포스터 역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타이포잔치 2015>에 참여한 작가들의 이름과 작품 제목, 캡션들로 만들어졌다.

캡션 포스터

포스터, 118.9×84.1 cm, 2015

디자인 도움 : 손영은, 이다은

Daniel Eatock born 1975, lives, works, cycles, runs E5 at London. In 2008, he makes Monograph Imprint which is published b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In 2006, he co-founds Indexhibit (www.indexhibit.org) with Jeffery Vaska, a standards based, archetypal web application.

Daniel Ea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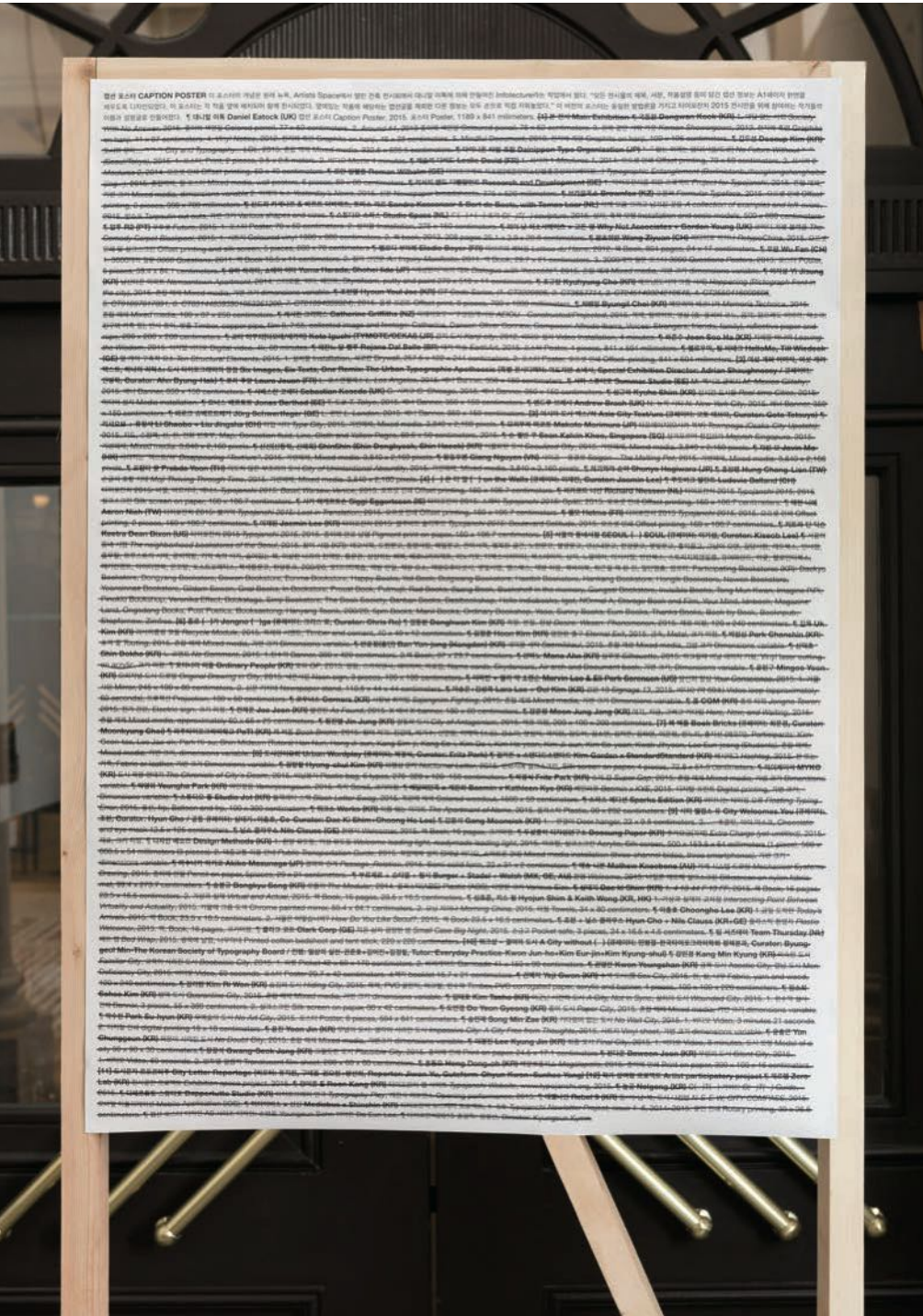
UK

This poster and concept were originally created by Daniel Eatock for the architecture exhibition, Infotecture at Artists Space in New York City. The original caption explains, “All the exhibition captions and information texts; title, introduction, artwork captions etc. typeset to fill a single side of an A1 page. The sheet is exhibited alongside each work in the exhibition. Only the information relevant to the work next to which it is placed is legible, all the other information has been crossed out by hand.” This version of the poster was specifically recreated for the Typojanchi exhibition using the same method of collecting all of the captions but this time around using the names and descriptions from the participating artists of *Typojanchi 2015*.

Caption Poster

Poster, 118.9×84.1 cm, 2015

Design Assistant: Sohn Youngeun, Lee Daeun



하준수는 영화와 영상 디자인, 시각예술을 오가며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고 있으며, 국내외 영화제와 전시를 통해 비디오아트와 실험 영화,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영상과 뉴미디어가 융합된 미디어 파사드 및 인터랙션 영상 제작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를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고려영2495》로 제10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한국 다큐멘터리상인 운파편드를 수상했으며, 2011년 《열두 풍경》으로 제7회 서울 국제실험영화제 최고상인 후지 어워드를 수상했다. 2005년부터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영상디자인학과에 재직 중이다.

도시에는 많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인공 환경을 이루는 물질들은 물론 공간, 시간, 기억, 감정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역사의 알개로 도시는 충전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시에서 저마다 삶의 모양을 만들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흔적은 또다시 도시에 쌓인다. 문자에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기표, 기의의 자동 기술적 용어로 설명하기 부족할 만큼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역시 사람들은 이 문자에 기대어 살다가 떠난다. 도시와 문자 덕분에 우리 삶이 '문화적' 혹은 '문명적'인 골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은 일면 구축을 자청한 문화, 문명일지도 모른다. 공간에 구축되고 관념에 구축된 삶. 그래서 타인과 삶을 공유하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인간(人間)'이 아닌 '존재(存在)'로 잠시나마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도시와 문자로 둘러싸인 삶 안에서는 너무나 짧기만 하다. 본질이 서글퍼서 대신 '지혜'라고 부르는 도시와 문자의 이 구축을 떠나는 순간은 그래서 행복하기만 하다.

지혜를 떠나며

디지털 비디오, 4k, 60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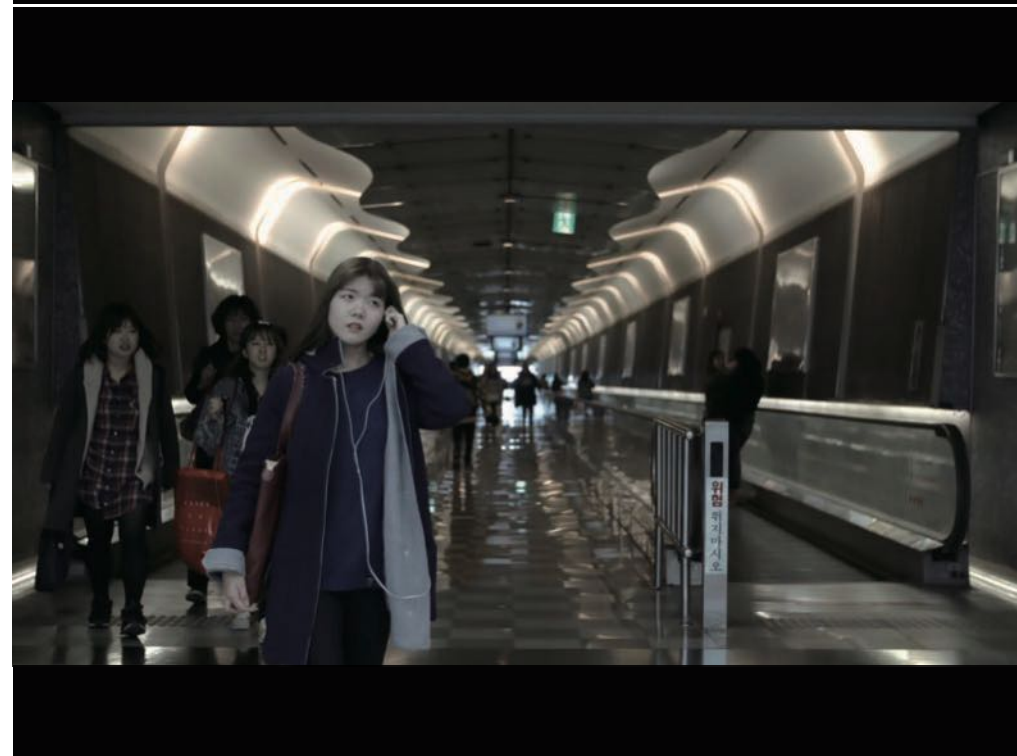


Ha Joonsoo has worked with various media such as a film, moving image design and visual art. He shows his video art, experimental film work, and documentary work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exhibitions. Recently, he has been actively at work on the media facade which is a combination of moving images, new media, and interactive moving image research pieces. He was awarded the best Korean documentary prize, Unpa-fund at the 10th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 a feature documentary, *Coréen2495*, which deals with the return of Oegyujanggak Uigwe, reinstating royal Korean archives from France in 2005. In 2011, he won the Hujj Award, the first prize of Seoul International Experimental Film Festival with *Twelve Scenes*. Since 2005, he has been working for the Entertainment Design Depart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a city, many things are piled up. A city is charged with not only all the materials composing an artificial environment, but also with uncatchable historical structure like space, time, memory, and emotion. Not all citizens of the world, many people live in this kind of city, make their own life patterns and disappear. The traces are piled up and repeated again in the city. In typography many things are contained; signifier and signified and too many things to explain even with automatic descriptions, people also live with typography and leave from it. Thanks to cities and typography, our lives can be "cultural" or "civilized," in some ways it could be self-restricted culture and civilization. We can feel the happiness with a life of restriction by space and common sense sharing with other people. However, it is too short to recognize myself as an "existence" not a "person" in this city surrounded by the city and typography. Therefore, the moment to leaving this city and typography calling "wisdom" would be a real joy for us.

Leaving the Wisdom

Digital video, 4k, 60minutes, 2015





2002년 다니엘 올손과 요나스 토포소가 공동 설립한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는 다양한 작가, 건축가, 큐레이터, 평론가, 미술관 및 문화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대니얼 이튼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게으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다. 마치 떠벌리지 않고도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교양 있는 사람처럼, 효율을 추구한다. 날카롭게 버려진 연필로 스웁 직선을 긋듯, 설정된 목표를 위한 매우 정교하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여러 톤의 빨간색과 회색이 섞여 있어도 그들은 항상 올바른 색을 골라낼 줄 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그 결과물은 무게감 있는 객관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서는 옳은 판단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스웨덴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not lazy yet avoid doing very much. Like a well-educated person who can say a great deal without saying very much, they employ an economy of means. A straight line drawn freehand using a pencil with a sharp point, a definite solution, fixed with purpose and precision, very specific. There are many reds and many tones of gray, they always select the exact right one. This is subjective, but the results resonate with a purposeful authoritative objectiveness that leaves the viewer in no doubt they made the right choice.”
— Daniel Eatock, excerpt from *Book*, published by Eastside Projects as part of Book Show, 2010

Research and Development

Swe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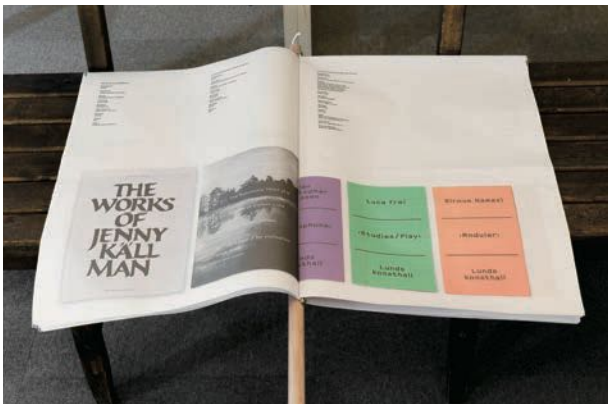




〈어제의 뉴스〉는 2002년 6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가 디자인한 모든 책과 카탈로그, 소책자가 실려 있는, 일종의 목록이다. 모든 작업은 이번 타이포잔치를 위해 실제 크기로 복제되었다.

어제의 뉴스

신문, 52 x 37.5 cm, 2015



Yesterday's News is an inventory of all books, booklets and catalogues designed by Research and Development ranging from June 2002 to October 2015. All the works are reproduced in actual size for *Typojanchi 2015*. To order your own copy, please visit Newspaper Club (www.newspaperclub.com).

Yesterday's News

Newspaper broadsheets, 52 x 37.5 cm, 2015



도시는 거주자들의 필요와 욕망이 반영된 구조물이다. 이는 결코 최종 형태에 도달할 수 없으며, 새로움과 낡음, 질서와 혼돈이 섞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람들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대개 그 시스템이 정한 지침에 순응해 살아간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기 행렬 시스템을 활용해 이러한 체계에 개입한다. 전시장에 놓인 설치물에서 관람객들은 익숙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줄서기 시스템과 마주친다. 함께 설치된 텍스트는 관객을 일견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상황으로 이끌며, 맹신과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적인 공공 시스템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찌 되었던 — 바보 아니면 멍청이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15

The city is a structure whose character is shaped in tune with the needs and desires of its inhabitants. It never reaches a final form but is in constant change — a mix of the old and the new, of order and chaos, of things that work and things that don't. In this environment of continuous transformation, citizens are in need of well-functioning systems in order to function efficiently, to work, and to feel secure.

Research and Development focused on the authoritative experience such as systems transmit in public places. By employing a familiar everyday object — the common and well-known queue management system — they wanted to challenge people's habitual patterns which are so difficult to break. Most of us tend to follow instructions as prescribed. By installing the system in irrational formations, the visitors are encouraged to follow a playfully tracked path. Texts play a key role in directing the visitor beyond preconceived expectations. Through a careful play with semantics, they aim to put the visitor in awkward, paradoxical or seemingly meaningless kafkaesque situations that give rise to a kind of understated humor and awareness of the absurd. Strange, embarrassing or silly situations that arise from an impulsive behavior based on blind faith and obedience. The purpose of the intervention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is to invite the audience into a playful, performative, sculptural piece and give opportunity to reflect over their own automatic responses in authoritative public situations. This work's goal is to raise the audience awareness of the visual language of the city with use of an underlying laconic wit.

**One way or Another —
Fools and Idiots**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산드라 카세나르네는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2007년 아르헨티스 베르크폴라츠 티포그라피를 졸업한 그녀는 바르트 더바에츠와 협업한 <성공과 불확실성> 프로젝트로 네덜란드 디자인 어워드 후보에 올랐으며, 작가인 에드워드 클라이데즈데일 톰슨의 책 <마치 입구가 저쪽인 듯>은 2013년 최고의 북 디자인에 선정되었다. 더 뉴 인스티튜트, 핏 즈바르트 인스티튜트, 뷔레아우 위로파 등의 기관과 수년간 작업해온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로테르담의 빌럼 더코닝 아카데미에서 그래픽을 가르치고 있다.

바르트 더바에츠는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2006년 이래 W139, 데 아펠, 뉴 인스티튜트, 암스테르담 펀드 등의 문화예술 기관과 일하고 있으며,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토털 컨트롤의 음반 <전형적 체계>를 디자인했다. 2011년 산드라 카세나르와 함께 카이로를 방문해 포스터 연작 <성공과 불확실성>을 진행했다. 루스탄 쇠데를링과 함께 1년에 두 번 발행되는 팬진 <어둡고 사나운>을 쓰고 편집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의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와 헤이그의 로열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Sandra Kassenaar lives in Amsterdam where she runs a small graphic design studio. She graduated with an MA from the Werkplaats Typografie in Arnhem in 2007. She was nominated for the Dutch Design Award for the project *Success and Uncertainty* (in collaboration with Bart de Baets) and in 2013 the book, *As If An Entrance Is Over There*, for artist Edward Clydesdale Thomson was selected as one of the Best Verzorgde Boeken 2013 (Best Books 2013). Over the years Sandra has worked for The New Institute, Piet Zwart Instituut, Kunsthuis Syb Maress and Bureau Europa. Besides running her own studio, Sandra regularly teaches at the graphic design department of the Willem De Kooning Academy in Rotterdam.

산드라 카세나르 + 바르트 더바에츠, 토마스 라르

네덜란드

토마스 라르는 네덜란드의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열정적으로 동시대의 독창적인 시각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의 작업은 출판과 책, 시각 아이덴티티를 비롯한 다양한 인쇄물의 형태로 나타나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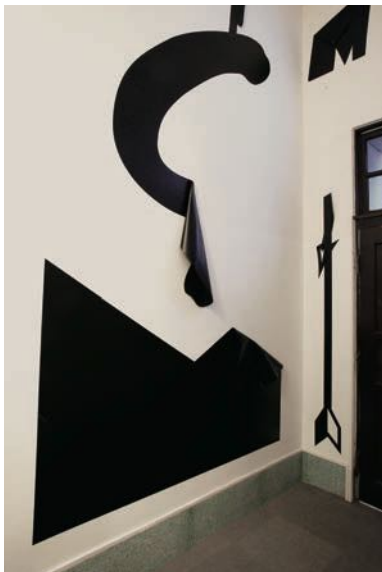
Sandra Kassenaar + Bart de Baets, with Tomas Laar

Netherlands

Bart de Baets is an Amsterdam based graphic designer. Since 2006, he has been working for various cultural clients such as W139, de Appel, The New Institute, Amsterdam Fund for the Arts, Paradiso, and events as *The Weight of Colour* and *A New Divide?* Recently, Bart designed the record sleeve for Australian noise band Total Control, titled, *Typical System*. In 2011, him and Sandra Kassenaar traveled to Cairo where they produced *Success and Uncertainty*, a poster series that was shown in the Amsterdam art book shop San Serriffe a year later. With Rustan Söderling he writes, edits and designs *Dark and Stormy*, a fanzine that appears twice a year. Bart teaches at the Gerrit Rietveld Academy in Amsterdam and at the Royal Academy in The Hague.

Tomas Laar is an independent, Dutch graphic designer. He is passionate about design and always looking for original and contemporary visual solutions. His work manifests itself around print and typography by means of publications, books, visual identities and other various printed matter.





하나의 아이디어가 디자이너의 컴퓨터를 떠나, 가령 트럭 뒤에 붙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산드라 카세나르와 바르트 더바에츠는 그들이 발견한 도시의 타이포그래피를 집으로 가져간다. 어느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그러하듯, 그들로부터 영감을 얻길 바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흰 벽에 이리저리 붙이며 레이아웃을 시도한다. 실제 크기와 똑같이 구현된 이미지들은 때로 디자이너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영감'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진부한 카피와 적절한 해결책 사이를 떠돌며 여러 방식으로 변주된다. 그런데 과연 영감이라는 게 뭘까?

사례 모음 그리고 남겨진 것들
방수포 커팅, 가변 크기, 2015



Being surrounded by letters and images from existing graphic languages makes that when visiting places the usual touristic sights aren't our main priority. Artists, designers — or just the two of us — look at the things around us and store 'em, in the hope they inspire our design and art work back home in the studio. For the exhibition we will take home a selection of these physical urban typographic discoveries and make an attempt to lay them out on a white wall. What happens when an idea leaves a designer's computer and is printed on backs of trucks — for example — is a question that inspired the piece we will present at the *Typojanchi 2015*. It's a work in which the actual size of things stands for the sometimes problematic relation with inspiration. Inspiration is confused with plain old copying, the matter of finding ways of appropriating it, one way or the other is an issue worth pondering over.

A collection of examples and left-overs
Tarpaulin cut outs, dimensions variable, 2015



서울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영국 캠버웰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북아트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꿈의 기록을 작업의 주요 소재로 삼으면서 글자의 정확하면서도 모호한 성질을 책 작업, 드로잉, 조각, 설치, 영상에 이르는 다양한 매체로 시각화하고 있다. 2008년, 런던 예술대학의 '베스트 12 기대주'에 선정되어 《미래의 지도 '08》 전시에 참여했으며 2011년에는 갤러리 팩토리의 '떠오르는 작가 쇼' 작가로 초대되어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2012년에는 스코틀랜드의 글렌피딕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최초의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

국동완

한국

국동완의 '글자 드로잉'은 글자의 형태를 따르거나 무시, 혹은 변형하며 손이 즉각적으로 그려내는 심상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텍스트의 표피에 둘러붙어 작가의 내면과 외부가 곤죽이 된 채 드러내는 어떤 풍경들은 늘 뻔한 예상을 빚나간다. 이 작품은 가수 김목인의 2집 수록곡 〈대답 없는 사회〉에서 발췌한 가사를 바탕으로 한다.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려"로 시작되는 노랫말이 드러내줄 또 다른 광장의 풍경을 기대한다.

대답 없는 사회

종이에 색연필, 77×52 cm, 2015

Kook Dongwan studied graphic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d with an MA Book Arts from the Camberwell College of Arts. Her main subject is the dream documentation and she visualizes the letter's accurate and ambiguous characteristics with various media; book works, drawing, sculpture, installation, and a video. In 2008, she was nominated as "The Best 12 New Talents of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and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Future Map '08*. In 2011, Gallery Factory invited her for the "Emerging Artist Show" and she had the first solo-exhibition. In 2012, she was chosen as the first Korean representative artist for the Glenfiddich Artist Residence in Scotland.

Kook Dongwan

Korea

Kook Dongwan's "Letter Drawing" is a work which finds an instant image made with hands by following, ignoring, or modifying letter forms. Some landscapes which are attached to the surface of text, mixed with the inner and outer side of the artist, shows something unexpected. This piece is based on the lyrics from Kim Mokin's second album piece, *Society With No Answer*. It begins with, "People who haven't received the answer are on the street/ To receive the answer even in the cold weather." We would see a different scene of the plaza with this.

Society With No Answer

Colored pencil, 77×52 cm, 2015





한복 같은 샤워 가운
한지에 흑연, 41×37 cm, 2012

Vinyl Notice
한지에 흑연, 46×38 cm, 2012

Around #1
종이에 색연필, 75×52 cm, 2013



Korean Showergown
Graphite on hanji, 41×37 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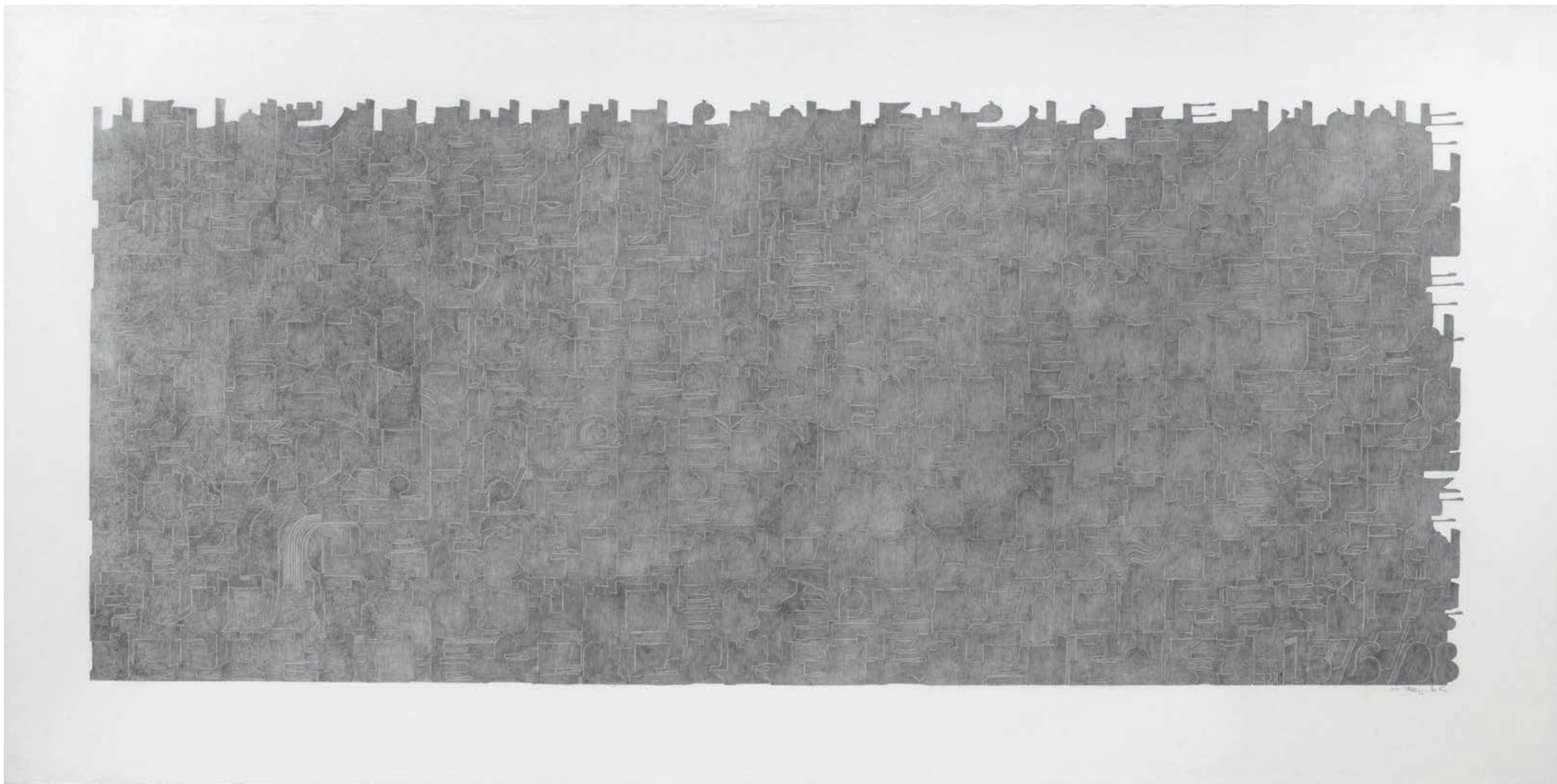
Vinyl Notice
Graphite on hanji, 46×38 cm, 2012

Around #1
Colored pencil, 75×52 cm, 2013



Mindful Document

한지에 흑연, 100×196cm, 2010

**Mindful Document**

Graphite on hanji, 100×196cm,
2010

스톡홀름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조규형은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레이션, 텍스타일과 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상업 및 비상업 영역을 오가며 활동한다. 타이포그래피적 접근과 동서양의 관점이 결합된 그의 디자인 결과물은 대중과 매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그는 이러한 다학제적 프로젝트를 통해 그래픽디자인 개념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다양성을 넓히는 데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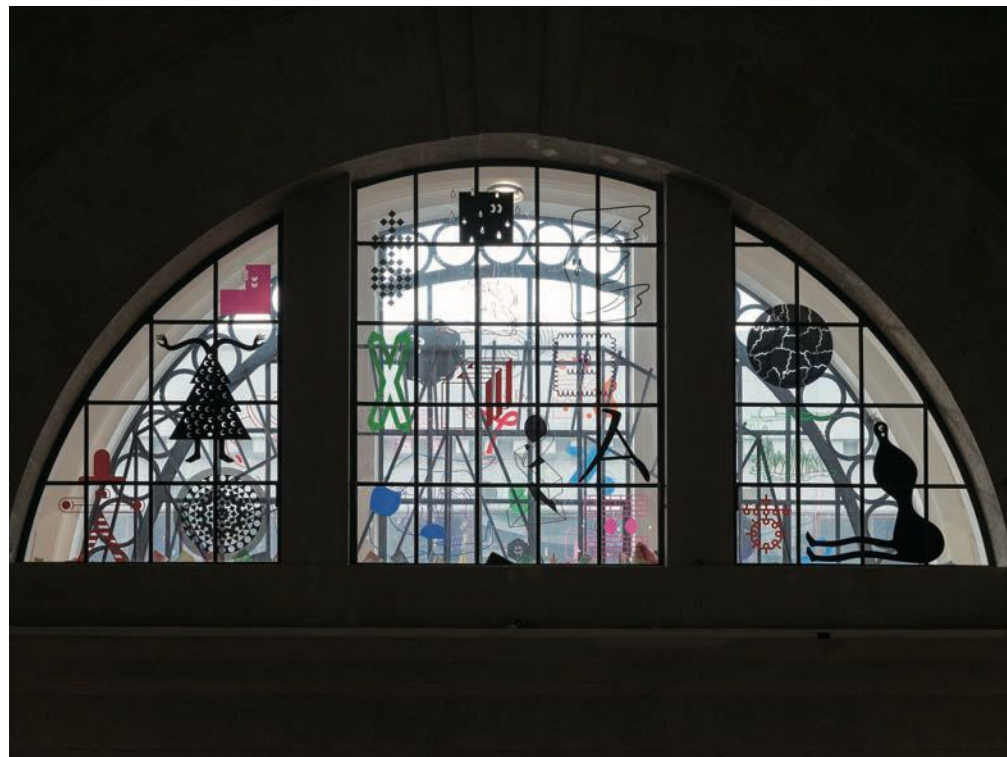
조규형

한국

조규형은 도시를 동시대 관객 간의 사건을 위한 무대로 보고, 문자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빛어내는 해프닝을 시도한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와 모습을 담은 한글 그림 서체 100종과 로만 알파벳 50종을 공개하고, 키보드를 누르는 장단에 따라 문자의 형태와 조합이 '변신'하도록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기록하는' 문자에서 '경험하는' 문자로의 진화를 시도한다. 전시장은 '한글과 로만 알파벳' 그림 서체를 등장인물로 하는 한 편의 연극 무대로 구성된다. 작가는 그림 서체가 타이핑 장단에 따라 다양한 장면으로 등장하는 실시간 퍼포먼스를 모니터로 선보이고, 각기 다른 성격과 이야기를 담은 글꼴들을 100권의 서체 견본을 통해 소개하고, 서체를 공간에 캐릭터로 시각화한 오브제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문자를 새롭게 조명하고, 열린 발전 가능성을 가진 그림 문자로서, 그리고 현 도시의 문화를 담아내는 시각언어로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프닝(도시의 그림 서체)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15



Cho Kyuhyung runs his own design studio based in Stockholm. He has incorporated both a typographical approach and an eastern/western perspective into various design fields such as typography, illustration, textile and furniture design for both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contexts, which resulted in the creation of new and unexpected design solution, receiving tremendous attention from the public and the media. Kyuhyung defines himself as a graphic designer while he believes that his multi-discipline projects based on typographical approach will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graphic design as well as becoming a positive stimulus in the diversification of graphic design.

Cho Kyuh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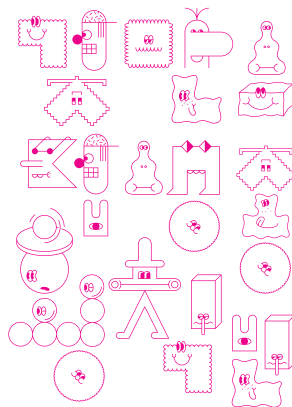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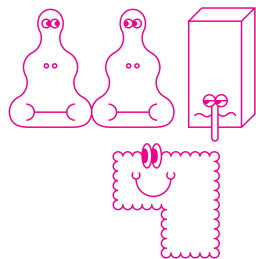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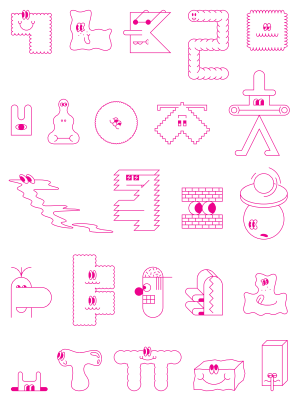
Korea

Cho Kyuhyung wants to make "Happening" arise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types while seeing CITY as a stage for performers in the present age. He introduces 100 different new Hangeul pictograph fonts that are incorporated with the current lifestyle over the world. Moreover, he attempts to demonstrate the development of typography, from strictly being functional to being experienced, and experiments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by encouraging the user to transform the shape and composition of the fonts depending on one's rhythm of typing on the keyboard. The exhibition space is constructed as a stage of a play, which adopts pictorial Hangeul and Roman alphabet font letters as its characters. The typography is introduced through a live performance showing the various arrangements of the characters based on the speed of input, and each character is presented through 100 font specimen books. He will present 14 Hangeul consonant-objects made of clay. The pictograph font project sheds a new light on Hangeul and Roman alphabet through his unique approach to visualize typography, and offers an opportunity to perceive types as a pictographic character of an open development as well as a visual language embodying the culture of the city.

Happening (Pictograph Font in the city)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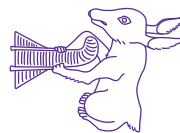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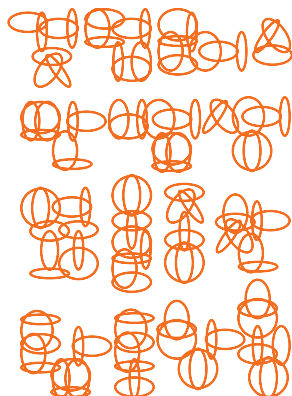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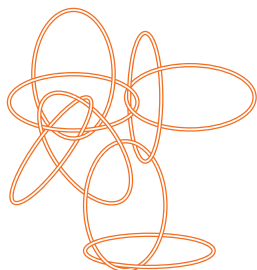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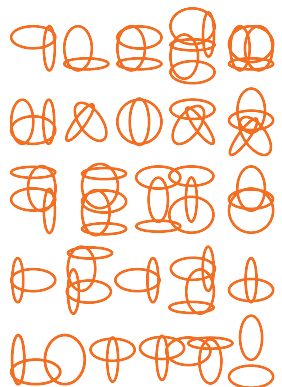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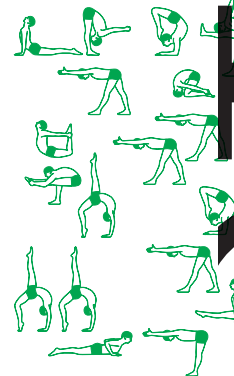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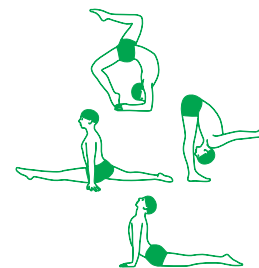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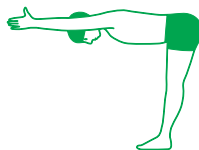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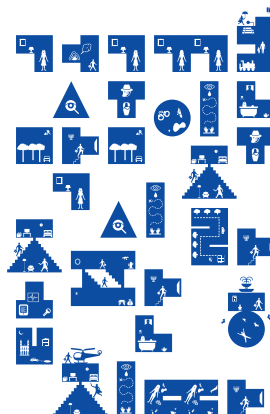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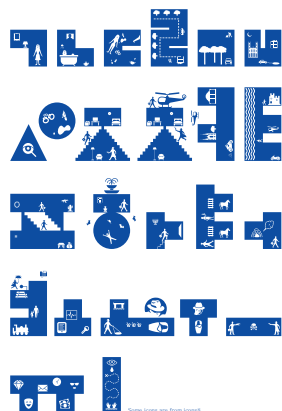




ㅅ ㄴ ㅈ ㄹ
ㅁ ㅂ ㅅ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ㅅ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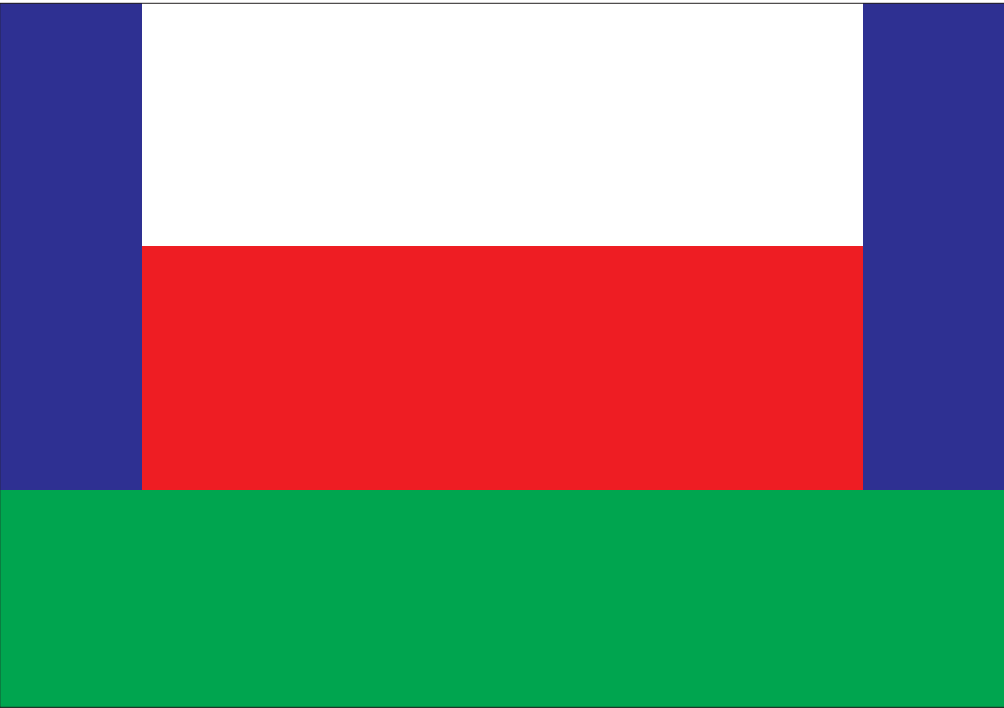


Cho Kyuhyung
Korea

조현열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단국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했으며 2009년 헤이조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작가와 출판사, 예술 기관 등과 함께 일하는 한편 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를 가르치고 있다.

조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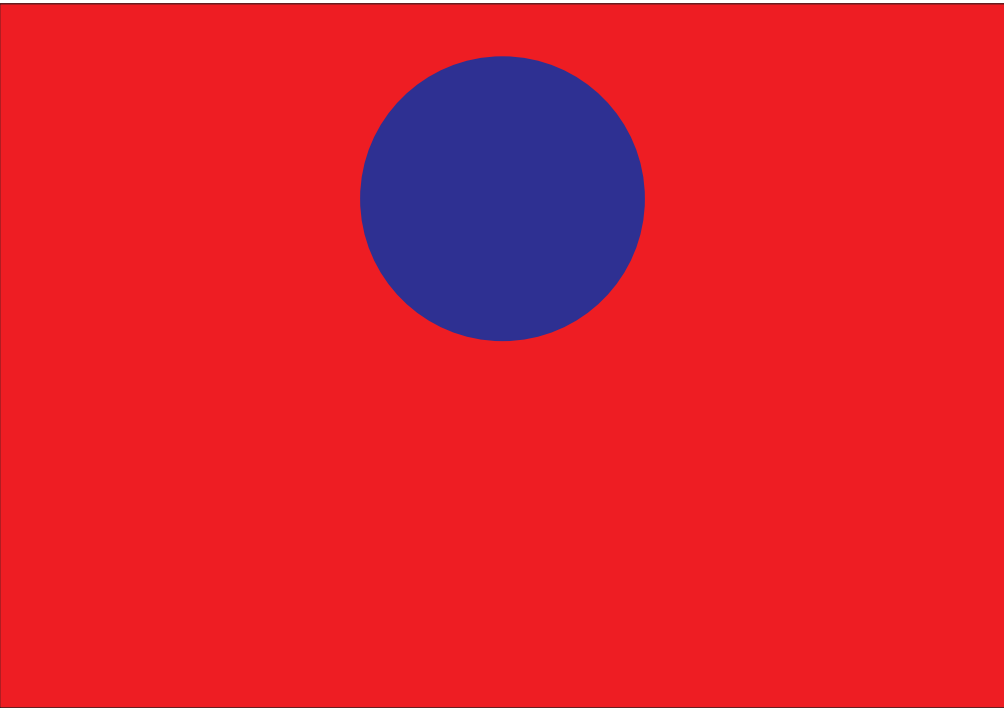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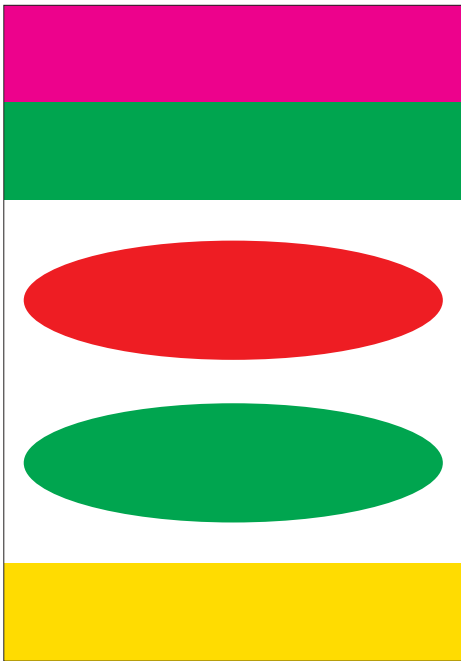


Joe Hyounyoul is a Seoul-based graphic designer. After studying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Dankook University, in Seoul, he completed his MFA in Graphic Design from Yale University, in 2009. Since establishing the independent studio Hey Joe in 2009, he has worked for artists, publishers, curators, and cultural institutions. He currently teaches Graphic Design and Typography class in Seoul, Korea.

Joe Hyounyoul

Korea





조현열은 매일 아침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어 한곳에 모아둔다. 이런 행위가 아침마다 반복되면서 그는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대출, 배달 음식,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대리 운전 등, 전단지와 현수막들. 그것들은 천박하고, 반복적이고, 요란하고 거칠다. 그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거리를 둘러싼 전단지와 현수막의 언어와 기호, 색상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의 조합에서 흥미로운 구성을 발견한다. 그 구성은 집단과 개인의 욕망의 도구로 작동한다. 조현열에게 그것들은 언제나 언어가 전달되기 전 색상과 형태로 먼저 인식된다. 전단과 현수막에서 글자를 추출하고 기호와 색상 그리고 구성에 집중한 이 작업은 언어가 사라진 도시의 전단지와 현수막에서 반복되는 형태와 색상 패턴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CT 코드 연작

CT3220806

CT3657714

CT245140324210648

CT2550416009605

CT01097817891

CT031448595901053361200

CT01094669924

CT5001044768010

오프셋 프린트, 8점, 각 70×100cm, 2015

Joe Hyounyoul picks up flyers on his office floor every morning and gathers in one place. Repeating this, he starts to observe flyers and banners of loan, delivery foods, selling apartments and officetels, chauffeur service very closely. They are cheap, repeating, flashy and wild. Watching these, he feels uncomfortable but finds something interesting in their combinations. The combination works as a tool of communities and people's desire. For the artist, they are recognized as colors and forms before meaning as words. He extracts the letters from the flyers and banners, concentrates on making new combinations with these signs, colors, and forms. This would be the exploration of new compositions with repeating forms and color patterns in the flyers and banners of this city where the letters disappeared.

CT Code Series

CT3220806

CT3657714

CT245140324210648

CT2550416009605

CT01097817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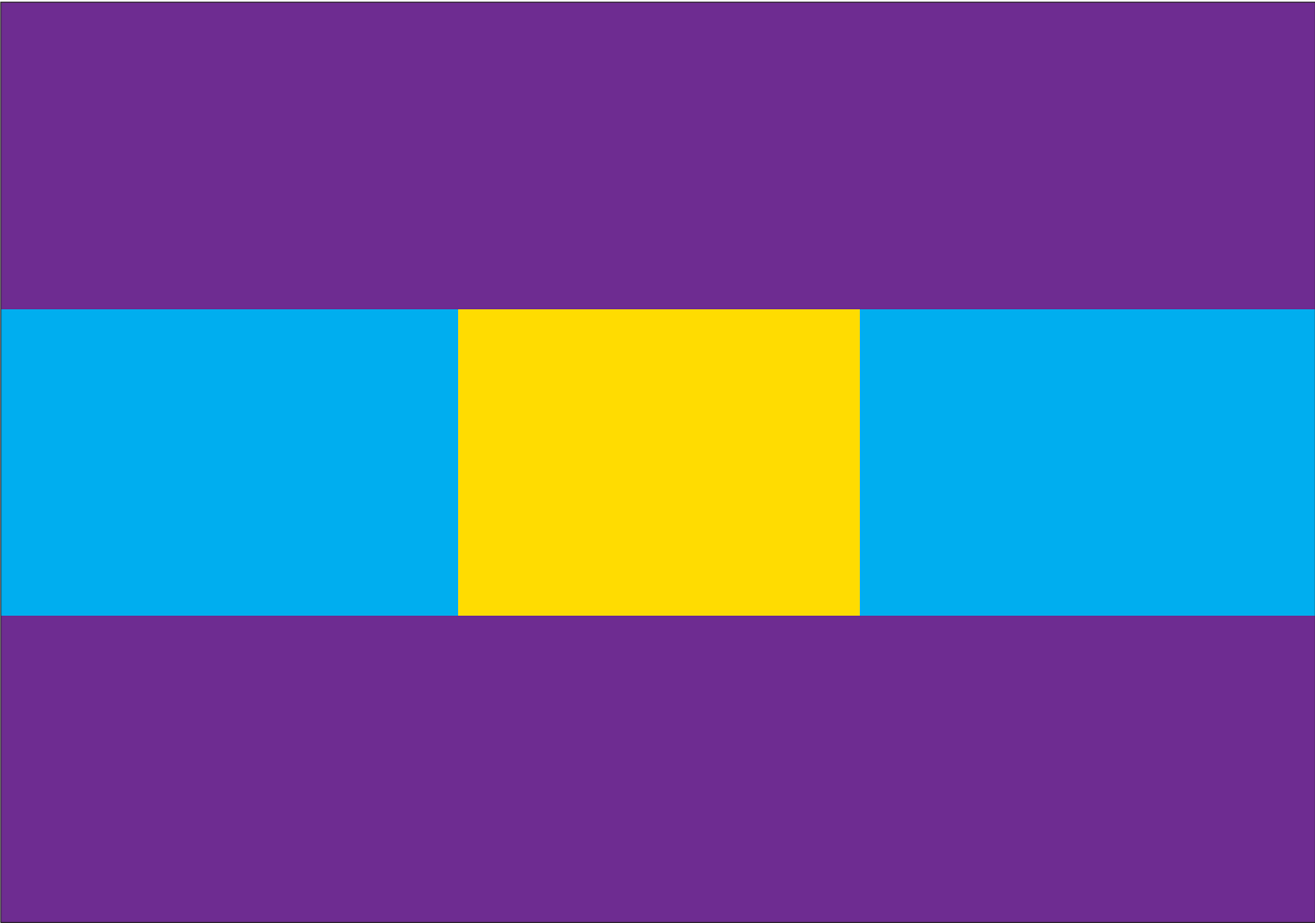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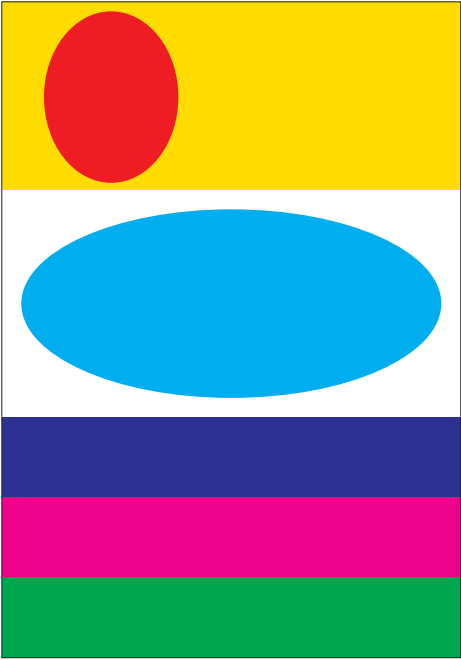
CT031448595901053361200

CT01094669924

CT5001044768010

Offset printing, 8pieces,

each 70×100cm, 2015



1993년 히데치카 이치마와 츠카다 테츠야가 만든 타이포그래피 그룹 '다이니폰 타입 조합'은 글자의 형태를 해체, 결합, 재구축한 유희적인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실험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추구한다. 런던, 바르셀로나, 도쿄에서 전시를 가졌으며 싱가포르, 홍콩,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전시에 참여했다. 2003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10주년 기념 전시와 함께 모노그래프 《글자 카드 놀이 책》을 출간했으며 2014년 10월 "타입의, 타입에 의한, 타입을 위한 사이트"인 '타입.센터'를 론칭했다.

다이니폰 타입 조합

일본

우리를 둘러싼 도시는 늘 타이포그래피라는 옷을 입고 있다. 이러한 도시에서 문자가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다이니폰 타입 조합은 문자가 제거된 도쿄와 서울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한다. 그 옆에는 영상과 함께 녹음된 반주가 흘러나온다. 관람객들은 목소리가 사라진 반주를 들으며, 특징이 사라진 생경한 도시 풍경과 만나게 된다.

『『 없는 미래는 없다(서울/도쿄), 월 포스터(2점, 각 240×350 cm), 영상(4분), 2015

사진 도움: 양도연

Hidechika and Tsukada Tetsuya set up an experimental typography group called Dainippon Type Organization in 1993, and have been pursuing new ideas of typographic characters by playfully deconstructing, recombining and restructuring letterform. They have held solo exhibitions in London, Barcelona and Tokyo, and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Singapore, Hong Kong and Korea. Their monograph, Type Card Play Book, was published in 2003 to accompany a ten-year anniversary exhibition in Barcelona. In 2014 October, launched "Site of the type by the type for the type", "type.center."

Dainippon Type Organizatio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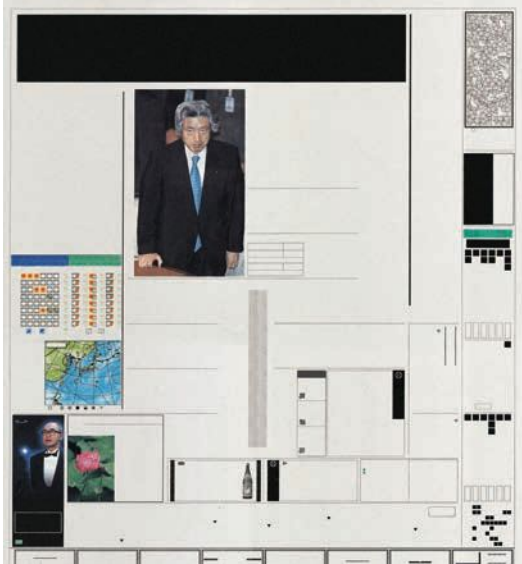
The city surrounding us has always been wearing typography. Dainippon Type Organization also continues to work around the typography. If this character is gone from the world, what world would it become? In 2005, the Dainippon Type Organization has produced works that were left off the characters from the city of Tokyo. After 10 years, this time they leave off the letter from the city of Seoul in the same way. When Seoul and Tokyo are next to each other without letters, what would it really look like? This installation, also includes Karaoke video that was made for this. Karaoke without vocal accompaniment, is also like a city vanished in charac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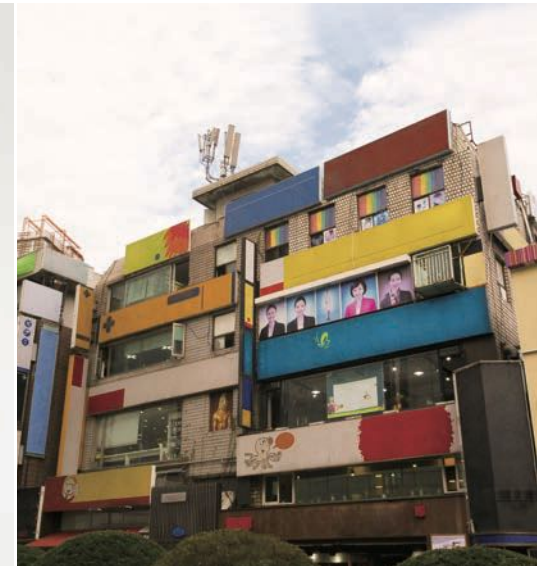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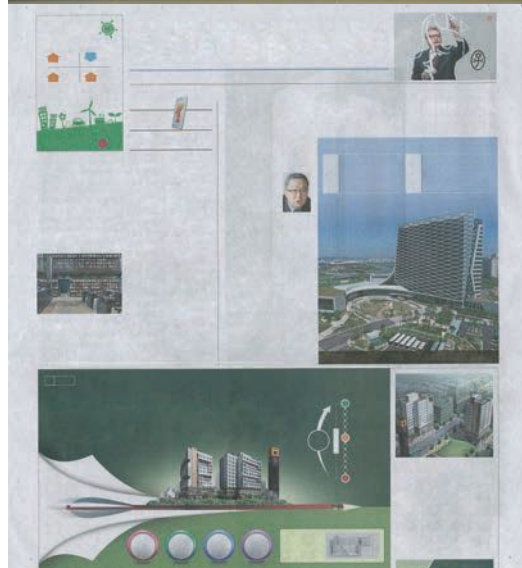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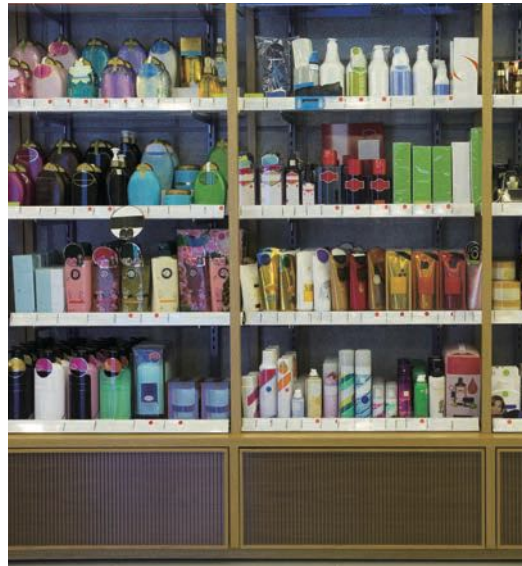
No Future Without " " (Seoul/Tokyo)

Wall poster (2pieces, each 240×350cm) and film (4minutes), 2015

Photography Assistant:
Yang Doyeon







1979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하라다 유마는 슈세이 건축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교토 세이카 대학 예술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이후 인터미디어 연구소(IMI)에서 4년간 일한 그는 2003년 신이치로 마스이와 크리에이티브 유닛 아르벤터를, 2007년에는 UMA/디자인 팜을 설립하고 책과 그래픽, 전시 디자인 등의 일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교토 예술디자인 대학에서 초청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공저로 《관계적 투어리즘》(세이분도 신코샤, 2014)이 있다.

하라다 유마 + 이다 쇼헤이

일본

1988년 지바 현에서 태어난 이다 쇼헤이는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책, 잡지, 전시를 비롯해 공간 디자인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바다와 도시를 오가며 가을에는 부업으로 공치를 굽거나 군고구마 집에서 일을 배우기도 한다. 잡지 《CYAN》에 〈통조림과 체조〉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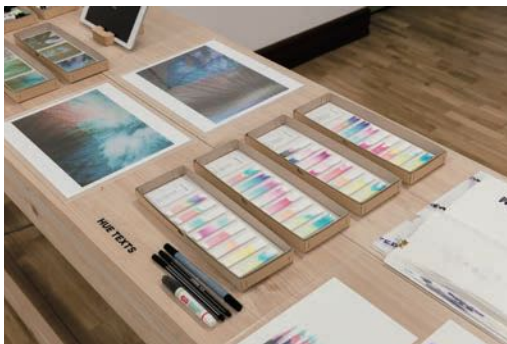
Yuma Harada was born in 1979 in Osaka. He enrolled as an architecture major in the design course of Kyoto Seika University's art department after graduating from Shusei Architectural Academy in 2000. He also enrolled as part of the seventh batch of students at the Inter Medium Institute (IMI) after finishing university in 2002, remaining there for 4 years. Yuma launched the creative unit Archventer in 2003 with Shin-ichiro Masui. In 2007, he established UMA/design farm, designing books, graphics, exhibitions and so on. He began working as a part-time lecturer at Kyoto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in 2005, and also acts as director of CRITICAL DESIGN LAB from 2008 to 2012, DESIGNEAST director from 2009, GALLERY 9.5. from 2011, design studio ZZZ, and Setouchi Triennale 2013 (Hishio no Sato and Sakate Port Project) from 2013, Art Shodoshima Teshima 2014 (Hishio no Sato and Sakate Port Project). Yuma is a gues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patial Design, Kyoto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and advisor of Good Job! Center from 2015. He also a co-author of *Relational Tourism* (Seibundo Shinkosha, 2014).

Yuma Harada + Shohei Iida

Japan

Shohei Iida was born in 1988 in Chiba, Japan. Now, he lives and works in Tokyo. He studied at Musashino Art University. As a freelancer designer, he is working in a broad areas including a book, magazine, exhibition and space design. He is between a city and the sea, grills mackerel pike and bakes sweet potato as a side job in the fall. He publishes a column named, "Can and Gym" serially in the magazine, *CY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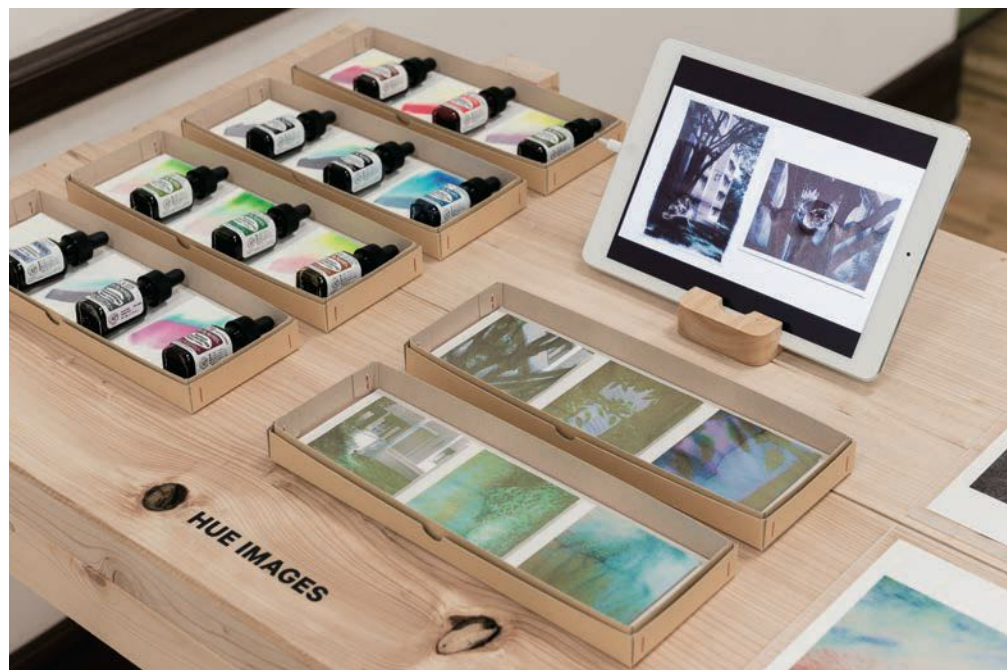
도시에서는 무언가 계획되고, 유통되고, 지속되고, 점차 사라지는 순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라다 유마와 이다 쇼헤이는 도시와 도시를 둘러싼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틈새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순환의 과정을 관찰하여 특정 형태가 되기 직전의 모습, 평소에는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관람객들에게 제시한다. 익숙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골라내 이를 교환함으로써 도시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하라다 유마
‘개성원리’와의 대화:
Hue Inks/Hue Images/Hue Texts
혼합매체, 가변 크기,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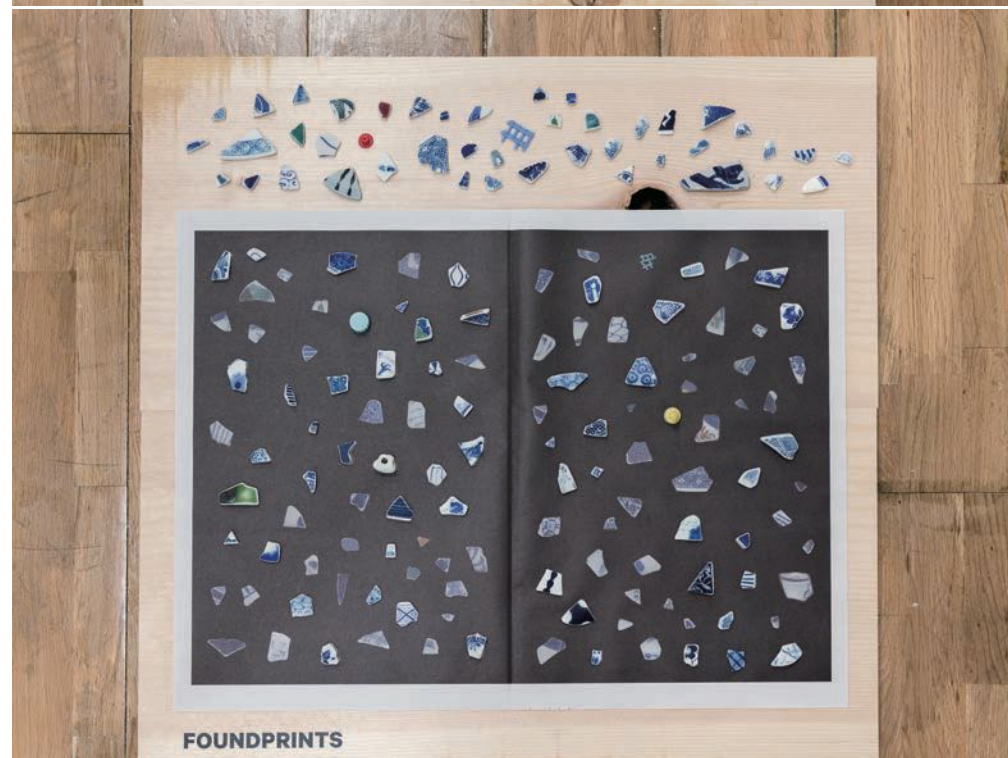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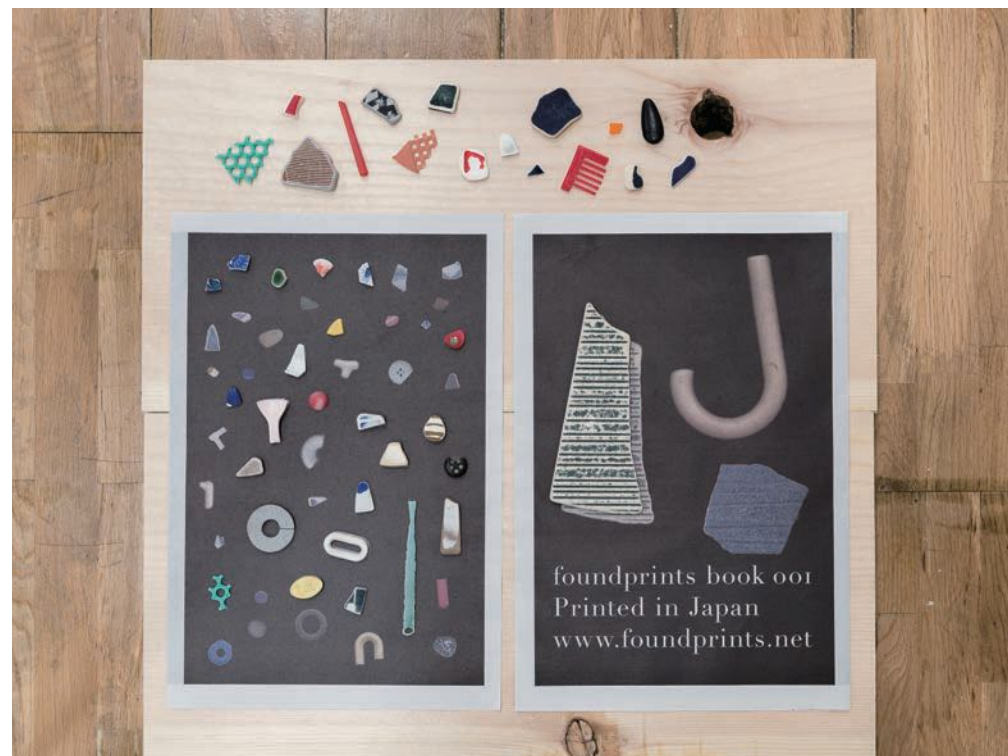
Yuma Harada and Shohei Iida focus on the designs created as the result of a city and the phenomenon that seems to connect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then display the process they have experimented repeatedly. In a city, there is always something being planned, distributed, being maintained then gradually fading away. Such circulation is occurring sporadically. They observe that space between a city and an environment, also before and after each process. Then they admire the last-minute figure before it becomes a certain form and the things that probably used to have a shape, and believe that shedding a light on them would make something that has been overlooked to rise up again. They are trying to converse with an approachable city by picking up and exchanging exactly “what we have now” hiding in our daily lives.

Yuma Harada
Dialogue with “heccéité”:
Hue Inks/Hue Images/Hue Texts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이다 쇼헤이
 개성원리와 대화: 흔적
 혼합매체, 가변 크기, 2015

Shohei lida
**Dialogue with "heccéité":
 Foundprints**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1976년 독일에서 태어난 로만 빌헬름은 할레 미술디자인 대학에서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으며 라이프치히 시각예술 아카데미에서 프레트 스메이어르스의 지도하에 글꼴 디자인 마스터 과정을 마쳤다. 2005년부터 베를린과 베이징에 있는 인사이드 에이의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으며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중국, 한국 등의 여러 예술 및 디자인 기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능숙한 중국어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강의와 리서치를 진행하는 그는 2008년 아시아 타이포그래피와 미디어의 역사 속에서 상하이라는 도시의 역할을 연구 개발하는 '상하이 산책자'를 공동 창립했다. 2015년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체 (老外宋)' (2015)라는 중국어 글꼴을 타이완에서 출시했다.

로만 빌헬름

독일

Roman Wilhelm was born in 1976, Germany. He studied visual communication at Burg Giebichenstei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alle, and under Prof. Fred Smeijers (typeface design master class) at the Academy of Visual Arts in Leipzig, Germany. Since 2005 he has been an art director for INSIDE A Communications AG, Berlin & Beijing. He has been teaching and conducting workshops at diverse art and design institutions in Germany, Italy, Poland, China and Korea. From 2008 to 2013, he was a member of the Multilingual Typography Research Group (general lead: Prof. Dr. Ruedi Baur) at the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later at HEAD Geneva, Switzerland. He was an artist in residence at the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Academy of Visual Arts in 2015. His first digital Chinese typeface "Laowai Sung (老外宋)" has been published by Arphic (文鼎), Taiwan, in 2015. Being a fluent Chinese speaker, Roman uses his language skills as much as possible during his frequent teaching and research stays in China. In 2008, he became a founding member of "Shanghai Flaneur," a walking think-tank in the city of Shanghai, where he has been developing guided city labs on Shanghai's role in the history and present of Asian typography and media, leading him to curate and edit a special issue of the Germany *Typotopografie* magazine exclusively focusing on Shanghai.

Roman Wilhelm

Germany



역사적으로 각 문화권의 문자 체계는 특정한 지리적 공간 및 문화적 맥락과 결부되어 진화해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리적 평창과 개발은 문자 체계를 새로운 공간으로 이끌며 끊임없이 진화를 부추겼다.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의 메트로폴리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와 문자 체계가 같은 공간에서 뒤섞이고 서로를 재맥락화하며 도시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다시 규정하고 있다.

가령 터키와 아랍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 베를린의 노이펠른 지구에서 당신은 이스탄불이나 예루살렘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리의 다른 시각문화 기호들과 결부되어 그 간판들은 베를린의 특정 구역의 성격을 형성하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을 불러모온다. 도시의 타이포그래피는 마치 지리학적 공간을 뒤트는 듯하다. 만약 도시의 타이포그래피 기호들이 목소리를 가진다면, 이들의 합창은 어떻게 들릴까?

이 작업은 독일과 터키 상점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의 크로이베르크 지구 오라니엔 거리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홍콩 슝’이나 ‘차이나 박스’ 같은 가게 이름들은 중국어로 쓰여 있지만, 홍콩이나 상하이, 베이징처럼 내가 자주 머물렀던 중국 도시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선보이는 사례들은 모두 최근에 수행한 시각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물로, 모두 도시의 정치문화적 공간, 혹은 글쓰기와 문자의 문화적 보편성을 반영하고 있다.

약보처럼 구성된 소책자는 각 포스터의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녹음한 도시 소음에 기반해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사운드 작품 <튀포무자크>는 이러한 시각 경험에 현장감을 더해줄 것이다.

타이포그래피 직조망
(베를린이스탄불홍콩상하이베이징...)
포스터 (6점, 각 80 × 80 cm), 소책자 (16쪽, 42 × 29.7 cm), 2015

In history, different writing systems evolved alongside the languages they used to visualize, in cultural contexts connected to certain geographic spaces. But parallel to that development, expansion politics also brought writing systems to new places, where they too continued to evolve. The metropolis of the 20th and 21st century brings about a very different idea of culture space, re-contextualizing all sorts of languages and scripts on signboards alongside each other, making this transcultural mix more defining for the perception of the city than alleged “native” elements of visual culture.

In Berlin, the multitude of Turkish and Arabic shops and restaurants in Neukölln district make you feel a bit like in Istanbul or Jerusalem, but alongside other signals of visual culture, they define that specific part of Berlin, attracting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Urban typography seems to warp geographic space. If typographic signals in urban space were voices, then how would these voices sound together?

This visual investigation starts at Berlin’s Oranienstraße in Kreuzberg district, where German shopfronts and letterings coexist with the Turkish. The nearby “Hong Kong Shop” is not run by Chinese, same for the “China Box” noodle store. However, these little visual hints trigger a reflection on the visual culture of Chinese cities where I frequently stay: Hong Kong, Shanghai and Beijing. The samples shown here reflect recent visual researches I did in the context of different art and design projects, all reflecting political or cultural urban space, or the cultural universe of writing and type.

A booklet shaped like a musical notation provides more information and translations of the respective content. The adjacent musical piece *Typomuzak* consists of five parts, in analogy to the cities mentioned. The music is based on on-site recordings of urban noise (Muzak) and is meant to lift the visual experience on a more real-time basis.

Typographic Entanglement (Berlinistanbulhongkongshanghaibeijing...)
Poster (6pieces, each 80 × 80 cm) and booklet (16pages, 42 × 29.7 cm), 2015



126

스튜디오 스파스는 로테르담에 위치한 디자인 에이전시로 인쇄, 브랜딩, 웹, 공간 디자인은 물론 애니메이션과 사진 작업을 아우른다. 야론 코르비누스와 단 멘스가 2008년 설립한 이 스튜디오는 엄격하고, 사려 깊고, 지적인 접근법을 유쾌적인 감성과 결합한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결점 없는 실행 둘 모두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이들은 혁신적인 개념적 사고뿐 아니라 아주 작은 세부까지 놓치지 않는 완벽주의자의 눈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

127

Studio Spass is a Rotterdam-based agency that works across print, branding, web and spatial design projects as well as animation and photography. Founded by Jaron Korvinus and Daan Mens in 2008, the studio combines a rigorous and intelligent approach with a playful sensibility. They understand that powerful and effective visual communication needs both original ideas and faultless execution, and the team prides itself on its perfectionist eye for the little details as well as its innovative conceptual thinking. Jaron and Daan continue to oversee the studio's output and have built a diverse team of specialists as well as a wider network of creatives on which they can draw. Studio Spass works closely with clients and believes in genuine collaboration to develop the best visual solutions possible but that doesn't mean slavishly following a brief – rather they like to challenge their clients and make sure their designs are answering the right questions.

Studio Spass
Netherlands



스튜디오 스파스는 타이포잔치의 제목과 주제를 활용해 1925년 세워진 문화역서울 284의 근대건축 양식과 관람객에게 반응하는 거대한 타이포그래피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여기서 타이포그래피 요소들은 도시와 거리, 공적 공간에 대한 발언들을 위한 표피 역할을 수행한다. 작업에 쓰인 글은 《타이포잔치 2015》의 총감독 김경선과 협업해 구성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튜디오 스파스의 이전 작업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예술 축제 '비테 더 빛의 세계 2012' 아이덴티티 중 〈도시의 조각들〉과 연작 개념에서 이루어졌으며, 〈도시의 조각들〉 가운데 선별한 축적 모형을 함께 전시하여 스튜디오의 신작을 소개한다.

C () T () 조각

설치, 축적 모형, 가변 크기, 2015

StudioSpass made an installation that plays and interacts with the neoclassical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building and its visitors. *C () T () Sculpture* is a large scale typographic installation based on the title and the theme of the biennale. The typographic elements of the installation serve as a skin for a selection of reflecting statements on the subjects city, street and public space, selected in collaboration with director Kyungsun Kymn. This project is a visual follow up to the studio's previously made Street sculptures as part of "De Wereld van Witte de With '12" identity. A selection of the Street sculptures scale models are presented as a visual introduction to the studio's latest installation.

C () T () Sculpture

Installation and scale models, dimensions variable, 2015





R2는 포르투갈의 포르토에 위치한 디자인 스튜디오로 1995년 리자 데포세스 라말오와 아르투르 레벨로가 설립했다. 이들의 작업은 편집 디자인부터 시각 아이덴티티, 사이너지 시스템, 포스터, 뉴 미디어, 비디오, 전시 디자인, 공공 공간 및 건물에 대한 개입까지 다양하다. 이들 작업의 본질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디자인 과정에 두 디자이너가 똑같이 참여하는 데 있다. 이들의 상호 보완적인 시각은 주어진 과제를 둘러싼 사려 깊은 연구와 실험으로 이어지며, 이는 타이포그래피가 근본 역할을 하는 결과물에 최종 형태를 부여한다. 또한 종이에서부터 디지털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다루며 정적인, 연속적인, 때론 상호작용하는 포맷을 탐구하며 건축, 엔지니어링, 사진, 글쓰기, 혹은 프로그래밍과 같은 다른 분과와 협업하는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다.

알투

포르투갈

R2 is a design studio based in Porto, Portugal, founded in 1995 by Lizá Defossez Ramalho and Artur Rebelo. R2's work spans the areas of editorial design, visual identity, signage systems, posters, new media, video, exhibition design, and interventions in public spaces and buildings. The essence of R2's work lies in a dynamic creative process in which both designers equally engage from the initial stages through to the execution of a project. This complementary dialogue draws on thoughtful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surrounding a given content for an ultimately concept-driven approach that lends form to a final product in which typography plays a fundamental role. R2 explores static, sequential and interactive formats — through media as diverse as paper, concrete or digital — and embraces collaborative ventures with other disciplines such as architecture, engineering, photography, writing or programming.

R2

Portugal



알투는 도시성에 대한 몇몇 경험적 개념들을 기반으로 건축과 타이포그래피를 평행선상에 놓은 작품을 선보인다.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된 이러한 개념들은 이들의 관심사, 즉 도시의 공간과 구조, 관점, 혹은 도시의 빈 공간과 채워진 공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성과 대비를 이룬다.

푸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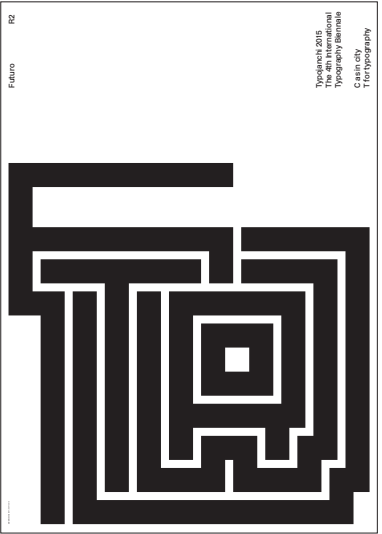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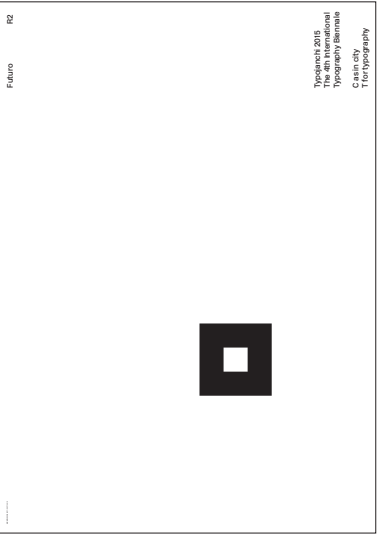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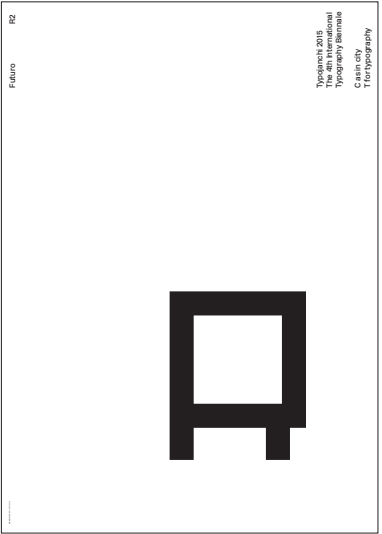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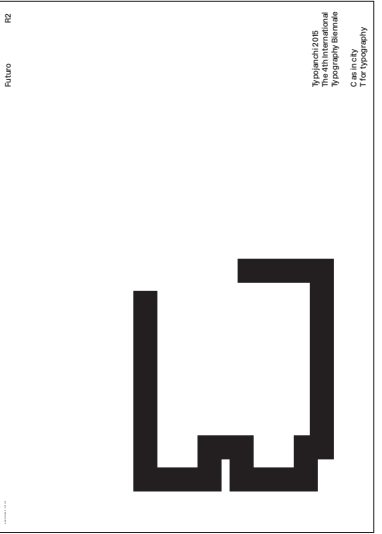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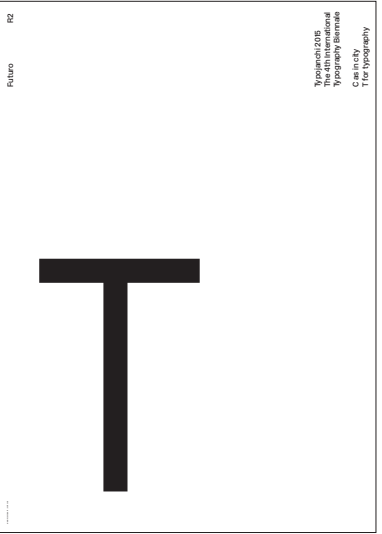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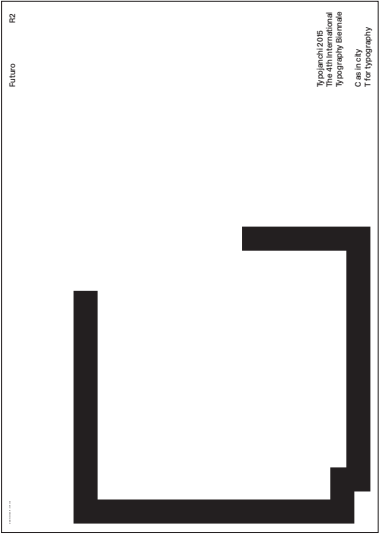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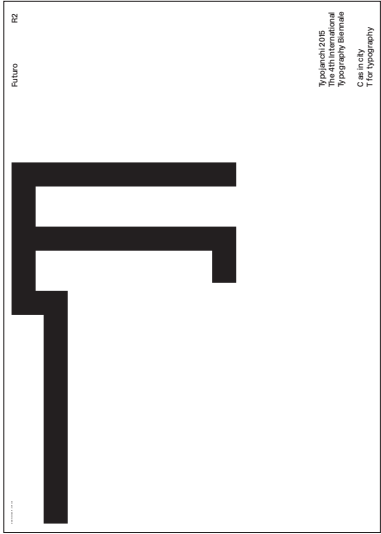
포스터(오프셋 인쇄, 70 × 50 cm),
설치(혼합 매체, 207 × 280 cm), 2015

Our graphic approach was based on several concepts that came from our experience of urbanity. Our proposal makes a parallel between architecture and typography. Not only its final form but also the process of making it, translates a series of concepts and contrasts that we find interesting: complexity in between spaces, structures, perspectives, urban voids and fulfillment. We used a portuguese word "Futuro" ("Future," in English) that allow us to avoid redundancy, opening the possible readings. With this typographic approach we manage to make a direct connection with the theme.

Futuro

Poster (offset printing, 70 × 50 cm)
and installation (mixed media, 207 × 280 cm), 2015





틸 비데크는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한 그는 이후 마리오 롬바르도 사무실과 폰스 히크만 M23 등의 스튜디오를 거쳐 2008년 디자인 스튜디오 헬로우미를 설립했다. 헬로우미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폭넓은 영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업 팀을 구성해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다. 또한 틸 비데크는 바이마르의 바우하우스 대학 및 로잔 주립미술대학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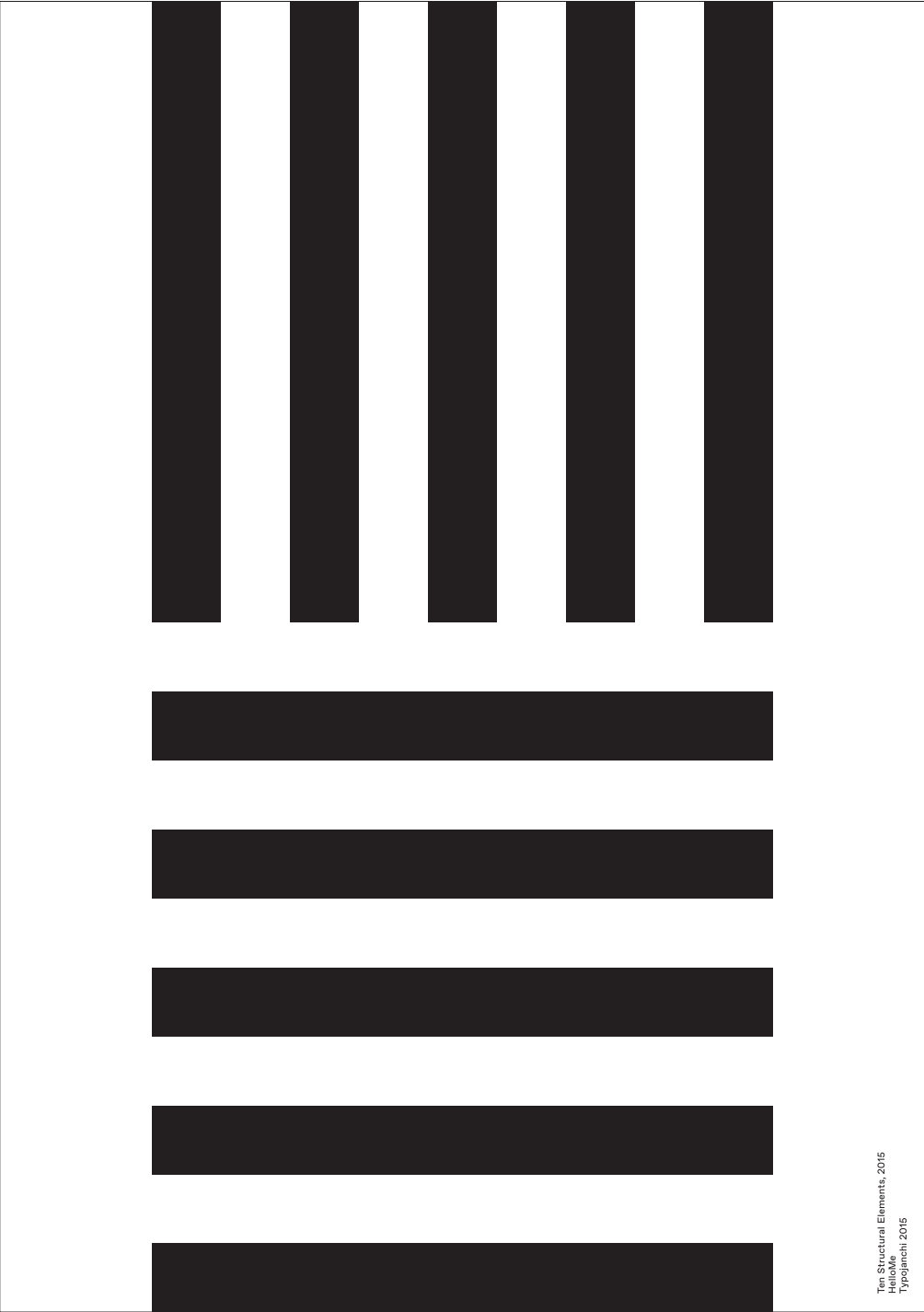
헬로우미(틸 비데크)

독일

HelloMe is headed by Till Wiedeck who founded the studio in 2008. Prior to establishing HelloMe, he worked for several renowned studios including Bureau Mario Lombardo and Fons Hickmann m23. Till Wiedeck has taught at various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Bauhaus Universität Weimar (DE) and ECAL/Ecole cantonale d'art de Lausanne (CH) where he has been a Visiting Professor. HelloMe works in various fields of design and develops big & small solutions for a wide range of media from offline to online.

HelloMe (Till Wiedeck)

Germany



Ten Structural Elements, 2015
HelloMe
Typolanch, 2015

헬로우미는 동일한 간격을 두고 세워진 10개의 검은 벽을 통해 타이포그래피가 지닌 공간적 잠재력을 탐구한다. 벽은 도시를 구조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분할하는 기본 단위임과 동시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재이다. 일정한 공간을 분할하며 엄격한 규칙에 따라 반복 배열된 이 벽들은 건축과 타이포그래피 양쪽 모두에서 따라야 하는 규칙을 암시함과 동시에 디자인의 개념을 상기시킨다. 관람객에게는 삼차원 설치를 평면화한 포스터가 증정된다.

열 개의 구조적 요소

설치 (석고판, 257.5×122×244 cm),
포스터 (오프셋 인쇄, 84.1×59.4 cm),
2015



The installation by HelloMe explores the spatial potentials of typography. Ten black walls of equal width are set at equal distances from each other, dividing the space into empty and filled areas. As walls are both the main structuring and socially dividing elements within a city, the installation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and public spaces and comments on the dense feeling of large cities. The strict repetition of the walls and the alignment of the installation are informed by both architectural and typographic rules which eventually brings it back to the idea of design. Alongside the spatial structure the studio created a bespoke giveaway poster going hand in hand with the installation. It transfers the three dimensional piece back onto a flat surface.

Ten Structural Elements

Installation (drywall, 257.5×122×244cm) and poster (offset printing, 84.1×59.4cm), 2015



중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중국 중앙미술학교 교수.
2004, 2006, 2011년 중국 '올해 최고의
북 디자인'을 포함해 다수의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미지 디자인 팀에
프로젝트 디렉터로 참여해 기본 디자인 요소로서
컬러 시스템과 픽토그램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2009년 베이징에서 열린 이코그라다 총회의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였던 《베이징 타이포그래피 '09》
큐레이터를 맡았다. 2012년 이래 중앙미술학교
디자인학과 산하 스튜디오 5의 디렉터로서 '중국
전통 타이포그래피 재발견'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왕츠위안

중국

Upon graduation with a Master of Design
in 1999, Wang Ziyuan started his career
as a professor at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CAFA). Since 2012 he has been
a director of Studio5 in School of Design.
Wang has received some important design
awards including "Best Book Design of
The Year" of China in 2004, 2006 and 2011.
He joined the Image design team as a core
member and project director for 2008
Beijing Olympic Games. In 2009 when
ICOGRADA Congress was held in Beijing,
Wang curated, "Beijing Typography '09,"
one of the major academic events in
typography in China. With the joint direction
of Guest Prof.ahn sang-soo, Studio5
has started a yearly research project titled,
"Re-discovering Chinese Traditional
Typography" since 2012.

Wang Ziyuan

China





도시의 타이포그래피는 지역 공동체의 역사는 물론 일상적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중국처럼 전통과 근대가 뒤섞인 곳에서 타이포그래피는 그 자체로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회적 지표가 된다. 왕츠위안은 산서성 지방의 작은 마을들을 여행하며 집마다 문에 달린 커튼에 주목한다. 이 커튼은 집에서 쓰고 남은 천 조각을 모아 만든 것으로 다양한 색깔, 모양, 문자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 요소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중국 도시의 사람들이 전통과 현재 사이를 배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리타이포 차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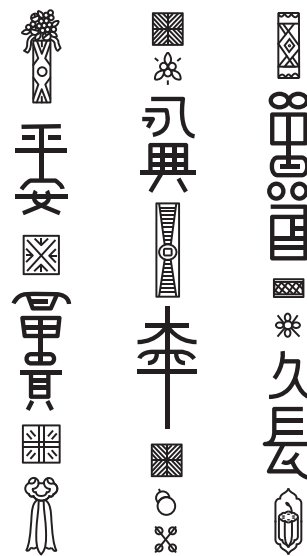
오프셋 인쇄 및 실크스크린, 5점,
각 200×70 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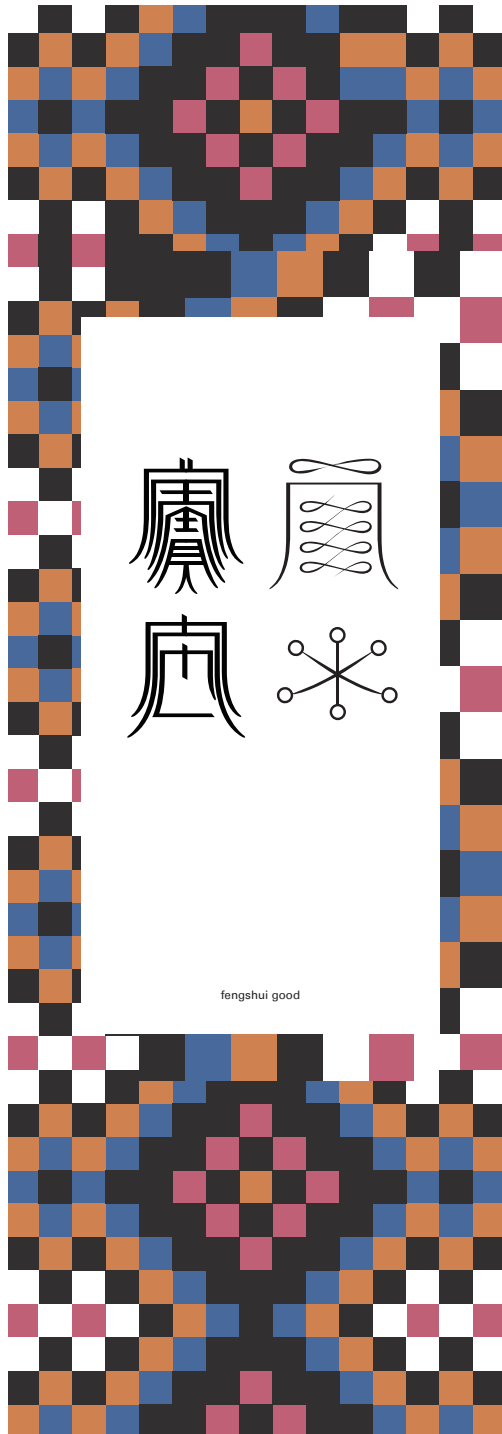
If one is about to read a city, Typography is considered as the interface of it. Words, which are different from books, City typography is connected more closely with local group's daily life and cultural history. Chinese cities might differ from cities in other countries (e.g. South Korea), because of their distinct developmental stages, rich and poor, tradition and modern are layered and mixed at one moment, which allows new possibilities of typography. I have travelled a lot in several remotely small towns of Shanxi province in western China, where I was fascinated by the door curtains that made by local housewives by hand in the form of "baina (百纳)," Ladies used small pieces of remaining cloth at home or collected trimmings to sew together so that they can make kinds of new looking curtains — with modern palette and structures were also implied with words. Thus, these works turned into modern and abstract paintings. And in those small towns, the existence of words in walls, bricks, rooms and living spaces provided us with more imagination for typography. By reconstructing these elements, Chinese typography also indicates that people in Chinese cities will live a new life, wandering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times.

RetypoChina

Offset printing and silkscreen, 5 pieces,
each 200×70 cm, 2015



long life, flourish, peace & safety



가야네 바그다사르얀과 바체슬라프 키릴렌코로 구성된 브라운폭스는 모스크바에 근거를 둔 글꼴 회사이다. 라틴 및 키릴 폰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온 이들의 작업은 타이포그래피 전통에 확고히 뿌리를 두면서도 명백히 동시대적이다. 게르베라, 포물라, 지오메트리아 등 인쇄뿐 아니라 화면에 최적화된 글꼴들을 개발했으며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타이포그래피 컨퍼런스 '세레브로 나보라'를 조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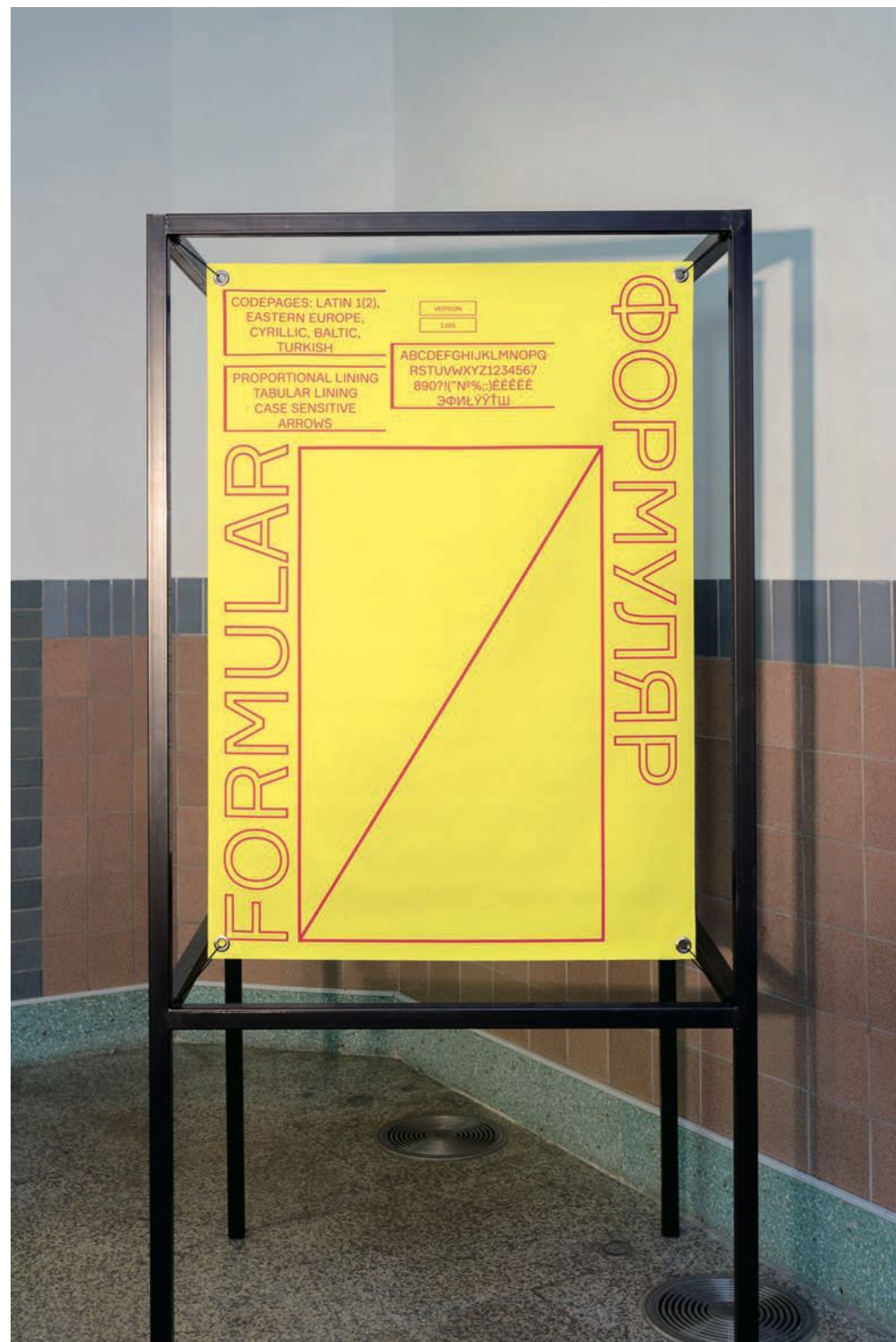
브라운폭스

카자흐스탄

Brownfox is composed of Gayaneh Bagdasaryan, Vyacheslav Kirilenko, independent Moscow-based type foundry. Brownfox offers a fresh perspective on Latin and non-Latin fonts. They have a solid track record with text fonts optimized for on-screen reading, as well as with print fonts. Their work is firmly rooted in the typographic tradition, yet is unmistakably current. They aspire to create fonts of the highest degree of craftsmanship and up to the latest technical standards. Their expertise with Cyrillics has established them as one of the leading companies worldwide to consult on Cyrillic adaptations of Latin fonts. They also consult on technical aspects of type design and offer type design and hinting services to other designers and foundries. Brownfox is the mastermind behind "Serebro Nabora," a prominent annual international type conference held in Russia.

Brownfox

Kazakh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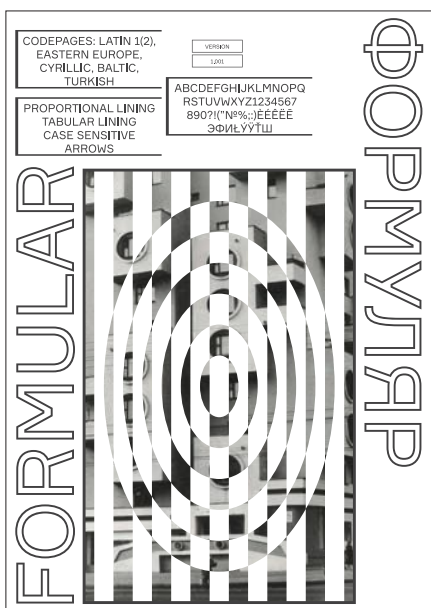




러시아어와 독일어, 그리고 다른 몇몇 언어에서 '포물러(Formular)'는 정보를 채워 넣기 위한 서류의 '빈칸', '견본', '서식'을 뜻한다. 이러한 서식의 그리드는 추가 정보를 끼워 넣거나 그대로 비워놓을 수 있게 유연하고 기능적이어야 한다. 두 개의 포스터는 유사하지만 가운데 상자 부분이 다르다. 하나는 옛 소련의 건축물과 그래픽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하나는 비어 있다. 마치 서식을 작성할 때 정보 없음을 표시하는 것처럼 대각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을 뿐이다. 포스터의 나머지 부분에는 브라운폭스가 만든 글꼴 '포물러'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다.

포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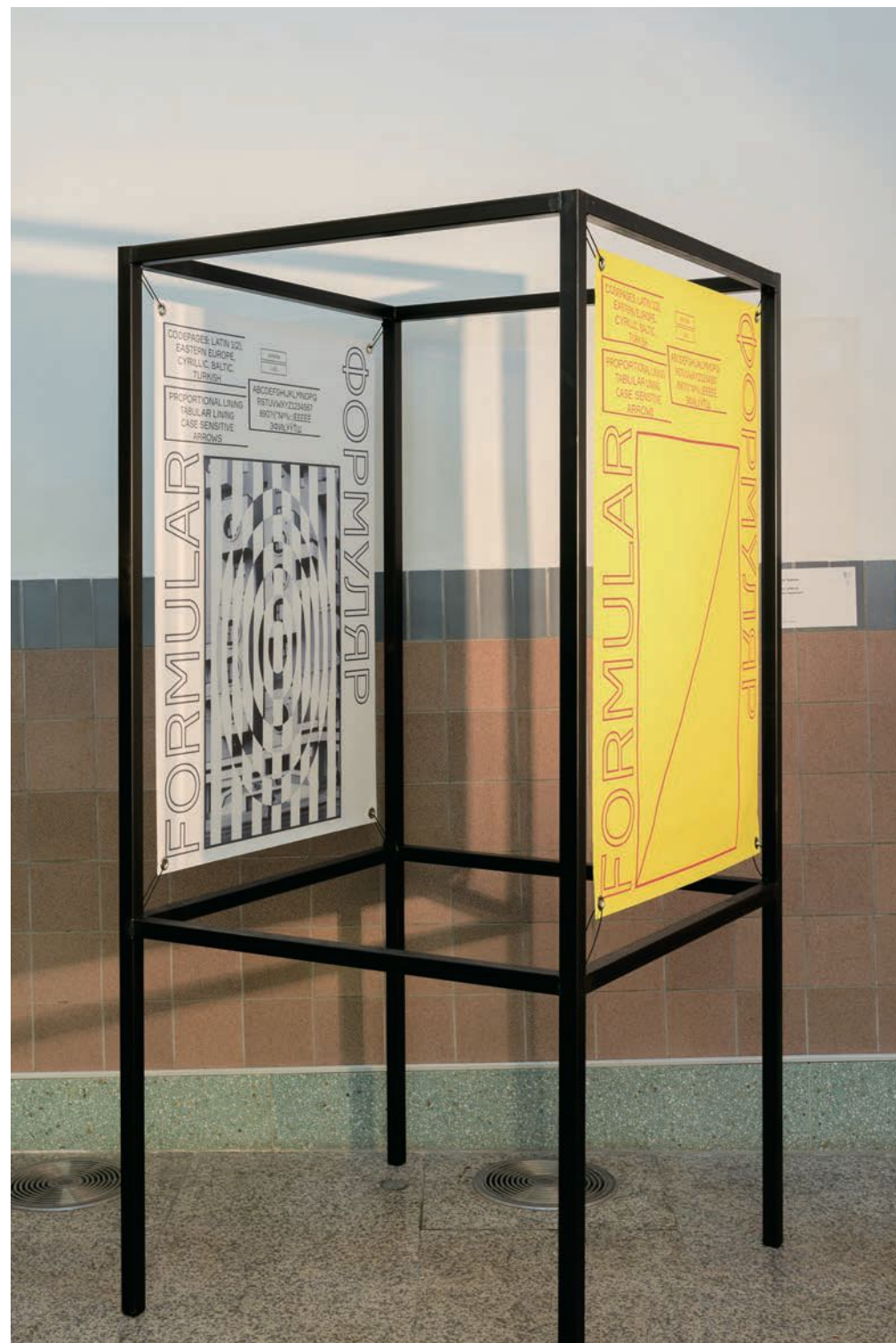
천에 실사 출력, 2점, 각 99×70 cm, 2015



“Formular” in Russian, German and some other languages means “blank,” “template,” “form” for documents to fill in some data. The form’s grid should be flexible and functional. You can add any information into the gaps or simply leave them empty. There are two similar boxes in the centre of the posters: the one is filled with pictures of Soviet architecture and graphics; the box in the second poster is empty, just crossed off by a diagonal line, like you do when you have no requested information. The rest of the space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Formular typeface.

Formular Typeface

Print on fabric, 2 pieces, each 99×70 cm, 2015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스트라스부르 장식예술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자신의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패션, 예술, 음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쇄물
및 글로벌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다.

레슬리 다비드

프랑스

벽과 천정을 장식하며 공간에 생기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석시리는
‘진짜’ 파리 아파트의 상징과도 같다.
콜라주로 구성된 두 개의 포스터에서
석시리는 자체적인 생명력을
뽐내며 새로운 리듬과 패턴을 드러낸다.

석시리 1

오프셋 인쇄, 70×50cm, 2014

석시리 2

오프셋 인쇄, 50×40cm, 2014

French and Paris based designer
Leslie David graduated from Les Arts
Décoratifs of Strasbourg and
launched her own studio in 2009.
She dedicates her work to print and
global branding in many fields such as
fashion, beauty, art and music.

Leslie David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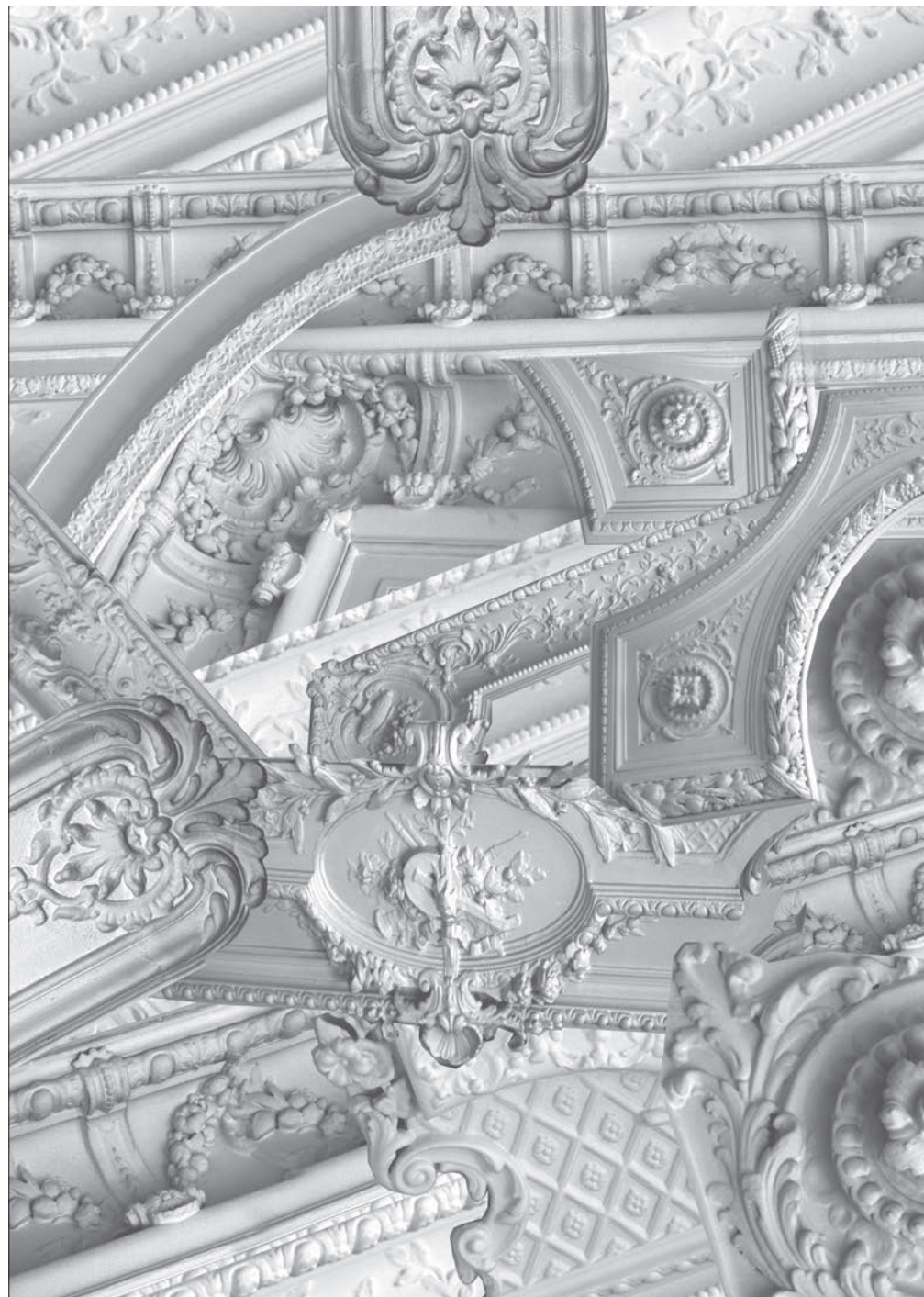
Moulures are a symbol of real
Parisian flats. They bring life
and beauty to walls and ceilings.
The moulure in these artworks
have their own life, they reveal
new rhythms and patterns on the
wa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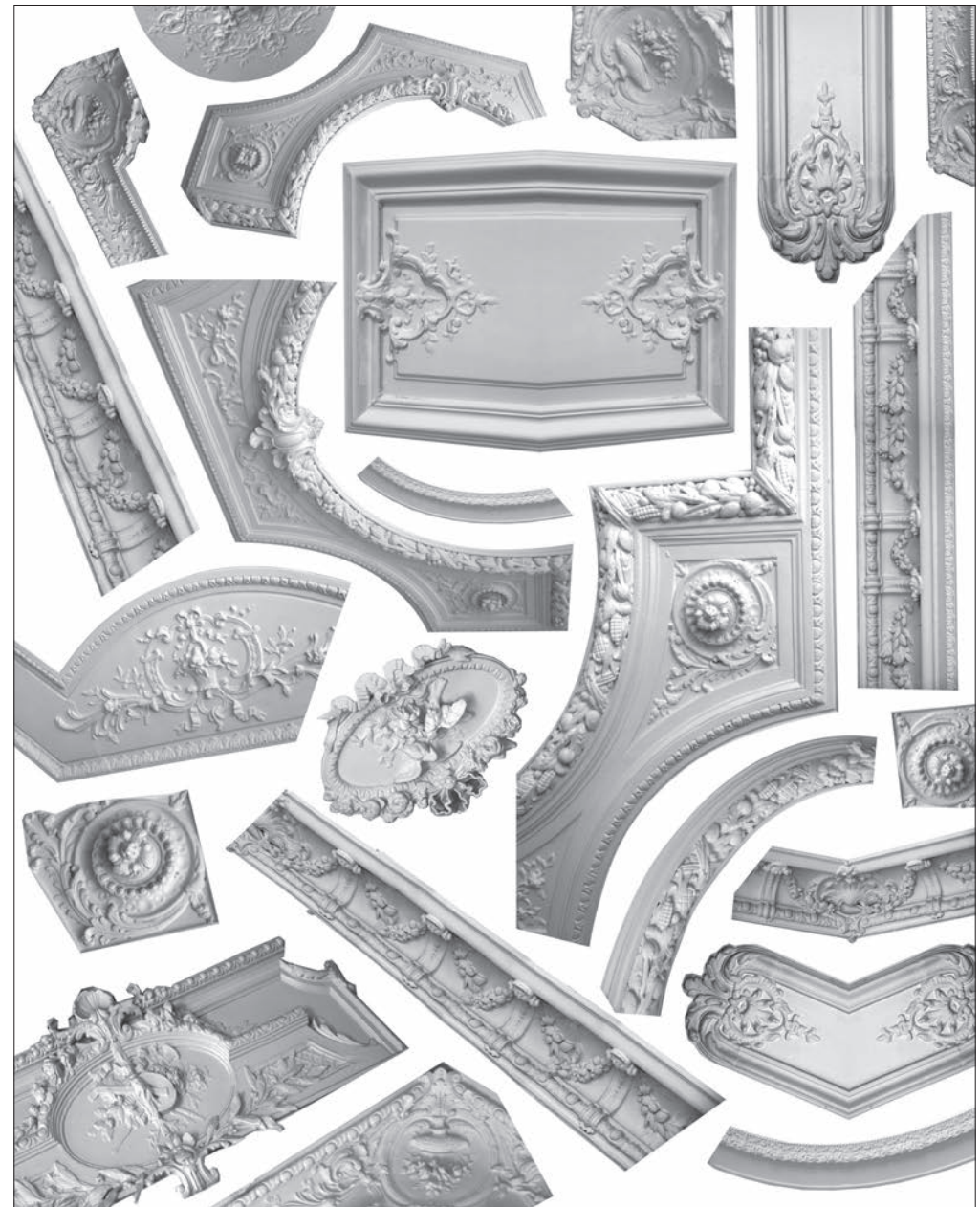
Moulures 1

Offset printing, 70×50cm, 2014

Moulures 2

Offset printing, 50×40cm, 2014





코타 이구치는 교토와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다.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에서 디자인 과학을 공부했으며 2008년에 티모테를, 2012년에 세카이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2014년 영국 D&AD 어워드, 뉴욕 ADC 어워드 등에서 수상했으며, 교토 세카이 대학교와 교토 미술디자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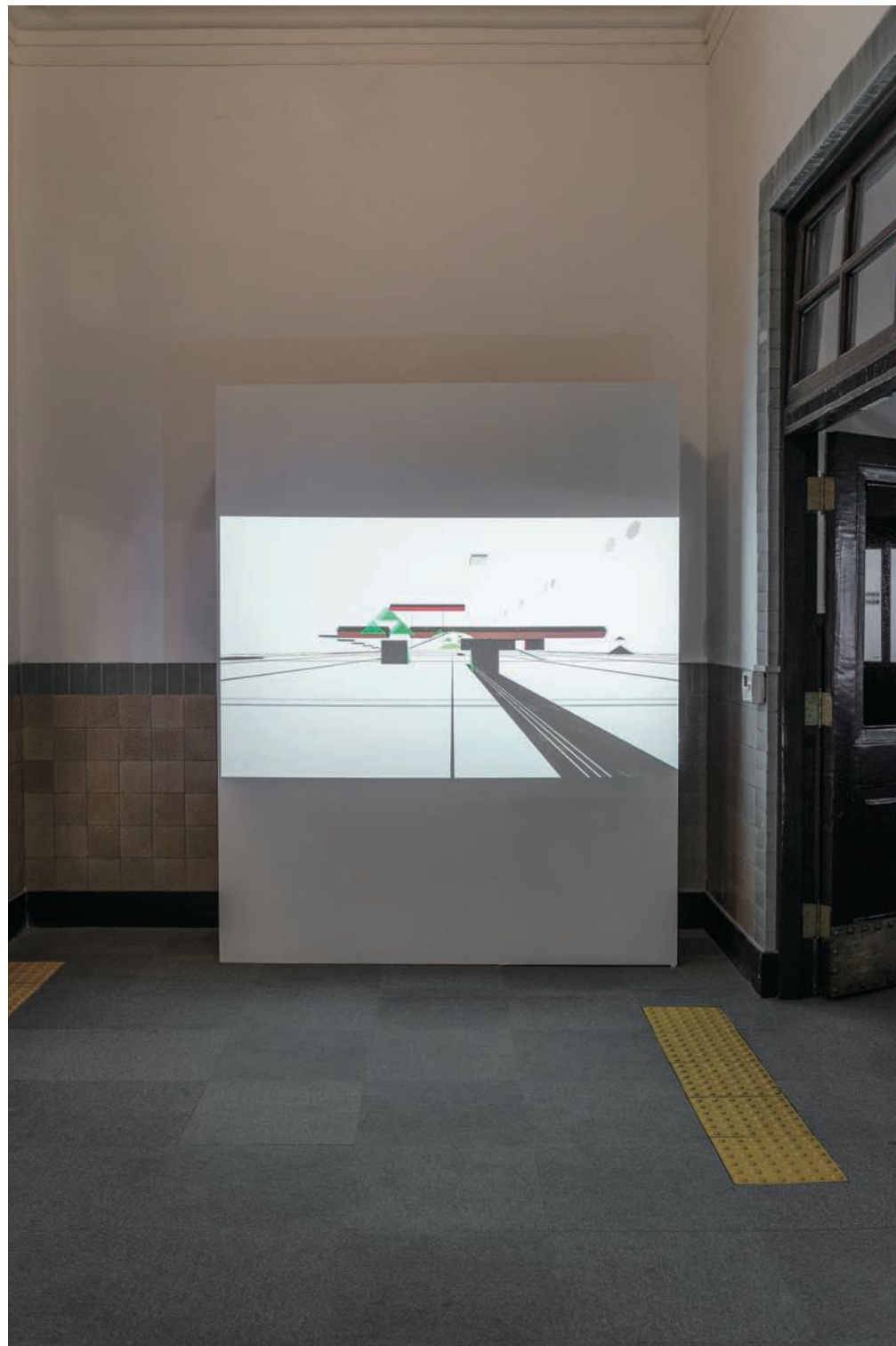
코타 이구치(티모테/세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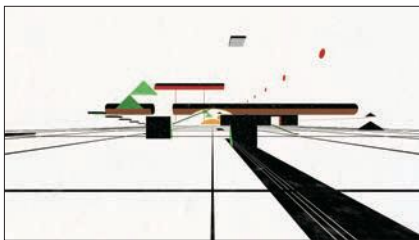
일본

Kota Iguchi is a designer based on Kyoto and Tokyo. He graduated from the Science in Design Department at Musashino Art University. He founded TYMOTE in 2008 and CEKAI in 2012. In 2014, he won a D&AD Award and in 2015 a New York ADC Award. He teaches at Kyoto Seika University and Kyoto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Kota Iguchi (TYMOTE/CEKAI)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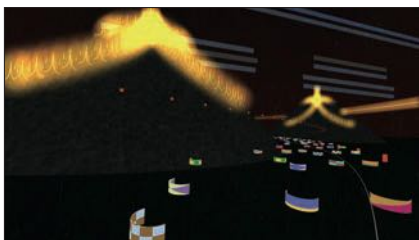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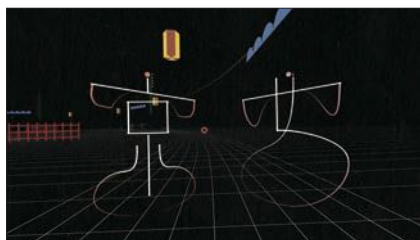




〈간지 도시〉는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중국 문자로 교토 풍경을 보여주는 비디오 작품이다. 나무, 강, 절, 문과 같은 사물을 다양한 한자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형상화하며, 자전거 페달에 따라 이미지가 움직인다.

간지 도시

비디오 설치, 4분, 2012



Kanji City is a video piece that expresses the landscape with Kanji (the logographic Chinese characters that are used in the modern Japanese). The city of Kyoto is shown with various animations of Kanji such as trees, rivers, temples and gates. Push pedals of a bicycle, also move in conjunction with the image.

Kanji city

Video Installation, 4 minutes, 2012



Kanji City
at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ons, Belgium



Kanji City
at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ons, Belg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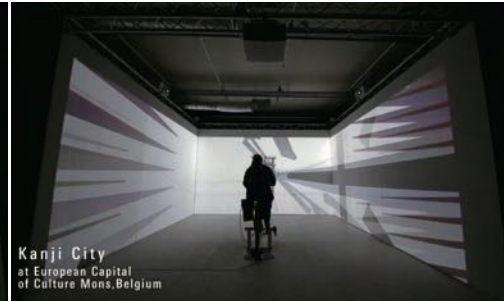
Kanji City
at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ons, Belgium



Kanji City
at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ons, Belgium



Kanji City
at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ons, Belgium



Kanji City
at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ons, Belgium



Kanji City
at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ons, Belgium



Kanji City
at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ons, Belgium



Kanji City
at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ons, Belg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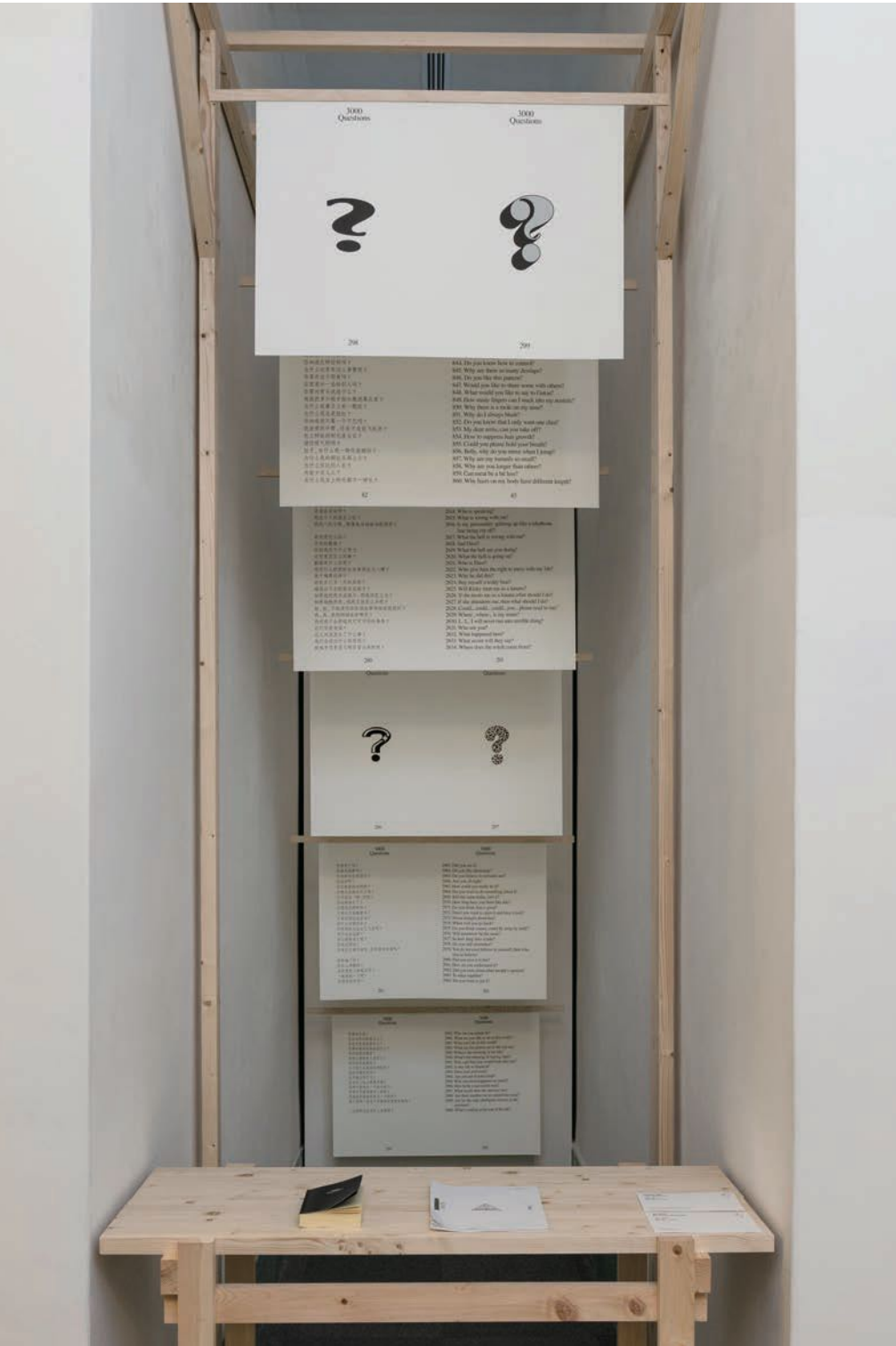
Kanji City
at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ons, Belgium

중국 중앙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 대학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했다. 2008년 펠프스 버던 기념상을 수상하며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현재 베이징에 거주하며 2009 베이징 이코그라다 총회, 그린게이지드 차이나, 중국 중앙미술학원 등에서 디자이너, 연구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그는 동시대 시각 디자인에 대한 비평적 사고와 조직적 리서치를 중심으로 인쇄(2D), 환경 디자인 및 설치(3D), 시간에 근거한 그래픽(4D) 등 다양한 그래픽 매체를 사용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우판
중국

Wu Fan is an independent designer originally from China. He received BFA in graphic design from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of Beijing in 2005, and an MFA in graphic design from Yale University School of Art, U.S. in 2008. He won Phelps Berdan Memorial Prize given for distinction in art while attending Yale, in 2008. As a professional graphic designer, he focuses on critical thinking and methodical research for contemporary visual design and works on cutting-edge projects in virtually graphic media: print (2D), environmental design & installations (3D), time basis graphics (4D). At the same time, he worked as a researcher, designer, and teacher at Icograda World Design Congress in Beijing, Greengaged-China, and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Beijing. He was a Teaching Assistant for first-year graduate core studio at Yale Art School 2007 and was appointed to the faculty at the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CAFA), Beijing In 2009. He is currently lecturer in graphic design at School of Design CAFA.

Wu Fan
China



이 책에는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 여기에 실린 질문들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을 사람을 향해 던져진다는 것뿐이다.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또한 인간의 지식을 이루는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다. 이 책은 비이성적인, 그러나 논리적 언어를 통해 또 하나의 실재를 구축함으로써 인간의 사고가 지닌 경계를 탐구하고 현실의 우리 모습을 묘사하려는 야심을 드러낸다.

3000개의 질문

책, 299쪽, 16.5×11cm, 2011

포스터, 6점, 각 59.4×84.1cm, 2015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82	83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260	261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262	263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292	293

This is a book of questions but without answers. And the only thing about these questions in common is the inquiry of people's situation. Inquiry is a fundamental way whereby man gets to know the world and explore himself. Inquiry itself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human knowledge. This is a book that transcends borders, of ambitious collection and a chattering Utopian realist text, with which we attempt to measure the borders and outlines of human thinking, to depict human conditions in this real world, and to construct a second reality of our world in a text with an irrational yet logical language.

3000 Ques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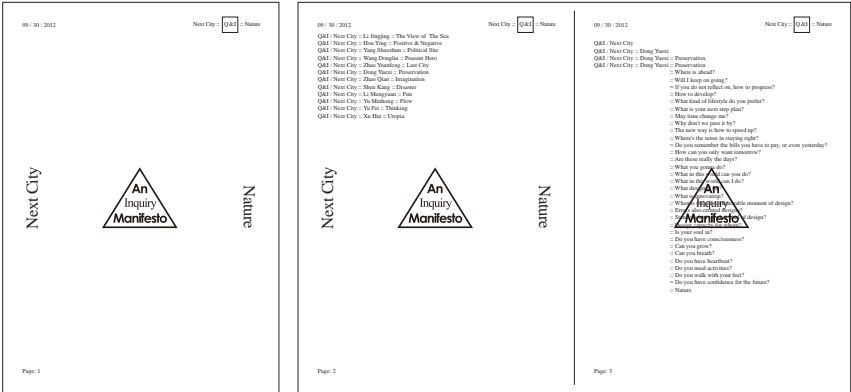
Book, 299pages, 16.5×11cm, 2011
Poster, 6pieces, each 59.4×84.1cm, 2015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298	299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0 Questions
300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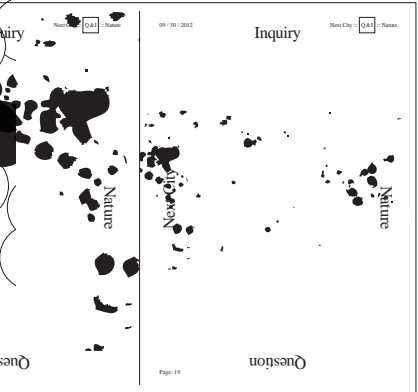
<질의 선언문>은 다학제적 그래픽 디자인 리서치 프로젝트인 '다음 도시 = ? = 자연'의 결과물의 일부이다. 이 선언문은, 그러나 제목과 달리 미래의 도시 생활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질문을 통해 현실 세계가 지닌 복수성, 복잡성, 모순성을 드러내며 동시대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을 이해하고자 한다.

질의 선언문
책, 21쪽, 29.7×21cm, 2012



This Inquiry Manifesto is part of the result of an interdisciplinary graphic design research project, "Next City = ? = Nature." In this Manifesto we did not declare a static idea about future urban life; instead we sought to keep the plurality,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of the answers. We are happy to explore and know this plural world through different Questions, and to see the process of raising questions via the specific method of Inquiry as a push force to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world, a force depicted by the Inquiry Manifesto.

An Inquiry Manifesto
Book, 21 pages, 29.7×21cm, 2012



1972년 출생한 엘로디 부아에는 파리 르아브르에 거주하며 기업 브랜딩과 디자인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파리 소르본 대학교 그랑제콜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작가인 장 세기와 함께 작업한 《아브르의 레터들》은 2013년 유럽 디자인 어워드 북 레이아웃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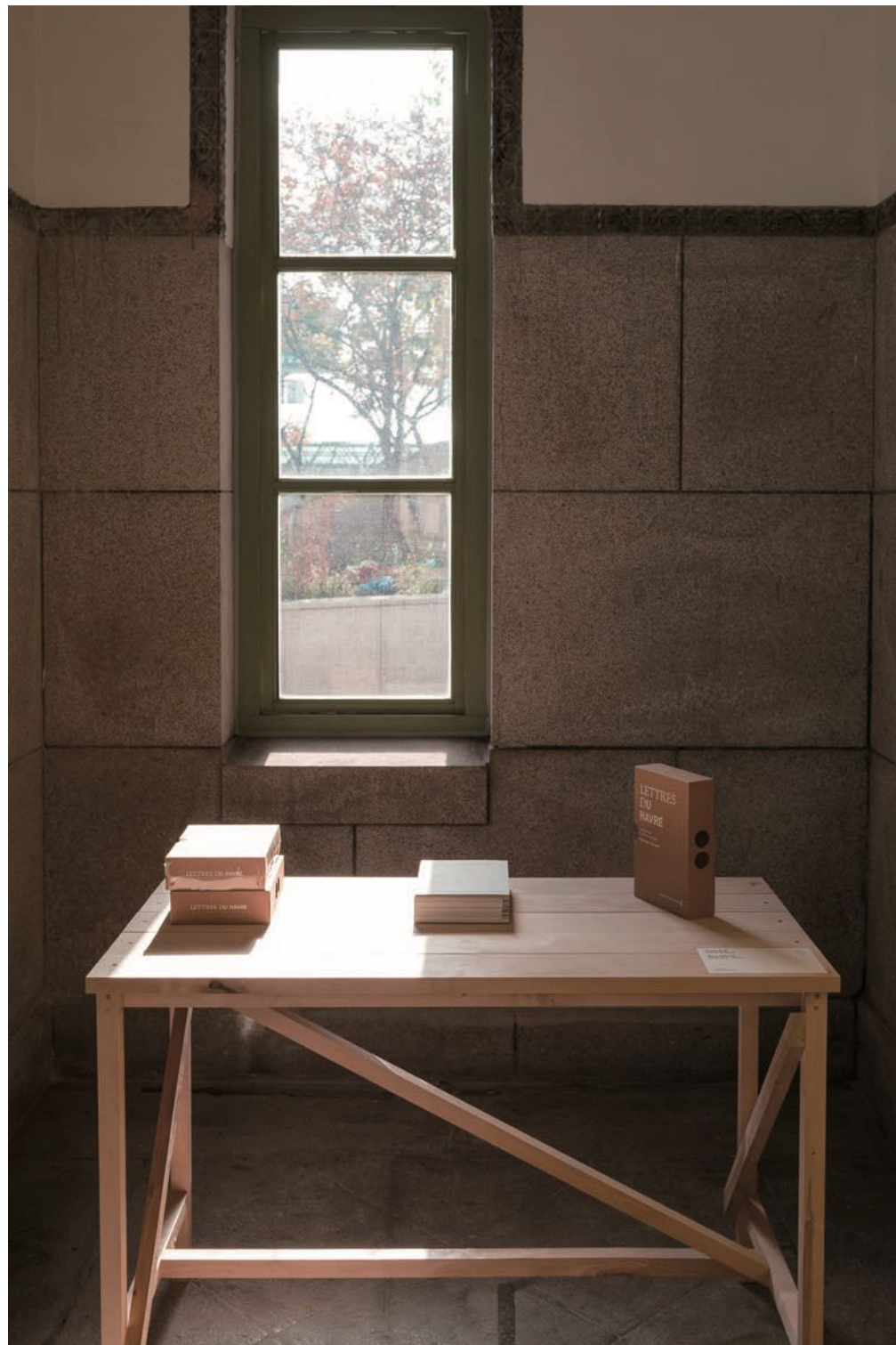
엘로디 부아예

프랑스

Elodie Boyer was born in 1972. She lives in Le Havre and manages her own consultancy in Paris dedicated to corporate branding and design management. She also teaches in Celsa (Paris, Sorbonne). Jean Segui was born in 1956. He is a writer, specialised in portrait and social satire. *Lettres du Havre* is his fifth pub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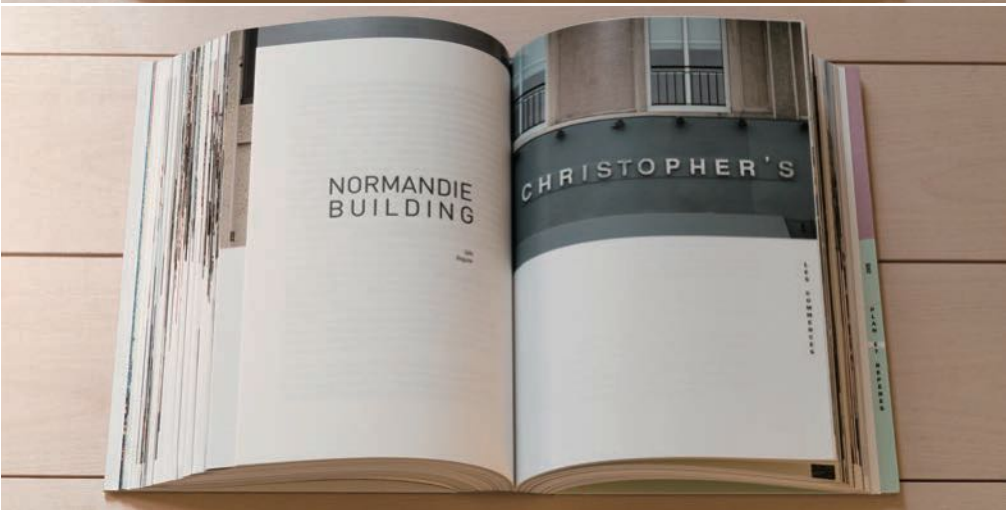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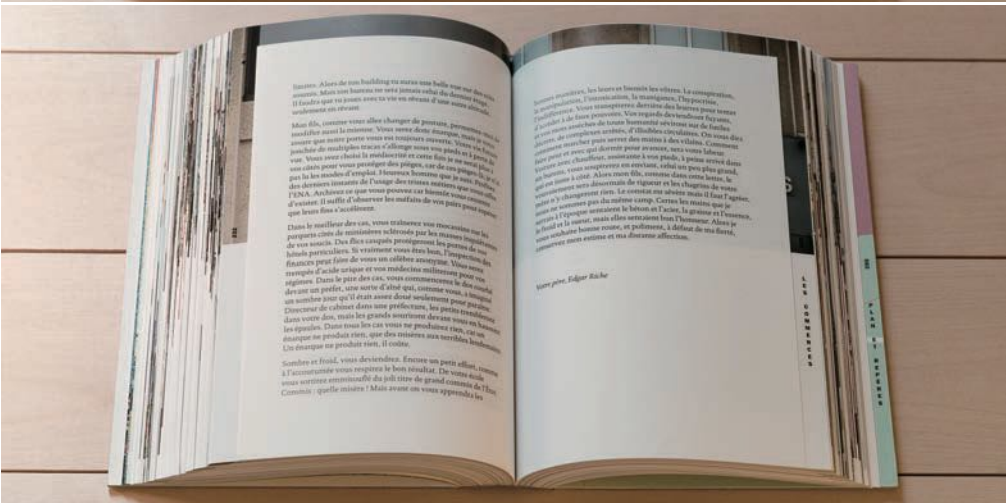
Elodie Boyer

France





Elodie Boyer
France



〈아브르의 레터들〉에서 '레터'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말 그대로 간판이나 로고타입에 쓰인 '글자'라는 뜻을 지니는 한편 연인이나 친지가 보내는, 혹은 직업상, 행정상 보내는 '편지'라는 뜻도 있다. 프랑스의 아브르에 있는 100개의 거리 문자를 담은 이 책은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100통의 편지이기도 한 것이다. 이 편지들은 위기, 선거, 사랑, 증오, 질투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디자인의 진화, 혹은 거리의 그래픽 신호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사회학적 연구임과 동시에 2011~2012년 사이 프랑스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아브르의 모습을 담은 거대한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

아브르의 레터들

책, 804쪽, 24×17cm, 2012

Lettres du Havre book plays on the dual meaning of the word "letters": typefaces, signs, logotypes on the one hand, and fictional letters (love letters, letters to relatives, professional letters, administrative letter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ole of identities in a city, the evolution of brand design and signage, the interactions between social state and graphic signs. As a result, one hundred imaginary letters are inspired by a selection of one hundred photographs of signs located in Le Havre. The signs are organized in five chapters and analyzed accordingly: industry, public service, independent shops, franchise, seaside and temporary signs. The outcome looks like a big picture of Le Havre in 2011–2012 composed by a collection of zooms, both visual and social since the human contemporary issues are all raised in the letters (crisis, election, Europe, eternal family rivalries, love, hate, jealousy, administrative nonsense...). *Lettres du Havre* can also be seen as two books woven into one.

Lettres du Havre is aimed at all kinds of readers: experts interested in evolution of branding and signage, decision makers willing to understand the impact of sig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ignage and architecture, graphic designers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collection of signs or interested in book design, people fond of Le Havre city, readers of letters looking for a good laugh and curious about human nature. *Lettres du Havre* can be seen as an alternative city guide, an archive on Le Havre and the French society today, an essay on brands in the city and city branding, a collection of endangered signs, a tribute to Le Havre.

Lettres du Havre

Book, 804pages, 24×17cm, 2012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한 헤잔느 달 벨루는 2001년 뉴욕으로 건너가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밀턴 글레이저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2006년 네덜란드의 포스트 세인트 요스트 아카데미에서 석사를 마친 후 스튜디오 둠바에서 8년간 디자이너로 일하는 한편, 세인트 요스트 아트 스쿨에서 그래픽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 과목을 가르쳤다. 이후 런던으로 건너온 그녀는 브랜딩 자문 회사로 유명한 울프 올린스에 들어가 최근까지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2014년 자신의 이름 딴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브랜딩 및 시각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워크숍과 강의 활동 또한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헤잔느 달 벨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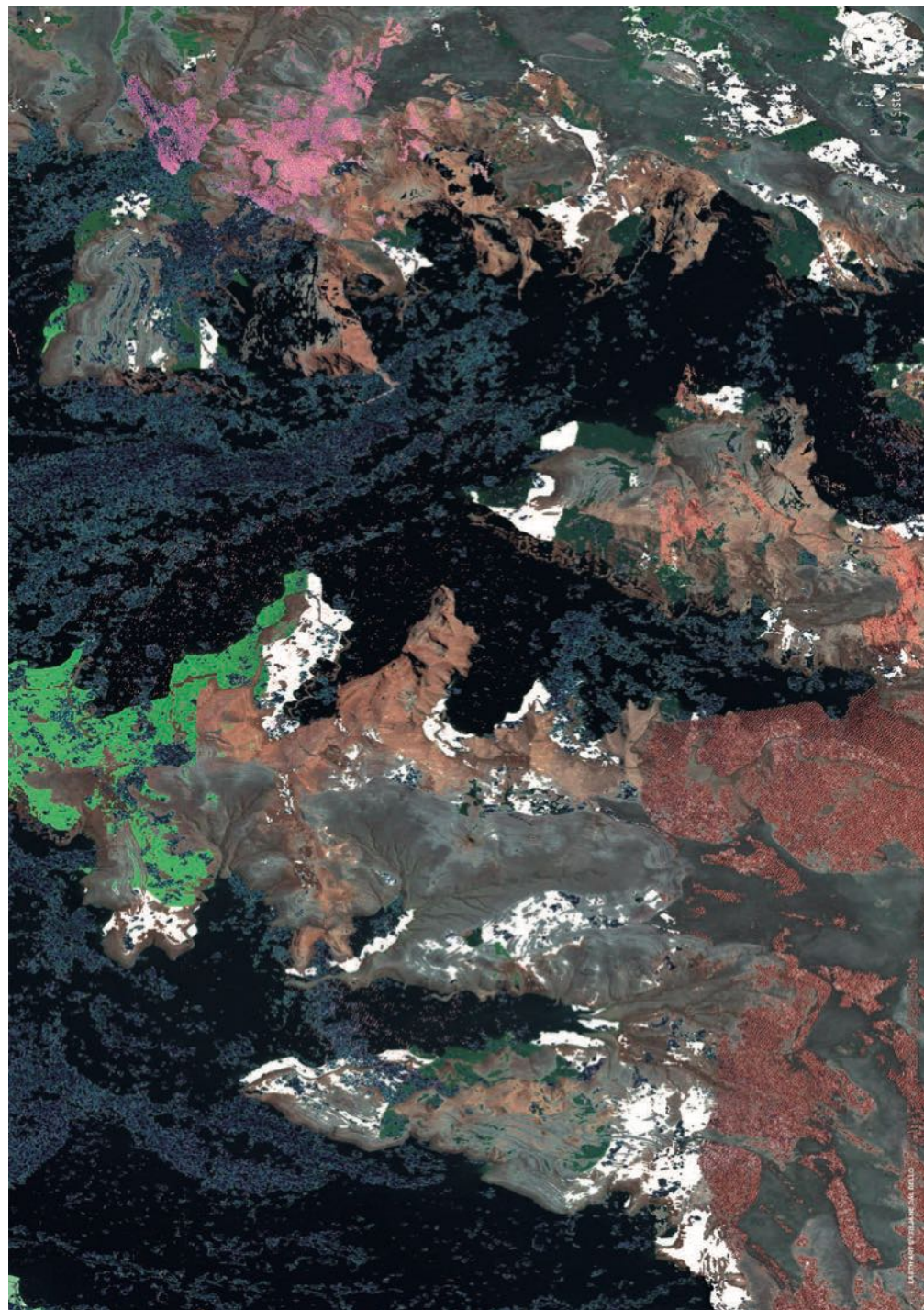
브라질

Rejane Dal Bello is a graphic designer & illustrator based in London. Originally from Rio de Janeiro, she began her career working for renowned branding & design companies in Brazil. After her BA in Graphic Design in Rio de Janeiro, Rejane went on to study under Milton Glaser at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 City. She completed a MA at Post St Joost Academy in The Netherlands in 2006. During her MA, Rejane joined Studio Dumbbar, a graphic design studio that has established a unique position in the Dutch Design scene, where she worked for almost 8 years. Throughout the years Rejane has also been teaching Graphic Design and Creative Process on BA and MA level at St Joost Art school, as well as giving workshops around the world. Rejane recently worked as a Senior Designer at Wolff Olins, a well-known established brand consultancy that specializes in developing brand experiences, creatively-led business strategies, and visual identities.

Rejane Dal Bello

Brazil

Rejane is an award winning designer with a great range of iconic case studies. She has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working for the biggest Alzheimer Foundation in Holland, rebranded the merger of the Insurance Company "Ag2r La Mondiale" in France, rebranded the City of Delft in Holland, worked on the new brand for the Dutch Government, 2 years Poster series for the contemporary Amsterdam Symphony in Holland, Children's Hospital visual identity and signage system in Peru, Illustration for the most prestigious design magazine in Holland "Items," celebratory brand identity for 50 years of Brasilia in Brazil and so forth. Rejane is regularly featured in international publications as well as giving workshops and lectures around the world.



위성사진을 통해 본 지구는
구체성을 상실한 추상적 형태로 보인다.
보는 관점에 따라 화가의 붓이
탄생시킨 그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치 비현실적인 공간처럼, 세상 자체가
거대한 예술 작품인 듯 말이다.
이 포스터 연작은 구글어스로 본 지구의
모습을 회화 작품처럼 변형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산다.

대지 미술

포스터, 4점, 각 84.1×59.4 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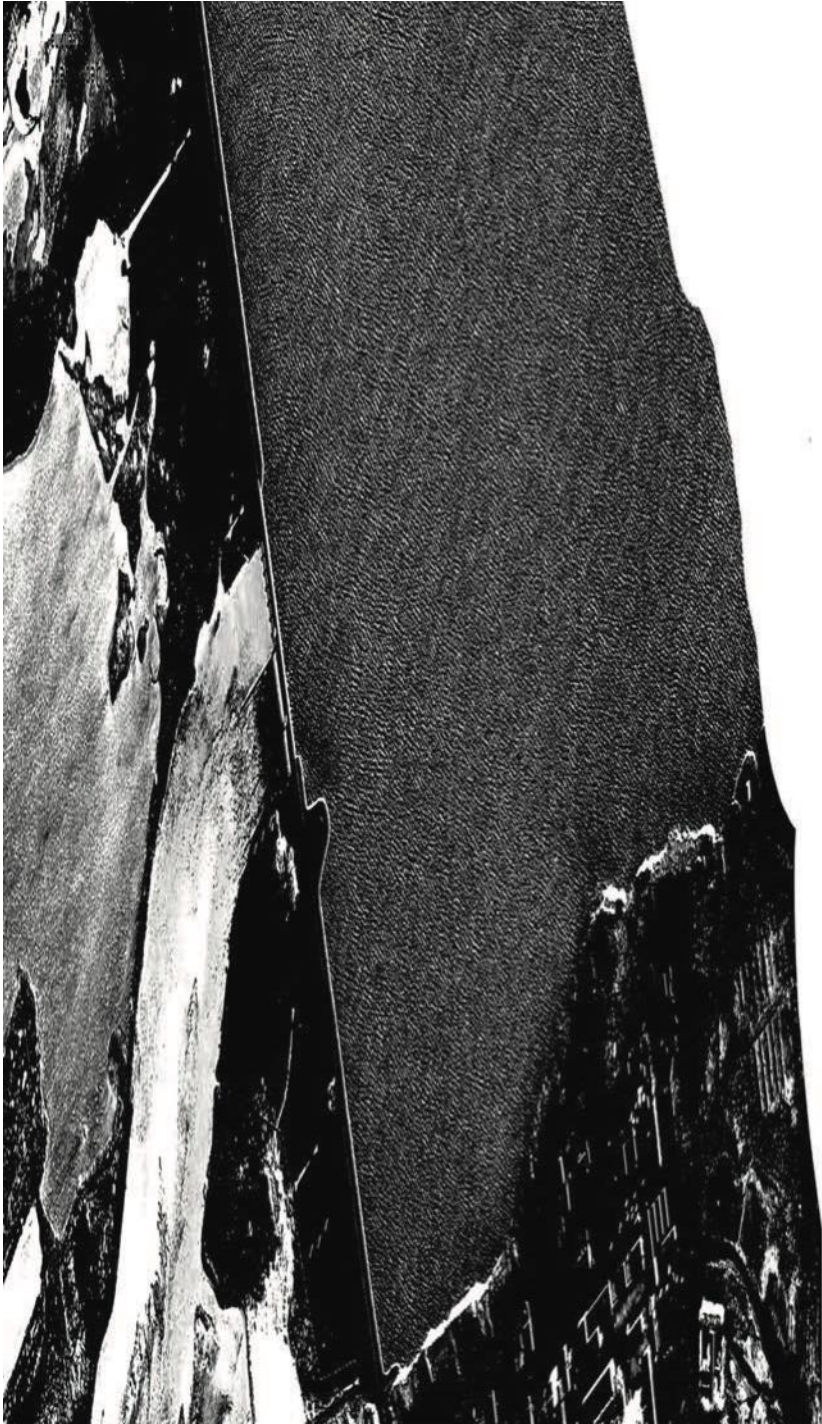


Life is in constant change and we cannot control it, but it seems we can definitely destroy it. Google maps preserves the image of the earth by cherishing it and documenting its beauty. It is grandiose for us to navigate and learn more about our home we live in. The satellite images makes the earth an abstract form, ready for you to interpret and give a new meaning to rivers, which from a certain distance becomes a paintbrush of a painter, the landscape becomes a surreal place as if the world is pure a work of art. The *Earth Art* project takes the world and makes it immortal, respectful like a pure piece of art in a gallery. We are forgetting how holy is the place we live in and how important is to be aware of it. I hope from this work that the common tool of looking at our planet via Google earth becomes again something special — a state of art.

EarthArt

Posters, 4pieces,
each 84.1×59.4cm, 2015





Rejane Dal Bello
Brazil

서울대학교에서 조소 및 영상 매체 예술을 공부하고 2015년 동 대학 조소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3년 일현미술관에서 진행한 《일현 트래블 그랜트 2014》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에는 서울대학교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한 '아트유니온' 멘토링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평소 익숙한 시각 자료를 작업의 소재로 삼아 본인의 관점으로 재현하는 일을 한다. 현재 군포시 인근에 작업실을 두고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

이지성

한국

〈남산타운 아파트〉는 아파트 외관을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지 생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물을 재현한 입체 작업이라는 설정 외에 거대한 캔버스를 염두에 둔 그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파트 벽면에서 동수를 알리는 거대한 숫자 '10'이 코앞에 놓이는 경험은 페인트공이 아니고서야 흔치 않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인조 콘크리트 벽면을 통해 무심하게 바라보던 대상 혹은 일상을 환기해, 그동안 '본다'고만 여겼던 대상에 관해 조금 더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남산타운 아파트

스티로폼, 퍼티, 페인트, 270×510×11cm, 2014

Yi Jisung graduated with a MF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focus on sculpture and visual media in 2015. In 2014, he participated in the group exhibition, Ilhyun Travel Grant 2014 at Ilhyun Museum. In 2015, he was selected as an ART-UNI-ON Mentoring Program beneficiary organiz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yundai Motors. He is known for choosing familiar visual materials as the subject of his work, reproducing it with his own view, out of his studio near Gunpo, Korea.

Yi Jisung

Korea

Namsan Town Apartment looks like it is taking the apartment's exterior appearance directly but it's still strange. Because, it is not just a reproductive sculpture but a gigantic painting at heart. Moreover, facing the big apartment building number "10" on the wall is uncommon. With this artificial concrete wall, the artist expects, the audience to refresh their routine eyes and have a chance to "know" more than just "see" the daily objects.

Namsantown Apartment

Styrofoam, putty and paint, 270×510×11cm, 2014





SIX THE URBAN

참여 작가
로라 주앙
서머 스튜디오 (민나 사카리아, 캐롤리나 달)
서베스천 코세다
앤드루 브래시
외르크 슈베르트페거
요나스 베르토티
심규하

Participants
Andrew Brash
Jonas Berthod
Jörg Schwertfeger
Laura Jouan
Sebastian Koseda
Summer Studio (Minna Sakaria & Carolina Dahl)
Shim Kyuha

IMAGES,

SIX TYPOGRAPHIC

TEXTS,

특별 전시 디렉터
에이드리언 쇼너시

큐레이터
안병학

Special Exhibition Director
Adrian Shaughnessy

Curators
Ahn Byunghak

ONE APOTHEOSIS

REMIX

여섯 이미지, 여섯 텍스트, 한 개의 재구성: 도시 타이포그래피의 절정

에이드리언 쇼너시

타이포그래피와 도시 환경의 스펙터클을 탐험하는 2015 타이포잔치의 정신에 따라, 나는 여섯 명의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특정한 도시 공간에 대한 각자의 반응을 거대한 배너로 제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디자이너에게는 여섯 도시 중 한 도시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구글 지도의 링크만 주어진 것 뿐, 작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방향에 대한 지침도 없었다. 단지 타이포그래피와 색, 형태를 활용하여 분절된 도시 지리학적 파편에 반응해 달라고 초대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작가 심규하를 초대해 이들 여섯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 단어, 색, 형태, 그리고 전시를 위해 기획한 책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생성된 디지털 설치 작업을 의뢰했다.

도시 공간을 그리고 설명하는 데 있어 타이포그래피는 당연히 필요한 요소이다. 영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에드워드 라이트(1921–1988)가 ‘도시 글자(urban writing)’라고 불렀던 것은 인간이 처음 건설된 환경 속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이래 마을과 도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왔다. 오늘날 상업적 및 시민적 영역 모두에서 타이포그래피와 타이폴로지(typology), 즉 유형학(類型學)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도록 긴밀하게 뒤얽혀 있다.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는 도시 타이포그래피의 절정에 서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 라이트는 세 가지 형태의 도시 ‘글자’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는 건물에 글자를 새기거나 찍어낸 ‘조각적’ 형태, 둘째는 표면 위에 그리거나 칠한 ‘캘리그래피적’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구조물로부터 자유롭게 매달리듯 나타나는 독립적인 ‘구조적’ 형태가 그것이다.

It is appropriate that typography should be used to map urban environments. What the British graphic designer Edward Wright (1912–1988) called “urban writing”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towns and cities since human beings first congregated in built environments. And today typography and typology are now so firmly intertwined in a commercial and civic embrace that they are inseparable. Today we have reached a sort of urban typographic apotheosis.

Edward Wright noted that there were three kinds of urban “writing”: glyptic (letters incised into buildings or moulded from them); calligraphic (letters drawn or painted onto surfaces) and tectonic (letters independent of structural support, appearing as if suspended and free from any architectural attachment).

전설적인 책, 《라스베이거스의 교훈》 개정판에서 로버트 벤투리, 데니즈 스콧 브라운, 스티븐 이제노어는 ‘구조적’ 형태와 관련하여 중동의 전통적인 시장에 간판이 없는 이유는 근접성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흥겹게 지적한다. “사람들은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물건 냄새를 맡거나 직접 느끼고, 상인들은 소리쳐 구매자를 설득한다.”

그러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이 광대한 사막 도시의 거주민과 방문객들은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도시를 여행한다. 저자들은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립’에서처럼, 자동차가 지배하는 환경 하에서 구조적 간판과 빌보드에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그들은 ‘스트립’의 거대한 간판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슈퍼마켓의 위치를 알리는지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고속도로를 향해 세워진 채 케이크 재료와 세정제를 홍보하는 거대한 간판들. 이 그래픽 사인들은 [이미] 풍경의 일부를 이루는 하나의 건축물이 되었다.”

In the revised edition of their legendary text *Learning from Las Vegas*, Robert Venturi, Denise Scott Brown and Steven Izenour exult in the “tectonic”: they point out that in the Middle Eastern bazaar there are no signs, and communication works through proximity: “Along its narrow aisles, buyers feel and smell the merchandise, and the merchant applies explicit oral persuasion.”

Not so in Las Vegas, where the desert city’s inhabitants and visitors travel in their cars along vast thoroughfares, the most famous of which is the “The Strip.” In this automobile-dominated environment, the authors note the importance of tectonic signage and billboards. They observe how, on the commercial part of The Strip, giant signs alert drivers to the whereabouts of supermarkets, and how “the cake mixes and detergents are advertised by their national manufacturers on enormous billboards inflected toward the highway. The graphic sign in space has become the architecture of this landscape.”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타이포그래피는 어떤 도시 환경도 즉각적으로 해독 가능한 코드를 제공한다. 마치 관상학자가 얼굴을 보듯 도시가 품은 긴장, 집착, 심리를 읽어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여섯 명의 디자이너가 배너를 통해 드러내려는 것 역시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표명이다. 이들이 구글 지도라는 새로운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상의 세계를 여행하며 만들어낸 현실 속 도시의 단면들은 관람객에게 여섯 도시 중 한 지점에 대한 ‘시적 종류물’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시적 종류물’에 대한 대위로서, 나는 이들 도시에 대한 나 자신의 경험에 담긴 여섯 개의 글을 더했다. 이 글들은 도쿄, 시카고, 멕시코시티,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런던을 실제로 방문하며 겪은 경험에 기반한 변형된 회고라 할 수 있다. 심규하의 디지털 설치 작업에서, 배너와 글들은 서로 화학적으로 반응하고 뒤섞여 새로운 현실로 탈바꿈할 것이다. (번역: 안병학)

Six Images, Six Texts, One Remix: The Urban Typographic Apotheosis

Adrian Shaughnessy

In the spirit of *Typojanchi 2015* — an exploration into the spectacle of typography and the urban environment — I commissioned six graphic designers to each create a giant floor-to-ceiling banner documenting their individual responses to a specific urban location. Using Google Maps, I gave each designer a link to a location in one of six cities. There was no brief. No instructions. Merely the invitation to respond to a fragment of urban geography using typography, colour and form.

I also invited digital artist Shim Kyuha to create a generative digital installation constructed from all the elements — typography, images, words, colours and forms — that went into the making of the banners and the book.

For the graphic designer, typography offers an instantly readable code to any urban environment. The tensions, preoccupations and psychology of a city can be read as a phrenologist reads bumps on a person’s head. It is the invisible made visible. And it is this manifesting of the invisible that the designers of the six banners have sought to reveal. Aided by new technology and smart software — in this case Google Maps — they have travelled the globe “virtually” and created slices of urban reality, each offering a poetic distillation of a location in one of six metropolises.

To counterpoint these “poetic distillations,” I have composed six texts that reflect my own experiences of the cities in question. My reflections are based on non-virtual visits to these metropolises: they are recollections of the transformative experience of visiting Tokyo, Chicago, Mexico City, New York and Los Angeles — and London, the city I live in. In Shim Kyuha’s digital installation, banners and texts are alchemically transmogrified into a new, remixed reality.

글꼴 디자인:
네빌 브로디, 버팔로 브릿지 2



Typeface by
Neville Brody, *Buffalo Bridge 2*
(not yet released)



런던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 2014년 영국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했다. 그래픽 매체의 물성에 질문을 던지며 공간의 탈/재구성에 관심을 갖는다. 종종 자신의 작업을 인쇄된 정보가 아닌 사물로 간주한다.

로라 주앙

프랑스

L. 로스앤젤레스

배너, 350×150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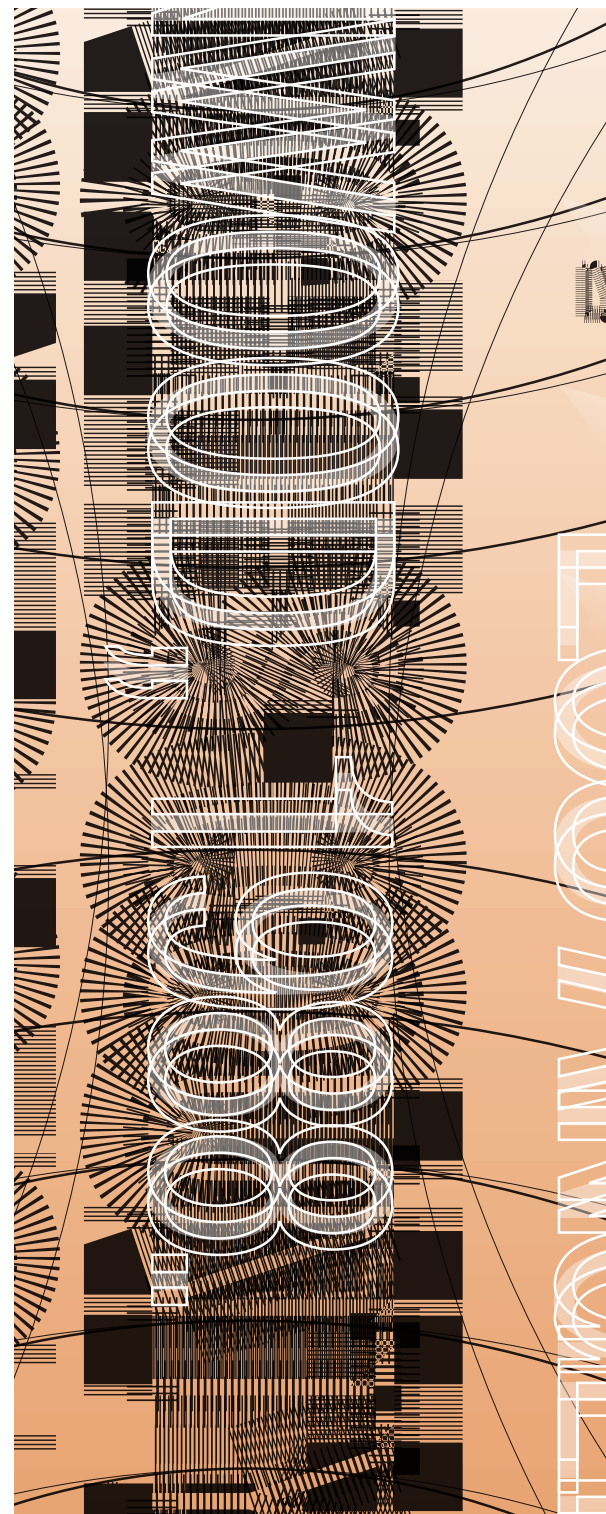
Laura Jouan is a French graphic designer based in London. She graduated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with an MA in Visual Communication. Her practice is defined by her interest of “de-composing/re-composing” the surroundings but also by questioning the physicality of our (graphic) mediums. She often looks at her productions as if they were objects rather than printed information.

Laura Jouan

France

L. Los Angeles

Banner, 350×150cm, 2015



로스앤젤레스
익숙함이 주는 충격

에이드리언 쇼너시

로스앤젤레스를 찾은 사람은 곧바로 낯익은 느낌에 충격을 받는다. 모든 것을 불안할 정도로 즉시 알아볼 수 있다. 직선의 저층 건물들, 덩굴처럼 뻗어나간 고속도로, 두통이 날 것 같은 한밤의 조명, 끊임없이 무언가를 강매하는 타이포그래피, 일렁이는 바다가 있고, 무엇보다도 반투명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비친다.

새로 온 방문객은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곳으로 되돌아온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매스미디어와 할리우드, 그리고 LA의 오락 산업이 우리 신경계에 주입한 가짜 기억이다. 미국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합성 기억. 영화와 TV 오락을 소비하는 현대인이라면 불가피하게 LA를 지형학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에 이곳에 온 적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사실은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이와 다르다. 그 도시의 지극히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그 이유는 건축 비평가 레이너 배넬이 말했듯 “로스앤젤레스의 디자인, 건축, 도시성은 움직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LA는 아무도 걸어 다니지 않는 도시이자, 광활한 메갈로폴리스의 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만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정작 도시 자체는 도시의 정맥과 동맥인 고속도로와 대로를 달리며 차창을 통해 스치듯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부분적 으로만 이해된다.

걷는 것이 일상적인 런던이나 파리와 달리, 로스앤젤레스는 보행자만이 가능한 한가로운 사색을 허용하지 않는다. LA는 미지의 것들로 구성된 오토겟돈 (autogeddon)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배넬의 반응은 이동성을 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단테를 읽기 위해 이탈리아어를 독학했던 이전 세대의 영국 지식인과 같이, 나는 로스앤젤레스를 원본대로 읽기 위해 운전을 배웠다.”

로스앤젤레스를 탁월하게 기록한 또 다른 사람은 마이크 데이비스다. LA의 역사를 담은 책 《수정의 도시(City of Quartz)》에서, 그는 로스앤젤레스 시의 양극성을 “햇살 아니면 누아르”라고 정의한다. 바로 이 이중성 때문에 종종 이 도시가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로 언급된다. 어떤 사람들(부자)에게 LA는 건강한 생활과 부유함이 넘치는 완벽한 도시 모델이다. 또 다른 사람들(가난한 이)에게 LA는 햇볕에 그을린 배척의 영토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갑부들이 사는 구역의 문 밖에 영원히 격리되는 곳, 신중하게 반응하는 보안등과 머리 위를 왕왕거리며 도는 경찰과 방송사 헬리콥터들에 가로막혀 가난한 이들은 법집행이 못하는 땅.

메트로폴리스의 이중적인 본질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눈길 닿는 곳 어디에나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구상 어느 곳보다 일인당 수영장이 가장 많은 사막 도시다. 그곳은 반(反)지성주의와 속물근성으로 유명하지만 토마스 만, 아돌프 헨베르크,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와 레이먼드 채들러가 정착했던 도시이기도 하다. 스테로이드로 충만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사카린처럼 달콤한 디즈니 영화와, 따스하게 감각을 마비시키는 소프트 록 음악이 있는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스 앵거, 에드 루샤, 찰스 부코스키, 토머스 핀천, 톰 웨이츠와 NWA가 LA의 초상을 그려냈다.

방문객들이 이러한 이중성과, 역설, 모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개인의 취향 문제다. 내 경우 첫 방문에서는 우선 거부감이 들었고 뒤이어 갑작스럽게 열병처럼 이 도시에 매혹되었다. 결국 나는 LA가 돈과 권력과 젊음을 미화하는 데 전념하는 합성된 메갈로폴리스라는 관점에 순응하기로 했다. 그 대신, 나는 —영화에 대한 애정 덕분에 알게 된— 불가사의하게 낯익은 영토를 발견했다. 그곳에 가득한 팝 문화의 토템들은 내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Los Angeles
The Shock of the Familiar

Adrian Shaughnessy

The visitor to Los Angeles is immediately confronted with the shock of the familiar. Everything is instantly and unsettlingly recognizable: the rectilinear low-rise architecture; the floating tendril-like freeways; the migraine-coloured nocturnal street lighting; the relentlessly huckstering typography; the shimmering ocean, and, above all, the translucent Californian sunlight.

It is as if the new visitor is returning to a known landscape. Yet for first-timers it is a false memory: a mass-media implant, pressure-hosed into our central nervous systems by Hollywood and the LA industrial entertainment complex. It is a synthetic memory shared by everyone who watches American movies or TV shows. For the contemporary consumer of screen entertainment, it is hard not to acquire a topographical awareness of LA: it is hard not to believe you’ve been here before.

The reality is head-spinningly different. It is only possible to know fragments of the city, and the reason for this is, as the architecture critic Reyner Banham noted, that “the language of design,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Los Angeles is the language of movement.” LA is famously a city where no one walks, and where public transport is only for the poor who live on the fringes of the world’s most expansive metropolis. The city can only be glimpsed fleetingly through car windows travelling on the freeways and boulevards that are the arteries and veins of the city, and can therefore only ever be partially understood.

Unlike London or Paris, where walking is habitual, Los Angeles does not allow the slow contemplation of the city that is only possible as a pedestrian. LA is an autogeddon of unknowingness. Banham’s response to this phenomenon was to embrace mobility. He wrote: “Like earlier generations of English intellectuals, who taught themselves Italian in order to read Dante in the original, I learned to drive in order to read Los Angeles in the original.”

Another great chronicler of Los Angeles is the writer Mike Davis. In his masterly history of the city (*City of Quartz*), he defines the polarities of life in the City of Angels as either “sunshine or noir.” This duality is why the city is often referred to as both utopia and dystopia. For some (the rich), LA is a model of urban perfection — healthy living and wealth in abundance; for others (the poor) it is a sunbaked terrain of exclusion, where the underprivileged are permanently locked outside the gated enclaves of the super-rich, warded off by the rapid-response security signs and the overhead gnat-buzz of police and newsgathering helicopters.

The dualistic nature of the metropolis is found not only in the haves and the have-nots. It’s everywhere you look. Los Angeles is a desert city with more swimming pools per capita than anywhere else on earth; it’s a city famed for its anti-intellectualism and philistinism, yet is also a city that sucked into its maw Thomas Mann, Arnold Schoenberg, Igor Stravinsky and Raymond Chandler; it’s a city of steroid-boosted Hollywood blockbusters, the saccharine cinematic confectionery of Disney, and the numbing warm bath of soft rock. Yet it’s also the city that claims Kenneth Anger, Ed Ruscha, Charles Bukowski, Thomas Pynchon, John Fante, Tom Waits and NWA as its biographers.

How the visitor deals with these and countless other dualities, paradoxes and contradictions is a matter of personal taste. My own first visit was characterized by initial resistance, superseded by sudden infatuation. I arrived determined to conform to the view that LA was a synthetic megalopolis dedicated to the beatification of money, power and youth. Instead, I discovered an eerily familiar terrain — known to me through my love of cinema — saturated with enough pop culture totems to make me feel at ease with my surroundings.

할리우드 표지판에 깃든 여행자의 기호학
이면을 보기는 어렵지 않다. 성형수술
광고, 백만장자 치과의사의 당당한
광고, 유명한 카다시안 집안의 왕족 같은
화려함, 그리고 (또 다시 배님의
표현대로) “인스턴트 건축”을 보면
또 다른 LA를 발견하게 된다. 좀 더 의미
있는 LA를 찾으려는 문화적인 열성분자는
멀리 볼 것 없이 와츠 타워, 센트럴
애비뉴의 재즈 역사, 차이나타운의 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 세트장과 연결된
수많은 경로를 보면 된다. 또한
로스앤젤레스는 진지한 영화광들에게
풍성한 경이로움을 제공한다.

소설가 J. G. 발라드는 로스앤젤레스의
전화번호부를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로
꼽으며 “유별난 재료를 많이 사용하여
마치 살바도르 달리의 자서전처럼
초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새니얼
웨스트의 위대한 LA 소설 《메뚜기의
날(The Day of the Locust)》도 인용한다.
웨스트의 책 말미에는 환멸을 느낀 LA
주민들이 분노한 군중이 되어 할리우드의
영화 개봉일에 살의를 지닌 채 폭동을
일으킨다. 웨스트는 그들을 풍요를 꿈꾸며
LA로 이주했으나 실망만 얻은 사람들로
묘사한다. 작가는 군중이 분노와
절망의 불꽃에 휩싸여 도시를 파괴하는
장면을 상상한다.

수문학(水文學)의 정치가 그 어느
것보다도 LA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 거대 도시의 존재와 생존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엔지니어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수영장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호크니 풍의 꿈속에 있는 듯
매혹적이지만) 물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 부족이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불로 망하는 것이 LA의 운명
일지도 모른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지진과
산불이라는 두려운 현실과 함께 살아가다.
그러나 만일 LA가 현대의 바빌론이
된다면, 가장 오래된 존재의 위협에
굴복하게 될 것 같다. 바로 물,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물 부족”이다.

JG Ballard named the *Los Angeles Yellow Pages* as one of his favourite books: “a fund of extraordinary material, as Surrealist in its way as Dali’s autobiography.” He also cites Nathaniel West’s great LA novel *The Day of the Locust*. West’s book ends with an angry mob of disillusioned LA denizens rioting with murderous intent at a Hollywood film première. West describes them as having migrated to LA in search of a dream of plenty, to find only disappointment. The writer imagined the mob destroying the city in an inferno of rage and despair.

Death by fire may yet be LA’s fate: its inhabitants live constantly with the dread reality of earthquakes and hill fires. But if LA is to become a modern Babylon, it is most likely to succumb to the oldest threat to its existence: water. Or, to put it more accurately, “the absence of water.”

The politics of hydrology mark LA more deeply than anything else. The vast metropolis owes its existence — and survival — to the ability of its engineers to drag water thousands of miles. But the city of swimming pools — shimmering alluringly in Hockneyesque dreams of pleasure — is running out of water. And this time it might just be permanent.



It is not hard to look beyond the touristic semiotics of the Hollywood sign, the adverts for cosmetic surgery, the boasts and promises of millionaire dentists, the monarchical celebrity-pomp of the Kardashians and the “instant architecture” (to use another of Banham’s phrases), to discover another LA. The cultural zealot in search of a more meaningful LA doesn’t have to look far to find the Watts Towers, the glamour of Central Avenue’s jazz history, Sunset Boulevard’s pop charisma, the fizz of Chinatown, and most of all the countless links to movie settings. For the serious film buff, Los Angeles offers a codex of cinematic wonders.

서머 스튜디오는 2014년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만난 캐롤리나 달과
민나 사카리아가 설립한 스튜디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스튜디오를 석사 논문의
주제였던, 전문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과
결합된 독립적인 그래픽디자인을 탐색하는
플랫폼으로서 여기며 글자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인쇄물 및 출판 등의 작업을 한다.
타이포그래피와 콘셉트 디자인에서 시작하는
일관된 작업을 선보이며 독단적인
신념에서 벗어난 참여적, 유희적 디자인을
추구한다.

M. 멕시코시티

배너, 350×150 cm, 2015

Summer Studio

Sweden

M. Mexico City

Banner, 350×150 cm, 2015

Summer Studio was founded in 2014
by Carolina Dahl and Minna Sakaria
while studying at the Royal College of
Art in London. The studio was set up
as a platform to explore independent
graphic design combined with
a professional visual communication
practice, as a part of their final year
and MA thesis. The studio's portfolio
includes type design, brand identity,
print and publishing for artists as well
as corporations, exhibitions and events,
with work consistently beginning
in typography and conceptual design.
The studio's artistic aim is to create
participatory, playful design stripped
from dogmatic conceptions.



저 멀리 지평선 너머

에이드리언 쇼너시

“현명한 사람은 멀리 여행하지 않는다”라는 고대 중국의 속담이 있다. 한편으로는 여행을 ‘마음을 넓히는’ 방식으로 추천하는 오래된 지혜의 말도 있다. 나는 두 가지 아포리즘에 모두 동의한다. 한편으로는 집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반면 또 한편으로는 여행이 주는 변화의 경험을 갈망한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 푸른 창공을 돌아다니기 전에는 여행이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여행에는 힘과 용기와 참용성이 필요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 반대편으로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편한 여행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비행기들이 종종 하늘에서 떨어지고 실종된다. 설상가상으로, 비행기 여행 때문에 지구 환경은 천천히 대규모로 오염되며, 소음이 수백만 인구의 삶에 고통을 안긴다. 공항은 모든 개인이 죽음과 혼란에 사로잡힌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비인간적인 장소다. 그제 아니라면 쇼핑에 중독되어 면세점의 마케팅 사기에 둔감한 소비자로 여겨진다.

1990년대 어느 무렵, 나는 멕시코시티를 방문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언제부터인가 멕시코는 오래도록 내 상상 속에 유령처럼 떠돌았다. 부분적으로는 글을 읽거나 영화(특히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를 보고, 또 부분적으로는 멕시코 미술(스페인 정복 이전의 고대 멕시코 미술과 20세기 들어서는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미술)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였다. 사춘기 시절, 폭력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나는 유혈 사태와 학살 이야기를 몹시 기대하면서 부모님이 가진 프리스콧의 《멕시코 정복사》를 넘겨본 기억이 난다. 실제로 그런 장면들을 발견했고 이 때문에 멕시코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게 되었다.

또 나는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많은 동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회의와 반항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바로 신앙을 버렸다(14세 무렵이었다). 다양한 중남미 분파의 가톨릭 사제들이 옹호하는 급진적인 마르크스주의/해방신학의 기독교 교리를 접하고 난 다음이었다. 그들은 교회가 사회 정의와 활발한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성 교단에 부족한 점을 가진 해방신학은 반항과 반(反)권위주의에 끌리던 십대 청소년의 마음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나중에 그레이엄 그린과 앨런 라우리의 작품들을 읽게 되었는데, 두 작가 모두 멕시코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것은 영화에서 발견한 멕시코였다. 생생하게 대비되는 점들과 전통 명절인 ‘죽은 자들의 날’이 보여주는 운명론이 깃든 영화 필름 속 멕시코 말이다. 나는 에이젠슈타인의 〈퀘 비바 멕시코!〉(Que viva Mexico!)와 루이스 브뉴엘의 〈몰살하는 천사(El ángel exterminador)〉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적 장엄함이 마음에 들었다. 훨씬 시간이 지나서는 현대 멕시코 영화의 팬이 되었고 알폰소 아라우, 알폰소 쿠아론, 길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포드, 휴스턴, 페킨파 같은 위대한 미국 감독들이 영화로 담아낸 멕시코였다. 수많은 미국 영화에서 멕시코는 법으로부터의 자유,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미국 청교도주의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유’를 가리키는 암호였다. 도망 중인 모든 악당과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은 멕시코 국경을 넘는 것이 구원이나 도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유혹적인 개념이었다. 나는 뉴멕시코, 애리조나, 혹은 텍사스에서 출발하여 어두운 미국의 밤을 달려 새벽에 티후아나에 도착하는 상상을 했다. 열기와 먼지를, 멀리서 들려오는 유랑 악사 마리아치의 음악과 매력적인 멕시코 음식을 상상했다.

메마른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려 필멸 끓으며 졸곤 멀어지는 태양 속으로 들어가 ‘죽은 자들의 날’ 행사가 한창 무르익은 작은 마을에 도착하는 상상. 그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술집과 교회와 호텔이 하나씩 있는 곳이다.

Mexico City

Over the Remote Horizon

Adrian Shaughnessy

There’s an ancient Chinese saying: “The wise man never travels far.” There’s another slice of ivy-clad wisdom that recommends travel as a way of “broadening the mind.” I subscribe to both aphorisms. Part of me is happy to stay at home forever, while another part of me yearns for the transformative experience of travel.

Before aircraft perpetually criss-crossed the blue void above our heads, travel involved physical hardship. It needed strength, bravery and endurance. Today we can go to the ends of the earth in comfort and at speed. But there’s a price to be paid for this ease of travel: aeroplanes occasionally fall out of the sky, never to be seen again. And, as if that isn’t bad enough, air travel contributes massively to the slow poisoning of the planet, and aircraft noise brings misery to the lives of millions. Airports are dehumanizing places where everyone is assumed to be a terrorist in thrall to death and mayhem — either that, or a consumer addicted to shopping and oblivious to the marketing scam of duty-free purchases.

Some time in the 1990s I accepted an invitation to visit Mexico City. Mexico has inhabited my imagination like a lingering ghost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 partly through reading about it, partly through cinema (most especially the cinema of Sergei Eisenstein), and partly though Mexican art (the pre-Hispanic art of ancient Mexico and the 20th-century art of Frida Kahlo and Diego Rivera). As an adolescent, interested in reading stories about violence and death, I remember leafing wishfully through my parents’ copy of Prescott’s *The Conquest of Mexico*, in the hope of encountering tales of bloodshed and slaughter. I found them, and this only added to the allure.

I also grew up in a Catholic household. Like many people of my generation, I sloughed off my faith as soon as I reached the age of scepticism and revolt (about 14, in my case). But not before I had been exposed to the radical Marxist/Christian doctrine of Liberation Theology, as espoused by various renegade Catholic priests in Latin America, who held the view that the Church should be an agent of social justice and an active participant in politics. To my teenage mind, already salted with the allure of rebellion and anti-authoritarianism, Liberation Theology had a glamour that the conventional church lacked.

Later I found myself reading Graham Greene and Malcolm Lowry, both writers in thrall to Mexico. But it was the Mexico that I found in films — a celluloid Mexico of vivid contrasts and Day of The Dead fatalism — that inspired me most. I relished the avant-garde majesty of Eisenstein’s *Que viva Mexico!*, and Luis Bunuel’s *El ángel exterminador*. Much later, I became a fan of modern Mexican cinema: the films of Alfonso Arau, Alfonso Cuarón and Guillermo del Toro.

But it was the Mexico depicted in the films of the great American auteurs like Ford, Houston and Peckinpah that most engaged me. In countless American films Mexico is a cipher for freedom: freedom from the law; freedom from convention, freedom from American puritanism. Every villain on the run and every wronged individual unable to prove his or her innocence knew that to cross the border into Mexico meant salvation, redemption or escape. This was an enticing notion.

I imagined arriving in Tijuana at dawn, having driven south through the dark American night from New Mexico, Arizona or Texas. I imagined the heat and dust; the distant sound of Mariachi music and the allure of Mexican cuisine. I imagined driving south along dry-as-bone highways, into a boiling and ever-receding sun. I imagined arriving in a small town where the Day of the Dead celebrations were in full swing: a town with one bar, one church and a hotel that hadn’t changed much from the days before electricity.

실제로는 이와 전혀 다르게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다. 먼저 하나 없이 위생적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니, 초청 주체인 영국문화원의 친절한 직원들이 나를 맞이하여 멕시코시티 도심에 있는, 역시 먼저 하나 없이 위생적인 호텔로 데려갔다.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내 방 창문에서는 쪽쪽 뿜어나가는 크고 평평한 도시의 모습이 보였다. 저 멀리 지평선까지 뻗은 도시, 내 눈은 틀림없이 지구의 곡선을 보았다.

늦은 시간이라 나를 맞아준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태동하던 인터넷에 대한 강연을 하는 첫 번째 일정에 맞춰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호텔에서 떠나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다. 멕시코시티는 위험한 곳이라며 그들은 “아침에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을 떠나 거리를 돌아다녔다. 내 창백한 피부는 이른 아침의 열기에 공격을 받고 즉시 탈이 났다. 결국 인류학박물관(1964년에 페드로 라미레스 바스케스, 호르헤 캄푸사노, 라파엘 미하레스가 설계한 건물)으로 도피했다. 그곳은 끊임없는 활동으로 꿈틀대는 소란스런 도시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차분한 장소였다.

호텔로 돌아오자 영국문화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불안해하며, 내가 혼자서 밖에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어긴 것에 화가 나 있었다. 이런 작은 반항이 있는 다음,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멕시코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출근 내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려 했다.

강연이 없는 마지막 날, 충분히 보호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묻자 나는 테오티우아칸의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나에게 운전기사 한 명을 붙여주고 이름이 후안이니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이름을 확인하라고 했다.

I woke early and left the hotel to wander the streets. My pale European skin rebelled instantly, attacked by the early-morning heat. Eventually I found the sanctuary of the Museum of Anthropology (Museo Nacional de Antropología, designed in 1964 by Pedro Ramírez Vázquez, Jorge Campuzano and Rafael Mijares). It is a place of tranquillity and stillness amidst the tumult of a city that roars with ceaseless activity.

When I got back to the hotel my hosts were waiting for me. They were agitated, angry that I'd disobeyed their instruction not to go out alone. After this small act of rebellion my guardians upgraded me to “unreliable,” and hardly let me out of their sight during my week in Mexico.

On my last day — a day with no talks — my guardians realized they had protected their investment, and they cut me loose. What did I want to do, they asked? I said I'd like to see the Pyramids of the Sun and Moon in Teotihuacan. A driver was assigned to me. His name was Juan. I was told to check that this was his name before setting off with him.

후안은 뉴욕 양키스 야구 모자를 쓴 무뚝뚝한 멕시코인이었다. 우리는 대화도 없이 평평하게 펼쳐진 멕시코시티를 통과해 차를 몰았다. 화려한 간판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타이포그래피 메시지가 보이고, 수작업으로 만든 색색의 간판이 너무 밝게 보여서 멕시코의 태양도 그 진동하는 빛을 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간판들이 차를 멈추고 타이어와 타코와 토르티야를 사라고 부추겼다. 우리는 판잣집들이 몇 킬로미터씩 이어진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로 들어섰다. 멕시코의 ‘바리오(barrio)’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슬럼가에 속한다. 다닥다닥 붙은 채 끝없이 이어지는 가난의 행렬 속에, 가끔 반짝이는 SUV 차량같이 신기하게 이례적인 모습도 보이고, 길 잃은 개들과 달려가는 아이들 무리가 보인다.

Juan turned out to be a taciturn Mexican wearing a New York Yankees high-domed baseball cap. We drove, without conversation, through the flat urban sprawl of Mexico City. Garish signs, with their frenetic typographic messages, hand-rendered in colours so bright that even the Mexican sun was unable to bleach out their vibrancy, urged me to stop and buy tyres, tacos and tortillas. We drove onto elevated freeways that jetstreamed across mile upon mile of shantytown. Mexico's “barrios” are amongst the largest slums in the world — and every now and again, always in an embedded and deeply clustered area, I'd spot shining SUVs, a curious anomaly amongst the grinding poverty, stray dogs and gangs of running children.

마침내 우리는 탁 트인 지역에 도착했다. 내가 꿈꾸는 먼 지평선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닿은 것이다. 선인장과 끈에 매이지 않은 당나귀들이 있었다. 길가로 손님 없는 술집들이 보였다. 우리는 계속 차를 몰았다. 그리고 후안이 말도 없이 고속도로를 벗어나 〈가르시아(Bring Me the Head of Alfredo Garcia)〉라는 1970년대 영화에서 워런 오츠가 갔던, 바퀴 자국이 난 정처 없는 길을 따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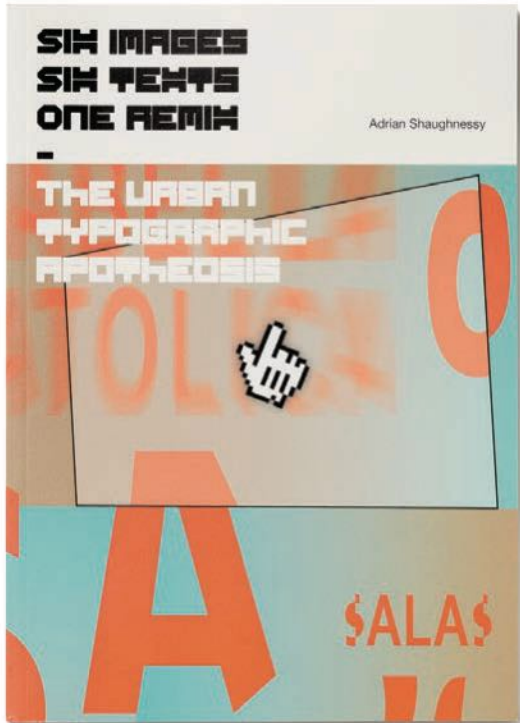
소리로 없이, 차가 흙으로 지은 어도비 양식의 건물로 도착했다. 후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가 차 문을 열어 “후안의 형입니다.”라고 말했다.

후안의 형은 일종의 골동품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물건을 보라고 권유했다. 나는 차를 떠나기가 망설여졌지만 영국식 예의와 낮은 이가 손님을 맞는 넉넉한 미소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우선 술을 마셔야겠어요.”라고 하더니 그가 우유 빗갈 액체를 조금 건넸다. 나는 다시 망설였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다. 이 사람이 권유하는 술이 대체 무엇일까? 그저 미소와 몸짓으로 마시라고 권유할 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 우유 빗갈 액체를 마셨다. 그건 멕시코의 맛이였다.

Eventually we reached open country. Here at last was the highway to the remote horizon of my dreams. Cacti. Untethered donkeys. Roadside bars with no customers. We drove on. Then, without warning, Juan left the highway and bumped down the sort of rutted, destination-less road that Warren Oates used in *Bring Me the Head of Alfredo Garcia*.

Silently, we arrived at a low, adobe-style building. Children and dogs ran out to greet the car. Juan remained silent. A tall handsome man walked towards us smiling. He opened the car door. I'm Juan's brother, he said.

Juan's brother owned a sort of curio shop, and I was invited to view the wares. I hesitated to leave the car, but British politeness and the reassuring smile of my unexpected host persuaded me to get out. But first, he said, we must have a drink. He held up a thimbleful of milky liquid. Again I hesitated. No one in the world knew where I was. What was this drink I was being offered? Only smiles and gestures to drink up were offered. I drank the milky liquid. It tasted of Mexico.



My arrival in Mexico City was nothing like this. I arrived in a dustless, hygienic aeroplane. I was met by my hosts, kindly members of the British Council, who took me off to a dustless, hygienic hotel in the centre of Mexico City. From my window high above the city, I could see a vast flat earthspan of urban sprawl. It ended in a distant horizon so remote, I swear I could see the curve of the earth.

It was late, so my hosts left me to sleep with the promise that they would return the following morning to take me to my first assignment — a talk on the fledgling internet to the boys of a private school. I was advised not to leave the hotel. Mexico City was dangerous, they said. Wait for us to return in the morning, they said.

앤드루 브래시는 문화적 클라이언트를 위한 디자인과 리서치 형태의 협업을 결합하는 작업을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이는 책, 그래픽 오브제 및 아이덴티티, 설치, 제안, 강연 및 심포지엄의 형태를 띤다. 그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정치, 미학 이데올로기, 그리고 시각적 형태를 다루며, 최근 이를 시각적 공간 정체성 탐구에 적용한 '엑스트라무로스'라는, 이미지 생산과 도시 환경 사이의 순환적 관계를 조사하는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앤드루 브래시

영국

N. 뉴욕 시티

배너, 350×150cm, 2015



Andrew Brash is a graphic designer combining design for cultural clients and collaborators with forms of research. This work takes such forms as books, graphic objects and identities, installations, proposals, lectures and symposia. His work is typically concerned with the politics and ideologies of aesthetics and visual form. Recently he has applied this to exploring the visual identities of place, resulting in Extramuros, a research project investigating the circular relationships between image production and the urban environment.

Andrew Brash

UK

N. New York City

Banner, 350×150cm, 2015

뉴욕
밈의 모닥불

에이드리언 쇼너시

뉴욕의 거대한 스케일은 언제 봐도 놀랍다.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해도 놀라움이 퇴색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놀라움의 근원은 넓이가 아니라 높이다. 마치 도시가 으깨져서 탈출구가 하늘 쪽으로 솟아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듯하다. 맨해튼 섬은 결코 뉴욕의 저돌적인 야망을 품기에 충분했던 적이 없기에 위쪽으로 무한히 확장해 올라갈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뉴욕을 그저 맨해튼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대도시를 구성하는 다른 네 개의 행정구(스테튼 섬, 퀸즈, 브루클린과 브롱크스)가 더 있다. 모두 각각의 문화적 신화를 가지며 조밀하게 짜인 도시 조직 안에서 나름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내륙 지역인 뉴욕 주에는 시적인 이름들을 가진 소도시와 산과 숲, 강, 호수가 있다. 와사익, 세코메코, 마호팍, 셔터퀴 등의 이름들은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곳에서 미국을 만들기 훨씬 전에도 북미 해안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뉴욕의 정신을 구현하는 장소는 맨해튼이다. 우리가 뉴욕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것이 맨해튼이며, 20세기 도시의 송고함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도 맨해튼이다. 맨해튼은 현대 도시의 밈(meme, 비유전적 문화 요소)이다.

뉴욕은 현대 세계에 처음 등장한 위대한 도시였다. 한편으로 고도 자본주의의 수도이지만, 흠잡을 데 없는 예술적 계보를 가진 도시이기도 하다. 주식 중개인들과 서브프라임 판매자 같은 지저분한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지구상의 재정적인 생태계를 주무르겠지만, 뉴욕은 창조적인 정신이 끊임없이 꿈틀대는 곳이다. 보너스를 좇는 은행가와 비도덕적인 기업 전문 변호사의 수만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예술을 창조하는 사명을 가진 예술가가 존재한다.

나는 정신적인 뉴요커다. 미술, 음악,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순간 정신적으로 뉴욕 시민이 되었다. 모든 예술에 관심이 생겼지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뉴욕의 예술이었다. 관심사는 음악에서 시작하여 문학으로, 그리고 시각 예술까지 달랐다.

내가 그랬듯이 20세기 후반에 음악에 심취하여 성장한다는 것은 뉴욕에 심취하여 성장한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음반사 사무실과 스튜디오가 밀집했던 브릴 빌딩이 연루된 연애사였다. 벨벳 언더그라운드 의 아방가르드적인 저음, 라몬트 영과 모턴 펠드먼의 음악과, 제임스 브라운의 펑크 음악 <새터데이 나잇 앳 디 아폴로(Saturday Night at the Apollo)>와 라스트 포에츠의 초기 랩을 좋아했다. 마일즈와 밍구스와 몽크 외에도 엘링턴과 엘라 같은 그 전 시대의 위대한 가수들이 부르는 멋진 재즈를 사랑했다. 심지어는 20세기 중반 재즈에 영향을 받은 시나트라 의 음악도 좋았다. 슈거 힐 갱, 그랜드마스터 플래시, 아프리카 밤바타의 새로운 사운드,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밴드, 가수, 디제이와 프로듀서들. 그것은 사랑이자 열병, 집착이었다.

음악 다음에 내가 꿈꾸는 뉴욕을 형성한 것은 문학과 영화였다. 나는 F. 스콧 피츠제럴드, 필립 로스, 톰 울프, 브렛 이스턴 엘리스, 돈 드릴로의 소설에서, 폴린 카엘과 수전 섀넌의 글에서, 그리고 <뉴욕 북 리뷰(New York Review of Books)>의 페이지들에서 사랑할 만한 뉴욕을 발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앨런 긴즈버그의 장편 시 <울부짖음(Howl)>은 처음 발견한 이후 줄곧 나와 함께했으며, 뉴욕의 비전이 그의 시를 통해 형성되었다. 자, 여기에 내가 찬동하는 뉴욕이 있었다.

고대의 천상에 달고자 불타오르던 천사 머리의 비트족들이여, 가난과 누더기와 욕품 들어간 눈으로 높은 곳에 앉아 차가운 물 같은 초자연적인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도시의 꼭대기를 떠다니는 아파트에서 재즈를 음미했지 (…)

New York
BonFire of the Memes

Adrian Shaughnessy

The immense scale of New York is a source of perpetual wonder. No matter how many times the visitor returns, the wonder never fades. But it’s the height, not the width, that is the source of amazement. It’s as if the city has been squashed together so tightly its only escape is to thrust itself skywards. The sliver of Manhattan Island was never big enough to contain the daredevil ambition of New York: it needed the infinite dome of the sky above to expand into.

It’s a mistake to think of New York as just Manhattan. There are four other boroughs that make up the metropolis: Staten Island, Queens, Brooklyn and the Bronx, each with its own cultural mythology, each with its own place in the city’s tightly woven fabric. And then there’s New York State, a vast hinterland of small towns, mountains, forests, lakes and rivers with poetic names that remind us that there were people living on the eastern seaboard of North America long before the Brits were kicked out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born — Wassaic, Shekomeko, Mahopac, Chautauqua.

But it’s Manhattan that has come to embody the spirit of New York; it’s Manhattan that we think of when we think of New York; it’s Manhattan we think of when we think about the 20th-century urban sublime. Manhattan is the modern urban meme.

New York was the first great city of the modern world. It is, on the one hand, the capital city of High Capitalism, but it is also a city with an impeccable artistic pedigree. The seedy denizens of Wall Street — Vampire Squids, Gordon Geckos and sub-prime hucksters — might be manipulating the financial ecosystems of the planet for their own ends, but New York is also home to the unquenchable vibrancy of the creative spirit. For every bonus-snorting banker, and for every amoral corporate lawyer, there is an artist with a mission to create art in one of its myriad forms.

I’m a spiritual New Yorker. I became an emotional resident as soon as I acquired an interest in art, music and literature. All art interested me, but it was the art of New York that interested me most. It started with the music, then the literature, and then the visual art.

To grow up in thrall to music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s I did, was to grow up in thrall to New York. It was a love affair that included the Brill Building, with its teams of teenage pop song Mozarts; the avant-garde drones of the Velvet Underground, Lamont Young and Morton Feldman; the funk of *Saturday Night at the Apollo* with James Brown, and the proto-rap of the Last Poets; the jazz cool of Miles, Mingus and Monk, and the giants from an earlier age — Ellington, Ella, even Sinatra in his mid-20th century jazz-inflected glory; the new sound of Sugar Hill Gang, Grandmaster Flash and Afrika Bambaata, and a thousand other bands, singers, DJs and producers. It was love, infatuation, obsession...

After music it was literature and films that formed the New York of my dreams. I found a New York that I could cherish in the novels of F Scott Fitzgerald, Philip Roth, Tom Wolfe, Bret Easton Ellis and Don DeLillo; in the writings of critics Pauline Kael and Susan Sontag, and in the pages of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But it was the poet Allen Ginsberg who enabled me to create a vision of New York that has lived with me since I first discovered his epic poem Howl. Here, in Ginsberg’s epic work, was a New York I could subscribe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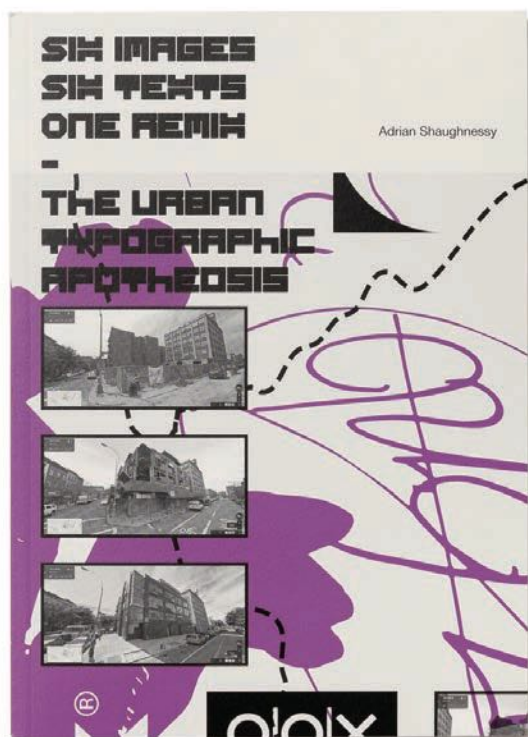
angelheaded hipsters burning for the ancient heavenly connection to the starry dynamo in the machinery of night, who poverty and tatters and hollow-eyed and high sat up smoking in the super natural darkness of cold-water flats floating across the tops of cities contemplating jazz...

나는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고 그 도시의 아파트와 클럽과 갤러리에 가보기 훨씬 전에 이 시를 읽었지만 앨런 긴즈버그는 도시의 정서적인 끌림과 장엄함, 금지되고 범하기 쉬운 구석진 장소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내게 뉴욕이라는 개념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현실만큼 강력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수십 편의 영화를 통해 강도는 달랐지만 그 과정이 반복되었다. 프레밍거, 스콜세지, 페라라, 카사베츠, 스파이크 리의 영화들과 로버트 프랭크, 조나스 메카스, 앤디 워홀, 알프레드 레슬리의 아방가르드 실험주의를 거쳤다. 여기에 불안과 고통과 황홀감이 가득 찬, 영화 필름 속 뉴욕이 있었다. 철재 화재 대피용 사다리가 외관에 붙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믿기지 않는 도시 풍경, 거리의 구멍에서 피어 오르는 연기 기둥들(뉴욕 지하 세계에서 올라오는 신호인가?), 밤새 영업하는 식당을 광고하는 현란한 네온 타이포그래피, X 등급 영화관과 술집들을 보았다. 하지만 항상 뉴욕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눈다. 뉴욕커 특유의 수다스럽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뉴욕을 현대 도시의 전형으로 만든다. 바로 20세기의 로마이자 현대 도시의 밈이다.

이제 나는 1년에 두세 차례 뉴욕을 정기적으로 찾는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뉴욕을 자주 접했다고 해서 그 도시에 대한 나의 애정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또 한편, 이성적이고 물질적인 수준에서는 도시의 쇠퇴를 발견한다. 뉴욕은 모든 개척자들의 욕망에 빠져들고 있다. 나중에 와서 개척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다. 오늘날은 아시아의 대도시들 때문에 뉴욕의 위엄이 예전만 못해 보인다. 지하철은 형편없어지는데, 한편으로는 고급 주택이 들어서고 거리가 예뻐지게 단장되며 소비가 만연하여 뉴욕의 거칠고 위험한 부분들이 합성 사진 속의 도시처럼 바뀌어가고 있다.

쌍둥이 빌딩의 붕괴는 이 도시의 집단적 정신에 종말론적인 타격을 가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건이 났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이야기해준다. 그 영향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부활의 신호였을까?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도시는 아마도 가장 회복력이 좋은 곳일지도 모른다. 다른 대도시들은 세계무역센터 파괴 같은 엄청난 충격에서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뉴욕의 운명은 다를 것 같다. 밀턴 글레이저의 유명한 캠페인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적이고 상징적인 비유는 공허한 마케팅 공약이 아니다. 거주자와 방문객을 통틀어 많은 이들에게 그 표어는 단순하고도 자명한 진실이다.



I read the poem long before I tramped the streets of New York, or visited the city's lofts, clubs and galleries, but Ginsberg made me feel the city's emotional pull, its mighty grandeur and its forbidden and transgressive recesses. He made me feel the idea of New York — which turned out, for me, to be as potent as the real thing.

The process was repeated, though never with the same intensity, in dozens of films set in New York — the films of Preminger, Scorsese, Ferrara, Cassavetes and Spike Lee, and in the avant-garde experimentalism of Robert Frank, Jonas Mekas, Andy Warhol and Alfred Leslie. Here was a celluloid New York, full of angst, pain and ecstasy: a hardly believable urban landscape of buildings with filigree steel fire-escape ladders glued to their exteriors; plumes of steam billowing out of holes in the road (signals from the New York underworld?); garish neon typography advertising all-night diners, X-rated movie houses and liquor stores; but always people talking — talking and talking and talking, in that loquacious and unselfconscious way unique to New Yorkers. All of this made NYC the archetype of the modern urban city: the Rome of the 20th century; the modern urban meme.

Now I visit New York regularly, usually two or three times a year. On one level, the molecular level, frequent exposure to New York has not diminished my love of the city. On another level, the rational materialistic level, I see its decline. NYC is falling into the trap of all pioneers: it is being overtaken by those who came later and have learned from the pioneers. Today's mega-cities in Asia make New York look less magisterial. The subway is rotting, while the gentrification, prettification and consumerisation of the city is removing all its rough edges and risks turning it into an identikit urban terrain.

The destruction of the Twin Towers delivered an apocalyptic blow to the city's collective psyche. People still talk about it. They tell you where they were when it happened. Its impact has not lessened. Was this the beginning of the end? Or the signal for renewal? The first great city of the modern era might just also be the most resilient. While other metropolises might never recover from such a hammer blow as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Trade Centre, it seems unlikely that this is to be New York's fate. Milton Glaser's famous "I heart New York" typographic and symbolic trope is no empty marketing promise. For many — residents and visitors alike — it is a simple and self-evident truth.

런던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영국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하고 디지털 스튜디오
피드의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윤리학,
저자성, 정체성을 주제로 다루는 조각적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래픽디자인을
동시대 문화에 대한 풍자적 질문과 뒤섞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서배스천 코세다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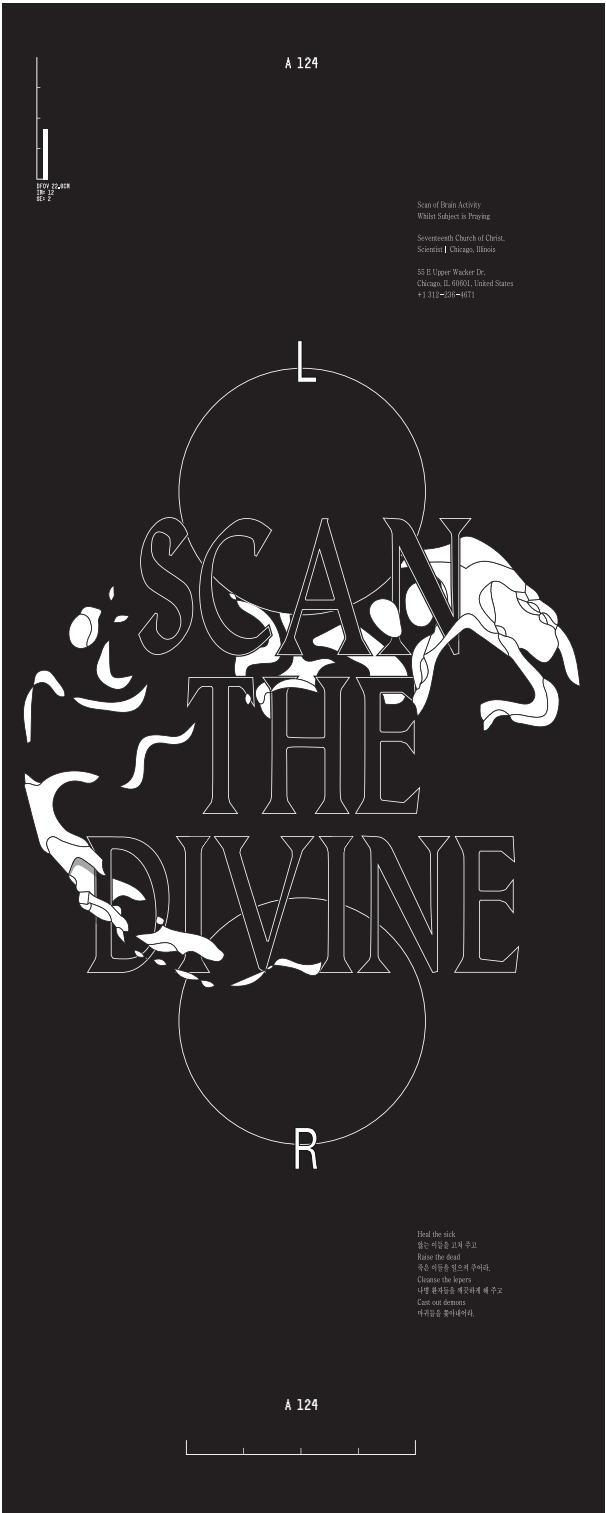
C. 시카고
배너, 350×150 cm, 2015

Sebastian Koseda is a London based
graphic designer focusing on
speculative works that deal with themes
of ethics, authorship & identity. In his
practice, he aims to merge graphic
design with the satirical interrogation
of contemporary culture. He has just
graduated from the RCA and is working
as an Art Director at the Digital Studio
FEED in London.

Sebastian Koseda

UK

C. Chicago
Banner, 350×150 cm, 2015



시카고
흐르는 건축, 얼어붙은 음악

에이드리언 쇼너시

괴테가 20세기에 태어났다면, “음악은 흐르는 건축이고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다”라는 유명한 평을 내놓았을 때 시카고를 마음에 두었을 것이다. 시카고는 음악과 건축의 도시다. 그곳은 바람과 철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 거칠고 거대한 도시는 신문과 건축, 뼈가 시리게 추운 겨울로 유명하다.

그곳은 세계 모더니즘의 수도이기도 하다. 유럽 모더니즘의 거장들이 미국 땅에 안착하는 와중에 가장 많은 이익을 본 미국 도시인 것이다. 그들은 1930년대에 히틀러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20세기 최고의 건축들을 설계했다. 철과 유리와 건축적 미래주의가 결합된, 시카고를 찾는 사람들에게 황홀경을 선사하는 그 건축물들은 옛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뿌리는 1937년 시카고에 뉴 바우하우스가 생겼을 때 열매를 맺었다. 이곳은 목을 죄여오는 나치의 압력에 굴복한 독일 바우하우스가 피난처에 차린 교육 기관이었다. 설립자는 라슬로 모호이너지였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대표자 격이었던 그는 교육 과정의 침단에 사진을 두고 미국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 노먼 록웰 풍의 예스러운 모습에서 (반드시 더 진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덜 이상화된, 산업적인 자아상으로 — 바꾸는 데 일조했다.

1944년, 디자인 학교 (School of Design)에서 디자인 연구소 (Institute of Design)로 이름을 바꾼 뉴 바우하우스는 유명 건축가 헨리 코브가 설계한 화강암 건물에 입주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음반사의 녹음 스튜디오가 들어서고 이어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다. 모호이너지와 발터 그로피우스의 유령들은 시카고의 인상적인 하우스 뮤직에 맞춰 레이저 빔 속에서 간간히 춤을 추곤 했다.

북미의 다른 거대 도시 디트로이트가 망가지고 있다면 (혹자는 디트로이트가 21세기 후기 자본주의 미국 도시의 원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도 하지만), 시카고는 융성하고 있다. 그 직선의 날카로움을 처음 마주하면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 같다. 어디를 바라보든 시카고 건축의 극명한 기하학이 놀랄 만큼 뚜렷하게 보인다. 그리고 그리드에 기초한 경직성에 익숙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모순을 발견한다. 스페인 화가 피카소가 이 도시에 선물한 지극히 비대칭적인 <시카고 피카소 (Chicago Picasso)>, 아니시 카푸어의 타원형 스테인리스스틸 조각품 <클라우드 게이트 (Cloud Gate)>, 건축가 잔느 갱이 곡선형으로 설계한 레이크쇼어 이스트의 고층 건물, 1960년대 초에 버트런드 골드버그 어소시에이츠가 내놓은 하늘로 솟아오른 ‘옥수수대’ 디자인의 마리나 시티 등 말이다.

모더니즘과 시카고는 파스트라미와 호밀 위스키 같다. 다시 말해, 잡종들의 결합으로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완벽한 일체를 이룬 것이다. 현대의 시카고는 근대 이전의 옛 도시, 즉 목재로 이루어진 도시에서 발달되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엄격한 화재 안전법이 도입되어 의무적으로 모든 건물에 석조 건축을 포함시켰다. 나중에 도시가 더욱 발달하자, 호수 주변의 연약한 지반이 석조 건물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건축가들과 개발업자들이 더 가벼운 대안을 찾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철이 시카고 건물들의 뼈대와 외골격을 건축하는 재료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시카고에 마천루가 탄생하게 되었다.

Chicago
Liquid Architecture, Frozen Music

Adrian Shaughnessy

Had he been born in the 20th century, Goethe might well have had Chicago in mind when he made his famous observation: “Music is liquid architecture. Architecture is frozen music.” Chicago is a city of music and architecture. It is also a city of wind and steel — a tough, urban super-conurbation famous for newspapers, architecture and bone-chilling winters.

It is also the modernist capital of the world: the American city that benefited most from the arrival on American soil of the giants of Euro-modernism, who, fleeing Hitler in the 1930s, ended up designing the greatest hits of 20th-century architecture. The visceral thrill of steel, glass and architectural futurism that greets the visitor to Chicago has its roots in old Europe.

Those roots bore fruit in 1937 when Chicago became home to the New Bauhaus. This was the refugee pedagogical offspring of the German Bauhaus, which had finally succumbed to the pressure of the jackboot of Nazism pressing down on its neck. The New Bauhaus was founded by László Moholy-Nagy. As one of the high priests of modernist design, he put photography at the forefront of the curriculum, and helped to change the way America presented itself to itself — from an illustrated, quaint Rockwellian self-image to a less idealized, though not necessarily more truthful, industrial self-image.

In 1944, the New Bauhaus became the Institute of Design and occupied a granite-clad building designed by Henry Ives Cobb. In the 1950s and 60s the building became home to recording studios, and subsequently to a series of nightclubs. The ghosts of Moholy-Nagy and Walter Gropius could occasionally be seen dancing amongst the laser beams to the sound of hard-jacking Chicago house music.

If Detroit, that other great North American urban behemoth, is rotting (although there are those who say that it is slowly emerging as the proto- post-capitalist American city of the 21st century), then Chicago is booming. Encountering for the first time its rectilinear sharpness is like acquiring a new pair of spectacles. Everywhere you look you see, with alarming clarity, the stark geometry of Chicago architecture. And then, just as you have acclimatized to the grid-based rigidity, you find unexpected contradictions; the fiercely asymmetrical *Chicago Picasso* — the Spanish artist’s gift to the city; *Cloud Gate*, Anish Kapoor’s ovoid stainless steel sculpture; Jeanne Gang’s curvilinear Lakeshore East skyscraper; the early 1960s skyward-thrusting “corncob” design of Marina City by Bertrand Goldberg Associates.

Modernism and Chicago are like pastrami and rye — a marriage of hybrids that meld into a sort of contrarian perfection. Modern Chicago grew out of the old pre-modern city — a city of wood. The Great Chicago Fire of 1871 devastated the city, and led to the introduction of stringent fire-safety laws that made it compulsory for all buildings to have masonry construction. Later, as the city grew, the soft ground around the lake proved unsuitable for masonry buildings. This led architects and developers to seek a lighter alternative and, over time, steel became the material that built the skeletons and exoskeletons of Chicago’s buildings, and resulted in Chicago becoming the birthplace of the skyscraper.

그러나 시카고에서 처음 눈에 띄는 점이 엄청나게 풍성한 건축과 수직으로 높이 올라간 생활공간이라 해도 도시의 문화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주목할 만하다. 그곳은 음악과 문학과 미술의 도시다. 음식과 술과 스포츠의 도시다. 대도시의 거친 정치 공작과 냉철한 저널리즘이 있는 도시다. 버락 오바마와 스티브 터켈의 고향이며,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도널드 럼스펠드가 태어난 도시이기도 하다. 1942년에 시카고 대학 엔지니어 팀이 최초로 통제된 실험을 통해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킨 도시다. 그것이 원자폭탄 개발의 첫 단계였다.

시카고의 문학은 저널리즘적이고 강철같이 단단하다. 넬슨 앨그렌의 위대한 소설 두 편, <광란의 거리(A Walk on the Wild Side)>와 <황금 팔을 가진 사나이(The Man with the Golden Arm)>는 이 도시 특유의 강인함을 발산한다. 시카고 사람인 술 벨로와 존 더스 패서스는 시카고의 유전자를 현대 미국 문학의 규범 안에 주입시켰고, 다수의 저널리스트들이 신문의 도시 시카고의 명성을 확립했다. 신문은 건축으로서의 뉴스, 곧 말로 이루어진 대안적인 건축인 셈이다.

But if architectural hyper-abundance and vertical city living is the first thing you see in Chicago, the city's cultural history is a close second. It is a city of music, literature and art. A city of food, booze and sport. A city of tough metropolitan politicking and hard-edged journalism. The home of Barack Obama and Studs Terkel, the city where Robert Kennedy was assassinated and where Donald Rumsfeld was born. It is also the city where, in 1942,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 team of engineers produced the first controlled and self-sustaining nuclear chain reaction. It was to be the first step in the development of the atomic bo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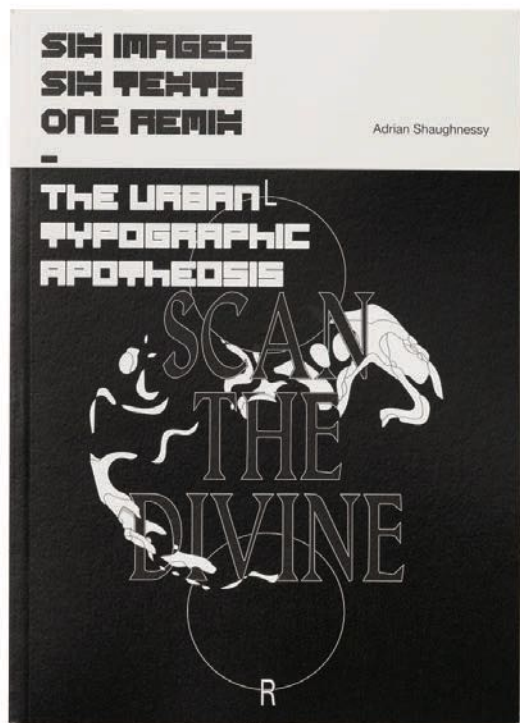
The literature of Chicago is journalistic and steely. Nelson Algren's two great novels — *A Walk on the Wild Side* and *The Man with the Golden Arm* — exude the Chicagoan toughness that characterizes the city. Chicagoans Saul Bellow and John Dos Passos injected Chicago genes into the bloodstream of the contemporary American literary canon, and legions of journalists embroidered the city's reputation as a newspaper town. News as architecture — an alternative architecture of words.

그러나 도시 전체에 내재하는, 그곳에 스며들어 지하실과 클럽과 콘서트홀에서 새어 나오는 것은 바로 음악이다. 음악은 시카고를 1등급 문화 공화국이자 20세기의 빈으로 철의 도시라는 명성만큼이나 음향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음악계의 세계 헤비급에 해당하며, 이 도시는 남부에서 태어나 클럽과 라이브 음악을 제공하는 장소들을 찾아 북부로 오는 수많은 블루스와 재즈 음악가들의 목적지였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음악가들이 풍부한 공장 일자리를 통해 안전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다. 일렉트릭 블루스, 재즈, 소울, 그리고 이후 나온 하우스, 펑크, 그리고 “위대한 흑인 음악: 고대에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가진 아트 앙상블 오브 시카고(Art Ensemble of Chicago) 콜렉티브 덕분에 시카고는 현대 음악에서 탁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1940년대에 선 라가 와서 그의 대단한 경력 중 가장 보람 있는 시기를 이곳에서 시작했을 때 시카고는 은하계의 음악 수도가 되었다.

전기 작가 존 F. 스웨드가 말했듯, 선 라(본명은 허먼 폴 블런트[Herman Poole Blount], 앨라배마 주 버밍엄, 1914년 생)는 시카고를 “마법의 도시”로 보았다. 20세기 미국 음악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의 음악을 듣고 그중 몇몇과 함께 일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는 바로 시카고의 거리 모퉁이 책방에서 이집트와 오컬트 신비주의에 관한 책을 발견했다. 신비주의는 선 라의 우주론적 인생관과 예술관에 깊은 영향을 미친 주제다. 그가 친구에게 지적했듯이 시카고는 원자 폭탄 제조의 첫 단계를 밟은 장소였고, 선 라는 이 소재를 유명한 곡 <핵전쟁(Nuclear War)>에서 다루게 된다.

But it is the music, embedded throughout the city, ingrained in the fabric of the place, seeping out of cellars, clubs and concert halls, that makes Chicago a cultural republic of the first rank, a 20th-century Vienna — a city of sound as well as a city of steel. The Chicago Symphony Orchestra is in the world heavy-weight category; the city was a destination for countless blues and jazz musicians born in the South and attracted north by the clubs and venues offering live music, but with the poor musicians' safety net of abundant factory work. Electric blues, jazz, soul, and later house, punk and the great Art Ensemble of Chicago collective — whose rallying cry is “Great Black Music: Ancient to the Future” — have made Chicago pre-eminent in contemporary music. And the city became an intergalactic music capital in the 1940s, when Sun Ra arrived and began one of the most fruitful periods of his long epochal career.

As his biographer John F. Szwed has noted, Sun Ra (Herman Poole Blount in Birmingham, Alabama, 1914) considered Chicago a “magical city.” It was here that he was able to hear, and work with, some of the most important figures in 20th-century American music. It was in Chicago that he found booksellers on street corners selling works on Egyptian and occult mysticism, themes that were to deeply mark Sun Ra's cosmological view of life and art. It was also, as Sun Ra pointed out to friends, the place where the first steps to make an atom bomb were taken: a subject Sun Ra was to address in one of his most celebrated compositions, *Nuclear War*.



스위스의 로잔 주립미술대학교와 영국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한 요나스 베르토틀은 디자인과 리서치, 그리고 강의를 하며 런던과 스위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직적 조직이 아닌 느슨한 협업에 기초한 유동적인 체계를 모델로 한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자기 주도 디자인 프로젝트, 워크숍, 글쓰기를 병행한다. 로잔 주립미술대학에서 비평적 디자인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런던에서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작업하고 있다.

요나스 베르토틀

스위스

T. 도쿄

배너, 350×150 cm, 2015

Jonas Berthod lives and works between London and Switzerland. He runs an independent practice dealing with his overlapping interests in design, research and teaching. His studio is based on a model of a fluid system, formed of loose collaborations without a vertical organization. Research, as an integral part of his practice, is explored through self-directed design projects (The Brick), giving talks and workshops (at RCA, ECAL and SUPSI) or writing (for magazines or speculatively). He is a lecturer in Critical History of Design at ECAL, Lausanne.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cover sociopolitical issues around the theme of living in London today.

Jonas Berthod

Switzerland

T. Tokyo

Banner, 350×150 cm, 2015



도쿄
경이로움이 부유하는 도시

에이드리언 쇼너시

바글바글하고 떠들썩한 도쿄는 엄청난 도시다. 인구는 1300만이고, 일본 수도권 전체의 인구를 포함하면 3700만이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가 된다. 이 슈퍼 메트로 폴리스 도쿄의 방문자는 언제 어디서나 혼란스러운 지리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건축적인 지형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마주친다. 그러나 도쿄의 상황에 절대 끼어들지 않은 한 가지 요소는 카오스다. 카오스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어디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지배하며 예의가 구석구석 스며 있다.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 일본인의 심리가 어떻게 그렇게 절제되고 친절한 문화가 나왔을까? 도쿄의 (물론 이를 없는) 거리 모퉁이에 서구인이 서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일본인이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도와줄 일이 있는지 묻는다.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관광객들을 언짢게 바라본다. 관광객의 배낭과 정처 없는 방향과 망설임을 무시한다. 우리는 여행자의 돈을 받으며 우선적으로 마지못해 도움을 준다.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는 이방인과 서로를 향한 예의가 몸에 배어 있다. 다른 방식은 없다. 보편적으로 고개를 숙여 하는 인사는 겸손과 존경을 담은 본능적이고 공적인 제스처다. 방문객들은 일본에 갈 때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대우를 받는다. 서구인에게는 이러한 세심하고 철저한 예의가 어리둥절하다. 그것은 서구의 공손함 개념과는 극적으로 다르다. 서구인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다소 거친 개념을 가지고 자라나서(사람을 더 잘 알기 전에는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인의 예의 바름이 진실한 감정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0여 년 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의 수수께끼 같은 예의를 직접 경험 했다. 사업상 일본 회사들에게 런던에 있는 우리 디자인 스튜디오에 일을 맡겨 달라고 설득하러 갔다. 출장 가기 전에 다양한 회사에 우리 스튜디오의 작업에 대해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외 없이 그들은 내 요청을 기꺼이, 친절하게 받아들였다.

만남은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내가 방문한 회사들은 대개 — 자사의 비용으로 — 통역을 제공했다(서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호의였다). 한번은 판촉 활동을 한 다음, 좋은 식당으로 가서 대접을 받기도 했다. 매번 미팅을 하고 헤어질 때 일에 대한 약속과 상업적으로 유익한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는 친절한 말을 들었다. 실제로는 새로 사친 그 친구들에게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문화적인 특징이었을까? 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분명히 말을 못한 이유가 지나친 예의 바름이었을까? 아니면 혹자가 말한 대로, 이런 미팅의 결과를 추가로 확인하며 내 쪽에서 열광적으로 관심을 표현한 것이 문제였나?

Tokyo
City of Floating Wonder

Adrian Shaughnessy

Teeming and tumultuous, Tokyo is the ultra-city: home to 13 million people, a figure that increases to a barely believable 37 million when the entire metropolitan conglomeration is included. At every turn the visitor to the city is confronted by a great mass of humanity, not to mention the disorienting geography and bewildering architectural topography of this Japanese supermetropolis. Yet the one factor that never seems to enter the Tokyo equation is chaos. It might look like chaos, but it's not. Order prevails.

Discipline rules. Politeness pervades. How can this be? What is it about Japanese psychology that results in such a disciplined and beneficent culture? Any Westerner who stands on a Tokyo street corner — a street with no name, of course — and stares into the screen of their mobile phone will be approached by a Japanese person who will ask, in good English, if they can help. This doesn't happen in the West. Tourists are resented. We despise their rucksacks, their aimless wandering and dithering. We assist grudgingly while hypocritically relieving them of their tourist dollars.

Not so in Japan. In Japan, courtesy towards strangers — and to each other — is ingrained. There is no other way. The bow — universally bestowed — is a visceral and public gesture of humility and respect. Wherever visitors go, they receive respect and politeness. For Westerners, the intensity of this fine-grained politeness is mystifying. It is dramatically different to our own ideas of courtesy. Raised on rougher notions of dealing with strangers (we tend to mistrust them until we know them better), we are tempted to think that perhaps Japanese politeness masks true feelings.

I had direct experience of enigmatic Japanese politeness on my first visit to Tokyo over twenty years ago. It was a business trip. I was there to persuade Japanese companies to commission my London-based design studio. In advance of my visit I had sent out requests to various companies to be allowed to make short presentations of my studio's work. Without exception, my requests were warmly and eagerly granted.

The meetings were unequivocally a success. It was not uncommon for the firms I visited to provide — at their own expense — a translator (an unthinkable courtesy in the West). And on one occasion, after making my sales pitch, I was treated to dinner at a good restaurant. In all cases, I left each encounter with promises of work and warm assurances that a fruitful commercial alliance would ensue. In reality, I never heard again from a single one of my new friends.

Was this simply a cultural inability to say no thanks? Was it a surfeit of politeness preventing them from telling me to get lost? Or was it, as I have been told, my own Western casualness about following up these meetings with further meetings, and enthusiastic expressions of interest from my side?

일본인의 예의 바름은 오래된 과거를 연상시키며 현대 도쿄의 미래주의적 미학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두 줄기는 깊이 뒤얽혀 있다. 뭐라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매혹적인 “와비 사비”의 개념은 이런 이분법에서 드러난다. 잘 알려진 대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와비 사비는 복잡성을 거부하고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와비 사비는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 어쩌면 유달리 난해한 개념인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개념을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도쿄의 거의 모든 것에 와비 사비의 정신이 있다고 확신한다. 나무로 만든 부엌용품, 손으로 짠 바구니와 우아한 상점에서 파는 도자기 그곳에서 그런 정신을 쉽게 발견한다. 또한 도쿄 지하철에서 기모노를 입고 검정 양복과 흰색 셔츠를 유니폼처럼 차려 입은 직장인 옆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볼 수 있다.



Japanese politeness, with its chivalrous echoes of an ancient past, appears to contrast sharply with the futuristic aesthetics of modern Tokyo. Yet the two strands are deeply intertwined. The seductive, if intangible, notion of “wabi-sabi” can be glimpsed in this dichotomy. Famously difficult to define, wabi-sabi rejects complexity and looks for beauty in imperfection: it prizes authenticity above everything else. Perhaps, like that other famously elusive concept — postmodernism — we make of it what we want. Yet I’m convinced I can see the wabi-sabi spirit in almost everything that Tokyo has to offer. It’s easy to spot in the wooden kitchen utensils, hand-woven baskets and ceramic bowls on sale in the elegant shops. But it can also be glimpsed in the unselfconscious kimono-wearers on the Tokyo subway sitting next to the salarymen in their unchanging uniforms of black suit and white shirt.

그래픽디자인을 잘 아는 사람이 도쿄를 방문하면, 또 다른 층의 관심사가 있다. 이 도시는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마법의 놀이터다. 일본인이 아닌 독자에게, 그곳은 추상적인 형태와 자유로운 시각 표현, 즉 의미와 구문론적 독재로부터 자유로운 도시의 텍스트가 있는 이상한 나라다. 여러분은 일본어 한자로 구성된 단어들의 형태와 심미성을 즐기거나 하면 된다.

깃발 위에 쓰인 ‘국수’를 나타내는 말에도 서정성이 진하게 느껴지는 음악적인 구절이 필요하다. 굳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우아한 비율로 숨겨 있게 쓰인 붓글씨 장식체가 보기 좋다. 단어들은 도시의 건축을 반영하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그려진다. 그곳은 글로적인 언어에서 의미를 해석할 필요를 우회하는 순수하게 미학적인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 디자인의 세계다.

마셜 매클루언의 타이포그래피적 인간이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동 활자 덕분에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글로벌 사회가 도래하게 된 구텐베르크 이후의 시대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

For the graphic-design-savvy visitor to Tokyo, there is another layer of interest. The city is an enchanted playground of typographic and calligraphic pleasure. For the non-Japanese reader it is a wonderland of abstract form and free visual expression — an urban text, free from meaning and syntactical tyranny. All you have to do is enjoy the form and aesthetic flavour of the kanji word formations.

Words on a flag announcing “noodles” acquires the lyrical intensity of a musical phrase. Calligraphic flourishes are enjoyed for their elegant proportions and the dexterity of their execution, without the complication of needing to know what they are saying. Words are rendered as geometric shapes that echo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It’s a world of pure aesthetic typographic and calligraphic design that bypasses the necessity to construe meaning from written language.

It’s as if Marshall McLuhan’s Typographic Man — who arrived in the post-Gutenberg era of movable type that made possible the mechanical dissemination of texts and which in turn ushered in the era of global society — had never existed.

일본에는 세상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호감이 가지 않는 정치적인 저류(예를 들어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적 순수성을 둘러싼 관점 등)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잠시 머무는 방문자는 이런 점을 전혀 보지 못한다. 일본식 예의 바름이 모든 것을 가려준다. 도쿄는 내가 기본 그 어떤 도시보다도 평온과 위엄을 자아낸다. 그러나 와비 사비의 정신에서 보면 완벽하지 않다. 과연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

We can be sure that there are unattractive political undercurrents in Japan, just as there are in most other parts of the world — extreme Japanese nationalism and views around racial purity, for example. But the visitor on a short stay doesn’t glimpse any of this. Japanese politeness masks everything. Tokyo, more than any other city in the world I’ve ever visited, exudes serenity and dignity. But, in the spirit of wabi-sabi — it is not perfect. How could it ever be?

외르크 슈베르트페거는 인쇄물(주로 책)과 시각 아이덴티티 작업에 주력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스위스 취리히를 기반으로 다양한 규모 및 범위의 문화적, 상업적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영국 왕립예술학교에 다니면서 시작한 포토 다큐멘터리에 관한 잡지 《리-포트》 창간을 준비 중이다.

외르크 슈베르트페거

독일

L. 런던

배너, 350 × 150 cm, 2015

Jörg Schwertfeger is a graphic designer focused on printed matter — mainly books — and visual identities, ranging from the cultural to the financial sectors and small and independent groups and individuals to bigger corporations. His practice is based in Zurich, Switzerland, where he has worked independently and in collaborative settings since 2009. While doing his MA at the Royal College of Art in 2014, he founded *Re-Port*, a magazine on independent photo documentary, which will be introduced to the public some time in the near future.

Jörg Schwertfeger

Germany

L. London

Banner, 350 × 150 cm, 2015



런던
대조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해킹

에이드리언 쇼너시

런던. ‘거대한 종기(The Great Wen)’, ‘연기(The Smoke)’, 런던니움(Londinium) 등 수없이 많은 정체성을 가진 도시, 아주 오래된 고속도로와 고상한 공원들이 있는 도시, 장엄함과 변화무쌍한 재미가 있는 도시. 하지만 축축하고 살벌한 골목들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런 골목들이 태고의 강 템스로 이어지고 그 강에서 정기적으로 시체를 끌어낼 일이 생긴다. 런던은 한때 세계 제국의 수도였다. 그러나 그곳은 오늘날 노숙자들에게 추운 날 야간 버스에서 잠을 자라고 권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대조적인 것들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도시다.

런던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피와 부와 권력과 문화적인 계몽의 역사다. 고대 로마군부터 최근 육류 수송용 냉동차 뒤에 타고 밀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끌어들이는 세계 최대의 자석 같은 도시다. 그곳의 대단한 부와 무한한 가능성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을 똑같이 불러 모은다. 그리고 이곳에 닿으면 사람들은 나란히 살아가다. 부유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이 비싼 집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풍성한 거주지에서 엮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주택 개발 단지에 산다. 부와 가난이 인접한 것은 런던의 변함없는 특징이다.

나 역시 이주자인데 재정적 이유보다는 정서적 이유로 런던에 이끌렸다. 나는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마을이 너무 작다 보니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웃들이 다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꼭 막히고 답답한 공간 사회 같은 생활을 좋아한다. 이웃 간의 따스한 친절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은 그런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과민하고 자기집착적인 청년기 이후에 그러한 친밀함은 일종의 비자발적인 수감 생활이었다. 24시간 감시를 받는 이런 환경에서는 (카메라가 아니고 그저 이웃들의 방심할 틈 없는 눈이 있었을 뿐이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내세우고 싶은 종류의 사람이 되기가 불가능했다. 나는 투영할 페르소나가 없어서, 있는 척을 해야 했다. 즉,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보이는 것의 환상”이라고 한 것에 빠져들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손바닥만 한 동네에서는 내가 아닌 무엇이 된 것처럼 보이기가 불가능하다.

나는 수많은 인구가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대 도시에서만 “보이는 것의 환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냈다. 그리고 런던행 야간 버스를 버려 마련하자마자 소지품(대부분 책)이 든 작은 가방만 들고 고향을 떠났다. 가진 것이라곤 그저… 원가가 되고 싶은 강렬한 야심뿐이었다.

도시 생활에 필요한 자격이라고 팝 음악에 대한 집착뿐이었다. 음악적 재능은 없었지만 그것이 대중 음악계에서 경력을 쌓는 데 반드시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내 머릿속에는 개미집처럼 복잡한 팝과 팝 문화에 대한 지식이 바글거렸으니 아마도 음반사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인터넷이 도래하기 전 강력했던 음악 신문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다.

London
Emotional Hacking In the City of Contrasts

Adrian Shaughnessy

London — “The Great Wen,” “The Smoke,” Londinium: a city of numberless identities; a city of ancient highways and noble parks; a city of grandeur and pageant. But also a city of dank murderous alleyways leading to a primordial river — the Thames — from which corpses are dragged regularly. It was once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and the capital of the last great modern global empire. Yet it is also a city where today the homeless are advised to sleep on night buses to keep warm. The city of contrasts sine qua non.

London has two millennia of history to lug around: a history of blood, wealth, power and cultural enlightenment. From the ancient Romans to Afghan refugees arriving as stowaways in the back of refrigerated meat trucks, London is one of the world’s super magnets. Its vast wealth and limitless possibilities attract equally the world’s poor and the world’s rich. And when they get here, they live side by side: the rich in houses worth unimaginable amounts of money; the poor in housing estates that are within spitting distance of the leafy enclaves of the wealthy. The proximity of rich and poor is a perennial London feature.

I am also an immigrant — drawn to the city for emotional rather than financial reasons. I grew up in a tiny village a long way from London. A village so small it was impossible to do anything without the neighbours knowing what I was doing. Some people relish this cling-film-wrapped, airless communitarian living. It’s what they crave — the warmth of neighbourliness and human proximity.

Not me. As an over-sensitive, self-obsessed post-adolescent, the proximity was a form of involuntary imprisonment. In this environment of 24-hour surveillance — no cameras, only the far more vigilant eyes of the neighbours — it was impossible to be the sort of person I hoped to persuade others that I was. I had no persona to project, so I had to pretend to have one — I had to indulge in what the poet WB Yeats called “the illusion of seeming.” But seeming to be something you are not is impossible in a tiny community where everyone knows everything about you.

I quickly worked out that “the illusion of seeming” was only possible in a giant city, where a large population guaranteed anonymity. And as soon as I could raise the fare for the night bus to London, I left my home with only a small suitcase of possessions — mostly books — and the fierce ambition to become... some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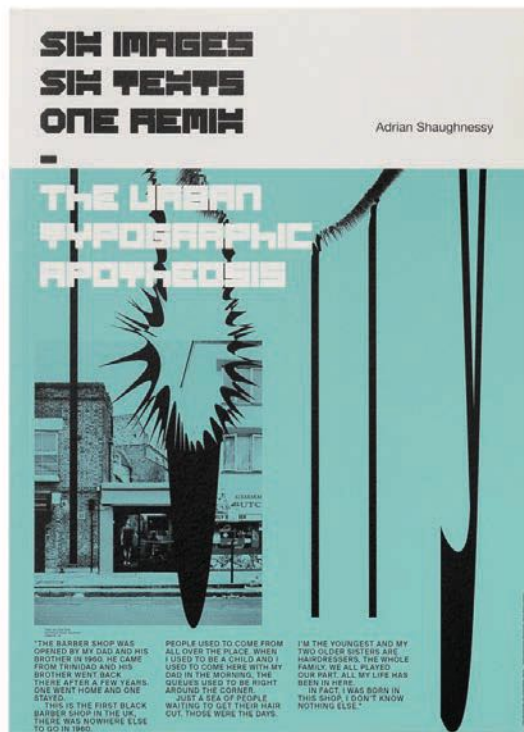
My only qualification for life in the city was an obsession with pop music. I had no musical talent (not always an impediment to a career in popular music), but in my head I had a teeming ant-hill of pop and pop culture knowledge. Perhaps I could get a job with a record label. Or on one of the all-powerful pre-internet music papers.

나는 펑크가 막 분출했을 때 대도시 런던에 도착했다. 나는 펑크록 애호가గా 아니어서 그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음악계의 화려한 모습을 보았고 (우선은 거만한 록 밴드들부터 시작하여) 여러 기관들과 관습에서 역겨움을 경험했다. 그래서 음악계 대신 사무직에서 일했는데 가난했고 불확실성 때문에 초초함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행복했다. 벽돌을 쌓듯 차근차근, 내 감정을 놓치지 않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했다.

역설적으로 도시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런던은 불안정한 신경증과 쇠퇴감, 붕괴의 느낌에 감염되어 있었다. IRA의 폭탄이 터지고, 공장과 일터는 산업의 불안정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신세대 이민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현대 영국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제약을 받게 되자 인종적인 긴장감이 뚜렷이 감지되었다. 이런 상황과 다른 사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기분이 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런던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런던은 내 고향이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내 고향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그래픽디자인이 내가 할 만한 일이라는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되었다. 내가 타이포그래피와 레이아웃 및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시각 디자인의 기술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는 일종의 자기 발견의 길을 찾았다. 더 이상 무엇을 하는 척하거나 어떻게 보일 필요가 없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내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래픽디자인만이 스승은 아니었다. 런던은 회복 탄력성 있는 인간이 되도록 엄격하고 가차 없는 교육을 시켜주었다. 무한한 재능이 숨 쉬는 도시에서 매일같이 살아남으려는 싸움, 도시의 다양한 유혹과 오락거리에 저항하는 안간힘과 익명성을 찾으려 애쓰면서도 역설적으로 동료애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거치며 끊임없이 몸부림쳤다. 안심과 위안과 안일함은 런던 생활의 특징이 아니다. 나는 언제 어느 때라도 실패와 거절의 구멍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패와 거절의 구멍은 런던을 헤킹하지 못하는 자를 기다리며, 단지 몇 발자국 떨어져 있을 뿐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내가 가는 길바닥에 구멍이 있는지 조심스레 살피며 걷는다.



I arrived in the metropolis just as punk erupted. I wasn't a punk, so I didn't fit in, though I felt the raw glamour of it, and shared much of its disgust with various institutions (pompous rock bands, for a start) and conventions. Instead of a life in music, I did clerical jobs. I was poor and living a life of nervous sofa-hopping uncertainty. But I was happy. Happy to be making myself brick by brick — emotion by emotion.

Paradoxically, the city was far from welcoming. In the late 1970s London was infected with the neurosis of insecurity, and a sense of decline and collapse. IRA bombs were going off; factories and workplaces were traumatised with industrial unrest; racial tensions were palpable as new generations of immigrants felt betrayed, and barred from many aspects of modern British life. These and other social pressures added to a feeling of unease and discomfort. Yet none of this persuaded me that London wasn't the place for me. London was my home. And, forty years on, it still is.

Eventually, I made the unexpected discovery that graphic design was something I could do. I discovered that I intuitively understood typography and layout, and how information could be presented in ways that others could understand. In learning the craft and art of visual design, I found a path to a sort of self-discovery. No more pretending. No more seeming. Through learning how to be a graphic designer I learned how to be my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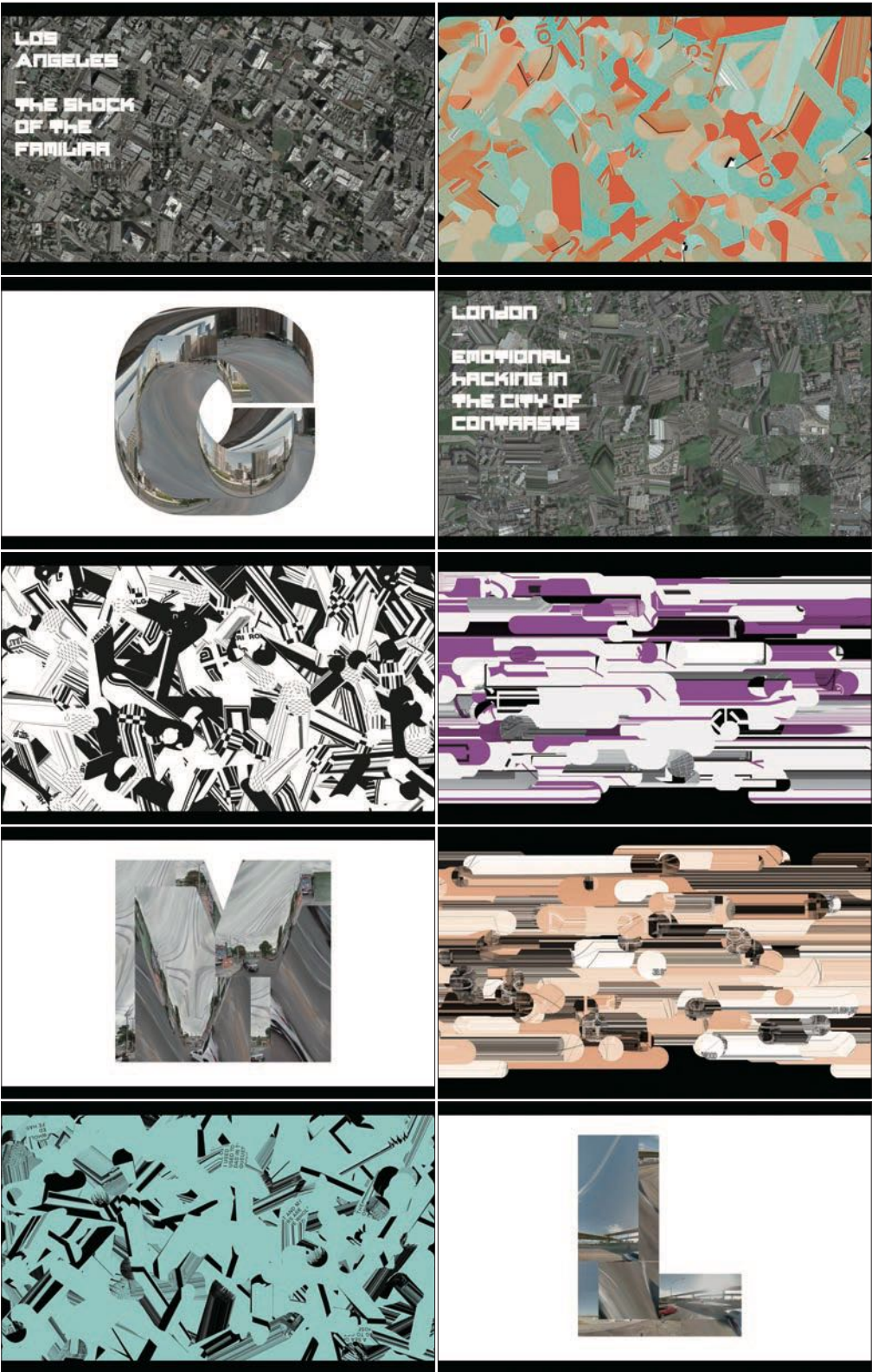
But graphic design wasn't my only teacher. London provided a strict and unforgiving education in becoming a resilient human being. The daily fight to survive in a city of unlimited talent; the battle to resist the city's many temptations and diversions and the tussle to find anonymity but also, paradoxically, companionship, was a ceaseless struggle. Security, comfort, easefulness are not features of London life. I knew that it was possible at any time to fall through the trap door of failure and rejection that awaits anyone who cannot hack London: the trap door was only ever a few steps away. Decades later, I still watch where I walk in case there's a hole in the ground waiting for me.

심규하(O)는 디자이너, 연구자, 그리고 카네기멜론 디자인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왕립예술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에서 박사 연구를 진행 중이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의 작업은 디자인과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접점에서 체계적이고 유희적인 시각 패턴을 탐구하는데, 이는 디자인, 예술, 그리고 기술이 융합된 다학제간 영역에 위치한다. 그는 주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각화, 제조, 그리고 설치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내러티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심규하

한국

한 개의 재구성
생성 디자인 설치, 2015



Shim Kyuha (Q) is a designer, researcher, Associate Professor in School of Design at the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PhD researcher in Visual Communication at the RCA. Q works in the integrative and interdisciplinary realm of art, design and technology, with particular interest in the language of systematic and playful patterns in design and computation. Central to his practice is the use of data as the primary medium in creating an appropriate narrative system informed and driven by integrated processes of visualization,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Shim Kyuha

Korea

One Remix
Generative Design Installation, 2015

내 키는 172.7센티미터로 구글에 따르면 미국에서 평균에 속한다. 아마도 자동차로 비유하면 혼다 시빅 정도? (하지만 나는 시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게 중요할까? [하늘에서 보면] 나는 그저 도시를 돌아다니는 작은 점에 불과하며, 차를 타면 그보다 조금 큰 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람이 움직이는 푸른 점으로 표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연속성 속의 연속성: 구글 어스는 축적된 사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크린상에 파노라마적인 가상 경험을 창조한다. 이리저리 연결시켜 재현한 장소는 시간순으로 보면 불연속일지 몰라도 어쨌든 인터페이스 덕분에 사용자는 비동시적인 장면들을 연속된 전체로 인지하게 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두루뭉술하게 연결되면 경험의 ‘사실성’이 증강되는 듯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차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창밖의 정경이 연상된다. 구글 어스에서 개인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은 당연히 프라이버시의 문제 때문에 흐리게 처리되고, 건물의 외관만이 실제 현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시각적인 형태의 연속성은 어떠한가? 이론적으로 벡터 선은 소프트웨어상에서 연속적이고 크기 조절을 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일단 스크린에 렌더링 되거나 종이에 인쇄되면 해상도나 독서 거리에 따라 불연속적이 된다. 예를 들어, 모노라인 서체의 ‘a’나 ‘A’는 안쪽과 바깥쪽 윤곽으로 구성된다. 비록 각 라인이 연속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기하학적인 구성체다. 그러나 색이 채워진 하나의 선으로 합쳐지면 그때는 연속적인 포지티브 공간으로 취급한다.

포스터의 창발 (Emergence of Poster): 똑같은 74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하나는 런던의 사우스 캔싱턴에 있고 하나는 서울의 홍대 인근에 있다. 맥락을 걷어내면 두 아파트는 형태 면에서 동일하지만, 각각의 도시 시스템 안에 통합되고 나면 두 장소는 완전히 달라진다. 가령, 가치가 다르다. 가까워서 보면 아파트의 부분들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멀리서 보면 각각의 관련 시스템 안에서 구별됨을 발견한다. 전체는 부분의 합일 뿐 아니라 시스템에 내재한 관계도 포함하고 있다.

전체가 유동적일 때, 여러 가지 변수를 담아내면 일련의 잘 짜인 반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건물들은 타운하우스처럼 시각적(또한 문화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한 모습으로 설계된다. 같은 건축가가 설계한 것처럼, 혹은 단순히 건설의 효율성을 고려해 유사하게 지은 듯 말이다. 이 경우, 전체는 알고리즘과 입력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에서 ‘응집력(cohesiveness)’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특정한 매개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하여 짜임새 있는 반복을 창조할 것인가? 만일 변종이 너무 많고 폭이 넓으면 결과물은 무계획적으로 보일 것이다. 역으로 만일 범위가 너무 좁으면 변형이 제한되고 지루할 것이다. 성공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열쇠는 일치하는 요소들과 변종 사이의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찾는 것이다.

I’m 5’8”, an average person’s height in the US according to Google. Perhaps a Honda Civic in the car world? (But wait, I don’t like Civics.) But does size matter in the macro view? I would be just a tiny point wandering around a city; a slightly heavier point when riding a car. Maybe that is why we’re shown as a moving blue dot in Google Maps application.

Continuity in Discontinuity: Google Earth uses historical photographic data to create panoramic virtual experiences on screen. The stitched representations of space may be discontinuous along a timeline, but somehow the interface makes users perceive the non-simultaneous scenes as a continuous whole. The blurring transitions leading one location to the next seem to augment the “reality” of the experience, reminding me of the blurry landscapes outside the window of a fast moving car. Individual human faces and automobile license plates are softened, of course, for privacy issues, and only the exterior of buildings remain to remind us that what we are seeing is indeed partly true to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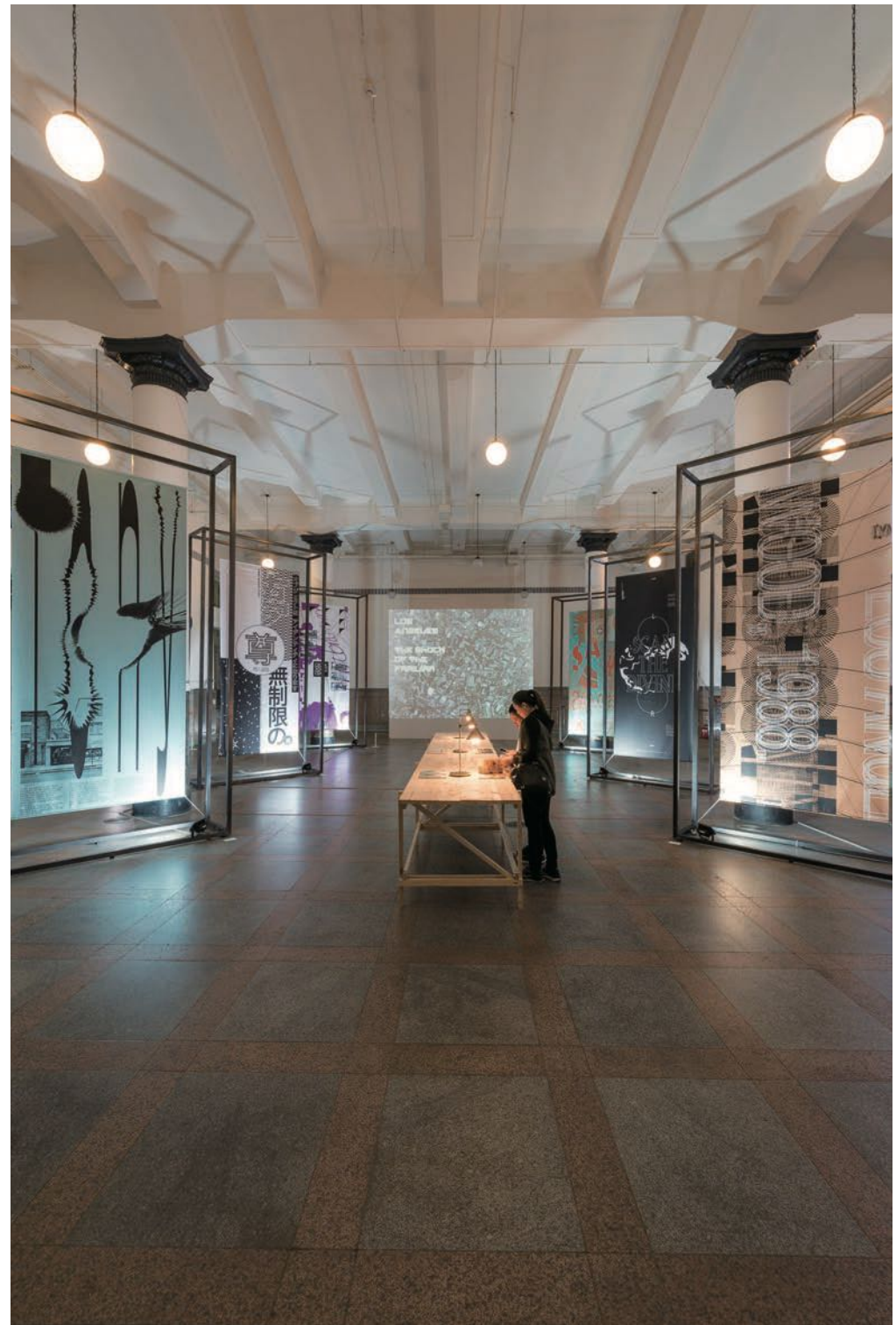
What of continuity in visual forms? Vector lines, in theory, are continuous and scalable in software, but once rendered on screen or printed in paper they can become discontinuous depending on resolution or reading distance. For instance, an “a” or “A” in a monoline typeface is comprised of inner and outer contour lines. Although each line is continuous, they are separate geometric entities but when merged as a single compound path filled with color, it is then treated as a continuous and positive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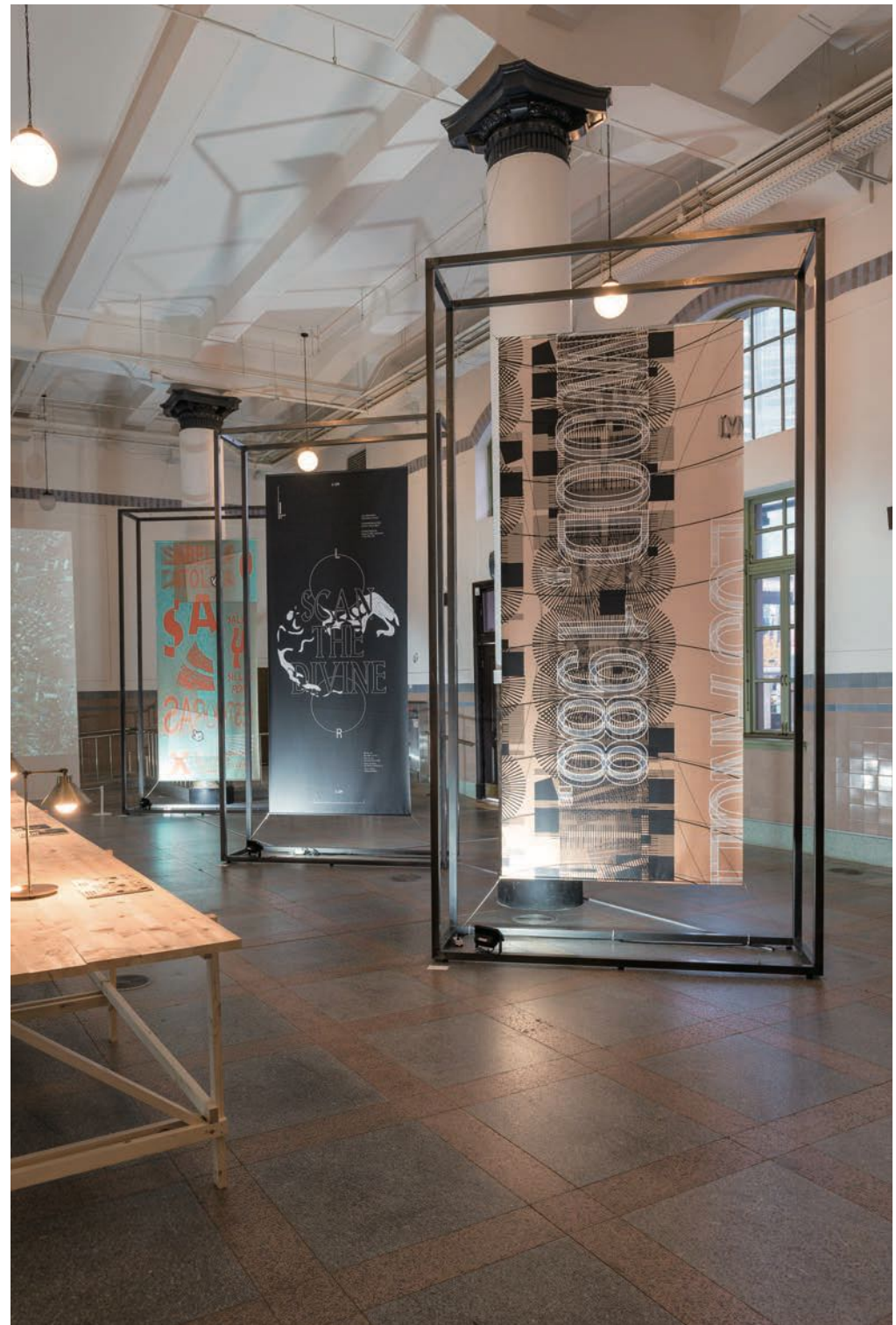
Emergence of Poster: Let’s imagine that there are two identical 800 ft² flats: one located in South Kensington, London and the other, in Hongdae, Seoul. When taken out of context they are identical, e.g. in form, but when integrated within the systems of their corresponding cities they are entirely different, e.g. in value. We zoom in to find their parts equal, we zoom out to discover they are distinct in their respective systems of relations. The whole contains not only its parts but also their relations within a system.

When the whole is flexible, embodying a list of variations, it can yield a set of cohesive iterations. Some buildings are designed to share similar features so that they form a visual (and cultural) community, like townhouses. They may be designed by the same architect or simply built similarly considering the efficiency in construction. In this case, the whole is a system comprised of an algorithm and input.

How do we deliver cohesiveness from the system? How do we control or play with certain parameters to create a cohesive set of iterations? If variants are too many and too broad, the outcome would perhaps look haphazard. Conversely if the range is too narrow, the variations would be limited and boring. The key to building successful systems is finding the right tension and balance between variants and consonants.







URE / 처

TEXT / 텍스처

어떤 도시를 처음 방문할 때 우리는 지도를 본다.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아래를 내려다보며, 도시 전체를 조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시선은 극히 일부에 국한된다. 한 개인에게 도시란 그를 둘러싼 360도의 풍경을 모아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1년간 진행된 ‘타이포잔치 뉴스레터’ 프로젝트에 ‘아시아 도시 텍스트/처’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했다. 텍스처(texture)라는 단어는 ‘텍스트(text)’를 포함하고 있는데, 두 단어 모두 ‘엮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텍스투스(textus)’에 뿌리로 두고 있다. 글자들이 직조되어 텍스트를 이루고, 그 느낌은 질감(texture)이 된다.

‘아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유럽 너머에 있는 동쪽 지역을 이른다. 어떤 구체적인 지역이라기 보다는 꽤나 거친, 추상적인 단어이다. 여기에 선보이는 프로젝트는 이 거친 느낌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아시아라는 고정된 틀을 제거하고, 그래픽 디자이너와 타이포그래퍼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본 도시 풍경의 지점들을 전시한다. 그 지점들이 연결되면 하나의 직조물이 만들어진다. 바로 아시아 도시들의 ‘텍스트/처’가 되는 것이다.

고토 테츠야

When we first visit a city, we look at a map. We envision a city from an omniscient point of view, encompassing it from its wholeness. However, our view is in fact extremely limited. For an individual, a city may mean an accumulation of landscapes that surrounds them in a 360-degree panorama.

“ASIA CITY TEXT/URE” is a series of articles published as part of the “Typojanchi Newsletter” project. The word “texture” includes the prefix “text.” Interestingly, the words text and texture both come from the same Latin root, textus, which means “thing woven.” Indeed, characters are woven into text, the feel of which then becomes texture-like.

In the case of the word “Asia,” it originally indicated the huge swath east of Europe. For some, the word Asia is “rough,” yet this exhibition responds to its roughness and presents an Asia without its typical stereotypes. It exhibits landscapes that graphic designers and typographers saw firsthand in cities. When these specific points are connected, the lines will be interwoven and ultimately become a TEXT/URE.

Tetsuya Goto

큐레이터
고토 테츠야

디자이너/프로그래머
하기와라 순야

기술 지원
강무경

협찬
삼성전자

도시사 CITY

Curator
Tetsuya Goto

Designer/Programmer
Shunya Hagiwara

Technical Support
Kang Mookyoung

Powered by Samsung

아시아 ASIA

참여 작가 및 도시

류징샤 + 리샤오보
베이징

모리무라 마코토
오사카

손 켈빈 쿠
싱가포르

신신(신동혁, 신해옥)
서울

자빈 모
홍콩

장응우옌
호찌민시

프랍다 윤
방콕

홍창렌
타이베이

Participants & Cities

Giang Nguyen
Ho Chi Minh City

Hung Chang-Lien
Taipei

Javin Mo
Hong Kong

Liu Jingsha + Li Shaobo
Beijing

Makoto Morimura
Osaka

Prabda Yoon
Bangkok

Sean Kelvin Khoo
Singapore

ShinShin
(Shin Donghyeok, Shin Haeok)
Seoul

그래픽 디자이너. 홍콩 진후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4년 이탈리아 베네통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센터 파브리카의 초빙을 받아 아트 디렉터로 일했다. 2006년 홍콩으로 돌아와 디자인 스튜디오 'Milkxhake'를 설립한 그는 현재 'TEDx주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자인 살롱' 시리즈 큐레이터, 디자인 잡지 《Design 360°》의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홍콩에서 열린 《타입 여행 - 새로운 아시아 그래픽디자인》전을 공동 기획했으며,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고토 테츠야와 함께 《아이디어》지에 특집 연재된 '옐로우 페이지'의 편집을 맡았다.

Javin MO is the founder of design studio Milkxhake and a Hong Kong-based graphic designer. He was invited to join FABRICA, the Benetton Research and Communication Center in Italy as an art director in 2004. His studio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design collaborations with leading local and international clients, particularly from the arts, cultural and institutional sectors. Javin is currently the executive creative director of "TEDxKowloon" and curator of Design Salon series, he is also the Creative and Design Consultant of *Design 360°*, the only bilingual design magazine in China. In Jan 2014, he co-curated with OOO Projects from Osaka for the first graphic design exhibition *TYPE TRIP - THE NEW ASIAN GRAPHIC DESIGN EXHIBITION* successfully held in Hong Kong. While traveling to Asian cities between 2014 and 2015, he was also invited to become the associate editor together with Tetsuya Goto, graphic designer and curator from Osaka, for "YELLOW PAGE," a special feature appeared in *IDEA Magazine* from Japan.

자빈 모

홍콩

홍콩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리의 수공예 타이포그래피 사진을 모았다. 식민지 시대부터 오랫동안 지역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온 도로표지판이나 작은 가게, 지역 식당, 공공시설의 중국어와 영어 간판은 전통적인 기교로 가득 차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라지기 전 우리 도시 안에 있는 "공동체 문자"를 기록한다.

사라지는 '텍스트/처'

2015

Javin Mo

Hong Kong

This series of photos are a visual archive of street handcraft typography gradually fading out in Hong Kong. Street roads, small shops, local restaurants or other public facilities signages are full of traditional craftsmanship in both Chinese and English contexts, and have been existing in our neighbourhood community for years since the colonial past. The project is a documentation of "Community Type" in our city before they are totally gone and replaced.

Disappearing "Text/ure"

2015

Hong Kong





제품 디자인을 전공한 홍창련은 지난 3년간 음악 및 스포츠 문화 관련 그래픽디자인과 편집 디자인 작업에 주력해왔다. 그중 그가 초창기부터 아이덴티티 및 그래픽 작업을 해온 '코너'는 2012년에 만들어진 전자 음악 공연장으로서 다양한 시각 예술가 및 디제이들의 협업을 위한 창작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오랫동안 아트 디렉터를 맡아온 《러닝》은 타이베이에서 발행되는 스포츠 문화 잡지로서 2015년 타이완의 골든 트라이포드 어워드에서 '올해의 잡지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홍창련

타이완

초라하지만 별난 재미를 주는 거리의 오래된 손글씨를 포착한 사진들을 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판은 색이 바래고 퇴색되었지만 원래 글씨가 가지고 있는 원본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발견되는 이 거리의 손글씨들은 우리를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데려가는 타임머신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가 가진 풍성한 문자 문화의 보고이다.

손글씨 호황 시대

2015

Taipei



Hung Chang Lien aka elf-19, a Taipei-based graphic designer, graduated from Shu-Te University with a focus on product design. His main works include music, sport, and cultural related graphic and editing design. In past 3 years, he mainly focuses his work on "Korner" and *Running* magazine as a soho artist. "Korner" is a creative space for electronic music and visual artists launched in 2012, not a party space, but also a platform for cutting-edge visual artist and DJs to collaborate. Hung has played a part as long term CI/graphic designer for Korner since its opening. *Running* is a magazine about sport and athletes with aesthetic made in Taipei. Hung has been the art director ever since, and won the Annual Magazine Design Awards in Taiwan's pioneer design area, "Golden Tripod Awards" in 2015.

Hung Chang-Lien

Taiwan

The artist tried to capture the humble but quirkily interesting essence from those old hand writings on the street, although the paints are mottled through time passing, they still carry an authentic glow from the past like pebbles on the road, that come all the way traveling through time and still shine on in those most unexpected places.

Moji Thriving Through Time

2015

류징샤는 1998년 후난 사범대학교 순수미술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며 2009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후난 사범대학교 조교수이자 후난포장연합 디자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폰트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그리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리샤오보는 중국의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후난 사범대학교 순수미술학원 부학장, 광저우 순수미술학원 방문 교수, 중앙미술학교 부교수 및 연구원이며 중국 폰트 디자인 및 연구 센터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가장 큰 폰트 회사 펀더타입과 시노타입의 디자인 자문과 중국 트레이드마크 디자인 경연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50개 이상의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으며,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디자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려주고 있다.

류징샤 + 리샤오보

중국

‘타입 시티’는 베이징, 충칭, 창사에 거주하는 세 명의 리서치 팀이 2005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폭넓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도시의 특정 시공간을 대상으로 일어난 글자의 변화를 조사했다. 중국 문자의 시공간적 차이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과 문자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타입 시티

2015

Beijing

Liu Jingsha + Li Shaobo

China

The project starts from 2005, with three researching teams based in Beijing, Chongqing, and Changsha. With a broad sociological perspective, this visual culture project aims to record objectively changes happening to types in specific time and spaces through field work.

Type City
2015

Liu Jingsha graduated from Fine Arts Academy of Hunan Normal University in 1998. She became a lecturer of the same university after graduation, and received her master degree in 2009. Now, she is a senior lecturer of the school, and the Deputy Secretary of Design Committee of Hunan Packaging Federation, working in the fonts design, graphic design and relevant research areas.

Li Shaobo is a Chinese designer, his area of work includes CI, packaging, fonts etc. He is the Vice Dean of the Fine Arts Academy of Hunan Normal University and Visiting Professor in 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Senior Lecturer and Researcher in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member of the academic committee of Center for Chinese Font Design and Research. Aside from that, he also works as a design consultant for the two largest Chinese font foundries: Foundertype and Sinotype. In recent years, Li has been invited to numer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introduce his design and ideas, and has presided over many design activities, he is the winner of more than 50 international design awards, and he has also served as judge for the China Trademark Design Competition.



1973년 방콕에서 태어난 프랍다 윤은 저자이자 편집자, 번역가, 출판인, 디자이너이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과 쿠퍼 유니온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한 그는 2000년 이래 타이의 수많은 출판사들과 일하며 북 디자이너로 왕성하게 작업하고 있다.

프랍다 윤

타이

방콕은 문자로 어지러운 도시다. 대부분의 문자가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채 실용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다. 이 문자들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테크놀로지, 동시대의 유행이나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면 그뿐, 이들을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태어난 문자들은 종종 매우 멋지고, 낯설고, 재미를 안겨주기도 한다. 프랍다 윤은 이런 풍경이 하나의 도시로서 방콕이 가진 특별한 측면 가운데 하나라고 여긴다. 이 문자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방콕 사람들에게 이들은 건전하고, 적절하고, 아름다울 뿐이다.

의도치 않은 부조리의 도시
2015

Prabda Yoon
Thailand

Bangkok is littered with letters, most of which are not crea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esigner's mind. They are made for practical communication and the styles generally follow contemporary trends and the most economical or current technologies. We know what the words say and for most people they are not regarded as visual design. This quality can often bring about some very stunning, unintentional strangeness and great humour. To me, that's also one special quality of Bangkok as a city. It's an absurd city to look at, only because the people don't mean it to be strange at all. They mean it to be wholesome, proper and beautiful.

City of Unintentional Absurdity
2015

Bangkok



Prabda Yoon was born in Bangkok in 1973. Prabda is a writer, editor, translator, publisher and designer. He studied graphic design in New York City at Parsons School of Design and the Cooper Union. Since 2000 he has been prolific as a book cover designer, working for numerous publishers in Thailand.



베트남의 수도 호찌민에서 활동하는 장응우옌은 낮에는 RMIT 대학교 사이공 남 캠퍼스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밤에는 다학제적 디자이너로 살아간다. 2012년 서베너 미술 디자인 대학을 졸업한 그는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 여러 에이전시들과 (주로 브랜딩 관련) 그래픽, UX & UI 디자이너로서 협업하기도 한다. 또한 그는 홀로 꾸러나가는 폰트 회사 스위트쇼페의 단 하나뿐인 글꼴 디자이너이자, 최근 만들어진 창작 집단 '더 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장응우옌

베트남

장응우옌은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시절 유행했던 아르 데코 운동부터 오늘날 세계화가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타이포그래피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외국 문화가 호찌민이라는 도시에 끼친 흔적을 추적한다.

사이공 — 용광로
2015

Giang Nguyen is based in Saigon aka. Ho Chi Minh City, Vietnam. He is a design lecturer by day at RMIT University (Saigon South Campus, Vietnam) and a multidisciplinary designer by night. Giang graduated from Savannah College of Art & Design (Savannah, GA) — Master of Art (Graphic Design) program in 2012. He has been working both independently and in collaboration with various agencies around the world as a graphic (mostly branding), UX & UI designer. He is also a type designer at his one-man type foundry called The Sweatshoppe. At the moment, Giang is partnering with the newly formed creative collective, The Lab.

Giang Nguyen
Vietnam

The typographic images document the traces of various influences of foreign cultures in Saigon/Ho Chi Minh City — from aesthetic influences of Art Deco movement dated back to the French-colonial era of early 20th century, to social, economical influences of modern day globalization.

Saigon — The Melting Pot
2015

Ho Chi Minh City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난양 기술대학교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으며, 이후 싱가포르 라살 미술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공부했다. 2008년 졸업 후 푸필피플(Pp.)을 공동 설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리소그래프를 이용한 실험적 출판사 푸시 프레스의 파트너로 활동하며 2012년부터 테마섹 폴리테크닉 디자인 스쿨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손 켈빈 쿠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삭막한 법률 및 규제로 유명한 도시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문화 유산과 근대화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른 긴장도 자주 표출된다. 싱가포르 국가(國歌) 제목이기도 한 〈싱가포르여! 전진하라!〉는 싱가포르 고유의 문자 풍경을 통해 타이포그래피가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봉합하는 시각언어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싱가포르여! 전진하라!
2015

Singap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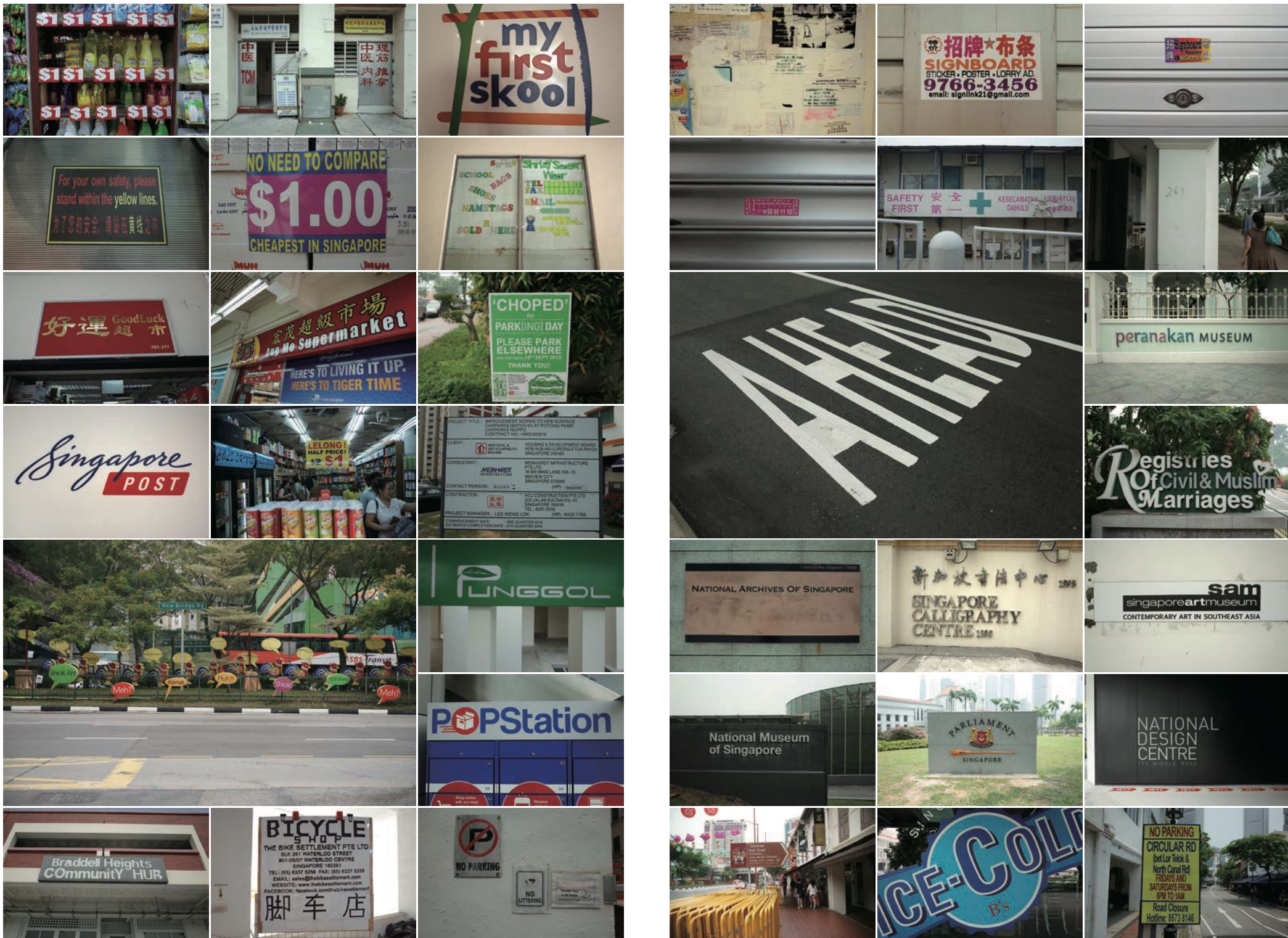
Sean Kelvin Khoo is a graphic designer based in Singapore. He enrolled i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to become a Computer Engineer, but left the degree to pursue Communication Design at LASALLE College of the Arts Singapore. Upon graduation in 2008, he co-founded Pupilpeople (Pp.), where he works on projects across a wide range of sectors. He is also a partner in an experimental Risograph press, Push — Press, and since 2012, he has been engaged as an adjunct faculty at Temasek Polytechnic School of Design Singapore.

Sean Kelvin Khoo
Singapore

Singapore is well-known for its cultural diversity — a stark contrast against its equally strong reputation for strict laws and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there appears to be a tension between perspectives on heritage and modernization. The observation of the vernacular presents a glimpse into how typography acts as a visual language to reconcile these issues.

Onward! Singapore!
2015





신해옥과 신동혁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다. 두 사람은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했고, 이후 문화 예술 분야에서 디자이너로서 큐레이터, 편집자, 현대 미술가 등과 협업하며 일하고 있다. 여러 디자인, 미술 전시에 참여했고 자기 주도적인 작업도 병행한다. 최근 작업으로 <사물학 II: 제작자들의 도시>, <제록스 프로젝트>, <타이포잔치 2015 뉴스레터> 등이 있다.

신신 (신동혁, 신해옥)

한국

<서울화된 도시>는 외국의 도시 이름을 사용한 서울 시내 가게 간판들을 모은 이미지 아카이브이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수도이지만 서울에 있는 돈가스 레스토랑의 이름이기도 하다. 서울로 불려온 이들 이국의 도시들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서울의 거리 문자 풍경을 이룬다.

서울화된 도시
2015

Seoul



Shin Donghyeok and Shin Haeok (aka ShinShin) based in Seoul, Korea, as graphic designers. Both studied at Dankook University, Korea. They work together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area, collaborating with curators, editors, artists and institutions. They are also engaged in self-initiated projects and exhibitions. Their recent works include *Objectology II: Make, Xerox Project, Typojanchi Newsletter*.

ShinShin (Shin Donghyeok, Shin Haeok)

Korea

Seoulized City are image archives of signboards of various shops which have foreign city names on them for commercial usage. For example, one photo shows the city name of "Copenhagen," which is a pork cutlet restaurant in Seoul, which is not related with the real name of the main city of Denmark.

Seoulized City
2015

1976년 야마나시 현에서 출생한 모리무라 마코토는 오사카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작가이다. 오사카 미술대학교와 영국 노팅엄 트랜트 대학교를 졸업했다. 야마나시 현 미술관, 오사카의 스리 코노하나 미술관, 뉴욕의 이선 코헨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많은 국제전에 참여했다. 정보를 가지고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는 그의 작업은 회화, 조각, 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예술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사전에서 특정 글자를 오려 내거나 책에서 특정 글자들을 지우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모리무라 마코토

일본

2008년 영국 북서부 랭커셔에서 발견된 '아글레튼'은 구글 지도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도시이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모리무라 마코토는 전화번호부에 실린 광고 지도를 이용해 실제 도시와 결합된,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낸다. 전화번호부는 특정 지역의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 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없다. 모리무라 마코토는 여기에 실린 모든 지도를 오려낸 후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길과 철도 등을 이어 붙여 '가깝고도 먼', '실제이자 가상의' 도시를 재구축한다. 또한 수정액을 이용해 모든 텍스트를 지워 익명의 도시로 만든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구글 지도에서 '아글레튼'에 있는 가게 정보를 추가해나가며 도시를 완성해가듯, 작가는 관람객이 상상력을 발휘해 지워진 정보를 채워나감으로써 이 '가깝고도 먼' 허구의 도시가 실재와 결합되기를 바란다.

타운페이지(오사카 북부)

지도, 수정액, 선, 천, 전화 번호부, 60.6×50 cm, 2015

Makoto Morimura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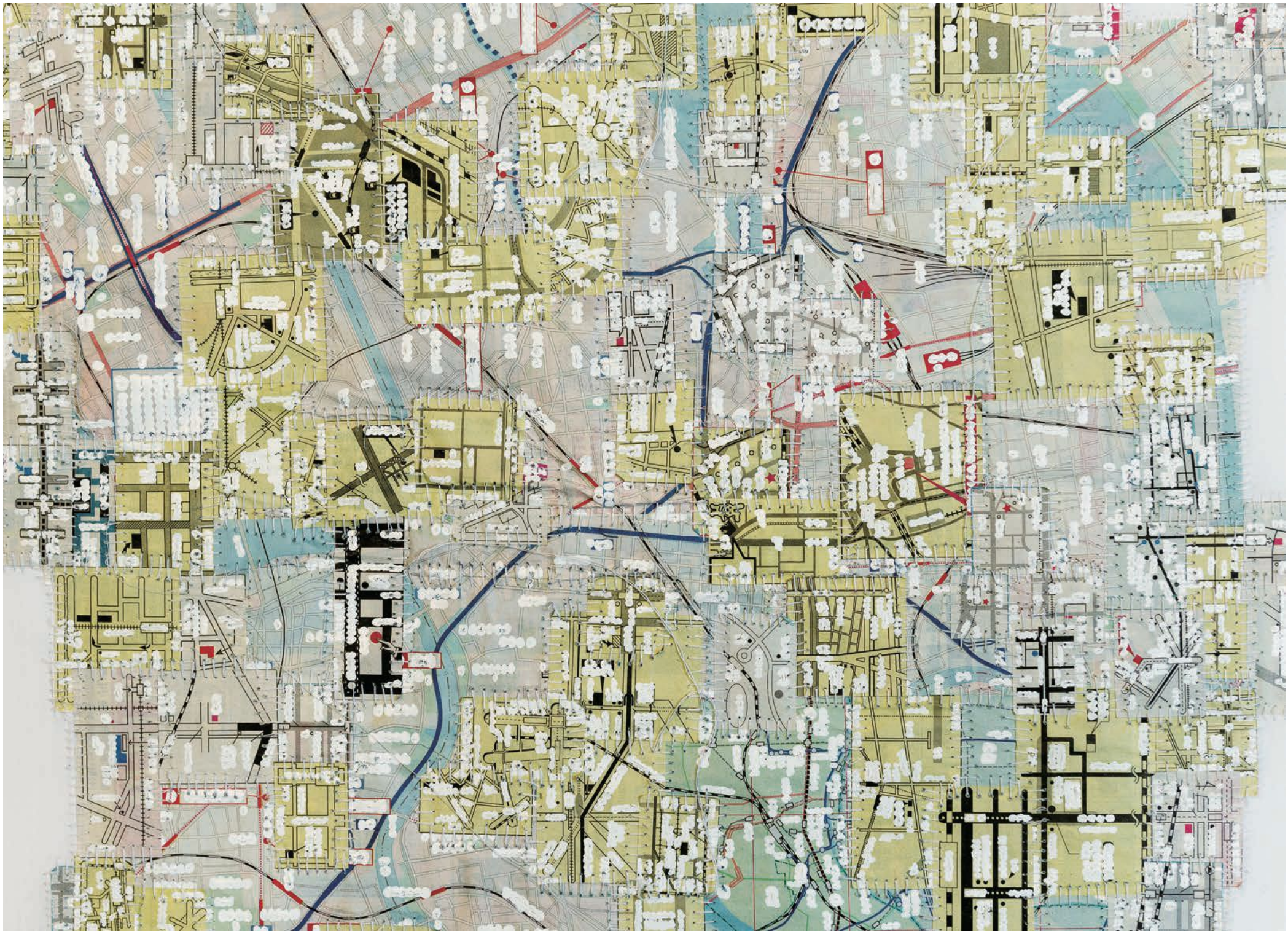
A fictional city in the U.K. "Argleton" found on Google Maps in 2008. It inspired the Makoto Morimura and he created "a fictional city that is synchronized with an actual city at close distant senses" by using maps in the advertisements on the Yellow Pages. The Yellow Pages is a collection of information dedicated to a certain area. Everybody knows what it is for, but it is never be read all the way through. Makoto restructured "a fictional city that is synchronized with an actual city at close distant senses" by cutting out all the maps on the advertisements and piecing the roads and railways differently to the actual map. Also, he erased all the text information on the map by correction fluid in order to make the fictional city anonymized. Because as the fact that many and unspecified people added information such as shops on the Google Map of "Argleton" making the city became factual, he intended to let viewers imagine detailed information of the city by erasing all the text information from "a fictional city that is synchronized with an actual city at close distant sense.

Townpage (Osaka-City Upstate)

Map, correction fluid, line, cloth and Yellow Pages, 60.6×50 cm, 2015

Makoto Morimura is a contemporary artist currently living and working in Osaka, Japan. He was born in Yamanashi Prefecture, Japan, in 1976, and graduated from the Osaka College of Art (Osaka, Japan) in 1997 and the Nottingham Trent University (Nottingham, England) in 2000. He has held his solo exhibitions at Yamanashi Prefectural Museum of Art (Kofu, Japan), Ethan Cohen Fine Arts (New York, USA), the three konohana (Osaka, Japan) and more. His work has also been included in many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 where he has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with information. Morimura has worked on several platforms such as painting, sculpture, moving image, installation and so on. In recent years, he worked with whiteouting specific letters in books and cutting out specific letters from the dictionary. His work is based on his personal experiences.







종로 ()가:
매체로서의 거리

타이포그래피는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커로 존재한다. 타이포그래피는 공간, 건물,
건축에 의미를 부여한다. 타이포그래피는
도시와 그곳에 살고, 도시에 의존하며,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복돋고 그 대화를 구성한다. 거주자나
방문자 모두에게 한 도시를 인식시키는 것
역시 타이포그래피다. 이런 전제 아래,
타이포그래피는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강화할 수도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도시 그 자체일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형태, 맥락, 언어를 부여할 수 있다. 로버트
벤투리는 1968년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단지 하나의 공간, 그 이상을 구현하는
건축 양식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장식된
작업장 [전체적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되
정면은 위엄 있는 디자인]’에 대한
그의 연구는 간판과 사람, 건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대화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다. 이 프로젝트 역시, 도시의
사람들에게 매일 이야기를 건네는 수많은
일상의 매체들을 통해 타이포그래피를
탐색하고자 한다.

Jongno () Ga:
The Street as Medium

Typography not only exists as a layer
connecting people with cities, but
as something that can impart
meaning upon spaces, buildings and
architecture. It facilitates and often
shapes a dialogue between a city and
those who live there and rely on it.
Typography also allows both residents
and visitors to recognize a city. Based
on such a premise, typography can
form and reinforce the identity of
an urban metropolis. It can give form,
context and language to “who” that
city might really be. On a research
excursion to the Las Vegas Strip in
1968, Robert Venturi investigated the
capacity of architecture to embody
more than just physical space. His
in-depth look at the concept of
“decorated sheds” found intent and
meaning in the everyday dialogue
taking place between signs, people,
and buildings. Similarly, this particular
section of the *Typojanchi* exhibition
seeks to explore typography through
the numerous everyday channels that
speak to people in cities on a daily
basis. Signage, electronic typography
at night, flyers, banners, billboards
and wayfinding systems are how and
where conversations often take place
on city streets.

간판, 한밤의 전광판, 전단지, 배너, 옥외
광고판, 길 안내 체계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프로젝트에 초대된 열여섯 명의 작가들은
이러한 거리의 언어와 매체를 통해 타이포
그래피를 탐색하고, 고민하며, 의문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후 일상의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매체와 맥락, 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타이포그래피 구조물들과
광고판을 만들어낸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종로 ()가’라는
가상의 골목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종로는
서울 한 가운데를 동서로 관통하는 가장
긴 통로다. 원래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까지
있는데, 이 전시를 위해 가상의 ()가를
만들어냈다. 여기에서 디자이너들은
광고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타이포그래피와
그것의 기능, 발화, 표현 등을 연구하고
전시하게 될 것이다. ‘종로 ()가’는
문화역서울 284 뒤쪽의 긴 통로에서 실제
골목길로 재현된다. 작가들은 급격하게
진화한 서울의 간판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과 추억, 그리고 옛 한국의 모습을
연결시키면서 이들 사이의 타이포그래피적
담화를 이끌어낸다.

This section of *Typojanchi* invites
typographers to explore, research,
ponder, question and scrutinize
typography through this language and
medium of the streets. Sixteen
typographers have been invited to
create typographic constructions and
conversations using the medium,
contexts and communication
platforms typically experienced at
street level by everyday people.

For this exhibition, we will be
creating a hypothetical alleyway or
thoroughfare known as “Jongno ()
Ga.” Jongno is a historically well-
known east/west avenue running
through central Seoul, on the north
side of the mighty Han River. There
has traditionally been a series
of streets running perpendicular to
Jongno that go from Jongno 1-ga to
Jongno 6-ga (something akin to 1st
Avenue to 6th Avenue). Within
“Jongno () Ga,” designers will
examine typography and its function,
articulation, and expression through
the medium of signage. “Jongno ()
Ga” will exist as a long thoroughfare
that exists behind Culture Station
Seoul 284 in order to simulate
an actual alleyway or street. All of the
designers, with links and connec-
tions to Korea, as well as personal
histories and recollections of the rapid
evolution of signage culture in
Seoul, will all have their own take on
these conversations in typography.

이 전시에는 다채로운 범위의 배경,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은
초대했다. 몇몇 작가들은 전통적인 매체
맥락 안에서 타이포그래피를 다룰 것이다.
또한 타입이나 레터링을 디자인하는
작업이나, 더욱 표현적이거나 소비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을 것이다.
몇몇 프로젝트는 장소특정적 작업이거나,
오늘날 서울에서 발화되거나 발발되지
않은 소통의 규칙을 기반으로 한 개념적인
작업이다. 또 몇몇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비틀고 재치 있게 표현하거나, 광고물
그 자체의 물리적, 형태적, 구조적 특징을
탐색한 결과로 나온 작품들도 있다.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도시 일상의 경험을
시각화하고, 소통을 자극하며 촉발한다는
점에서 작가와 관람객 모두에게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크리스 로

The typographers come from
a wide range of backgrounds and
mediums. Some deal with the
typography in a traditional context,
while other deal with the design
of type or lettering. Still others deal
with type in more expressive or
consumable circumstances.
The same can be said for each
conceptual direction of the
participating projects, some of
which are specific to one location
and place. There are also projects
based conceptually on some of
the spoken and unspoken rules of
communication in contemporary
Seoul, with several others seeking to
twist certain experiences — even
bring humor to them — that people
have from morning to night
every day. In addition, there are
explorations that investigate the
physical, formal, and constructive
nature of signs themselves.
Each project can be viewed as a rare
opportunity for typographers to
explore, simulate, and/or provoke
typography as it might be seen,
communicated with and visualized
through the everyday experiences
we see in any given city.

Chris Ro

JONGNO JOYRIDE

참여 작가
COM
김동환
김욱
김정훈
박찬신
반윤정(홍단)
신덕호
안마노
오디너리 피플
윤민구
마빈 리 + 엘리 파크 소렌슨
이송은 + 김성욱
장문정
전재운
정진열
코우너스

큐레이터
크리스 로

Participating Artists
Ahn Mano
Ban Yunjung (Hongdan)
COM
Corners
Jang Moonjung
Jeon Jae
Jung Jin
Kim Donghwan
Kim Hoon
Kim Uk
Lee Lara + Kim Oui
Marvin Lee + Eli Park Sorensen
Ordinary People
Park Chanshin
Shin Dokho
Yoon Mingoo

Curator
Chris Ro

그래픽 디자이너. 홍익대학교와 바젤 디자인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했다. 현재 안그래픽스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며, 뜻 맞는 이들과 독립적인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안마노

한국

안마노는 전통적인 그래픽디자인 기법인 실루엣팅과 레이저 커팅 시트를 위한 필수조건인 벡터라이징을 활용한 조형적 실험을 통해 디자이너가 간판이라는 매체를 다룰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과제, 즉 단순화와 정보 전달을 넘어서 표현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실루엣

아크릴에 시트 커팅, 가변 크기, 2015

Ahn Mano is a graphic designer. He studied graphic design in Hongik University and the Basel School of Design. Currently he works for Ahn Graphics as a book designer and creates independent works with like-minded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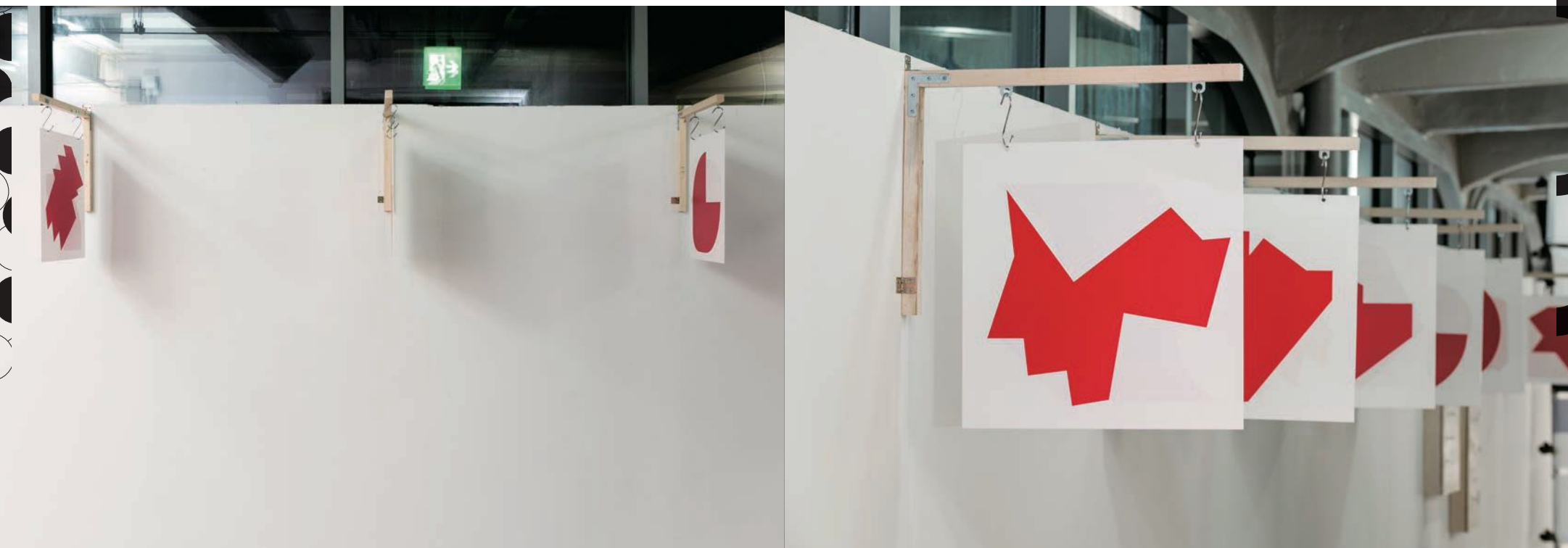
Ahn Mano

Korea

Ahn Mano explores the traditional graphic design techniques of silhouetting and vectorizing which is the essential factor for laser cutting sheets and experiments with them. With this, he researches the problem which a designer has to face to when they deal with signage as a medium, and its expressive possibility beyond the simplification and information delivery.

Silhouette

Vinyl laser cutting on acrylic, dimensions variable, 2015



윤민구는 공룡에 빠져 있는 그래픽, 글꼴 디자이너이다. 건국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스튜디오 Nontoxic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2002년 웹 폰트 바른글꼴을 시작으로 또각체, 어린훈민정음, 가날부리, 윤슬체 등 다양한 한글꼴을 디자인했다. 관심사는 현대 공룡학과 글자. 안그래픽스 타이포그래피연구소에서 연구원 겸 글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파주 타이포그래피학교에서 한글꼴 디자인을 가르친다. 한국 타이포그래피학회 회원이며, 다양한 분야의 작업자들과의 협업에 관심이 많고, 개인 작업과 전시를 병행하며 1인 디자이너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밤이 찾아와 거리가 어둠에 잠기면, 도시의 표층 위로 익숙한 글자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갖가지 색과 모양으로, 때론 자극적인 점등으로 시선을 빼앗는 간판 속 글자들은 이즈음 쏟아져 나온 수많은 한글 레터링 혹은 글꼴들과 비견될지 모른다. 근대의 거대 도시 — 타이포그래피를 점령한 LED — 디지털 활자들 속에서 작가는 예전의 글자 장인들이 손으로 일일이 그려낸 네온사인 원도 활자를 찾아 나선다.

오리지널 도시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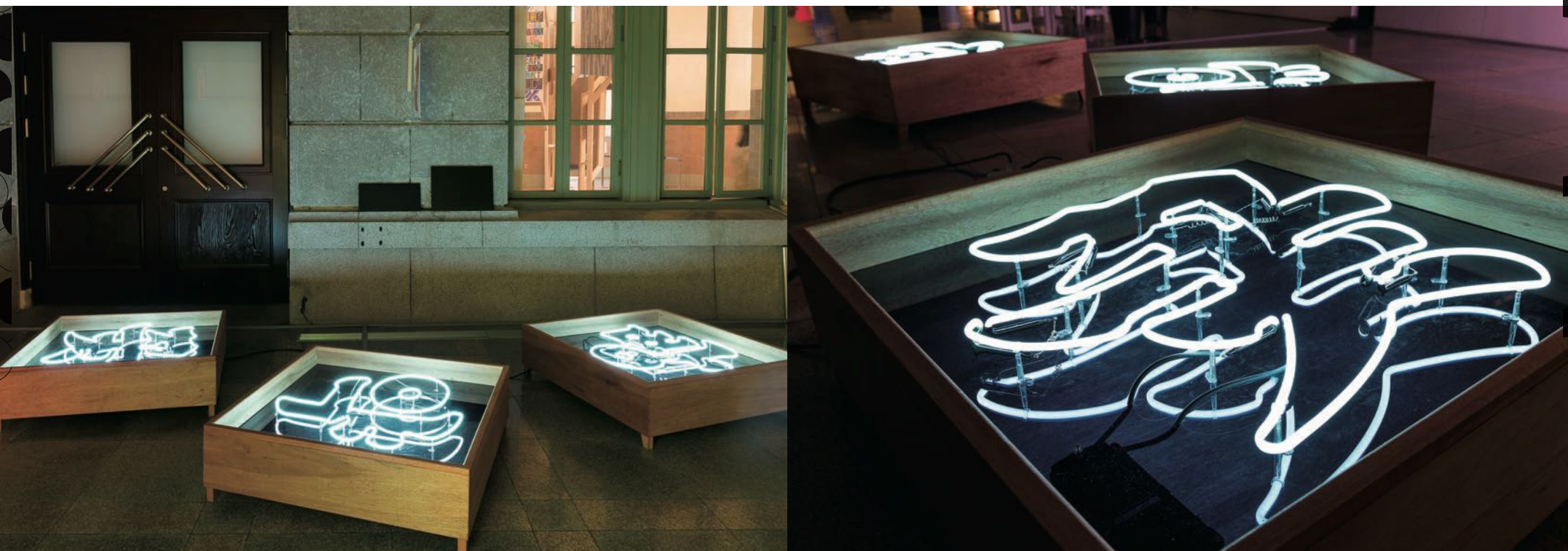
네온사인, 3개, 각 100 x 100 cm, 2015

Yoon Mingoo, a dinosaur fanatic, is a graphic and typeface designer based on South Korea. He majored in communication design at Konkuk University and worked as a graphic designer at studio Nontoxic. In 2002, starting from webfont Bareun Geulggol, he designed other typefaces such as young-Hunminjeongeum, Gan-al-buri, Yoonseul, and others. His main interest is the modern dinosaurology, Hangeul (Korean alphabet) and typography.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researcher and as a typeface designer at Ahn Graphics Typography lab and member of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In addition, He lectures on Korean typeface design in PaTI (Paju Typography Institute) and at the same time he designs his own works.

When night comes and the street goes dark, familiar typographies are coming up on the surface of a city. With various colours and shapes, sometimes stimulous lighting, the typographies on sign boards would be compatible with many Hangeul lettering or typefaces. Modern mega-city typography which is occupied by LED typography — among the digital typefaces, the artist searches for the old-type master's hand-drawn original drawing type on neon signs.

Original Drawing in City

Neon sign, 3pieces, 100 x 100cm, 2015



강진, 서정민, 안세웅, 이재하, 정인지가
홍익대학교 재학 시절 결성한 디자인 스튜디오.
2006년 '포스터 만들어 드립니다'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THE BREMEN>,
<ORDINARY REPORT—02> 등의
자체 기획 작업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YG 엔터테인먼트, 월간 《CA》 등 클라이언트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브랜드 '삐뽀레'를
통해 그래픽디자인으로 펼쳐내는 또 다른
작업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오디너리 피플

한국

오디너리 피플은 길거리에서 '오피'라고
쓰인 명함을 발견하고 흥미를 느낀다.
그들의 스튜디오 이름을 줄인 말과
같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오피스텔을
임대해 벌이는 신종 성매매를 위한
홍보 전단지였다. 여기에는 가시성을
고려한 색상, 이미지와 겹칠 때
아우라인으로 구분하는 텍스트 등
여러 정보들이 최적의 효과를 바라며
배치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역시 자극적인 여성
이미지. 오로지 순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전단에서 이 여성이
실제로 이 업소에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다.
오디너리 피플은 이 오피 명함의
구성 방식과 태도를 가져와 자신들을
홍보하는 명함을 만들어 가상의
종로 거리에 뿌린다. 거리에 뿌려진
오피 명함 속 그녀의 이미지가 그러하듯,
실제로 담긴 이미지가 오디너리 피플의
것인지 아닌지,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명함은 지나가는
사람의 시각을 최대한 자극해 유혹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오피

명함, 스카이드랜스, 에어아치, 자료집,
가변 크기, 2015

Ordinary People is a design studio
established by Kang Jin, Seo Jeongmin,
Ahn Seyong, Lee Jaeha, and
Jeong Injee when they were Hongik
University students. They actively
started their career with the "We Will
Make Your Poster" project in 2006
and they continue to work on self-
initiated projects such as *The Bremen*,
Ordinary Report—02 and client works
for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YG Entertainment and the Monthly *CA*
Magazine. They explore new graphical
ways of expression with the brand
"Peopoleet."

Ordinary People

Korea

Ordinary People found a name
card written "오피(OPi)" on the
street and were interested with it.
Because, its pronunciation is the
same as their studio's
abbreviation. Turns out, it was
leaflet flyers for prostitution at
an officetel. In this, the visibility-
concerned colour, the text outline
with image, and many information
was set for optimal efficiency.
Among them, the highlight was
the suggestive woman's image.
In this flyer, it is not important
whether she is there or not. It only
stimulates the moment's desire.
Ordinary People take this flyer's
compositions and the attitude,
make a name card for promoting
them, and scatter it on the Jongno
street. As the lady's image on the
OP name card, it doesn't matter
whether the image of Ordinary
People on the name card is real or
not, what does it mean. This name
card only exists for stimulating the
passenger's vision and hooking.

OP

Name cards, skydancers, air arch
and document book, dimensions
variable, 2015



COM

278

COM은 2015년 실내 디자인을 전공한 김세중과 무대미술을 전공한 한주원이 의기투합해 만든 디자인 스튜디오다. 공간 디자인을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그래픽 작업과 가구 제작을 겸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 독립 출판 열람실》, 《시의 집》, 《28》, 《크리스마스 과자전》, 《프린팅 스튜디오 쇼》, 《파빌리온 씨》, 《아시안 뮤직 파티》, 《51+》, 《이름》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한국

COM은 종로 ()가에 가상의 타워를 세운다. 이 타워의 파사드는 층별 안내판 형식을 따르며, 각 층은 LED 전광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COM은 스스로 건물주가 되어 전시 기간 동안 실제로 각 층을 원하는 이에게 임대한다. 임차인은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 기간 동안 선택한 층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건물의 주요 목적은 광고이다. 임차인은, 전시 동안 찾아오는 다수의 관객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정보를 강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이 가상의 타워를 임대하게 된다. COM은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은 뒤 기존 LED 광고판이 가진 문법과 형식을 차용하여 광고문을 제작 후 전시 기간 동안 반복 재생한다.

종로 타워

LED 간판, 가변 크기, 2015

COM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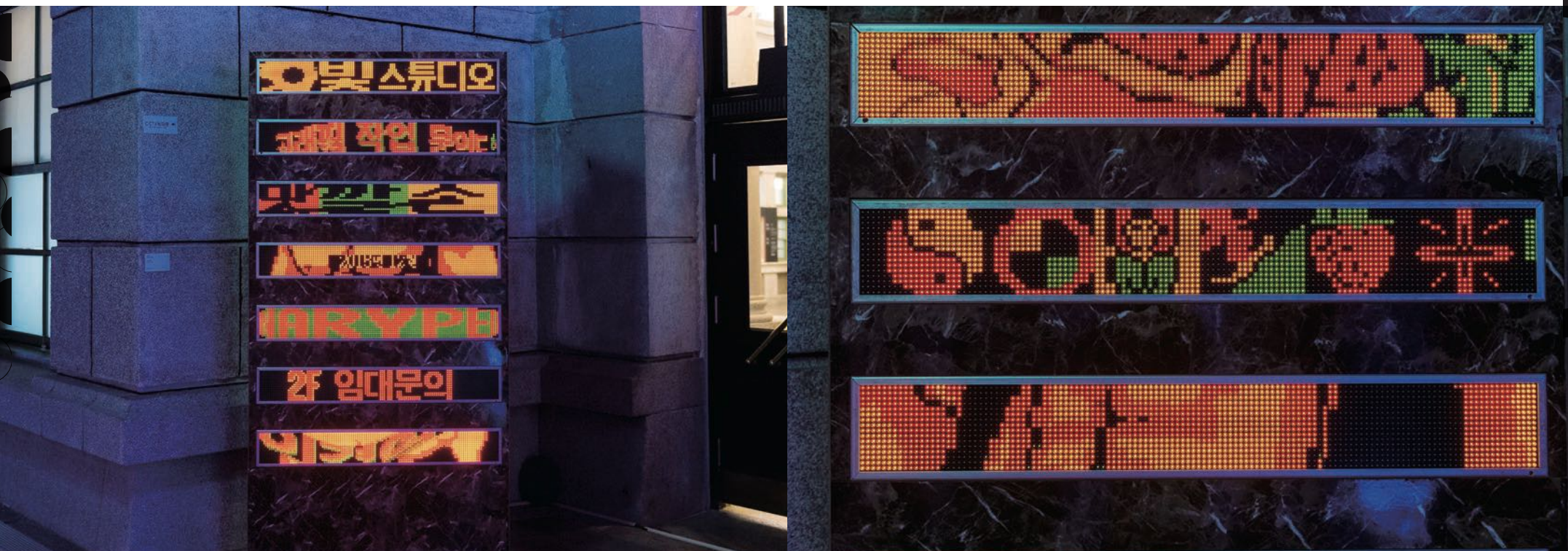
COM is a design studio made by Kim Sejoong, who majored in interior design and Han Joowon, who majored in stage art. Based on space design, they also do graphic design, furniture design, and various designs in need. They have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t Publication Room of Library, House of Poetry, 28, Christmas Cookie Exhibition, Mr. Pavillon, Asian Music Party, 51+ festival, Connection*, etc.

COM build an imaginary tower at Jongno () ga. This tower facade follows the floor signboard form, each floor is made with LED electronic signage. During exhibition period, COM becomes a building owner by themselves, rent each floor. A tenant pays for the fixed expenses and has the right to use the floor. This building's main goal for use is advertisement. The tenants rent this tower to advertise specific information compulsively and effectively. COM received the necessary information from the tenant, and produces signage, borrowed in method and form from LED electronic signage and played repeatedly during the exhibition.

Jongno Tower

LED sign, dimensions variable, 2015

279



마빈 리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인 엘리 파크 소렌슨은 비교문학과 탈식민주의, 문학 이론을 전공했다. 저서로 《탈식민주의 연구와 문학: 이론, 해석, 소설》(2010)이 있으며 《소설: 허구에 대한 포럼》, 《서사 이론 저널》, 《패러그래프》, 《모던 드라마》, 《아프리카 문학 연구》, 《현대 언어 연구 포럼》 등의 저널에 기고하고 있다.

마빈 리 + 엘리 파크 소렌슨

미국, 덴마크

‘타자’라는 개념은 흥미롭다. 다른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인 듯하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직접적이다. 이 작품은 보이지 않는 ‘타자’의 물리적 증표라 할 수 있다. 거울에 적힌 타이포그래피는 ‘양심’의 물질적 형태를 표상한다. 이런 ‘양심’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밤에 빛나기까지 한다. 자, 여기 ‘당신의 양심’의 공적 형태가 있다. 공공 영역에서 이 단어의 형태는 그대로 의미의 얼굴이 된다. 또한 ‘타자’는 모든 갤러리와 미술관에 존재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내가 이걸 똑바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예술이에요?” “나는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모두 이걸 이해하는 거야?” “나만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양심 거울

혼합 매체, 거울 (245×100×80 cm), 오디오, 움직임 감출부 빛, 2015

Marvin Lee is a graphic designer and educator. 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Visual Communication Design major at Hongik University.

Eli Park Sorensen is associate professor in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 specializes in comparative literature, postcolonial thought, literary theory, and cultural studies. He is the author of *Postcolonial Studies and the Literary: Theory, Interpretation and the Novel* (Palgrave Macmillan, 2010) and has published in journals such as *NOVEL: A Forum on Fiction*, *Journal of Narrative Theory*, *Paragraph*, *Modern Drama*,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Partial Answers*, and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Marvin Lee + Eli Park Sorensen

USA, Denmark

It is about the concept of the “other,” the influence on behavior by the idea of someone else watching you. It seems to be a strong cultural element in Korea. This example is interesting because it is so literal and so direct. It is a physical manifestation of the invisible “other.” The typography “Your Conscience” in addition to the mirror represents the physical public form of the “conscience.” It is used in many neighborhoods all over the country and some even light up at night. We will be referencing a few philosophical concepts in relation to the cultural concepts. The typography part will be the idea that the form of the words in public become the face of the meaning. We like the idea because the concept of the “other” is always in every gallery and museum too. “Am I looking at this correctly?” “Is this art?” “I totally get it... I think.” “Does everyone get this?” “Am I the only one who doesn’t?”

Your Conscience

Mixed media, mirror (245×100×80 cm), audio, motion detector light, 2015



한국

도시의 길거리에선 온갖 전단미
뿌려진다. 대부분 생매매나 대부업 등을
광고하는 이들 낚시성 불법 매체들은
거리의 벽에 붙여 바닥에 나뒹굴며
달콤한 단어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를 테면 “돈, 대박, 화이팅, 무료,
원정, 즉시, 사랑, 감동, 세일, 일등,
친절, 가족처럼, 새로움, 충전, 누구나,
만세, 착한, 초특가, 선착순, 최고,
새 희망, OK, 가격 파고, 최대, 공짜,
빠른, 신규, 특판, 혜택, 최저가, 최신...”
길거리 전단에서 사용하는 이런
공정적이며 희망적인 단어들이 가진
본래의 의미에 주목해 거리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전단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혼합 재료, 가변 크기, 2015

Corners

Korea

On the city street, all kinds of flyers are distributed everywhere. Most of them are illegal media and advertise prostitution or private loans on the wall or the ground, and they delude people with sweet words. For example, "money, jackpot, cheers, free, the very day, immediately, love, touching, sale, the first, kindness, like a family, new, charging, anybody, hurray, nice, a special price, by order of arrival, best, the bottom price, the newest..." The artists focus on these hopeful and optimistic words in flyers and make new flyers using these loving words and distribute them to people again.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그래픽 디자이너. 단국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광고 디자인을 공부했다. 《월간 미술》 아트 디렉터를 맡았으며 2004년 디자인 스튜디오 홍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반윤정 (홍단)

한국

‘새미끌’은 샘이 솟는 주변을 이용해 동네사람들이 빨래터로 이용하는 공간을 일컫는 우리말이다. 홍단의 멤버인 반윤정의 고향 마을 어귀에도 새미끌로 불리는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샘도 찾아볼 수 없고 이름만 남았다. ‘새미끌 세탁’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승석과 정재일의 《바리abandoned》 수록곡 중 〈빨래〉(배삼식 작사)의 가사를 인용한 이 작업은 삶의 무게가 버거운 이들에게 ‘괜찮다’는 위로를 보내며 묵은 때를 깨끗이 빨아낸다.

새미끌 세탁

혼합 재료, 가변 크기, 2015

Ban Yunjung is a graphic designer. She studied sculpture at Dankook University and graduated from the MFA program in Communication Design at Hongik University. She worked as an art director of *Monthly Art* and in 2004 she founded the design studio Hongdan and is still running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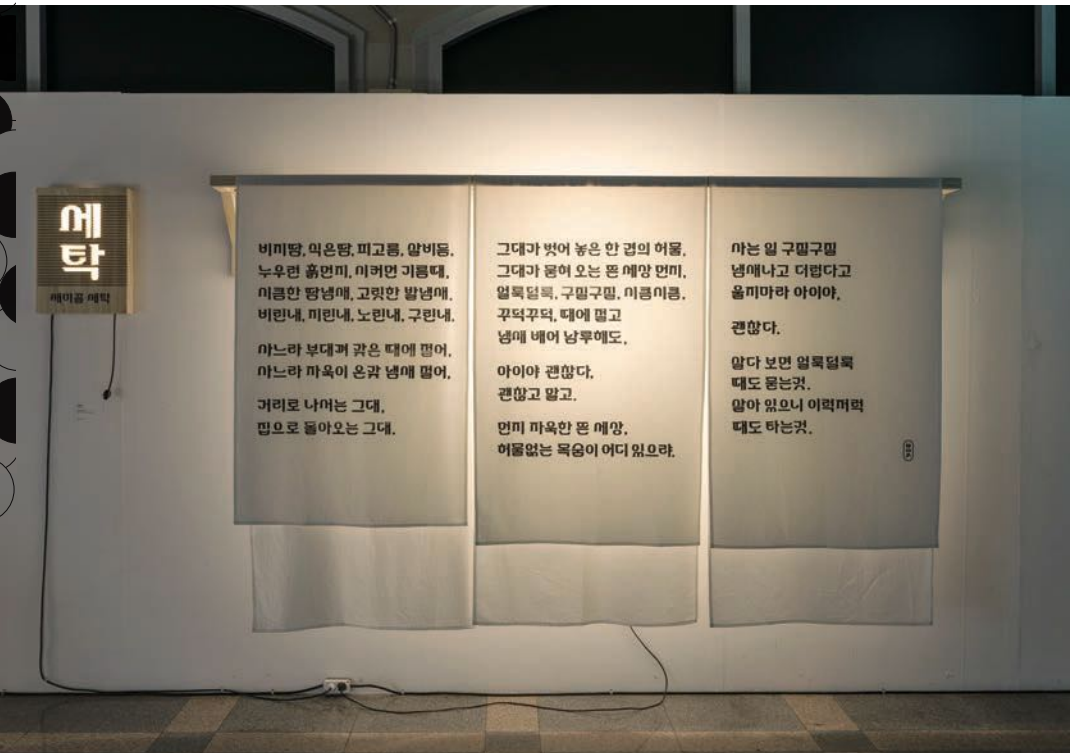
Ban Yunjung (Hongdan)

Korea

“Saemikkeul” is a pure Korean word which means a space where people in the village wash clothes around a spring. Hongdan’s member Ban Yoonjung’s hometown has this place, but there is no spring except a name. “Saemikkeul Laundry” includes a comforting message for ordinary people who live a daily life. This piece quotes lyrics of *Laundry* (words by Pai Samshik) in the Han Seungseok & Jung Jaeil’s album *Bari Abandoned*, cheers struggling people up sending a message, “It’s okay,” and washes out the old dirt.

Saemikkeul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그대가 묻혀 오는 뜬 세양
 얼룩덜룩, 구필구필, 이끔
 꾸덕꾸덕, 때에 찢고
 냄새 배어 남루해도,
 아이야 괜찮다,

이송은 + 김성욱

286

이송은은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라라 리’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터, 감독 활동을 하고 있다. 뉴욕 아트디렉터즈 클럽 어워드, 빅토리아앨버트 미술관 일러스트레이션 어워드 등을 수상했다.

김성욱은 서울을 기반으로 OUI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맵핑, 애니메이션 등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 작업으로 2015년 혁오의 〈ohio〉, 〈와리가리〉, 프라이머리의 〈아까지 마〉 뮤직비디오와 베이퍼웨이브 형식의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섬〉, 〈풋 마이 핸드 온 유〉 같은 실험적인 영상들이 있다.

한국

인적 없는 새벽 거리에서, 간판 위의 텍스트는 텅 빈 메아리 같은 외침이 된다. 이는 텍스트를 읽을 이유가 부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로 ()가 전시 공간에는 가게가 없다. 몸체는 두고 부품(기호)만 떼어 온 공간이다. 따라서 이 작업은 종로 거리에서 흔히 접하는 상업용 간판의 어지럽고 일방적인 목소리를 겹겹리로 탈바꿈한 오랜 서울역사에 고립시킴으로써 제가 살던 거리와 가게에서 떨어져 나온 간판이 어떤 물건이 되는지 탐색하려는 의도를 품는다. 간판이 길거리에서 외치던 혼란 단어 — 그러나 전시장의 관객들에게는 실제적 의미가 없어진 단어 —를 골라, 아무것도 프린트되지 않은 회전 입간판 위로 그 상(像)을 띄운다. 영상은 처음과 끝의 경계가 없이 반복되며, 무한히 제자리를 떠돈다. 투사된 이미지는 3차원 공간에 흩어져 존재하는 글자들이며, 이는 입간판 위로 완전히 달라붙기를 거부한다. 현재의 삶에 바로 맞닿아 있던 입간판들을 정돈된 전시장 안에 위치시키는 순간, 이 작은 공간은 어느 미래에 존재하는 가상의 박물관이 될 수도 있다. 끊어진 맥락 속에 있는 이 ‘과거’의 물건은 ‘미래’의 관객들에게 무엇을 환기하며, 어떻게 대화하는가?

간판 13

비디오(약 60초), 프로젝션(130cm×50cm), 2015

Lee Lara + Kim Oui

Korea

Lee Lara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Graphic Design, Kookmin University and earned her master degree at Royal College of Arts with Animation. She is actively working as an animator, illustrator, and a director under the name of “Lara Lee.” She has won the New York Art Director’s Club Award, and Victoria and Albert Museum Illustration Award.

Kim Oui runs OUI studio based in Seoul, directs music videos, projection mapping and animation. Oui’s latest works are music videos for Hyukoh’s *Ohio*, *Warigari*, Primary’s *Don’t be Shy*, the vaporwave-formed 3D animation, *Island*, and experimental media art works like *Put My Hands on You*.

Texts on signage in the street shout out to no one in particular and become an empty echo when there’s no one around. It is the same when there is no good reason for anybody to read the text on the signage because it is out of context. In the particular environment that Jongno () Ga exhibition creates, there is signage but it has no commercial functionality. The gallery is a space full of symbols, words and signs but the bodies that they belonged to, or were connected to, are absent, left behind somewhere. What happens to a piece of street furniture when it is hijacked from where it used to belong and placed in a sterile gallery space as if it were exhibited in a future museum of antiquities from the contemporary world? What might decontextualised symbols and signage evoke to this “future” audience? These loud and one-directional voices, which were once intended to be immediate and commercial, might initiate a different kind of conversation with the audience, if indeed they can ever actually generate any dialogue.

Signage 13

Video loop (approx. 60seconds), Projection (130×50cm), 2015

287



2012년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프리랜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타이포그래피를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자와 협업하는 것을 즐겨 한다. 최근 작업으로는 <체르노빌 다크 투어리즘>, <도서관 독립출판 열람실>, <미스테리아> 등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북 디자인을 진행했다.

신덕호

한국

신덕호는 실제로 대부분의 도시(종로) 풍경을 만들어내는 간판업체와 현수막업체를 찾아 나선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중 현수막업체가 사용하는 템플릿이다. 전시장에 내걸린 글자 없는 템플릿들은 마치 대형 구성 작업처럼 보인다. 현수막 앞에는 ‘종로 현수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업체들과 실제로 협의해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템플릿들을 망라한 책자가 배치되며, 책 뒤쪽에는 템플릿에 적용된 여러 광고 문구들을 연결시켜 보여준다.

노 코멘트
현수막 (300×420 cm),
책 (37×29.7 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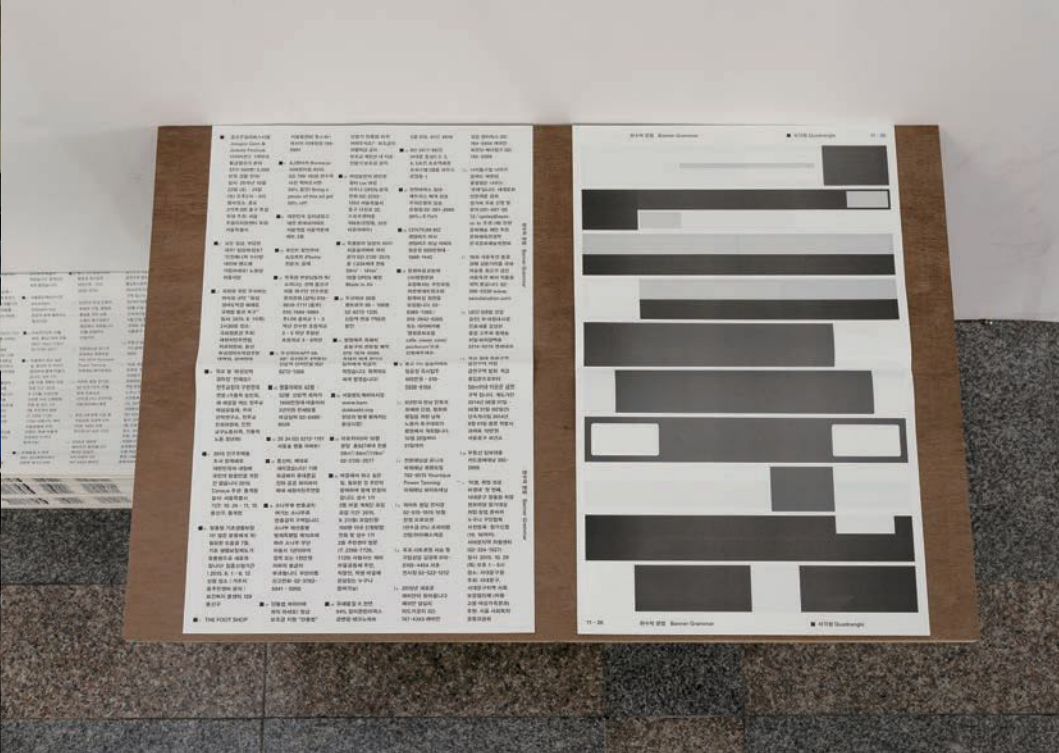
Shin Dokho graduated from the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of Dankook University in 2012. He works as a graphic designer and enjoys working with many collaborators based on typography. Recent works include the *Chernobyl Dark Tourism*, *Library Independent Publication Reading Room*, *Mysteria*. Additionally he also has an extensive list of project work in identity design and book design.

Shin Dokho

Korea

Shin Dokho searches for the signage and banner manufacturer that is making most of the city (Jongno) landscape. What he is interested in is the signage and banner manufacturer's templates. The templates without letters in the exhibition space look like a giant composition work. After he searches with the keyword, "Jongno banner," he gets the list of manufacturers and he talks with them and gets the templates they use. In front of the banners, he put the booklets which gather their templates and in the end of the booklet, he puts the advertising copy in linearly.

No Comment
Banner (300×420cm) and book
(37×29.7 cm), 2015



그래픽 디자이너.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조교수. 아트 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광고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전재운

한국

〈발견된 것들〉은 자유로운 작업 조건 내에서 유일한 제약 중 하나인 종로라는 장소성과 도시 속에 존재하는 문자 문화를 다룬다. 종로 거리에서 발견된 소재와 기록들의 재결합을 통해서 도시의 새로운 관점과 이차적인 서술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 접근법을 두고 있다. 종로 길에서 발견된 서술적 조각들을 현존하는 인쇄소와 간판 제작소에 작업을 의뢰하고 이들과 협업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도시 속에 존재하는 문자와 수집된 형태들의 잔재들이 서울역 284 뒤편에 위치한 가상의 종로 ()가로 되돌아온다. 도시의 밤은 'b-side' 즉 도시의 뒷면과도 같다. 연속성과 반복성이 강한 도시의 문자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도시의 정체성을 조금씩 잊게 만들고 단절시킨다. 도시의 문자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허구성과 제도화된 기억 속에서 비공식적 수집과 시권성을 통해 도시의 반기억(counter-memory), 또 다른 의미를 제시한다. 도시의 기억과 형태를 흐리는 다양한 형광등과 발광다이오드(LED)는 밝지만 어두움의 내면을 비춰주는 듯하다. 반복적인 LED 그리드 위로 도시의 문자는 불안정한 형태로 우리에게 도시의 또 다른 기억을 만든다.

발견된 것들

LED 조명, 120 × 260 cm, 2015

Jeon 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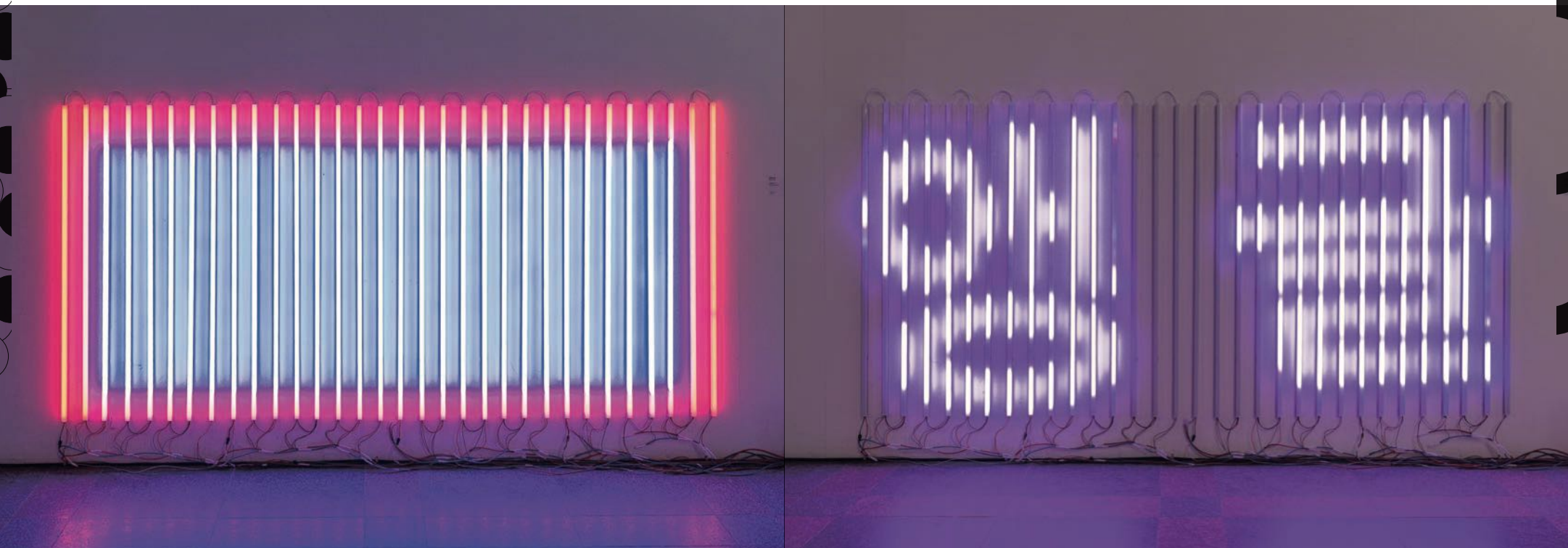
Korea

Jeon Jae is a graphic designer and an educator. He majored in Graphic Design from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and received his master degree from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Now,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and teaching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nd Advertisement Design.

As Found responds to the typographic cultural aspects of the city, Seoul Jongno. The site Jongno inspired a search for objects, texts, and materials that arrives "as found." These groupings and gatherings construct an alternative knowledge or secondary narrative of the city and typographic culture. Selected images, texts and objects are then brought back to Seoul Station 284. Recurring representation of the texts often found in LED signs of the city encourages us to remember alternate side of the city, "b-side," constructing a form of "counter-memory." This project suggests alternate way of recreating and remembering the city we live in.

As Found

LED light, 120 × 260 cm, 2015



그래픽 디자이너,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국민대학교와 예일 대학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했으며 플랫폼 2009, 광주비엔날레 2010, 백남준아트센터, 국립극단 등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개인,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부재》(2002), 《이미지와의 대화》(2003), 《어떤 것들의 목록》(2005), 《창천동: 기억, 대화, 풍경》(2008), 《사인: 도시의 숨은 공간》(2009), 《도시 안의 도시》(2011) 등의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해왔다.

정진열

한국

현재 한국 사회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벌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은 의견 개진을 넘어서 극렬한 대립적 상황을 조성하며, 실제로 계층, 집단적 갈등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정진열은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문장의 구조나 요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사하여 이를 시각화한다.

갈등의 도시

혼합 매체, 200 × 200 × 300 cm, 2015

Jung Jin

Korea

Jung Jin is a graphic designer and assistant professor of Kookmin University. He studied graphic design at Kookmin University and earned his master degree at Yale University. He has been working many projects with Platform 2009, Gwangju Biennale 2010, Nam June Paik Artcenter, and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He is interested in finding and revealing the various elements that create a collective identity. He has shown this with exhibitions and projects like *Absence* (2002), *Dialogue with Images* (2003), *List of Something* (2005), *Changcheon-dong: Memory, Conversation, Landscape* (2008), *The Sign: The Hidden Place of the City* (2009), *City within the City* (2011).

In the internet community of Korea, if there is an opinion of difference, the words and expressions make fierce and conflictual situations more than the stating of their own views. Actually, these stratum and group conflicts are quite serious these days. Jung Jin researches how these conflicts show up in the structure and elements of sentences and visualize them.

City of Antagonism

Mixed media, 200 × 200 × 300 cm, 2015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주변시각>(2008), <소란스런 경계>(2009), <열호>(2010), <퍼센트>(2012), <화색이야기>(2014) 등의 독립 프로젝트들을 발표, 전시했다. 장문정의 작업은 미국 AIGA 애뉴얼 디자인, 미국 UCDA 애뉴얼 디자인, <프린트>지 등에서 수상하였으며, 프랑스 쇼몽 국제 포스터와 그래픽 페스티벌, 모스크바 글로벌 비엔날레 그래픽디자인 골든비 등에 전시, 소장되었다. 공동 번역서로 《디자인과 미술》(2013)이 있으며, 현재 조지아 주립대학교 미술대학 그래픽디자인과 조교수로 있다.

장문정

한국

<여기, 지금, 그리고 기다림>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한국의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시위를 벌였던 거리, 종로를 기리는 작업이다. 당시 종로는 부당한 정치권력을 개혁하길 열망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곤 했다. 나는 아직도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던 모습을 기억한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진압을 피해 명동성당으로 몰려갔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 강렬히 남아 있는 종로의 풍경이다. 내게 종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람들이 피 흘렸던, 상징적인 곳이다. 지금, 당시의 젊은이들은 사십대가 되었고 한국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뤘다. 종로 역시 마찬가지다. 이곳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거리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하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 그러나 나는 이런 엄청난 변화와 빨라진 도시의 삶을 위해 우리가 싸웠던 것인지 확실치 않다. 결국, 이 작품은 과거 종로 거리에서 시위대가 곧잘 외쳤던,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아포리즘을 통해 해방의 시간을 반추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한 시도이다. ‘여기, 지금, 기다림/꿈, 노동, 말’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한글 자모들은 시계바늘처럼 움직이고, 그에 따라 텍스트는 해체와 결합을 반복한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여기, 지금, 그리고 기다림

혼합 매체, 2점, 각 60×66×9cm, 2015

Jang Moonjung is a graphic designer and visual artist. Jang's primary research involves narrative systems that visu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configuration, visual value and relativity, and design rhetoric. Her research has included *Peripheral Vision*, *Disturbed Boundaries*, *A Minor Arc*, and *A Sequence of Gray*. Her work has appeared internationally in such exhibitions as *The International Poster and Graphic Arts Festival of Chaumont* (France); *365: AIGA* (New York, USA); *AIGASEED Award GALA* (Atlanta, USA).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Graphic Design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in Athens, Georgi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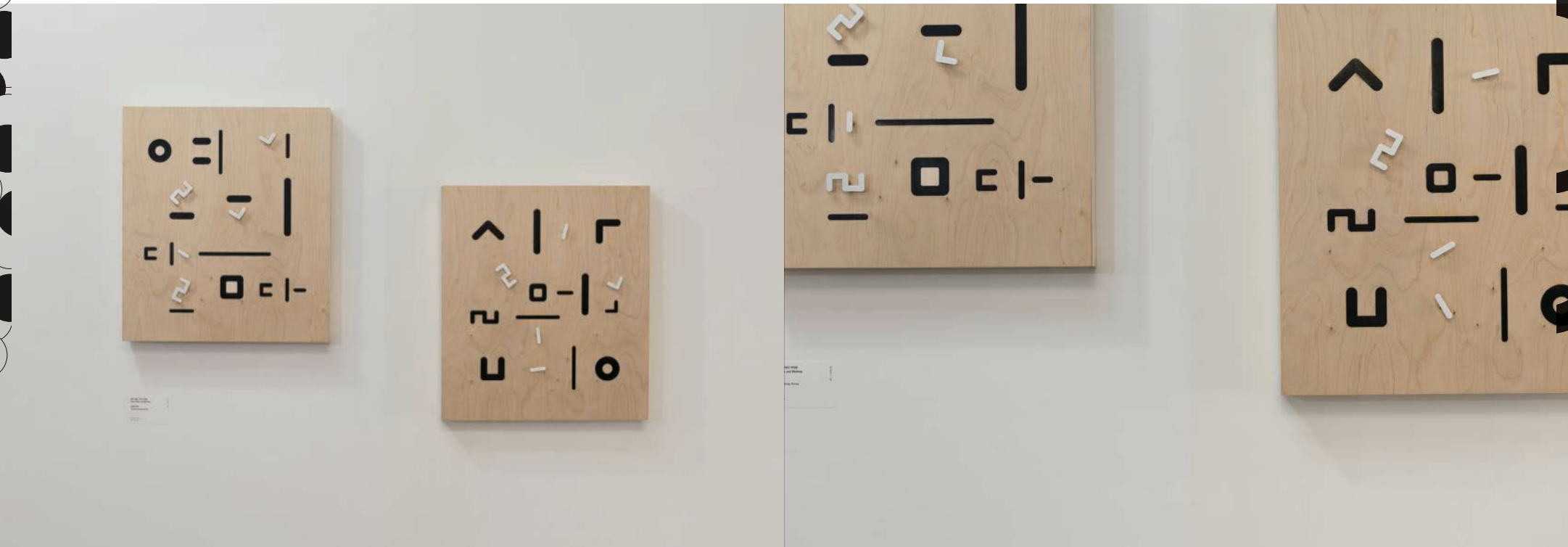
Jang Moonjung

Korea

Here, Now, and Waiting is a set of memorial signs that aim to commemorate Jongno, a district in Seoul, Korea where young people held street demonstrations to establish a democratic society in the late 80's and early 90's. At that time, Jongno was often filled with young people who wanted to reform unjust and corrupt politics in Korea. I remember that the police and military cracked down on the protesters by shooting tear gas and water cannons in Jongno. The participants marched to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 to avoid oppression and to continue to raise public awareness. This is the most intense and memorable scene of Jongno in my mind. Now, the people who were young at that time are in their 40s and have made cultural,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over time. Jongno district reflects those changes.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spectacular and global streets in Korea. The current scene of Jongno is that people move faster and faster to make a living and tourists come and go all the time.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these tremendous changes and faster city living are what the young people had fought and waited for. Thus, this project is an attempt to reflect on the emancipatory time of the street and to commemorate its youth by using an aphoristic text, "Now and Here," which the young people often used in the democratic movements. The signs consist of several words made out of Hangeul vowels and consonants. In order to visualize the flow of time, the letters are attached to clock movements behind the front panel of the signs. In the design outcome, the letters constantly rotate on the front panel while constructing and de-constructing the words, "Here, Now, and Waiting / Dream, Labor, Language, Life, and What." It asks what we are waiting for to come here and now.

Here, Now, and Waiting

Mixed media, each 60×66×9cm, 2015



김정훈

한국

디자이너, 교육자, 리서처로 활동 중인 김정훈은 뉴욕에 위치한 디자인 컨설팅 회사 와이낫스마일 대표다. 와이낫스마일은 예술, 건축, 문화, 패션 영역을 중심으로 인쇄물, 브랜딩, 전시 디자인, 웹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다. 스튜디오 설립 이전에는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프랙티스, 삼성디자인 멤버십, 서울 크로스포인트 등에서 일했다. 서울대학교와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운 대학교에서 교수법을 이수했다. 파슨스, 하버드 대학교,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와 리즈디(RISD)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가르쳐오고 있으며, 런던 왕립예술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등에서 특강과 워크숍을 하고 있다. AIGA, 미국 아트 디렉터스 클럽, 체코 브르노 그래픽디자인 비엔날레, 프랑스 쇼몽 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미국 타임 디렉터스 클럽 등으로부터 수상했다.

“나는 도시를 경험하고, 도시는 내 체화된 경험을 통해 존재한다. 도시와 내 몸은 서로를 보완하고 정의한다. 나는 도시 안에 거주하며 도시는 내 안에 거주한다.” —유하니 팔라스마

〈영원한 출구〉는 도시 공간과 보행자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 개입을 통해 관객 본인만의 관점으로 공간과 환경을 경험하고, 재관찰하고, 재구성하도록 유도한다.

영원한 출구

금속, 가변 크기, 2015

Kim Hoon is a New York-based graphic designer, educator, curator, and researcher. He founded Why Not Smile, a multidisciplinary design consultancy in New York in 2009, which focuses on integrated branding across various media for art, fashion, architecture, and cultural clients. Prior to forming Why Not Smile, Hoon has worked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Practise, Samsung Design Membership, and Crosspoint, spanning New York, London, and Seoul since 2000. He holds an MFA from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a teaching certificate from Brown University, and a BF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oon has been teaching at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Harvard University, Pratt Institute and RISD, and has given lectures at Royal College of Art (UK), Princeton University (US), Werkplaats Typografie (NL), and various schools internationally. He has earned recognition from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ADC, AIGA, Brno Biennial, Chaumont Festival, D&AD, Print, and TDC, and has also been awarded the title of The Design Leader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of Korea (MKE) and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Kim Hoon

Korea

“I experience myself in the city, and the city exists through my embodied experience. The city and my body supplement and define each other. I dwell in the city and the city dwells in me.” —Juhani Pallasmaa

Eternal Exit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ity space and pedestrians. This intervention encourages audiences to experience, re-observe, and re-shape space and environments through their own perspectives.

Eternal Exit

Metal, dimensions variable, 2015



그래픽 디자이너.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시각디자인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와 편집 디자인을 가르친다.

박찬신

한국

〈호객 중〉은 다수의 '호객기'로
작동한다. 나무 판재와 도료로 만들어진
'호객기'는 반복해서 비슷한 형태와
물질을 마주치게 해 일종의 기시감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호객기' 스스로는 아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 마치 암표상처럼
어둠의 곳에 산개해 있다가 누군가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혹은 그저
지나치는) 순간부터 작동을 시작한다.
전시를 모두 본 뒤에도 '호객기'가
작동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호객 중'이다.

호객 중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15

Park Chanshin is a graphic designer.
He received his BFA and MFA from
Hongik University with Visual
Communication Design. Working as
a graphic designer, he teaches
typography and editorial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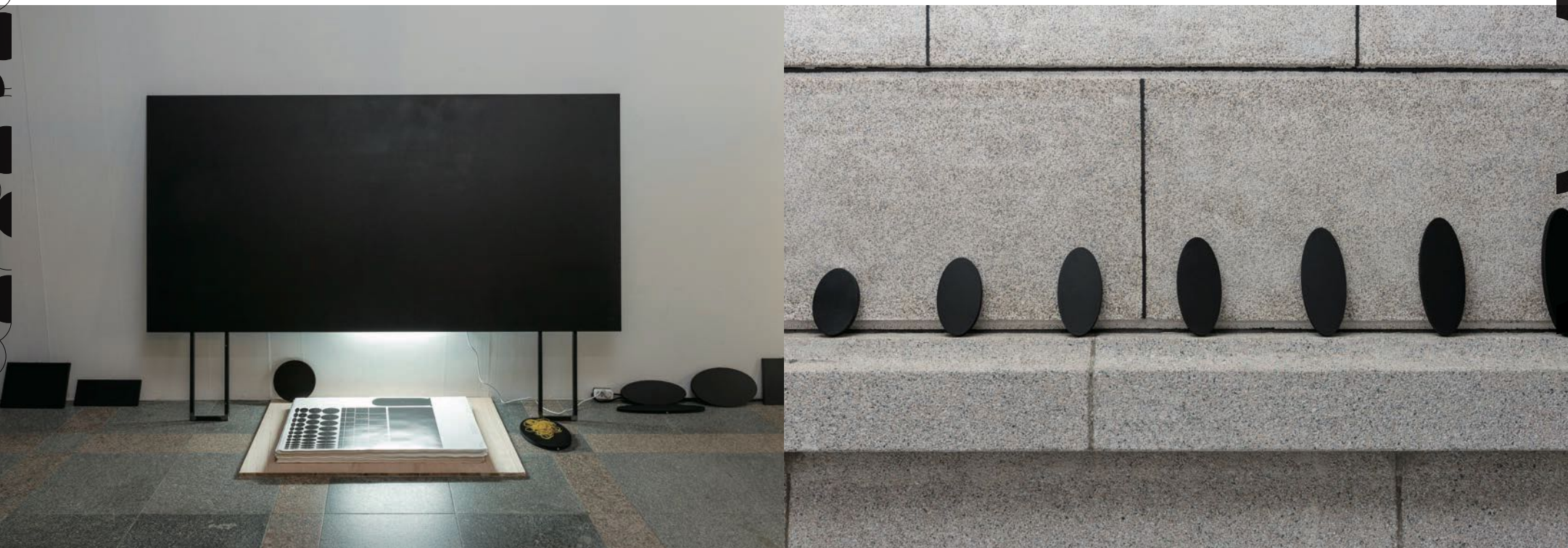
Park Chanshin

Korea

Touting works with many "Tout
Machines." Tout Machine is an
equipment made with lumber and
paint. It makes people feel déjà vu
by letting them meet similar
forms and materials repeatedly.
Tout Machine looks like it has
no function by itself. However,
it is spread here and there in the
darkness like a scalper, once
someone notices that the
existence or passes by, it starts
the operation. After the audience
sees the whole exhibition, they
would not know it worked. It's still
just "touting."

Touting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김동환은 2011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백남준아트센터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디자인 회사 '텍스트'에서 책임 디자이너로 일했다. 현재 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 국민대학교 디자인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PL 스튜디오 플롯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환

한국

인간의 욕망은 대개 그 원래의 대상이나 생각과는 다른, 이상한 형태 혹은 현상으로 표출되곤 한다. 그럼으로써 본질을 변화시킨다. 욕망이 모여 형성된 현상은 가만히 제자리에 있질 못하고 우리가 알던 본질과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명확히 규정할 순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며, 그 대략적인 구조와 시스템은 인식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욕망은 원래 대상이나 생각이 지녔던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미지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이 이미지들은 본질을 대체하고, 본질 그 자체가 된다.

욕망. 본질. 현상

혼합 매체, 240 × 120 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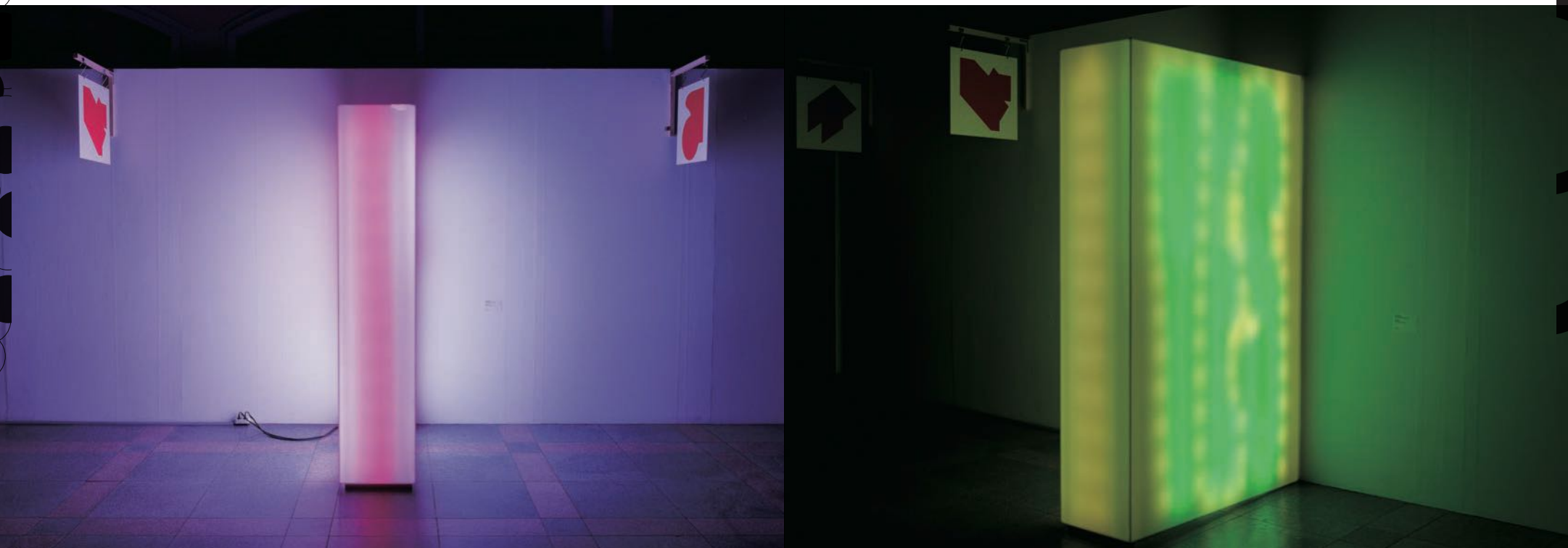
Kim Donghwan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the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at Kookmin University. From 2010 to 2011 he worked as a graphic designer at Nam June Paik Art Center, from 2011 to 2012 he worked for the design company TEXT as a senior designer. He is teaching at Hannam University, Daejeon University, Kookmin University and since 2013 he has run Studio Plot.

Kim Donghwan

Korea

Human's desires expose itself with awkward formation and phenomenon unrelated to the original form of the object and concept. Therefore, the desire causes changes of the essence. The phenomenon is formed in which the desire is concentrated and it does not stay at the place and expose itself different from the essence we have known before. This phenomenon cannot be exactly defined, but it definitely exists in our conscious and its rough structure and system is identifiable. Through this process, our desire does not present itself, but gives an image far apart from the essence of the object and concept. The image produced from this process replace the essence and becomes the essence itself.

Desire. Wesen. Phenomenon
Mixed media, 240 × 120 cm, 2015



그래픽 디자이너. 디자인 스튜디오
눈디자인에서 일했고 이후 봄바람에서 기업
홍보물, 매거진, 북 디자인 작업을 했다.
2011년부터 땡스북스 스토어와 스튜디오
실장으로 일하면서 책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비즈니스의 균형을 찾고 있다.

김욱

한국

새로운 재료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사장에서 남은 재료만으로도
균일한 품질의 글자/도형/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인테리어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재료인 4×4센티미터
각목과 시멘트를 이용한 핸드메이드
간판을 제안한다.

리사이클링 모듈

목재와 시멘트, 12×40×40 cm, 2015

Kim Uk

Korea

Kim Uk is a graphic designer. He has
worked for Design Studio nooNdesign
and Bombaram, designing corporate
promotional materials, magazines
and books. Since 2011, he has been
working as a director for Thanks Books
Store and Thanks Books Studio,
trying to find balance between design
and business focusing on books.

Kim Uk suggests handmade signage
with 4×4cm lumber and cement.
These materials are universal
at construction and interior sites.
He makes even-quality typography,
figures and patterns with left-over
materials from construction sites
without buying any new materials.

Recycle Module

Timber and cement, 12×40×40 cm,
2015



서점

동네

서울의

SOUL

SEOUL

큐레이터 및 디자이너
이기섭

‘SEOUL () SOUL’은 도시가 가진
무형의 가치를 엮서라는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지금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400여 개의 동네 서점 가운데
54개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선택했다.
문화역서울 284 전시장에는 이들이 추천한
책을 소개하는 엽서와 서점 지도를
전시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동네 서점들은
새로운 서점이 가지는 신선함, 역사가 있는
중견 서점의 친근함, 전문 분야의 책을 다루는
서점의 독특함 등 자신만의 정체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엽서와 함께 제작된
서점 지도는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하지만 동네 서점이 만드는 가상의
네트워크도 보여준다.

서울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간들이 있다. 하나의 사람과 공간은
한 점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들이 드러나게 된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은 돈이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집 밖을 나서는 것이 즐겁고,
마주치는 사람들이 반갑고, 문화적 자극을
받으며 사는 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과 열린 마음은 도시의
일상을 풍요롭게 한다. 서울의 다양한
동네 서점들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한 에너지를 공유하는 데 더 없이 좋은
장소다.

이 프로젝트는 동네 서점의 현황과 가능성을
보여줄과 동시에 도시를 대표하는 엽서와
지도라는 매체를 통해 일상 속에서 '도시와
타이포그래피'라는 올해 타이포잔치의
주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기섭

Curator & Designer
Lee Kiseob

“SEOUL () SOUL” is a project that
highlights the intangible value of a city
through the medium of the postcard.
To this end, we selected 50 bookstores
from among 400 in Seoul, each of
which offers a different perspective on
variety. At the exhibition space inside
Culture Station Seoul 284, we will
exhibit the chosen postcards and their
related book recommendations as well
as maps detailing where bookstores
are located. These selected bookstores
have their own identities and
attractions, like the fresh appeal of
a brand-new store; the friendly warmth
of a store that has been around for
many years; or the uniqueness of
specialty bookstores. The bookstore
maps, produced along with
accompanying postcards, not only
serve the function of delivering
objective information, but also display
a hypothetical network established by
local bookstores.

In every city around the world, each
individual person and space together
forms one specific spot, but when
these spots are brought together,
we as the onlooker can see multiple
points of view. Living in a city, wearing
expensive clothes, eating great food,
and living in a large house are not so
hard if you have money. To live in
a city and enjoy going out, greet people
on the street, and derive cultural
stimulation from your surroundings is
not necessarily achievable solely with
money. Diversity and open-mindedness
fertilize life in an urban environment.
In our opinion, there are a certain
number of bookstores in Seoul that
represent the best places to vitalize our
lives and share a healthy energy with
them.

This project presents the reality
of today's bookstores and their future
potential. At the same time, it offers
us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to experience, in our daily lives, this
year's Typojanchi theme, “City and
Typography,” with these postcards and
maps best representing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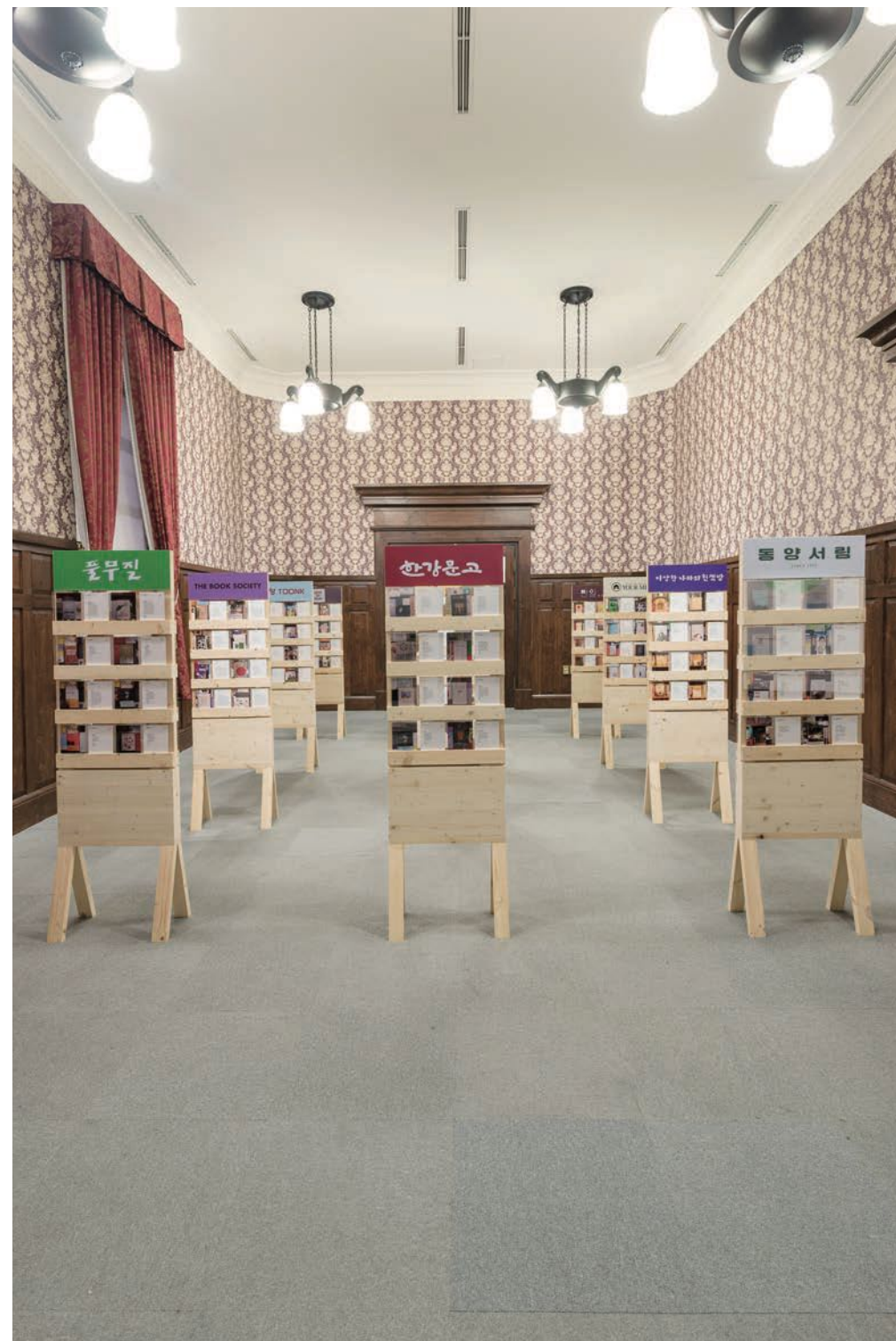
Lee Kiseob

소개 서점

- 1) 3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서점
대교서점, 도원문고, 동양서림,
예일문고, 은마서적, 행복한 글간
- 2) 90년대 시작해 지금까지
독자들과 소통하는 서점
노원문고, 불광문고, 연신내문고,
한강문고, 햇빛문고, 홍익문고
- 3) 인문 사회과학 서점
그날이 오면, 길담서원, 레드박스,
인서점, 풀무질, 프루스트의 서재
- 4) 헌책방
공씨책방, 기억 속의 서가,
숨어있는 책,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 5) 고서점
통문관
- 6) 어린이 서점
상상하는 뽀빠
- 7) 그림책 서점
베로니카이펙트, 피노키오
- 8) 예술 서점
더북소사이어터, 북스테이지, 심지
- 9) 독립 출판물 서점
노말에이, 다시서점, 반반박스,
스토리북앤필름, 유어마인드,
이곳, 헬로인디박스
- 10) 해외 출판물 서점
매거진랜드, 아이디앤북, 온고당,
포스트포에틱스
- 11) 만화 서점
북새통문고, 한양툰크
- 12) 소규모 복합 서점
200/20, 오디너리북숍, 책방 만일,
책방 요소, 책방오후다섯시
- 13) 쿼어 서점
햇빛서점
- 14) 전시가 있는 서점
멤스박스, 책방 이름
- 15) 술이 있는 서점
북바이북, 퇴근길 책 한 잔
- 16) 여행 서점
일단멈춤, 짐프리

Booksto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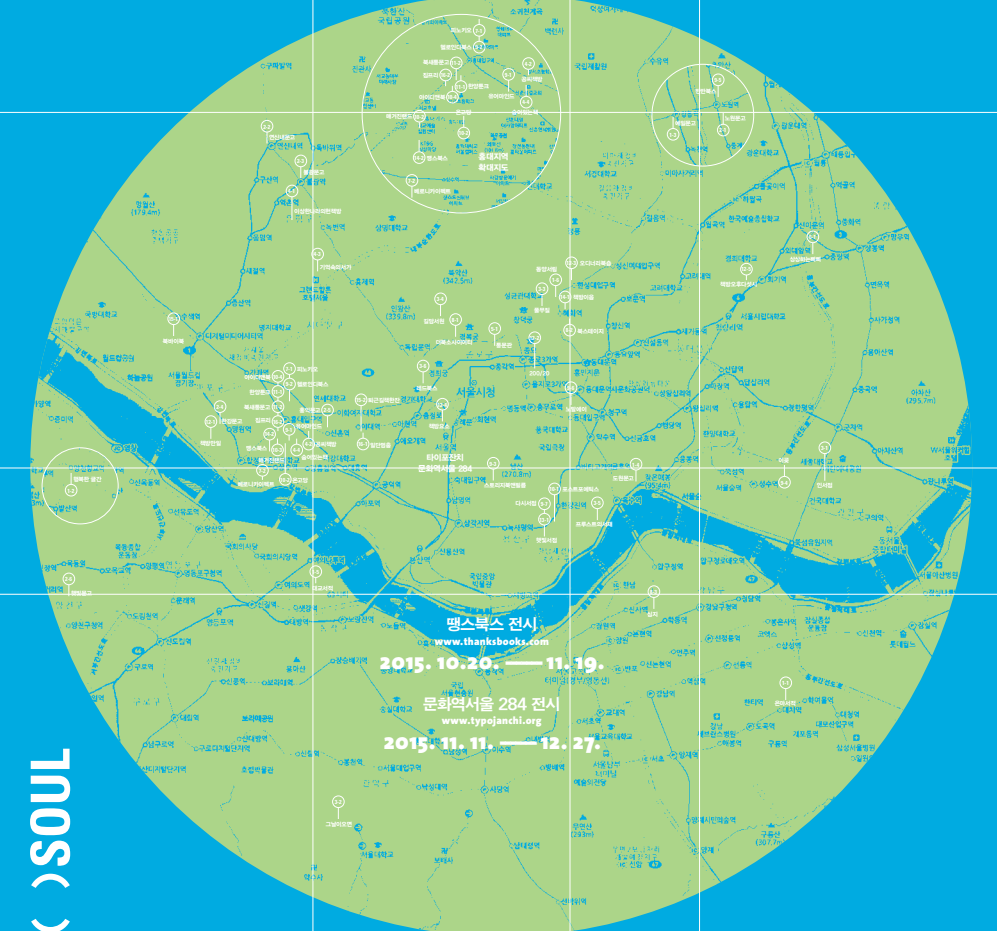
- 1) Bookstores with a 30-year History
Daekyo Bookstore, Dongyang Bookstore, Dowon Bookstore, Eunma Bookstore, Happy Books, Yeil Book
- 2) Bookstores Established in the 1990s
Bulgwang Bookstore, Haetbit Bookstore, Hankang Bookstore, Hongik Bookstore, Nowon Bookstore, Yeonsinnae Bookstore
- 3) Human Sciences Bookstores
Gildam Sowon, Gnal Books, In Bookstore, Proust Book, Pulmujil, Red Books
- 4) Secondhand Bookstores
Secondhand Bookstore In Wonderland, Bookshelf in Memory, Gongssi Bookstore, Invisible Books
- 5) Antiquarian Bookstores
Tong Mun Kwan
- 6) Children's Bookstores
Imagine PiPi
- 7) Picture Bookstores
Pinokio Bookshop, Veronika Effect
- 8) Art Bookstores
Bookstage, Simji Bookstore, The Book Society
- 9) Independent Publication Bookstores
Banban Books, Dasibookshop, Hello Indiebooks, Igot, NOrmal A, Storage Book and Film, Your Mind
- 10) International Bookstores
Idnbook, Magazine Land, Ongodang Books, Post Poetics
- 11) Comic Bookstores
Booksaetong, Hanyang Toonk
- 12) Small Multipurpose Bookstores
200/20, 5pm Books, Manil Books, Ordinary Bookshop, Yoso
- 13) Queer Bookstores
Sunny Books
- 14) Bookstores with Exhibitions
Eum Books, Thanks Books
- 15) Bookstores Serving Alcohol
Book by Book, Booknpub
- 16) Travel Bookstores
Stopfornow, Zimfree



서울의 동네 서점

서울에는 400여 개의 동네서점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 서점들 중에 독자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시도하는 곳들을 소개한다.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둔 것은 '다양성'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트렌디한 서점들의 신선함, 시간의 역사를 간직한 종전 서점들의 친근함, 사회·문화·예술 등 전문분야의 책을 다루는 서점들의 독특함 등 모두를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동네 서점들의 다양한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점지도를 만들었다. 선정대상은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제외한 중간 규모를 포함한 동네서점으로 정했다. 카페 기능이 책 판매보다 중심인 곳들은 제외했다. 환경적인 차별로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한 훌륭한 서점들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도시의 일상을 삶에 비한 웃음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은 돈이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의 일상이 집 밖을 나서는 것이 즐겁고, 마주치는 사람들이 반겼고, 문화적 자극을 받으며 사는 것은 돈이 없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은 도시의 일상을 풍요롭게 한다. 서울의 다양한 동네서점들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한 에너지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좋은 장소다. 잠시 시간을 내서 둘러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맹스북스 전시
www.thankbooks.com
2015. 10. 20. — 11. 19.
문화역서울 284 전시
www.typojanchi.org
2015. 11. 11. — 12. 27.

SEOUL SOUL

2015
타이포잔치
도시문자업서전

THANK S BOOKS

서울의 동네 서점

서울의 동네서점들은 서울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서울의 동네서점들은 서울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서울의 동네서점들은 서울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서울의 동네서점들은 서울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서울의 동네서점들은 서울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서울의 동네서점들은 서울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이 책은 서울의 동네서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다.

서울의 동네 서점

1 3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서점

은마서적

122주 통영로 212-840A 2층
562-7660
오전 10시~오후 10시 30분

SEOUL / 15200L

15200L

1 3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서점

C()
T()

1-1 은마서적

대치동 한가운데에 자리한 이곳은 뜨거운 학구열만큼이나 책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대형서점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선 찾고자 하는 책을 다 찾을 수 있다는 동네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서울의 동네 서점

5 고서점

통문관

5-1 통문관

종로구 인사동길 89-1
734-4092
www.tongmunkwon.co.kr
오전 10시 30분~오후 9시 30분
월~토요일

SEOUL / 15200L

15200L

5 고서점

C()
T()

5-1 통문관

1934년 관훈동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인사동거리의 터줏대감으로, 서점 자체가 역사인 곳이다. 근대의 고서들과 시, 수필의 초판본들을 만날 수 있어 오랜 시간 애서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의 동네 서점

2 90년대 시작해 지금까지 독자와 소통하는 서점

노원문고

노원구 통일로 1590
391-9033
www.nowonbook.com
오전 10시~오후 10시

SEOUL / 15200L

15200L

2 90년대 시작해 지금까지 독자와 소통하는 서점

C()
T()

2-1 노원문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곳이다. 세미나실은 연일 예약이 가득 차 있으며 북카페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큰 규모의 서점이 아니라 노원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서울의 동네 서점

12 소규모 복합서점

오디너리북숍

12-3 오디너리북숍

성북구 성북로5길 1
370-8208-8118
www.o.ordinarybookshop.com
오전 11시~오후 8시, 월~토요일

SEOUL / 15200L

15200L

12 소규모 복합서점

C()
T()

12-3 오디너리북숍

금호동 언덕 위에 위치한 이곳은 인문학, 소규모출판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관련 중고도서 매입 및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서점이다. 편하게 읽고 쓰는 작은 공간을 지향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와 모임도 열린다.



1-6 동양서림 후원도서

C()
T()

상록수

1930년대를 대표하는 이 작품은 브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한 농촌계몽운동의 소재로 한 장편소설 형식모집에 당선된 소설이다. 황촌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한 지식인들의 모습, 당시 농촌의 피폐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동양서림의 오래된 서점 창고에서 발견한 1971년판 《상록수》.

심훈
절판



7-1 피노키오 후원도서

C()
T()

Dans la lune
(In the moon)

달은 볼 변함없이 떠있는 듯 하지만
월 앞이 변하고 있다. 이 책은 11월의
달이 차올랐다. 지는 모습을 60장에
펼쳐 순서대로 그림 책이다.

Editions du livre
Fanette meller
3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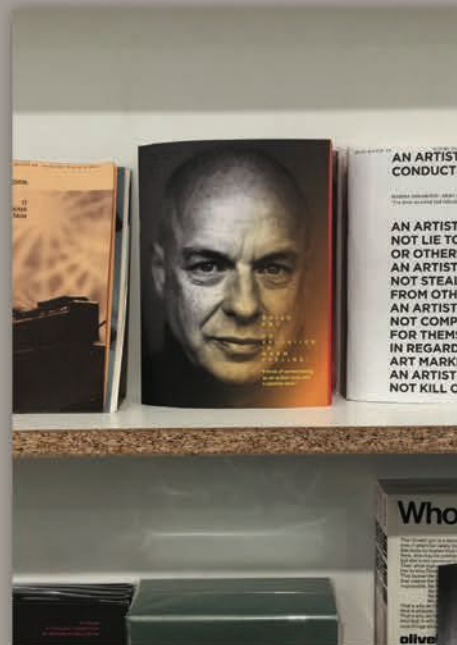
3-3 풀무질 후원도서

C()
T()

깨어나라!
협동조합

20년 동안 국내 협동조합의
한창을 누린 김기섭 박사가
협동조합을 분석하고,
21세기에 걸맞은 협동조합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 책이다.

풀네
김기섭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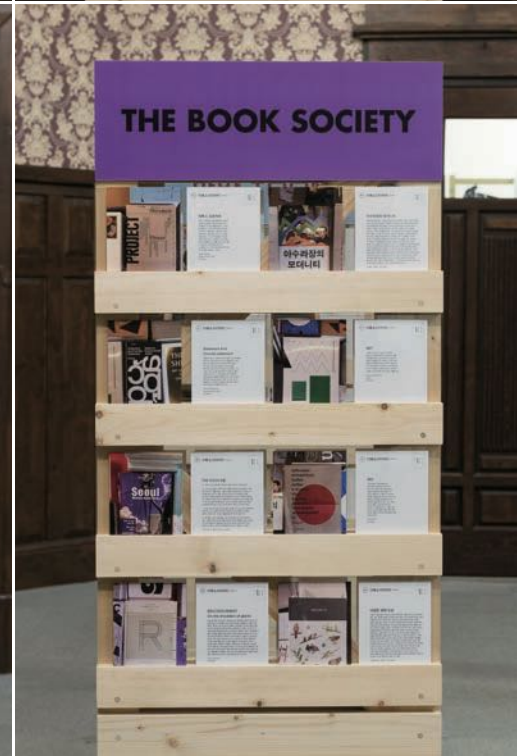
10-1 포스트포에틱스 후원도서

C()
T()

Mono.Kultur #34:
Brian Eno

미술, 디자인, 문학, 음악, 영화, 건축
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한 사람을 선정하여 만드는 잡지
모노.쿠르(Mono.Kultur)의 서른네
번째 이슈는 대중 음악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뮤지션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이언 이노(Brian Eno)를 다루고 있다.
페이지마다 조글락 비향의 색이 바뀌는
책의 만들새가 독특하다.

Mono.Kultur
Brian Eno





풀무질

THE BOOK SOCIETY

TOONK

한강문고

한일

YOUR MIND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동양서림

SINCE 1953

책

파주출판도시 사람들은 책을 만든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책에서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마지막 책까지, 수많은 문자들이 출판도시 사람들에게 의해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인쇄된다. 한편 이곳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책이듯,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 또한 책이다. 잘못 인쇄된 책뿐 아니라 멀쩡한 책들도 여러 이유로 인해 버려진다.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이하 파티)는 수많은 문자들이 명멸하는 도시에서 버려지는 책들에 주목한다. 그들의 궤적을 추적하고, 출판도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문자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책으로서 정체성이 사라지고 온전히 그 무게로 가치가 매겨지는 과정에 개입한다. 이들을 모아 표지를 제거하고, 물에 불리고, 첨가제를 넣은 후 갈아서 반죽으로 만든다. 이 반죽을 다시 직접 제작한 틀에 넣고 말리면, 이윽고 하나의 벽돌이 만들어진다. 이 벽돌들은 사라진 문자들의 기념비일 수도, 그저 덩그러니 무덤일 수도, 혹은 한갓 벽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시가 끝나면 벽돌들은 다시 출판도시로 옮겨지고, 현재 건축 중인 파티 건물 벽의 일부가 되어 문자의 도시에서 사라진 책들의 기억을 간직한다.

최문경

The Paju Typography Institute (PaTI) has been closely following many of the books that are thrown away in this city. PaTI traced the lifeline of books — from their production to their being thrown away — talked with people in Paju Book City, and became involved from the moment when the meaning of a text is banished, the identity of a given book disappears, and the process where they achieve value is only determined based on their weight in recyclable paper. PaTI gathered some of these books, removed their covers, soaked the paper in water, put in some additives, grinded it all together, and ultimately made a type of paste. Afterwards, they put this paste into a mold and dried it. In the end, they were left with a single brick. These bricks can be seen as a banished memorial monument, a placid grave, or perhaps just bricks. After this exhibition, these bricks will be moved back to Paju Book City once again to be part of the PaTI building wall that is now under construction. In short, this can be viewed as an effort to preserve the memory of a typographic city's castaway books.

Kelly Moonkyung Choi

BRICKS

참여 작가
강소이
강심지
곽지현
김건태
김도이
김소연
김하연
민구홍 매뉴팩처링
신민음
이은정
이재욱
한누리
홍지선

큐레이터
최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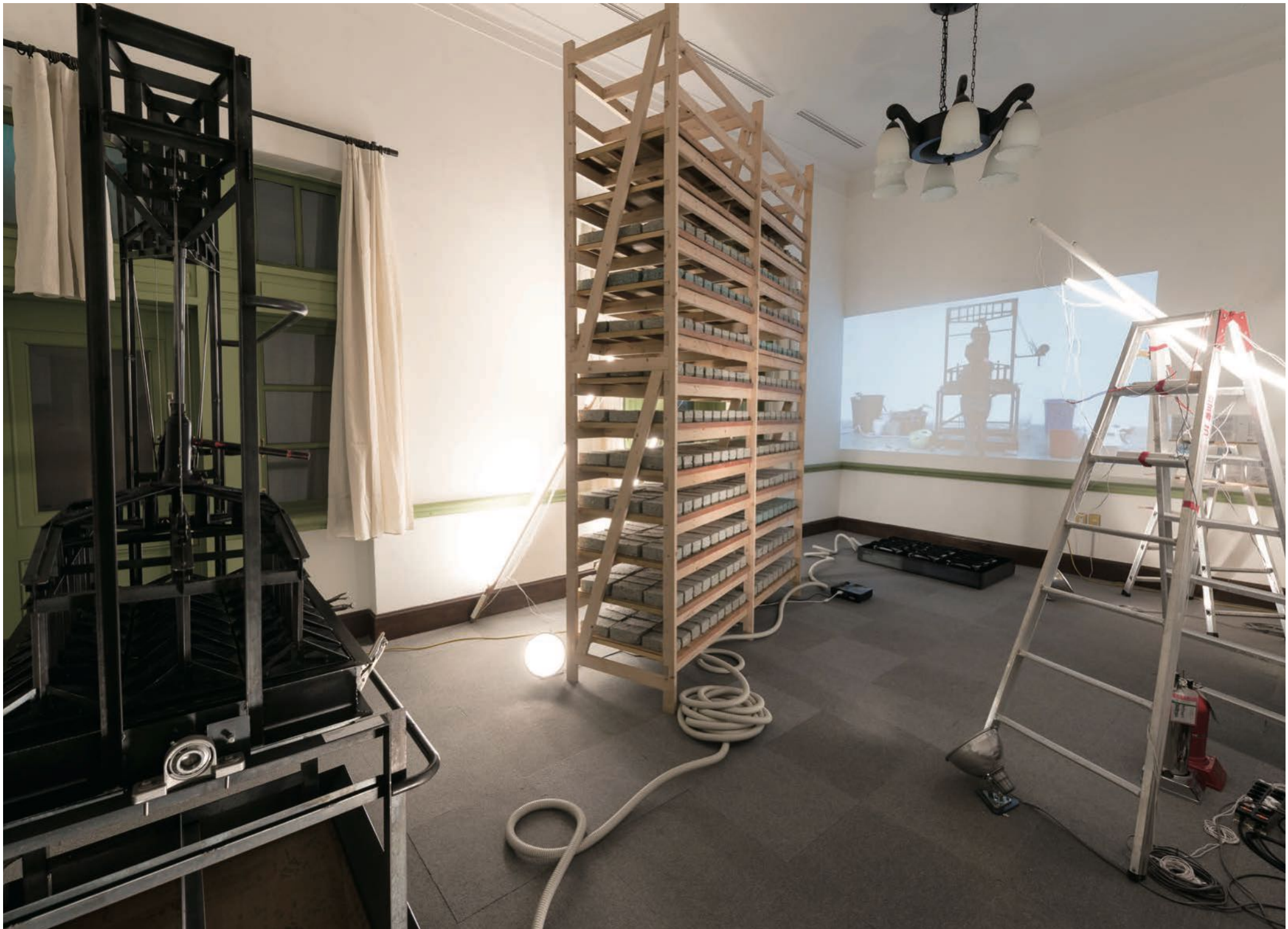
Participants
Han Nuri
Hong Jisun
Kang Simji
Kang Soi
Kim Doi
Kim Geontae
Kim Hayeon
Kim Soyeon
Kwak Jihyeon
Lee Eunjeong
Lee Jaeok
Min Guhong Manufacturing
Shin Mideum

Curator
Kelly Moonkyung Choi

BOOK

책 도시

People in Paju Book City make books. From the very first book which newborn babies come in contact with to the last book in a person's life, countless letters are edited, designed, and printed by people here. Just as books are quantitatively the biggest product made here, so too are they discarded more than any other item in Paju Book City. This is not just due to misprints but to numerous other reasons as well.



파주타이포그래피교육 협동조합에서 만든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일명 '파티')는 2013년 봄 파주출판도시에 움 톤 디자인 배곳이다.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와 여러 스승이 뜻 모아 만든 파티는 우리 제다움(정체성)에 바탕을 둔 교육을 추구하며 독창적 배움을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새롭고 바른 디자인 교육을 실천한다. 《바우하우스의 무대 실현》(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명필름 명대사》(명필름 아트센터, 파주, 2015), 《생활기행》(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5)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한국

책 벽돌

벽돌(6×10×20 cm),
건조대(360×235×85 cm), 2015

벽돌 연구: 강심지, 광지현, 김도이,
김하연, 이은정
벽돌 생산: 강심지, 광지현, 김도이,
김소연, 김하연, 신민음,
이은정, 이재옥, 한누리, 홍지선

Paju Typography Institute (PaTI) is a new design school in Paju Bookcity, South Korea. PaTI was founded by graphic designer ahn sang-soo and several young designers in 2013. The goals of PaTI's creative education are to foster design education based on East Asian philosophy and wisdom; to pursue "thinking hands"; to establish a vast education network; to promote autonomous learning; and to instill a three "no" policy: no property, no competition, and no authority.

PaTI

Korea

Book Brick

Brick (6×10×20cm) and
drying rack (360×235×85cm),
2015

Research: Kang Simji,
Kim Doi, Kim Hayeon,
Kwak Jihyeon, Lee Eunjeong
Production: Han Nuri,
Hong Jisun, Kang Simji,
Kim Doi, Kim Hayeon,
Kim Soyeon, Kwak Jihyeon,
Lee Eunjeong, Lee Jaeok,
Shin Mideum



벽돌 프레스

혼합 매체, 224×218×78 cm,
2015

설계 및 제작: 강심지, 김건태,
김도이, 김하연, 이은정

이제 당신도 책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프셋 인쇄, 16쪽, 10×20 cm,
2015

글: 민구홍 매뉴팩처링
그림·디자인: 강소이
번역: 채유라
영문 감수: 앤서니 파인들리

민구홍 매뉴팩처링: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안그라픽스에
기생하는 1인 회사. 《타이포잔치
2015》에서는 파타의 주문으로
책 벽돌 제작 안내서 《이제 당신도
책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제작했다.
‘타이포잔치’를 ‘오타(typo)’ 많은
책’으로 오독하지 않는다.

출판도시, 벽돌 프레스

단채널 비디오, 10분, 2015

촬영: 신민음, 이은정, 이재옥
편집: 이재옥

Brick Press

Mixed media,
224×218×78 cm, 2015

Design and Production:
Kang Simji, Kim Doi,
Kim Geontae, Kim Hayeon,
Lee Eunjeong

Now You Can Make Bricks with Books for Yourself

Offset printing, 16 pages,
10×20 cm, 2015

Text: Min Guhong
Manufacturing
Illustration & design: Kang Soi
Translation: Chae Yoora
Translation Revision: Anthony
Find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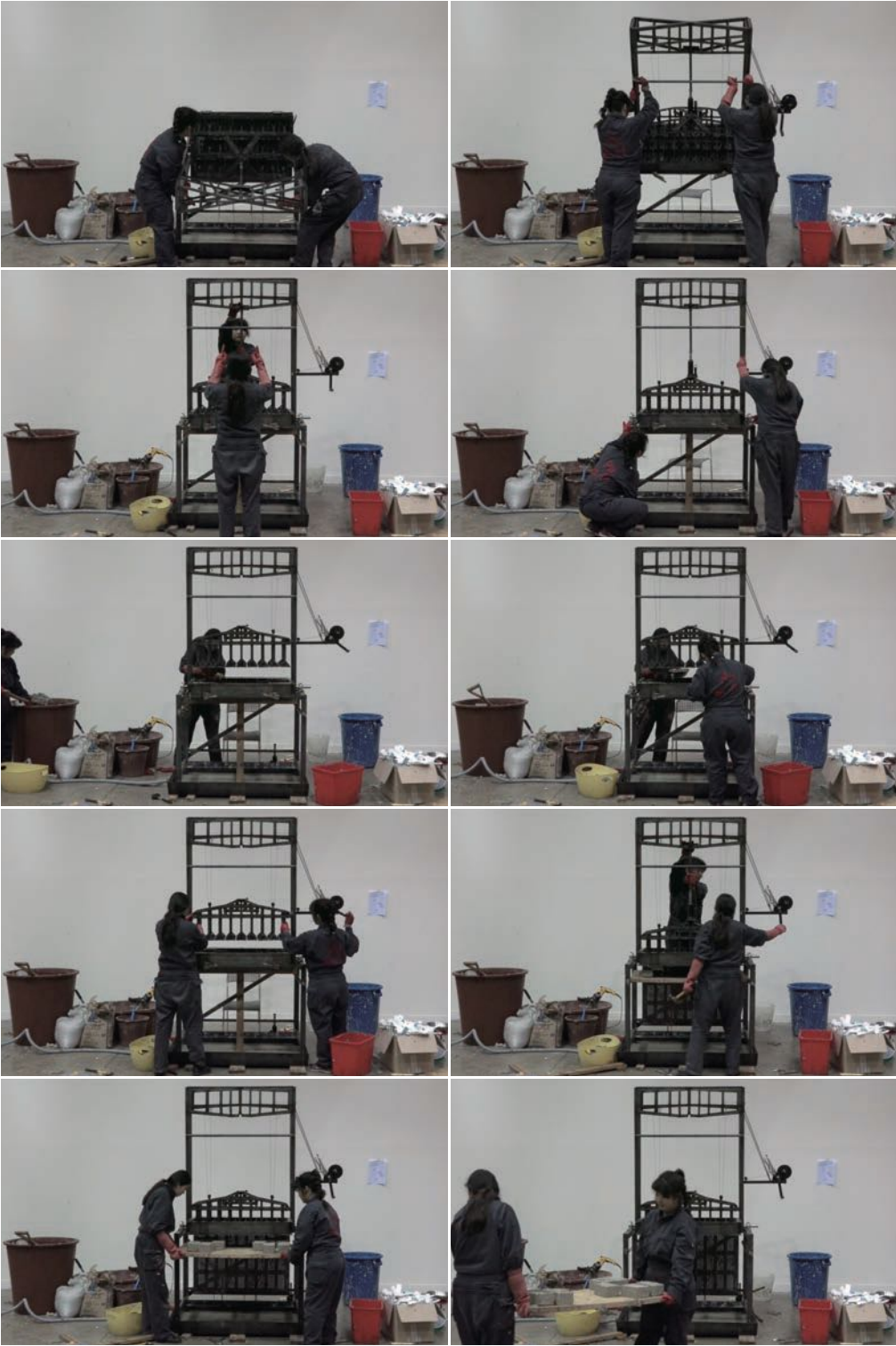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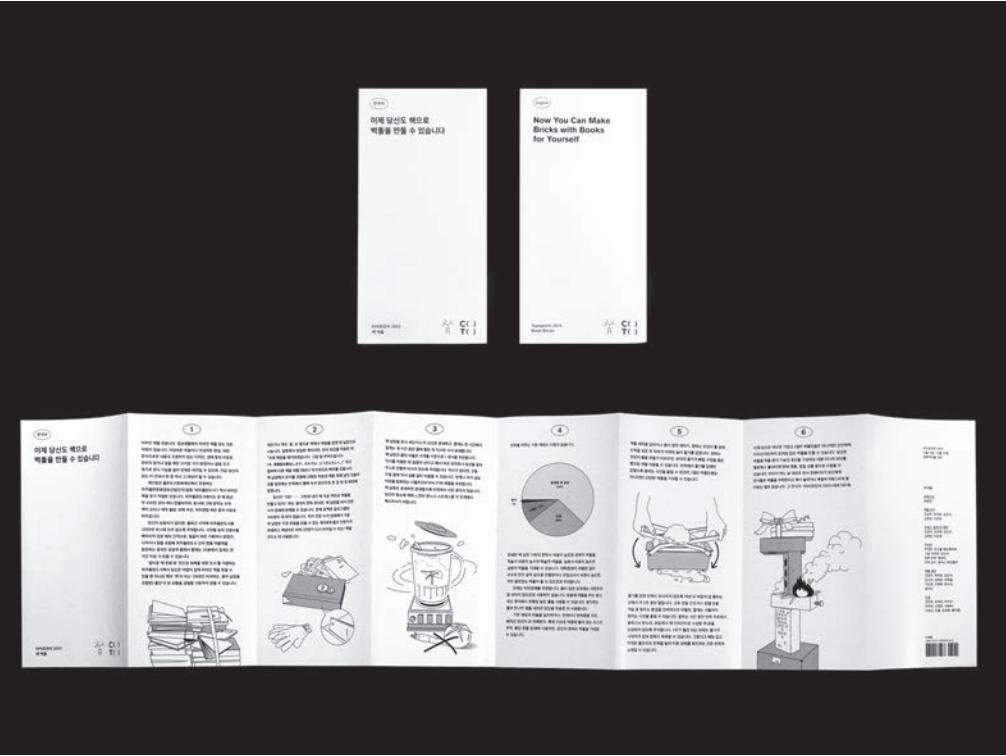
Min Guhong Manufacturing:
A one-man company, who
like a parasite, exists within
Ahn Graphics Ltd. in Paju
Bookcity, Korea. It wrote
a guide, “Now You Can Make
Bricks with Books for Yourself”
for *Typojanchi 2015* as
a request from PaTI. It doesn’t
misread “Typojanchi”
as a book with many “typo”s.

Book City, Brick Press

Single Channel Video,
10 minutes,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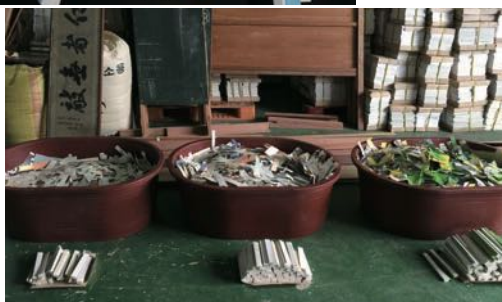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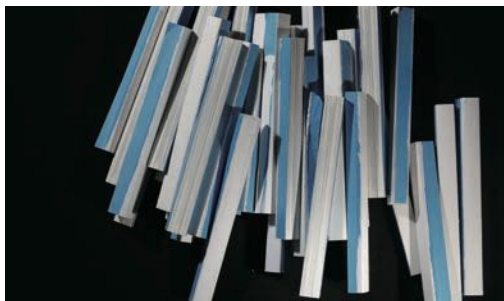
Filming: Lee Eunjeong,
Lee Jaeok, Shin Mideum
Editing: Lee Jaeok





책을 모으고, 분해하고, 재료와 씨름하는 동안 여름과 가을이 지났다. 물 먹은 종이는 무거웠고, 잘 갈리지도, 다른 재료와 골고루 섞이지도 않았다.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쳐 책 벽돌을 구성하는 최적의 재료 배합법과 재료 섞는 방법을 고안했다. 책 벽돌 시제품을 완성한 것은 겨울이 다가온 즈음이었다.

책 벽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직접 설계하고 융접해 만든 책 벽돌 압착기였다.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책 벽돌 하나를 찍기 위해서는 2톤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 벽돌 여러 장을 한 번에 찍기 위해 압착기를 보강하고 수평을 맞추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뤄졌다.



During the process of gathering, disassembling books and struggling with materials, the summer and autumn has already passed by. The water-soaked paper was heavy in weight, did not grind so well and was not mixing with other materials evenly. After several experiments, designers researched the optimal combination of materials for bricks. In the beginning of the winter, the brick prototype was comple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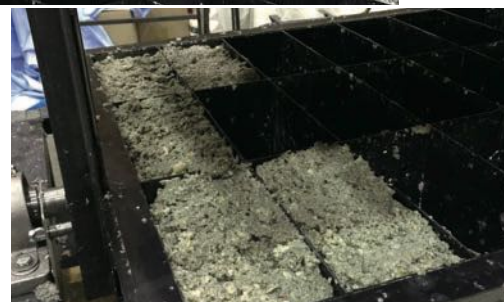
The most important tool in the process of book brick making was the brick press which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the designers themselves. During the brick press making process, the designers acknowledged that to press one book brick, two tons of pressure were needed. To press many bricks at once, ceaseless trials and adjusting balance processes were needed.

파주출판도시에서 버려진 책을 모아 책 벽돌을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민구홍 매뉴팩처링과 책 벽돌 제작 안내서를 만들었다. 안내서에 따르면 관람객은 누구든지 버려지거나 버려질 책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고 책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다.

출판도시에 책들이 있다. 나무, 풀, 출판사 건물, 자동차와 사람, 길과 상점들이 생경하게도 그곳에 있다. 책이 벽돌이 된다. 진지한 역설이 가진 약간의 유머러스함, 그리고 노동과 도구가 있었다.

Min Guhong Manufacturing wrote an interesting notice based on the facts he discovered dur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wasted books and constructing the bricks with them in Paju Book City. With this notice, people can actually make bricks with books and we do not need a sense of guilt about wasting books.

There are books in the Book City. Trees, grass, publishing company buildings, cars and people, roads and shops are all there strangely. A book becomes a brick. There was a little bit of humor and some serious paradox, labor and tools.





WORDPLAY

참여 작가
김가든 × 스탠다드스탠다드
김형철
마이케이씨
박경식
박영하
배달의민족 × 제한회
스튜디오 쏘
스팍스 에디션
워크스

큐레이터
박경식

협찬
우아한 형제들

URBAN

This exhibition was prepared under the pretext of finding hidden layers of meaning in text. It is heavily influenced by Marshall McLuhan's prophetic book from 1962,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in which the author states in no uncertain terms that we exist as a form of text. Be it pretext, context, subtext, hypertext, with the maturing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networked environment, now more than ever the dawn of typographic man is upon us.

Text plays a vital part in our everyday lives. Indeed, the printed word, email, Facebook, Twitter and other social networking services allow millions of words to be exchanged around the planet in the blink of an eye. No longer are flesh and blood indications of being human; today it is thoughts, opinions, data, and bytes that define a person. In a nutshell, the immaterial has replaced the material in defining the existence of man. As a result, language — or more specifically the written word (text) — takes on an additional layer of meaning, not only as a method of delivery but as meaning in and of itself.

The direction of this exhibition looks at text and how it forms, infiltrates, thrives, and carries meaning into its own context by approaching words from an aesthetic viewpoint. The lifecycle of a word, and how that word is used in a sociocultural setting to ultimately define the sender of such words, is the focal point of conjecture. The urban landscape is the perfect environment for such experimentation and thoughtful consideration, providing a real-time reaction to the context of words and their meaning(s). In line with this type of thinking, all of these text experiments will be further considered in a more hands-on application. The work itself does not hang from a wall in a decorative gold frame, for example, nor does it separate itself with a wide berth between audiences. The work itself is applied to everyday objects that further enhance the meaning of the work. A plastic bag, an ashtray, apartment keys, and a broken neon sign all serve to further enhance the meaning of text.

Fritz K. Park

언어

Participants
Baemin x Kathleen Kye
Fritz K. Park
Kim Garden x StandardStandard
Kim Hyungchul
mykc
Park Youngha
Sparks Edition
Studio Jot
Works

Curator
Fritz K. Park

Powered by Woowa Brothers

이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텍스트의 여러 의미를 파헤쳐보는 관점에서 준비되었다. 마셜 매클루언이 이미 1962년에 《구텐베르크의 우주: 타이포그래피적 인간의 탄생》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텍스트로 존재한다. 디지털 환경이 우리 일상과 더욱 밀접하게 교차할수록 매클루언의 타이포그래피적 인간의 의미가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글자를 통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단 1초 사이에 수백만의 대화들이 오가고 있을 정도이니, 인간임을 규정하는 지표가 더 이상 육체나 피 같은 '물질'이 아니라 생각, 의견, 바이트, 곧 텍스트 같은 '비물질'일 것이다. 여기서 언어 즉, 문자의 역할에 대한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데, 단지 내용과 의미 전달 매체로서가 아닌 그 이상인 제3의 의미로 거듭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언어의 파생, 기생, 증식, 그러니까 언어가 생겨나고 변하는 과정 즉 '언어의 유희'를 탐구하여 현재 인간이 어떻게 텍스트로 자기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는지 고민한 결과물이다. 더욱이, 타이포그래피적 인간이 밀집 거주하는 '도시'라는 커다란 대화방 안에서 탐구하고자 했다. 매클루언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며, 도시에 거주하는 타이포그래피적 인간의 주변 사물들에서 의미와 텍스트의 비전형적인 적용을 실험해보고자 했다. 이를테면 비닐봉투, 재떨이, 아파트 열쇠, 깜빡거리는 네온사인 등 — 다양한 적용 매체를 통하여 언어 유희적 내용에 적합한 오브제를 선정하여 적용했다.

박경식

도시

김가든은 2013년부터 김강인과 이윤호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겸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이다. 김강인과 이윤호는 각각 건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했고,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레이션을 동시에 활용하는 작업을 즐긴다. 주요 작업으로는 2014 나이키 'Just do it' 캠페인 TVCF 및 옥외광고 디자인, 2013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슈퍼그래픽 및 홍보물 디자인 등이 있다. 《시스템14—베이징》, 《번역에서 발견된—뉴욕》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스탠다드스탠다드는 2015년 서울에서 시작한, 스탠다드 서플라이의 제품 레이블이다. 기본에 충실한 형태와 기능을 담은 것을 목표로, 누군가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제품들을 기획, 생산한다.

김가든 × 스탠다드스탠다드

한국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해내기도 하는데, 그중 현대인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해시태그이다. 글의 주제를 단어로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였던 해시태그는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의 취향, 욕구, 일상 자체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은근한' 과시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김가든은 이런 특성을 가진 해시태그를 도시 텍스트의 일부로 바라보면서, 온라인에만이 아닌 실제 사물에 적용해 새로운 차원의 '차량질'을 보여준다.

해시태그

천, 가죽, 가변 크기, 2015



Kim Garden is a guest house and graphic studio located in Gapyeong just outside of Seoul. Established by Kangin Kim and Yoonho Lee in 2013. Kangin Kim studied Communication Design at Konkuk University and Yoonho Lee studied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Hongik University. They often use typography and illustration at the same time. Their main works are the 2014 NIKE "Just Do It" campaign TVCF and outdoor advertisement design, 2013 Seoul Plaza Skate Rink super graphic and PR design. They participated in *System14—Beijing, Found in Translation—New York* among others.

StandardStandard is a Standard Supply's product label, started in Seoul, 2015. Their goal is to plan and make products which puts basic form and function to create a "standard" for people.

Kim Garden × StandardStandard

Korea

Social media creates a new form of text, hashtags are probably the most prominent form of new texting in today's world. Originally, hashtags were one way of logging the subject of the written word, but now is a unique channel of communication for taste, desire and daily life itself, as well as (mostly) a means of showing off. Kim Garden sees it as an intricate part of the city, and applies it to real physical objects as an even newer way of "showing off."

Hashtag

Fabric and leather, dimensions variable, 2015



워크스는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와 작업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운영한다. 2012년부터 국민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박지성, 공업 디자인을 전공한 이연정, 이하림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작업으로 <과자전>,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클래식 농원> 등이 있고 워크스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기획, 진행한다.

워크스

한국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브랜드링이 유행하면서, 브랜드 네임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와 형용사들을 나열하는 아파트 조어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파트 과열 현상과 부동산 투자 열풍이 결합되어 현재는 이름이 열아홉 자가 넘는 아파트가 존재하게 되었다. 한국의 아파트 조어법을 통해 현재 우리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름 있는 아파트

플라스틱, 금속, 90 x 232 cm,
2015

Works is a graphic design studio and a retail space for design objects. Since 2012, Kookmin University Graphic Design major Park Jiseong, Industrial Design majors Lee Harim, Lee Yeonjeong have been running this studio and store. Their major works are *Snack Exhibition*, *Innisfree Jeju House*, *Classic Farm* as well as various other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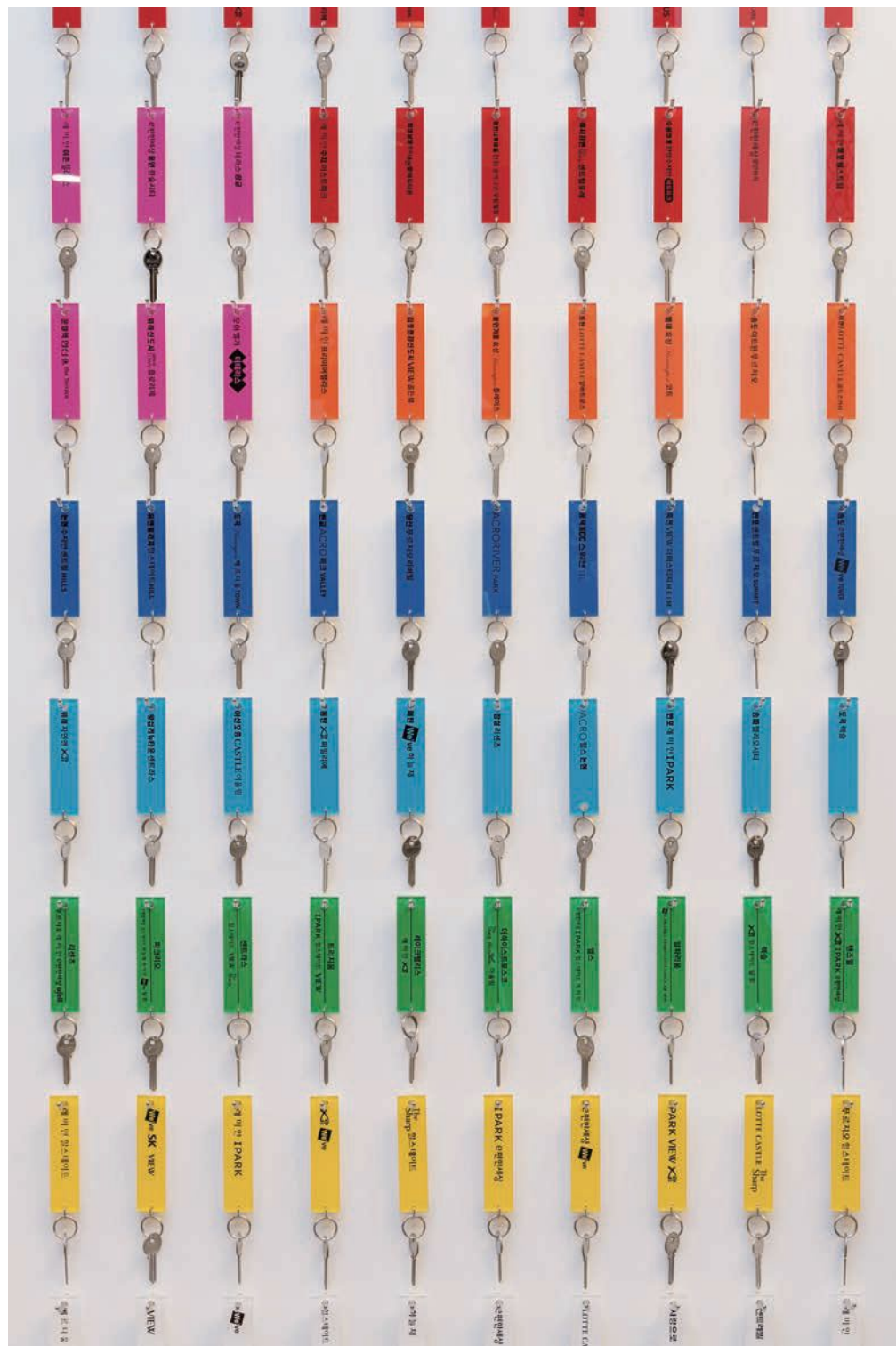
Works

Korea

Since 2000, apartment branding has become a huge trend. A new way of naming an apartment complex, which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tate with adjectives and nouns has been developed. Combined with this and the booming real estate investment craze, there is even an apartment name with over 19 letters. Through this naming frenzy is reflected the current state of the city as well as the times we live in.

Apartment Names

Plastic and metal, 90 x 232 cm,
2015



박경식은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경영을 공부했다. 현재 앤엔코라는 1일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타이포그래피 계간지 《ㄱ》의 편집장으로 일했다. 또한, 삼성디자인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각각 2008년, 2006년부터 줄곧 강의하고 있다. 여러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고, 2012년 홍콩에서 ATyPI 학회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 회원이며 학회지 《글짜씨》에 기고하고 있다. 서울 동부 끝자락에서 아내와 아들 셋이서 작은 연립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가로 등산, 공포 영화 관람, 미국 만화와 철인 28호 피규어를 모은다.

박경식

한국

2015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아우르는 단어가 있다면 두말없이 이 단어일 것이다. 정치권, 여객기 안, 백화점 주차장... '슈퍼 갑'이란 말은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습성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박경식은 기득권층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횡포로 인해 만들어진 이 단어를 빌미로 삼아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끌어내릴 도구를 선보인다.

슈퍼갑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15



Fritz K. Park studied Communication Design at the Milwaukee Institute of Art & Design in Milwaukee, Wisconsin and received his MFA in Design Management at Hongik-IDAS. He wears many hats. His fedora is principal of a one-man graphic design studio named N&Co. specialising in design consultancy, branding and print, while the Stetson he interchanges with a hard hat when he lectures on typography, editorial design and design process at 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Konkuk University among many other schools. His green eyeshade is his thinking cap for when he writes or edits work based on design and cultural trends, or when he does translation work in varying capacities. With so many hats, Fritz has worked with many talented individuals as well as for many renown clients such as Interbrand, Designesprit, Design House, gColon, KT, Hyundai/Kia, Asiana Airlines, Songdo IBD, 5by50, DY and Pacific Star, among others. He has presented papers at ATyPI (Association Typographique Internationale) as well as for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Of special note is his Windsor cap (seasonal) which he saves for exhibition and show openings that he has participated in throughout the years. In his free time, he likes to go hiking (bucket hat), or watch horror movies (face guard visor). He collects comic books and vintage Tetsujin 28 figures and memorabilia (magnifier visor with LED lighting). Fritz lives on the outskirts of Seoul with his wife and three boys.

Fritz K. Park

Korea

This work looks into what is the quintessential word that defines Korea, circa 2015. Be it the government, *chaebol*s, or customers at a department store all of us demand respect, and love to exert our authority upon others. The word, that stems from the numerous extensive cases found in Korean society, alludes to extreme cases of such abuse of authority. Taking that word and applying it to items such as a floor mat (for wiping your feet of dirt), to an ashtray (that collects cigarette butts but also used to extinguish the cigarette itself) implies the disdain and criticism the general public feel for such privileged classes. The designer strongly insists that the work be abused.

Super Gap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단국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한 뒤 2003년 홍디자인에 입사하여 서울대미술관, 신라호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아모레퍼시픽, 삼성카드,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현재 홍디자인에서 아트 디렉터로 재직 중이며 《코리아 국제포스터 비엔날레》, 《달의 힘 — 디자인, 시간을 낚다》, 《입는 한글》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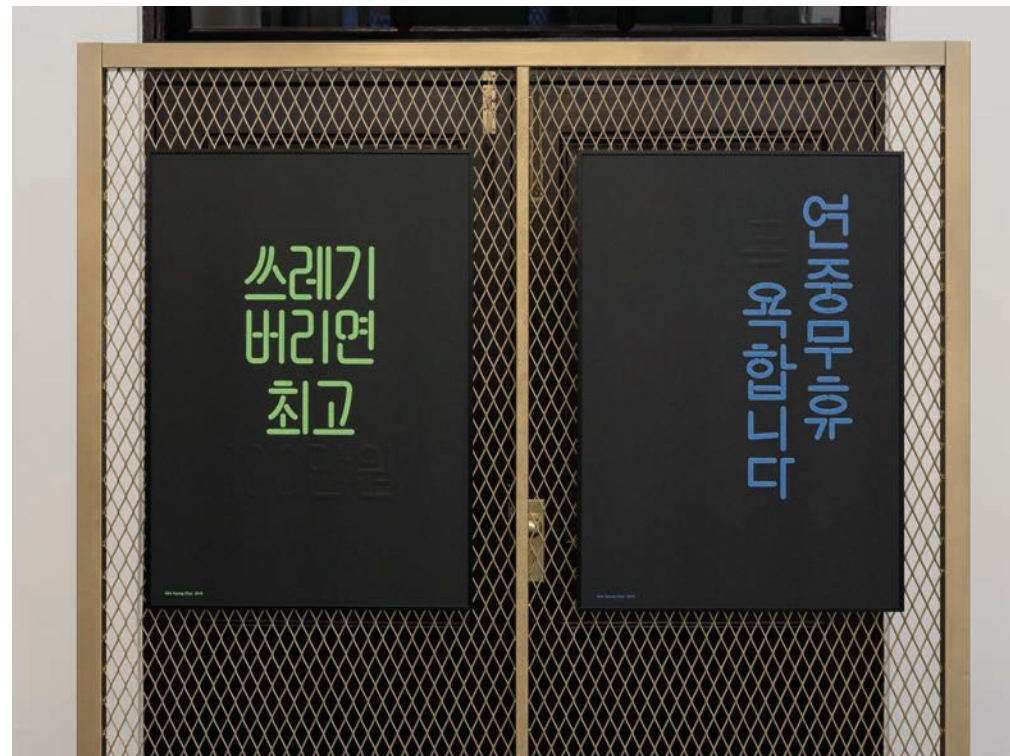
김형철

한국

밤이 되면 불을 밝혀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온사인인, 가끔씩 엉뚱한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엉뚱한 메시지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도시의 밤에만 볼 수 있는 문자로 유지된다.

야행성 문자

판화지에 실크스크린,
4개, 각 72.8×51.5 cm, 2015



Kim Hyungchul majored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Dankook University. He joined Hong Design in 2003 and participated in projects for Museum of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hilla Hotels and Resorts,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morePacific, Samsung Card an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Presently, he is an art director at Hong Design. He has also participated in: *Korea International Poster Biennale*, *Power of the Moon — Design, Catch the Time*, *Wearing Hangeuk*, as well as other exhibitions.

Kim Hyungchul

Korea

A neon sign turns on and illuminates a message in the night, sometimes making strange cryptic messages when the argon gas flickers low. During the day, it reverts back to normal allowing these weird nocturnal messages to survive longer than expected.

Nocturnal Letter

Silkscreen on paper, 4 pieces,
each 72.8×51.5 cm, 2015



스튜디오 종

한국

스튜디오 종의 디자이너 송재원은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제일기획 아트 디렉터로 재직 중이다. 보해양조의 아홉시 반, 일세주, 맥심 카누, 휴롬 등의 캠페인을 담당하였으며, 아홉시 반 캠페인으로 2014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온라인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스튜디오 종의 카피라이터 남우리는 홍익대학교 건축 대학을 졸업하여 역시 제일기획의 카피라이터로 재직 중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 노트의 글로벌 캠페인, 아모레 퍼시픽 라네즈, 마몽드 등의 캠페인을 담당했으며 2013년 칸 국제 광고제 '영라이온스 필름' 부문 한국 대표로 선발되었다. 평소 만들고 싶던 광고 형식의 콘텐츠를 광고주 허락 없이 작업하여 페이스북 '내 종대로 만드는 광고'에 연재하고 있다.

스웍을 타고난
서체가 있다

신의 목소리였던
히틀러의 깃발이었던
스눕 독의 심벌이었던
블랙레터 프락투라가
한글 스웍체로 다시 태어난다

써라, 스웍할 것이다
읽어라, 스웍할 것이다
사라, 스튜디오 종의 스웍할 것이다

타이포 썬의 문제야
스웍체의 탄생

스웍체의 탄생
디지털 출력, 4점,
각 150×150cm, 2015



Studio Jot

Korea

Song Jaewon graduated from the Graphic Design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 he is working as art director at Cheil Worldwide. He participated in campaigns like A Hop Si Vahn (9:30) of Bohae Brewery, Yipsaejoo, Maxim KANU, Hurom, etc. and won a Gold medal from the 2014 Korea Advertising Awards in the Online category. Nam Woori graduated from the Architecture department of Hongik University and is working as a copywriter for Cheil Worldwide also. She was in charge of campaigns for Samsung Electronics' Galaxy S, Galaxy Note's Global Campaign, AmorePacific Laneige, Mamonde. In 2013, she was selected as a representative in "Young Lion Film" of the Cannes Lions Official Festival. Studio Jot self-initiates projects as they see fit, and publishes them on their Facebook page: "Advertisement Our Way (Jotdaero)."

There is a typeface,
Born of swagger

The handlettering of God
Hitler's flag,
Snoop's symbol,
Blackletter Fraktur,
Born again as Swag typeface

Write, swag
Read, swag
Buy, Studio Jot will swag

The troublemaker of the type scene,
The birth of swag

The Birth of Swag
Digital print, 4 pieces,
each 150×150cm, 2015



김기문, 김용찬, 김씨 성을 가진 두 명의 디자이너가 SADI에서 만나 2010년 졸업과 동시에 함께 시작한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이다. 편집 디자인, 패키지, 브랜딩, 일러스트레이션 등 흥미로운 작업이라면 특정한 영역 구분 없이 진행한다. 2011년 《디자인네트》, SPOTLIGHT 2011 주목해야 할 신진 디자이너에 선정되었다. 주요 작업으로 《미래의 기억들》 전시(리움, 2010), 《매거진B》, 《페이퍼B》, 《스파로브스키 그 빛나는 환상》 전시(대림미술관, 2012) 등이 있다.

마이케이씨

한국

도시에서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 있다. 필요할 때는 유용하게 쓰다가 필요 없어지면 내팽개쳐 버려지는 존재, 도시인의 목시적 관찰자들, 바로 비닐봉지다. 소비의 결과물을 담은 비닐봉지는 가리거나 드러내고 싶은 그 무언가를 담아내는 매체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지닌 욕망을 기꺼이 담아내는 도시의 시각물이 되었다. 이런 비닐봉지에 서울이 지닌 욕망과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언어를 담아 보여준다.

도시 욕망 연대기

비닐봉지에 실크스크린, 가변 크기, 2015



mykc is a graphic design studio run by Kim Kimoon and Kim Yongchan who share the same last name. They met at SADI (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and started their own studio in 2010 upon graduation. They do a range of work from editorial design, package design, branding, illustration really everything. In 2011, they were elected as Super Rookie of Design Net, SPOTLIGHT 2011. Their main works are the *Future Memories* (Leeum, 2010), *Magazine B*, *Paper B*, and *Sparkling Secrets* (Daelim Museum, 2012) among others.

mykc

Korea

There are ghosts in the city. When they are needed, they are consumed, when they are not, they're abandoned and discarded. The silent observers of the city; plastic bags. Plastic bags which put the consumption products to hide and reveal and a visual object to put the city's desires in. This work shows the symbolic works of Seoul's desire projected on plastic bags.

The City Desire Chronicles

Silkscreen on plastic bag, dimensions variable, 2015



뉴욕 조나 디자인과 카림 라시드 스튜디오를 거쳐 현재 인터브랜드 서울 오피스 브랜드 디자인팀 수석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작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전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타입 디렉터즈 클럽, 레드닷, 어도비, AIGA, HOW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수상했다. 밀라노와 뉴욕 국제가구박람회, 헤이그 디자인재단 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크라우드드 페스트 등에 참가했다. 저서로 《뉴욕의 보물창고》가 있으며 《동아일보》에 ‘뉴욕 리포트’ 칼럼을 연재했다.

박영하

한국

인터넷상에서 통용되던 신조어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기존의 인터넷 언어들이 축약어나 외계어 등 음성이나 뜻에서 비롯되었다면, 야민정음은 형태에서 비롯되었다. 한글이나 한자의 유사한 글자체들이 착시에 의해 다른 글자로 읽히는 현상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언어로 시각유체적인 요소를 통해 적극적인 한글 파괴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포털 커뮤니티 디자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에서 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하여 야민정음으로 불린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언어들을 한글과 한문 조합을 활용하여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르지 않은 소리’를 만든다.

야민정음

족자, 12개, 대: 100×20 cm,
소: 80×20 cm, 2015



Park Youngha has previously worked for Zona Design Inc. and Karim Rashid Studio and now is a senior manager at Interbrand Seoul Office Brand Design Team. He also has participated in many projects and exhibitions as a freelance designer and artist. He has received awards from the Type Directors Club, Red Dot, Adobe, AIGA and the HOW Design Awards. He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Salone del Mobile Milano and the International Contemporary Furniture Fair in New York, the Hague Design Foundation Biennale, the Gwangju Design Biennale and Crowded Fest. He wrote a book, *Treasure House of New York*, and also a column, “New York Report” for the *Dong-A Ilbo*.

Park Youngha

Korea

New words from the Internet are used in daily life on a regular basis. The existing words stem from abbreviations and alien sounds or meaning. The Yaminjeongeum however originates from form. It is based on the similar shaped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demolishing the Korean text as a visual word pun. It is called “Yaminjeongeum” because it was first used in the “Baseball Gallery” online community found on *DCinside*. It mixes everyday words as with both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for ambiguous meaning that may “not be right words for teaching the people.”

Yaminjeongeum

Scroll, 12 pieces, long:
100×20 cm, short: 80×20 cm,
2015



사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근처 배달업소 정보를 보여주는 '배달의민족'은 우아한 형제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다. 20~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B급 문화를 바탕으로 키치, 패러디, 유머를 브랜드에 녹여 전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배달의민족스러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배달의민족 × 계한희

한국

패션 디자이너 계한희와 배달의민족이 협업한 <배민의류>는 '외국의 어느 길가에 멋진 남자가 한글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2016년 S/S 서울패션위크에서 처음 선보인 이 컬렉션은 '배달의민족 한나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다.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 외에도 한글이 가진 언어적 유희에 주목해, 우리가 흔히 보던 문구들이 옷에 새겨지는 순간 낯설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되며 배달의민족 특유의 유쾌한 실험 정신을 드러낸다.

배민의류

디지털 프린트, 3점,
각 400×150cm, 2015

Baemin is a smartphone application service provided by Woowa Brothers Corp. This app displays the nearest food delivery venues as well as a vast array of options to order food in a quick no-nonsense way. Based on the subculture of the 20s and 30s youth generation, it fuses kitsch, parody, and humor in their brand and conveying it in such a way as to be hip. Baemin carries that unique design ethos into many collaborative works such as this *Typojanchi* project.

Baemin × Kathleen Kye

Korea

A collaboration between fashion designer Kathleen Kye and Baemin, "Baemin × KYE" started from a simple question: "what would a cool guy who is wearing clothes written in Hangul and standing on a foreign street look like?" This collection which is designed with the "Baemin Hanna Typeface" and was first shown at 2016 S/S Fashion Week. This collection focuses not just on beauty of form but a play on language; once familiar words are applied to the clothes, they become unfamiliar and new thereby showing the playful, experimental spirit of Baemin.

Baemin × KYE

Digital printing, 3 pieces,
each 400×150cm, 2015



스팍스 에디션

한국

스팍스 에디션은 조각을 전공한 장준오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한 어지혜가 공동 설립한 스튜디오로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각디자인과, 아트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밴드 10센치의 앨범 아트웍과 디자인, 만화 출판사 쿡의 비주얼 그래픽과 편집 디자인을 도맡아온 스튜디오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창조적인 시각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스펙트럼 오브젝트라는 아트웍 그룹을 만들어 문화 예술 전반의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바쁜 도시에서 핸드폰 문자 소통은 예상치 못한 실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빠른 속도로 써내려가는 이 문자에서는 자음과 모음 오타 하나로 난처하고 유머러스한 상황이 연출된다.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풍선의 형태로 표현된 문자 메시지의 가벼움을 입체적으로 바라본다.

떠다니는 타이핑 오류

풍선, frp, 가변 크기, 2015

Sparks Edition

Korea

Sparks Edition is Jang Joonoh, who studied sculpture and A Jiye who studied communication design. They mainly do a mixture of visual design and art. Based mainly in design, they often showcase album artwork and designs for the music band "10cm" as well as visual graphics and editorial design for the cartoon publishing company, "Quang." Recently, they started an artwork group: Spectrum Object and actively work with many artists.

In a busy city communication via text messages often make unexpected mistakes. Hastily written texts make embarrassing and humorous situations often from single vowels or consonants. This project will be displayed in the form of helium balloons where we can see the ethereal text messages afloat in physical space.

Floating Typos

Balloon and frp, dimensions variable, 2015



YOU

도시를 여행하는 이방인에게 도시는 문자로 말을 걸고, 문자로 환영한다. 환영(歡迎)의 단어는 문자를 넘어서 보다 상징적이며 인지적 심벌의 형태로 모든 도시에 존재한다. 이방인이 도시에 도착하는 최초의 순간부터, 도시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환영(幻影) 문자는 매 순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늘 그림자처럼 방문객을 따라다닌다.

“환영/환영/환영/환영/환영/환영/환영/환영... 환영합니다!” 환영(歡迎)의 주체는 도시이며 아마도 대상은 도시의 방문객일 것이다.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공항 청사의 지붕을 시작으로 출입국 심사대, 환영 피켓, 대중교통 수단, 공용도로 톨게이트, 호텔 정문 발 받침, 체크인, 웰컴 키트, 프리 워터, 기념품, 관광지 안내 지라시, 음식점이나 호텔 정문 등 거대한 도시의 공간과 프로그램이 이방인을 맞이한다. 이렇게 다양한 환영(歡迎)을 지시하고 소통하는 행위는 문자라는 형식을 통하여 매우 반복적으로 도시에 균일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 마음이 진심이건 겉치장이건 위장막이건 도시에서의 모든 공적 공간은 빈틈을 주지 않고 섬 없이 말하고 지시한다. 이방인에게는 더더욱 집요하게, 그들의 도시 속 행적과 일치한다.

문자

When someone travels to a city, it talks to them through its letters and welcomes the person with its typography. The word “welcome” goes far beyond typography, is much more symbolic than the word itself, and exists as a cognitive symbol in all cities. From the very moment one arrives in a city to the last minute when they leave, these illusive letters appear differently every minute they are there, yet remain together all the time like a shadow.

“Welcome/Welcome/Welcome/Welcome/Welcome/Welcome/Welcome/Welcome... Welcome!” Welcome’s subject is a city, while the object of welcome is any visitor of that city.

From the roof of the airport terminal, which you can see from the plane as it touches down on the runway, to immigration desks, welcome signs, public transportation, highway tollgates, hotel front mats, check-in desks, welcome packages, free water bottles, souvenirs, tourist guide fliers, restaurant entrances, and hotel front doors, giant city spaces and signs all welcome strangers. These various forms of welcoming people are seamlessly planned on a repeated basis in the form of typography. Whether it is sincere or not, every public space in a city is most certainly speaking to people and directing them, obsessively following a stranger’s traces in a city.

불안하리만큼 무자비하고 반복적인 도시 문자 환경에서 유일하게 원형적인 주거지, 즉 집 같은 안정감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호텔’. 이 역시 한시적 거주를 위해 계약한 사적 공간이지만 도시와 같은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은 소리로 대단히 공손하고 개인적인 음성으로. 그러나 그 역시 도시가 하는 말의 내용이나 감정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환경과 프로그램은 이방인을 세뇌하고 길들인다.

우리는 문자가 도시에서 인간을 제어하는 행위와, 문자가 도시를 대신하여 말하는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기록하고 실험하고자 한다. 이마의 주름과도 같이 제어하기 힘든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관습적인 환영의 인상과 방법을 기록하고, 호텔 방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서 개개인을 정조준한 계획된 환영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고 전달하고자 한다.

환영(歡迎)의 메시지를 환영(幻影)의 주체로 하여금 CITIES WELCOME YOU, WELCOME WELCOMES YOU

조현

In the ruthless, repetitive environment of a city’s typography, there is only one place that feels like home, and that’s a hotel. This private residential space people rent out on a short-term basis has the same way of talking to people as a city does, that is, in a small, polite and/or personal tone of voice.

It is our goal to record and subsequently experiment with typography’s control of human beings in a city, while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of intervening in the ways typography speaks in place of a city. We also wish to document conventional welcoming impressions and methods for the unspecified. Furthermore, we will experiment and present welcoming experiences planned for each individual in a hotel room (a private space) in a variety of ways.

CITIES WELCOME YOU, WELCOME WELCOMES YOU

Cho Hyun

COMES

歡迎

참여 작가
강문식
닐스 클라우스
두성종이 디자인연구소
디자인 메소즈
마수나가 아키코
매튜 니븐
베르게르 + 슈타델 + 월시
송봉규
심대기
심효준 + 키이스 왕
이충호
조현
클라크 코프
팀 서즈데이

큐레이터
조현

공동 큐레이터
이충호
심대기

후원
두성종이

환영
幻影
WEL-

Participants
Akiko Masunaga
berger + stadel + walsh
Cho Hyun
Clark Corp
Design Methods
Doosung Paper Design Lab
Gang Moonsick
Lee Choongho
Mathew Kneebone
Nils Clauss
Shim Daeki
Shim Hyojun + Keith Wong
Song Bongkyu
Team Thursday

Curator
Cho Hyun

Co-cutators
Lee Choongho
Shim Daeki

Powered by Doosung Paper

CITY
도시

조현은 경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서울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스튜디오 'S/O 프로젝트(Subject and Object Project in everyday life)'를 설립한 후, 스튜디오 이름에서 드러나듯 일상과 일상 사물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미디어에 접목하고, 확장하며,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는 실험적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조현 + 닐스 클라우스

한국, 독일

닐스 클라우스는 영화감독이자 사진 작가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홍콩에서 시각문화와 그래픽디자인, 영화 제작을 공부한 후 중앙대학교 첨단영상 대학원에서 시네마도그래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경험을 살려 폭넓은 시각과 명료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그의 뮤직비디오, 단편영화, 다큐멘터리들은 여러 국제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주요 작품으로 아일랜드 영화감독 닐 다울링과 협업한 M83의 <문차일드>, 노르웨이 밴드 퀴워크스프의 <시니어 리빙> 뮤직비디오 등이 있다.

도시에는 도시환영인(都市幻影人)과 도시환영인(都市歡迎人)이 균일하게 공존하고 있다.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지만 폭넓게 공통된 역할을 담당하며 도시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환영인(都市幻影人), 도시거주자들에게도 낯선 또 다른 도시환영인(都市歡迎人), 이 모두가 누구에게나 과장된 제스처와 형상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정한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두 가지의 도시환영자 유형은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부여한, 또는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이들의 모습은 흡사 도시가 입고 있는 유니폼의 패턴과 닮아서 도시의 인상과 도시가 이방인을 환영하는 방법을 각인시킨다.

웰커머

책, 23.5×16.5 cm, 2015

플라스틱 웰커머

책, 23.5×16.5 cm, 2015



p148



p149

Between 2001 and 2002, the designer Cho Hyun was deeply absorbed with trash. In 2002, he and Choi Sungmin developed the FF Tronic typeface based on the rules of objects encountered in daily life, and this led to his work as a registered font designer with FSI (Font Shop International, Germany). That same year, he earned a Master of Fine Arts degree in graphic design from Yale University, and in 2004 he established his S/O Project studio in Seoul. With a name meaning "Subject and Object Project in everyday life," this effort sees him making continued attempts at work incorporating perspectives on daily life and everyday objects into typographic expression. In particular, the studio's efforts are focused on combining and expanding the relationship of subject and object into different media. This design methodology has led him to produce unique and experimental results even when cooperating with very commercial enterprises, and his various media and communication approaches, which represent a departure from established methods, have met with considerable praise, including honors from the Red Dot Awards, TDC New York, TDC Tokyo, ADC, and the ARC Awards. Cho's experiments with the subject/object in everyday existence are also realized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he results of his work with students based on everyday themes and areas of interest have been honored by the Red Dot Awards.

Cho Hyun + Nils Clauss
Korea, Germany

Cho Hyun + Nils Clauss

Korea, Germany

Nils brings a clean style and clear point of view to his work. His strong sense of visual storytelling is driven by the fact that he found his way into directing through cinematography and photography. Based in Seoul, South Korea, Nils has shot, directed and edited a number of award-winning music videos, short, feature and documentary films, which have been screened at various international festivals or went viral online. He often collaborates with Irish filmmaker Neil Dowling to develop concepts and the duo have created a number of hit music videos like *Moonchild* for M83, as well as *Senior Living* for the Norwegian band Röyksopp which was selected for the prestigious Saatchi & Saatchi's New Directors' Showcase at Cannes in 2011 and received a nomination at the UK Music Video Awards the same year. After studying in Germany, Australia and Hong Kong, Nils honed his technical skills and fierce work ethic by completing his MFA in Cinematography at the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ence, Multimedia and Film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Born and raised in Germany, Nils has been living in South Korea since the end of 2005. This gave him a unique world perspective and has liberated his views from any form of ethnocentrism. Nils is steadfast in his quest to experience the authenticity of all walks of life and to work within challenging and diverse environments.

In the city, plastic welcomers and welcomers co-exist: plastic welcomers who silently play equivalent roles widely in the city, and welcomers who are unknown even to the citizens. They all work to deliver a message of welcome with exaggerated gestures and forms. These two types of welcomers take a certain place of their own, and carry out their work (given or chosen by themselves) solemnly and fully. As they take similar forms with the uniformed city itself, they reinforce the city's impression and its way of welcome.

Welcomer

Book, 23.5×16.5 cm, 2015

Plastic Welcomer

Book, 23.5×16.5 cm, 2015



디에이앤컴퍼니의 공동 창립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심대기는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하고, 런던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에서 인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폴드 갤러리, 슬레이드 미술학교, 쇼어디치 타운 홀, 레프트 뱅크, 라운드 하우스 런던,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뉴욕 PS 35 갤러리, 제로원 디자인센터, 서울 시청,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디자인 작업을 선보였으며, 최근 작업 <지금 & 여기>는 중국, 대만, 한국에서 열린 실험적인 포스터 전시회 '2015 아시아 넥스트'에 초대되었다. 또한 <어떠세요?>, <첫 번째 공연 사이>, <사이 #2> 등의 디자인 전시를 큐레이팅하기도 했다. 그의 작업은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 등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 제10회 한국 타이포그래피학회 전시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심대기

한국

서울의 대표적인 관문 인천국제공항에는 “4, 13, 44번 탑승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돈다. 그러나 이 뜬소문 같은 말은 사실이다. “다음에 꼭 다시 방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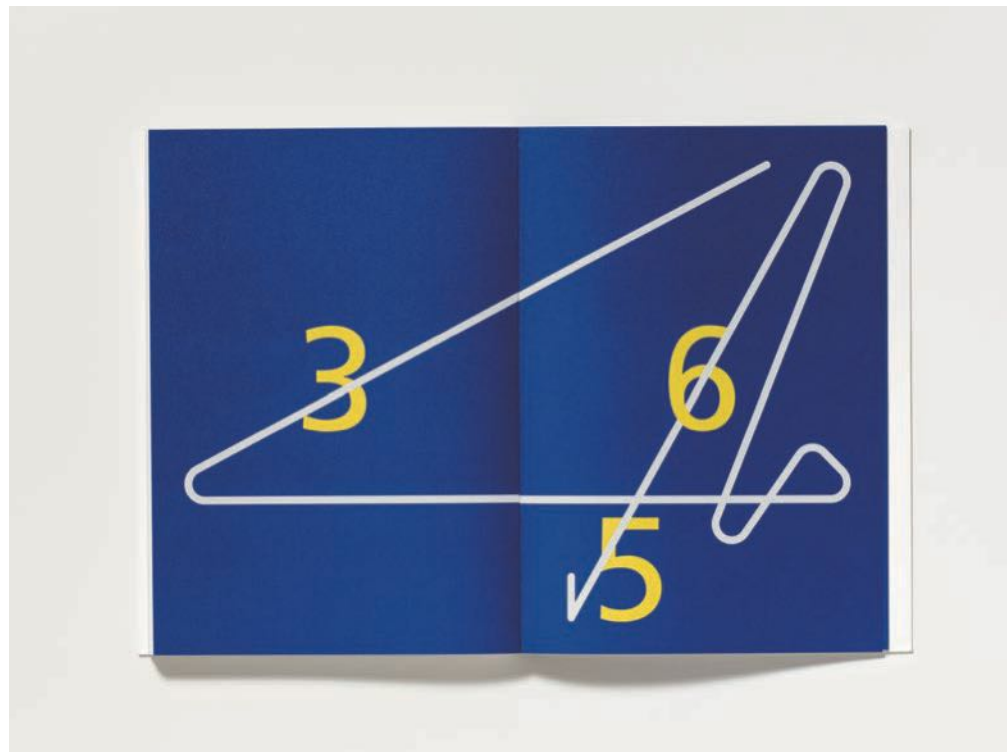
4 13 44

책 (23.5×16.5 cm),
조명 (2점, 23.5×57×12 cm),
2015

우리는 일반적으로 SNS라는 매체를 통해서 ‘경험된 경험’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경험들은 결코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다. 본 작업은 디자이너 심호준과의 공동 작업이다.

가상과 실제

책, 23.5×16.5 cm, 2015



Shim Daeki is a co-founder and graphic designer at D. A & Company. He received a bachelor degree in graphic design from Central Saint Martins,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and a master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from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University of London. His design works have been shown at the Fold Gallery, Slade School of Fine Art, Shoreditch Town Hall, Left Bank, UCL Quad, Round House London, London Design Festival and the PS 35 Gallery as well as the Zero One Design Center, Seoul Citizens Hall, Sejong Art Center and among others. Recently, his work titled “Now & Here” was invited to the 2015 Asia Next which is a Poster Experimental Design Exhibition in China, Taiwan and Korea. Moreover, he also curated and directed several design exhibitions such as *How is it going?*, *Between the First Show and Between #2*. His works were selected in the Korea Design Awards, Red Dot Awards among others. Most recently, his work was awarded the Grand Prize from the 10th exhibi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in June 2015. He currently teaches at Seoul Women’s University.

Shim Daeki

Korea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representative gateway to Seoul, “boarding gates 4, 13, and 44 do not exist” is a frequently spoken saying. This may seem like a rumor, but it is true. “Please come and visit us again.”

F 13 FF

Book (23.5×16.5 cm) and
light (2 pieces,
23.5×57×12 cm), 2015

Through the everyday medium of social networking, we experience “experienced experiences.” However, these experiences are not repeated in the same manner every time. This project is a collaboration with designer Shim Hyojun.

Virtual and Actual

Book, 23.5×16.5 cm, 2015



아트 디렉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이충호는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으로 학사 학위를, 런던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에서 같은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디자인 스튜디오 SW20을 운영하며 그래픽디자인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의 작업은 뉴욕 ADC, 뉴욕 TDC, 도쿄 TDC 등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였으며 국내외 잡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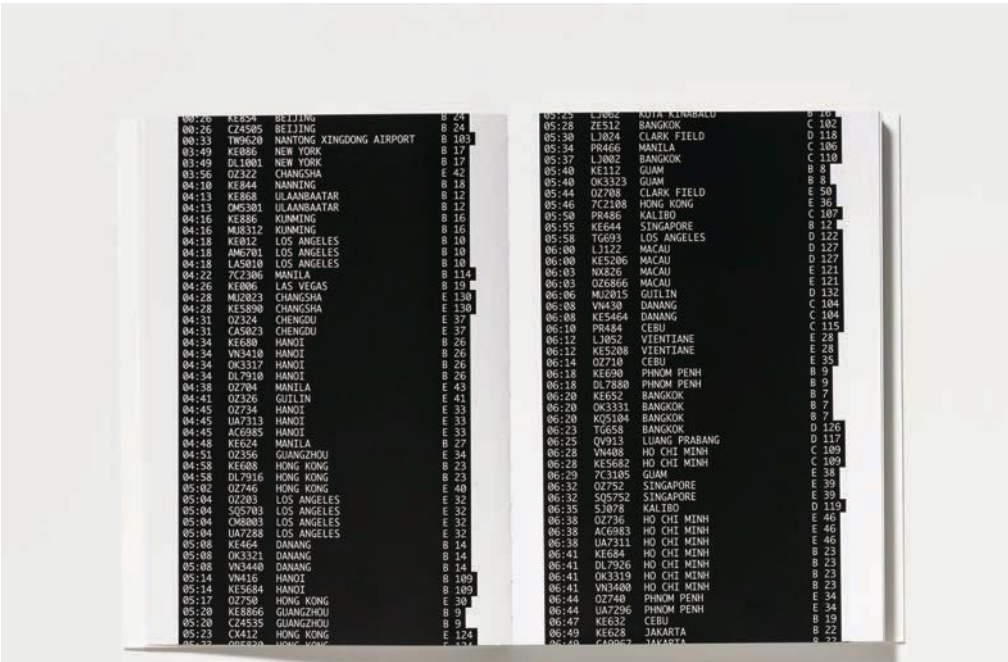
이충호

한국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 공항을 통하여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도시에서 가장 먼저 듣는 환영 인사는 목적지 공항 활주로에 도착하여 듣는 기내 방송일 것이다.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서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천국제 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데 그중 대부분의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된다. 2014년 기준으로, 인천 국제공항은 83개 항공사를 통하여 54개국 195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연간 운항은 29만 43편, 이용 승객은 4551만 2099명에 달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국제 공항의 2015년 10월 13일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 동안의 모든 입국 상황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금일 도착편
책, 23.5×16.5cm, 2015

도시라는 공간에 대한 인상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중 인터넷은 어렵지 않게 도시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특정한 도시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준다.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서울의 모습은 검색어의 차이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미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보통 글의 내용과 함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을 검색한다 해도 결과에서 보이는 이미지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서울에 대한 이미지 자체보다 이것이 포함된 글과 출처에 대한 주목은 인터넷 공간에서 서울의 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은 어떻게습니까?
책, 23.5×16.5cm, 2015



Lee Choongho is an art director and graphic designer graduated from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in London with a BA (Hons) in graphic design. He also received an MA in graphic design from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 He founded his own graphic design studio SW20 which works on a wide range of projects across a variety of media. He currently teaches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University of Seoul and Ewha Womans University. His works were awarded by multiple awards including New York Art Directors Club, New York Type Directors Club, Tokyo Type Directors Club etc. His works have been exhibited and published in magazines and books across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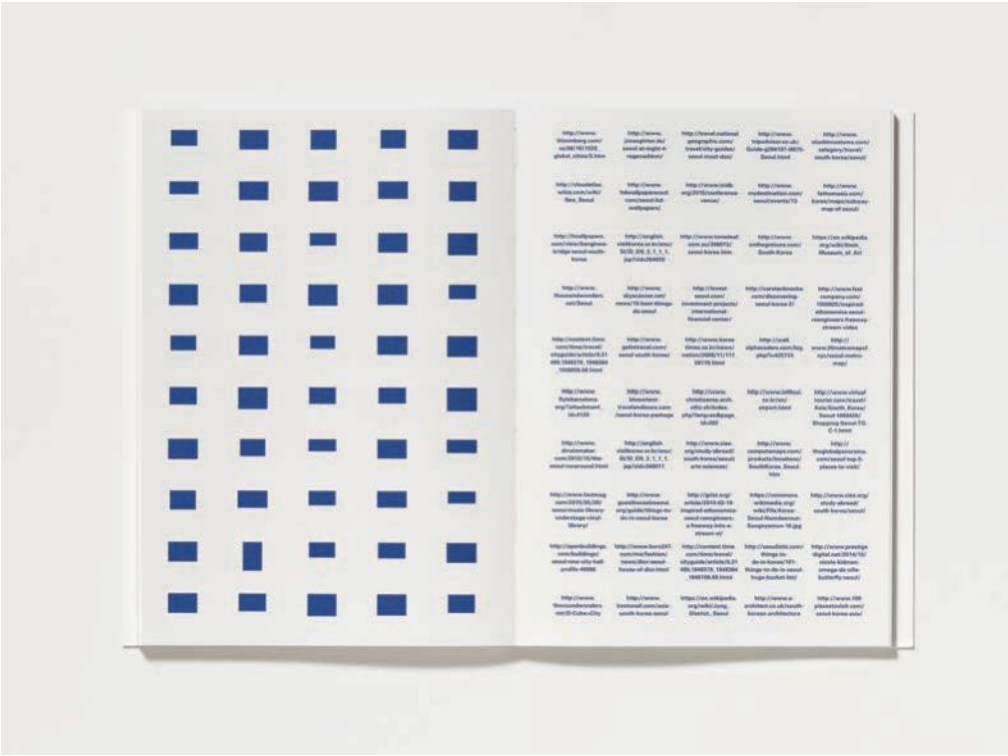
Lee Choongho

Korea Whichever city you visit, if you enter it through the airport, the very first welcome greeting from the city will be heard on in-flight announcements once you touch down on the runway of your destination airport. To arrive in Seoul by airplane from abroad, people can come in throug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r Gimpo International Airport and most of the international flights are operat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2014,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connecting to 54 countries and 195 cities through 83 airlines and the number of passengers reached 45,512,099 while its annual operating number of flights was 290,043. The number of immigration on October 13, 2015 from 00:00 to 24:00 goes to show how many visitors were welcomed by the city of Seoul.

Today's Arrivals
Book, 23.5×16.5cm, 2015

The impression of the space called city is built in a variety of ways. Various images on cities can be easily browsed on the Internet and this gives an effect to determine the impression of a particular city. Urban landscapes of Seoul experienced online may differ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of a search term. As long as an image is not present independently, it functions with the contents of text in general and for that reason, a difference occurs in the image seen in the results, though you find the same area. To focus on the text where an image is included and the source rather than the Seoul image itself offers an opportunity to explore how the impression of Seoul is formed on the internet.

How Do You Like Seoul?
Book, 23.5×16.5cm, 2015



두성종이 디자인연구소는 두성종이의 디자인 체계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 전통 및 현대 색상 연구 개발, 특수지 표면 가공 연구, 종이 제품 개발 등을 위해 2009년 설립되었다. 두성종이의 전체적인 공간 및 컬러 디자인, 디자인 관련 외부 기업 및 단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디자인 사업 진행, 페이퍼 굿즈 시리즈 등 종이 상품 디자인,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여, 사내 디자인 교육 등을 통해 두성종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두성종이 디자인연구소

한국

이방인이 되어 방문한 도시에서 경험하는 호텔은 우리를 '환영'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지불하는 만큼의, '그 정도'의 환영일 뿐이다. 지불 금액에 따라 차등 배정되는 객실. 호텔의 입구만 같을 뿐 '너와 나'는 '다른 것'을 제공받고 있다. 더 나은, 더 높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그만큼의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 지불하는 만큼 더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경험이다. 흔하지만 반갑지 않은 경험, 그 경험에서 우리의 '환영'이 시작된다.

도시에 방문한 당신을 환영합니다. 더 '환영'받고 싶다면 조금 더 지불하면 됩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만큼,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웰컴 & 베리 웰컴

감열지에 인쇄, 가변 크기, 2015



Doosung Paper's design lab is an attachment institution of Doosung Paper. Established in 2009, it researches and develops the design system and identity of Doosung Paper, Korean traditional color tones as well as modern color tones, develops surface finishing of specialty papers, and develops paper stationery. It consists of graphic design research team, online communication design team, and design consortium team. By performing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designing the overall color and space of the Doosung Paper building, businesses related to designs and hosting consortiums with other design firms, designing paper products such as the Paper Goods series, participating various domestics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hosting in-house design seminars, they take an important role in transforming and innovating Doosung Paper.

Doosung Paper Design Lab

Korea

Hotels in the cities where we're visiting as a stranger always "welcome" you, but it's just "that much" of welcoming. Suites-provided depending on the amount of your payment. "You and me" seem to share its entrance, but definitely enjoy "different" things and services. If you want better service, you need to pay more. You could enjoy more and better if you pay more. It's quite obvious in the capitalist society we're living in. Familiar, but not delightful experiences, our "welcome" just starts at this point of experience.

Welcome to "the city." Please pay more if you want us to "welcome" you. We "welcome" you as much as you pay.

Welcome & Very Welcome
Print on thermal paper,
dimensions variable, 2015



2012년 설립된 디자인 메소즈는 탐구적 접근과 실험적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 결과물을 생산하고자 디자인 전반에서 활동하는 네 명의 디자이너 (김기현, 문석진, 이상필, 남정모)가 모여 설립한 산업디자인 스튜디오이다. 영국 런던 디자인 뮤지엄의 올해의 디자인, 100% 디자인 런던의 블루프린트 어워드, 미국 산업디자인협회 IDEA, 독일 디자인협회의 퓨어 탠트 콘테스트,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 등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으며 제품, 가구, 공간, 디지털 미디어,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방문객이 호텔 입구에 들어서면 "It's right here."라고 표기된 유도등이 반응하며 불이 켜진다. 건축용어사전에서 '유도등'은 바람직한 보행과 피난 방향의 안내를 돕기 위해 항상 점등되어 있는 표지등을 의미한다. 여러 종류의 유도등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역할과 의미가 있듯, 호텔 입구에 설치한 센서 반응 형식의 유도등은 '환영'을 의미한다. 호텔 유도등에 쓰인 "It's right here."는 호텔 방문객들에게 '당신이 찾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알림과 동시에 환영의 인사다.

환영 유도등

유도등, 아크릴에 실크스크린,
60 x 50 x 5.4 cm 2015

Design Methods

Korea

Design Methods is a creative design studio in Seoul, comprised of two industrial designers (Kim Kihyun, Moon Sukjin) and two graphic designers (Lee Sangpil, Nam Jungmo), approaching to the context of wider aspects. The studio is working on diverse range of industrial fields including product, furniture, space, digital media and brands. The design attitude and process are strongly focused on continuous exploring and embraces new archetype, materiality, technology and simplicity.

When visitors enter the hotel, the leading light turns on with a welcome message, "It's right here." In architectural terms, an leading light is a beacon light to help people find the right evacuation direction. As many kinds of leading lights have different roles and meanings according to their purposes, this sensor-type leading light installed at the hotel entrance "welcomes" hotel visitors. As the leading light says, "it's right here," it tells visitors that this is the place they've been looking for.

Welcome Leading Light

Readymade Leading Light,
Silkscreen on Acrylic,
60 x 50 x 5.4 cm, 2015



호텔을 예약하면 안내 메일과 함께 3개의 영상 자료를 받게 된다.

다른 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를 기억해보라. 목적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웹사이트를 통해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할 것이다. 아마도 출국하기 전 이메일이나 전화로 예약 확인도 할 것이다. 그리고 출국 당일 집에서 공항으로 이동,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에게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호텔에 도착할 것이다. 이러한 여행 과정에서 호텔이 방문객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매체)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다. 이 중에서도 이메일은 방문객이 호텔 예약과 동시에 가장 먼저 받게 되는 환영의 인사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 방문객이 가장 많이 문의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인 공항에서 호텔까지 도착하는 이동 경로를 정보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하철, 버스, 택시 세 가지 대중교통으로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 경로를 안내 표지판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과 함께 영상으로 편집했다.

대부분의 여행객이 수많은 안내 표지판의 기호와 문자에 의존해 길을 찾는데, 처음 방문한 도시의 낯선 환경에 조금이나마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상을 통해 도시를 간접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마주하게 될 다양한 도시의 모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세 개의 영상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은 《타이포잔치 2015》 전시가 오픈하는 11월 11일부터 스몰하우스 빅도어 호텔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안내

3채널 비디오, 2015



When customers make a reservation for the hotel, they will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with three short films.

If you are visiting a country for the first time. You may plan a travel schedule and then book plane tickets and a hotel room on the Internet. You will probably confirm your reservation via e-mail or make a phone call before you leave. On the first day of your trip, you may leave your home for the airport, take a flight to the destination, choose any local transportation you want, and then finally arrive at the hotel. Throughout your journey, your hotel can send you a welcome message via an e-mail, phone call, and its website. Among them, the first greeting right after you make a reservation might be a confirmation e-mail. Therefore, we chose an e-mail as a wa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 by travelers: "How can I get to the hotel from the local airport?" The film explains about three different routes from the local airport to the hotel depending on public transportation (subway, bus, and taxi) with road signs and photos.

Most travelers rely on street signs, symbols, and letters when they visit a place for the first time. We expect our films to help travelers feel comfortable easily and quickly in the new circumstances. As travelers can experience their destination city in advance through a film, we believe they can fully enjoy the charm of their various destinations after actually arriving there.

These films linked email will be test operated during *Typo-janchi 2015* exhibition, from 11th November at the "Small House Big Door" hotel.

Public Transportation Guide
Three-Channel Video, 2015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산업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스튜디오 SWBK를 설립했다. IF, IDEA, 레드닷 등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였으며, 차세대 디자인 리더(KIDP), 대한민국 대표 K-디자이너 10인(중앙일보), 대한민국을 이끌 젊은 리더(포브스 코리아) 등에 선정되었다. 현재 SWBK와 가구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매터 앤드 매터' 공동 대표로서 산업디자인 및 브랜드 디자인 전략,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하며 국민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및 디자인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다.

송봉규

한국

호텔은 물론 집이나 회사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러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원리를 이용해 제작되었다. 19개의 모음과 21개의 자음으로 모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글처럼, 모듈러는 몇 가지 기본 모듈을 통해 다양한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 원, 일자형, 삼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으로 구성된 모듈들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용자 마음에 달렸다.

모듈러

플라스틱(ABS), 다양한 크기, 2014

Song Bongkyu graduated from Kookmin University and majored in Industrial Design. He worked for the Samsung Electronics Mobile Communication Division as a product designer. In 2008, he established the design studio, SDESIGNUNIT and mainly designed product, lighting, furniture design and also conducted research abou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bject and the environment. He directed and exhibited design projects including, "the undesigned objects — UNDESIGNED." He has been working with renowned clients like Amore Pacific, BMW, Audi, Samsung Electronics, Siemens, Kimberly-Clark Professional, Dell and etc. He received several awards from various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s including IF, Red dot, IDEA and Good design Japan. Moreover, his works are introduced at exhibitions and posted in media in Italy (Super Studio), Germany (Cebit), Japan (100% Tokyo), U.K. (TENT London) and France (Masion & Objet including the KCDF and Musée des arts décoratifs de Paris), ICFF (Singapore Design Fair). Currently, he is leading SWBK and Matter & Matter as a co-founder. Mainly consulting on product concept development to brand design strategy and leading consulting for the service design sector as well. Currently he is teaching students in the industrial design major at Kookmin University and Hongik University.

Song Bongkyu

Korea

The Modular is made for universal uses. *The Modular* is structured by letter main systems. Like Hangul which is made by 19 vowels and 21 consonants, *The Modular* can make various compositions with several basic modules. It is dependent on where and how to use the most basic figures; round, straight, triangle, square, diamond.

The Modular

Plastic (ABS), Various Size, 2014



매튜 니본은 드로잉, 전자 장치, 사운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작가이다. 기술자들이 창조한 전기 기술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의 작업은 기술의 혁신은 물론 의도된 노후화, 블랙박스 같은 성질, 사용자들이 갖는 불안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이러한 기술들을 추적하고 재발명하는 작업은 종종 역사적, 이론적으로 충격적인 융합물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열린 첫 번째 개인전 《기계 안의 믿음》은 그렘린의 역사를 통해 예기치 못한 기술적 문제를 설명하는 데 미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준다.

매튜 니본

오스트레일리아

〈기계 시스템 드로잉〉은 드로잉 기법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는지 살피는 작품이다. 이는 전기의 역사에 대한 작가의 리서치가 시각화된 드로잉 연작으로서, 기술을 설명하거나 개발할 때 종종 사용되는 기술적 드로잉에 내재한 관습과 이를 분석하는 우리의 능력에 의문을 던진다. “기술적 작업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의 성공이다. 기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관심은 내부의 복잡성이 아니라 오직 입출력에 쏠린다”는 브뤼노 라투르의 말처럼, 기계 장치를 설명하는 드로잉은 종종 블랙박스와 같은 개념을 공유하는 듯 보인다.

기계 시스템 드로잉

종이에 연필, 10점, 각 29×21 cm, 2015

Mathew Kneebone is an artist making work in a range of media, including drawing, electronics, sound, and performance. Kneebone is interested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lectrical technology created by engineers for end-users. His work addresses this relationship through examples of innovation, planned obsolescence, black boxing, and user level anxieties, of which manifest as both real and superstitious. His tracing and re-invention of these technologies often bring to light a disturbing conflation of technological histories and theories. Kneebone has recently exhibited his first solo show, *Faith in Machines* at 019 in Ghent, which looks at the history of the gremlin as an example of how superstition has been used to account for unexplained technical problems. He has a forthcoming exhibition at Sitterwerk in St. Gallen (CH), where for the occasion a collection of his drawings will be published through Dent De Leone (UK).

Mathew Kneebone

Australia

Mechanical Systems Drawing is an ongoing project that investigates how we acquire knowledge through the language of technical drawing. The project is a collection of pencil drawings that visualises my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electricity, whilst also questioning our ability to formally analyse the conventions of technical drawing which are often used to explain and build technology. Similar to built technology, instructional drawing serves as a means to an end, falling in line with the concept of black-boxing, as defined by Bruno Latour who states that “technical work is made invisible by its own success [because when] a machine runs efficiently, when a matter of fact is settled, one need focus only on its inputs and outputs and not on its internal complexity.” To show a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technology and the city, the drawings made for *Typojanchi 2015* will depict common devices found in hotel rooms (including lighting, television, and fans) as well as culturally specific technologies around the city of Seoul.

Mechanical Systems Drawing

Pencil on paper, 10 pieces, each 29×21 cm, 2015



팀 서즈데이는 루스 판에스와 시모너 트럼이 2010년에 로테르담에 설립한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이다. 전통적인 인쇄 기법의 아날로그적 촉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이들의 작업은 개념적 접근방식에 기반한 강렬한 시각언어를 선보인다. 기업 아이덴티티부터 문화 행사 전반의 디자인 개념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을 하는 한편, 아르헨의 아르테즈 미술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오티스 미술디자인대학 등에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다.

낮선 도시에 도착하면 누구나 조금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 허둥대고, 원하는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호텔 방은 자신의 소지품들로 둘러싸인 포근한 공간이 되어준다. 한국의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베드 랩〉은 이렇게 휴식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다. 한 가운데 막대기를 세우고, 그 속으로 기어들기만 하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개인 천막이 만들어진다. “I SPY WITH MY LITTLE EYE”를 담은 타이포그래픽 샘플은 자세히 보면 이 ‘숨고 놀기’의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베드 랩

광목에 날염, 나무막대.
220 × 220 cm, 2015



Team Thursday

Netherlands

Team Thursday is a Rotterdam based graphic design studio founded in 2010 by Loes van Esch and Simone Trum. Their work ranges from print to spatial design, with a conceptual and energetic approach and a strong visual language. They focus on the design of identities in the broad sense: from corporate identities to overall design concepts for cultural events. The process (or action) ac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work. This translates into a special interest for tactility and analog printing techniques, but can also evolve in a spatial design or an activity.

Arriving in a foreign city can make you feel a bit lost. Overwhelmed by all the new impressions and searching for a proper way to move in this new place, a hotel room becomes a safe haven where you can calm your head surrounded by your personal belongings. The *Bed Wrap*, inspired by bojagi (Korean wrapping cloths), is made for those moments. By simply putting a stick in the middle (we all did this when we were a child) and crawling next to it, you make a personal tent where no one can find you. The typographic specimen printed on it, using the grid of folding a cloth and stating “I SPY WITH MY LITTLE EYE” if you look closely, emphasizes this idea of hiding and playing.

Bed Wrap

Printed cotton bedsheet and tent stick, 220 × 220 cm, 2015



클라크 코프는 뉴욕에 거주하는 독일 출신의 작가 크리스 월켄이 정체성, 행동 연구, 시스템 디자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참여적 이벤트를 제안하는 리서치 프로젝트이다. 2014년 뉴욕의 미드타운에 있는 문 닫은 시티은행 창구에서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클라크 코프

미국

여행의 묘미는 아무래도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을 접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낯선 도시라 해도 공항이나 버스 역, 택시, 호텔 같은 공간들은 엇비슷한 형태로 디자인된다. 환대의 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작가가 제안하는 호텔의 환대 방식은 조금 다르다. 호텔을 찾은 손님은 세 개의 번호가 붙은 봉투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그에 따라 다른 상자를 건네받는다. 봉투 안에는 단어 하나와 상자를 열 수 있는 번호가 들어 있고, 상자를 열면 해당 단어(향락, 평온, 관음증)에 맞는 사물 세트가 나타난다. 다음날 아침, 손님은 각자 다른 경험, 다른 기억을 지닌 채 호텔 문을 나선다.

작은 상자 굉장한 밤

손금고, 3개, 24×16.5×4.5 cm, 2015



Clark Corp is a research initiative that hosts participatory events at the intersection of identity, behavioral studies and systems design. Previous shows include an installation in the tellers of a defunct Citibank in Midtown NYC in 2014.

Clark Corp

USA

One of the most profound aspects of visiting another culture is the ability of the experience to stretch your perspective — the traveller, separated from their normal life and set of cultural expectations, is free to try on novel ways of acting and prioritizing. For us, the best hosts makes their guests welcome by opening up their own lives, allowing the visitor to see what it might be like to live as another. In the context of the hotel, we've attempted to translate this sharing of perspectives into three sets of objects. A riff on traditional hotel welcome objects (shoehorn, soap, minibar snacks, etc.), our welcome cases are designed not just to meet basic needs or satisfy late night munchies, but to direct experience: a guest chooses one of three numbered envelopes; inside they find a single word representing the direction we hope to take their evening, and the code to one of the three cases. The themes of the three cases are Hedonism, Tranquility and Voyeurism, and the objects in them have been chosen to facilitate a multi-faceted experience around those themes, all within the confines of the room.

Small Case Big Night

Pocket safe, 3 pieces, each 24×16.5×4.5 cm, 2015



베르게르 + 슈타델 + 월시는 스위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제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로 파블로 베르게르(멕시코), 다비드 슈타델(독일), 토머스 월시(오스트리아)가 설립했다. 문화와 산업 영역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디지털 개발 분야에 주력하는 이 스튜디오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논의를 이끌어내며 스스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 조사를 모든 프로젝트에 필수불가적인 요소로 여기며, 이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베르게르 + 슈타델 + 월시

스위스

〈환영〉은 전형(典型)에 대한, 물리적 실체를 지니는 타이포그래피 놀이이다. 작가는 고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프로젝트의 제목을 차용해 관람객들을 저마다 다른 해석과 경험으로 이끈다. 이들은 ‘도시’와 ‘호텔 방’을 긴밀히 이어주는 매개물로서 문 앞에 놓인 매트에 주목하고, 그 위에 “도시는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새겨 넣는다. 이 ‘환영 매트’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물리적인 초대 의식과 다름없다. 여기서는 그 공간이 임시적인 사적 거주지라 할 수 있는 호텔 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영 매트’라는 사물이 가진 개념은 그 위에 쓰인 ‘환영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새겨진 (사방치기를 차용한) 형식과 결합되어 개인과 도시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독특하고 식별 가능한 기표가 된다. 즉 사물 자체와 메시지, 그리고 그 게임 기능은 다층적으로 연결되며 도시 공간과 사적 공간이 그 거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피는 기제가 된다.

환영

나일론 매트에 실크스크린, 273.7×99.4 cm, 2015

berger + stadel + walsh is a Swiss-based international design studio with an emphasis in graphic design and in digital development for the cultural and corporate industries. The studio is a professional platform through which they cultivate ideas, initiate discussion and establish relationships, where they constantly teach themselves how to learn again. Research is an integral part of the studio. It is their investment to ensure that they create original content they believe in; each project allowing them to explore new territories. It was founded by Pablo Berger (MEX), David Stadel (DE) and Thomas Walsh (AUS).

berger + stadel + walsh

Switzerland

“Welcome” is a play on archetypes. It is a typographic and a material game. It uses the slogan of the event as a means to convey a unique concept and message to be interpreted and interacted with differently by every viewer. Just as the notions of “city” and “hotel room” are archetypes, we extend our consideration of “welcome mats” as an archetype as well. We consider welcome mats as emblematic open invitations contained within private spaces. The “welcome mat” archetype is closely intertwined with “city” and “hotel room” by having on it our reappropriation of the written message “city welcomes you.” A welcome mat invites people to leave the city space and enter a private space that is contained within it. It demands from the individual a physical ritual that allows for them to transition from one space to the next. In this special case, the space is a hotel room, a simulation intended as an almost heavenly safe haven in the form of a temporary private/habitable space. Thus, the “welcome mat” archetype, a simulation itself of a surface, in combination with its written message (city welcomes you) and the game contained on its surface (hopsotch), becomes a unique and identifiable signifier of the relationship that exists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ir urban environment (both the urban public and the contained private). The welcome mat, its message and its game function as a multi-tiered bridge, connecting the underlying concepts of what urban spaces and private urban spaces signify to a city dweller.

Welcome

Silkscreen on nylon fabric mat, 273.7×99.4 cm, 2015



마수나가 아키코

376

오사카 모드 학교를 졸업한 마수나가 아키코는 일본 브랜드 디자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 및 기관, 정부 조직 및 협회와 일하며 동시에 워크숍이나 강연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오사카 미술대학교 단기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일본

호텔과 방문객을 연결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방문객이 호텔에 머무는 '시간'이다. 방문객은 호텔에 머무는 동안 그곳이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면서도,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아닌 필요에 따라 세심하게 응대하는 분위기를 원한다. 거창하거나 화려할 필요도 없고, 그저 조용히 방문객 곁에 붙어 배려하면 족한 것이다. 마수나가 아키코는 방문객과 호텔을 이어주는 '시간'과 호텔의 환영하는 '태도'를 '메시지'로서 시각화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평면 구성으로 시도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경과와 관계

종이에 형압, 29×21 cm, 2015

377

Akiko Masunaga graduated from Osaka Mode Gakuen. Her work is based on branding design and she actively works for companies, both private and social sectors, administrations, designers associations, etc. She has won many domestic and foreign competitions. Now she teaches at Osaka University of Arts Junior College and where she is organizing many workshops.

Akiko Masunaga

Japan

The thing that connects a hotel and a visitor is the visiting "time" of the visitor. Visitors want the hotel to feel comfortable like a house. However, the visitor does not need a family-like home feeling, instead, a careful concern to meet the needs of him or her. Therefore, I think, the hotel's welcome is not a grand one, but a very closed one. I regard the "time" and the hotel's attitude as a "message" and made a two dimensional prototype with the changes of these.

Passage_Relation

Semi-solid form, 29×21 cm, 2015



디에이앤컴퍼니의 공동 창립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심효준은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하고,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폴드 갤러리, 슬레이드 미술학교, 쇼어디치 타운 홀, 라운드 하우스,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서울 시청,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디자인 작업을 선보였으며,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런던에서 '스튜디오-B'라는 프로젝트 공간을 운영하며 《첫 번째 공연 사이》, 《AB 전시》, 《사이 #2》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현재 한경대학교에서 타이포 & 미디어를 가르치고 있다.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교와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교를 나온 키이스 왕은 그래픽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양쪽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150개 이상의 기관과 브랜드 전략 개발 및 컨설팅을 수행해왔다. 2005년, 아시아의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비영리 제작 플랫폼 '엠포트폴리오'를 만든 그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세븐 센스의 디렉터로 활동하며 홍콩과 중국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심효준 + 키이스 왕

한국
홍콩

심효준과 키이스 왕은 2009년부터 몇몇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며 서로 다른 창작 배경과 경험, 문화에 기인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굿모닝 타월'은 1912년 시판된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의미 있는 문화적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 이 타월은 모든 중국 세대들에게 과거를 연상케 하는 상징적, 문화적 물건이다. 이 굿모닝 타월에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으로 환영 메시지를 추가하고 서울의 호텔에 비치한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방문객을 환영하는 좋은 방법이다.

따뜻한 환영

타월, 77 × 35 cm, 2015

Shim Hyojun + Keith Wong

Korea, Hong Kong

Keith Wong, director of a brand development consultant company, Seven Senses, chairman of APPortfolio, lecturer at Hong Kong & China University. Majored in brand development, design studies, advertising and marketing. He graduated from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in 2003, and has masters degree from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in 2009. He has worked in collaborations including Lancel, TOPSHOP, Louis Vuitton, Absolute Vodka, Modern Media, K11, Orbis, Asia Aluminum Holdings Limited, Mass Mutual Asia, Cathay Pacific, McDonald's, The Hong Kong Jockey Club,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MBA Programs, Commercial Radio, etc.

Keith Wong and Shim Hyojun have known each other since 2009. They have done some collaborative projects together, and are influenced by different creative backgrounds, experience and cultures.

Since the "Good Morning Towel" had sold in 1912, it became a meaningful cultural element in China. Today, this towel is a symbolic, cultural thing which reminds of the past for all Chinese people. The artist adds the typographic and graphic welcome messages to this towel and set this up in the hotel of Seoul. Understanding each other's culture is a good way to welcome visitors.

Warm Welcome

Towel, 77 × 35 cm, 2015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환영의 메시지를 받는 곳은 다름 아닌 액정 화면이다. 이 가상의 세계에서 여행객은 자신이 방문할 나라, 혹은 도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여행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이 가상은, 가상임과 동시에 실제이기도 하다. 여행객은 SNS를 비롯해 각종 온라인에서 경험한 여행을, 실제 여행을 통해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 여행은 가상과 실제의 교차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호텔에 비치된 거울에 표현된 타이포그래피 'V'와 컬러 그라데이션은 액정을 통한 가상 경험을, 타이포그래피 'A'는 거울에 비친 사실 그대로의 여행객과 여행지를 뜻한다. 타이포그래피 'A'와 'V'의 시각적 교차는 경험된 경험의 교차점이다. 누군가가 이 작업을 온라인이나 책과 같은 형태의 오프라인의 지면으로 본다면 미완성 작업을 보는 것과 같다. 본 작업의 완성은 대상자가 직접 실제 거울을 봄으로써 거울에 반사되는 자신과 공간의 모습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본 작업은 디자이너 심대기와와의 공동 작업이다.

가상과 실제의 교차점

거울, 2개, 각 84.1 × 59.4 cm, 2015



The first place to get the welcome message is the screen play. In this virtual world travelers get the information of the destination and make a plan for it. However, this virtuality is the virtuality itself and the reality as well. Travelers firstly experience the travel through the SNS and all on-line and then experience it again through real travel. That means, the travel happens in the intersecting point of virtuality and reality.

Typography "V" and color gradation on the hotel mirror means the virtual experience through screen play, and the typography "A" means the real travelers and travel destination reflected on the mirror. Typography A and V's visual cross is the experienced experience's intersecting point. If one sees this work online or on offline pages in the form of a book, one sees it as if one saw incomplete works. This work gets complete when one see oneself being reflected on the mirror and the spatial figure become one by directly looking into the actual mirror. This project is a collaboration with designer Shim Daeki.

Intersecting Point Between Virtuality and Actuality

Mirror, 2 pieces, each 84.1 × 59.4 cm, 2015



382

1986년생. 계원예술대학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를
졸업했으며, 현재 예일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다. 2012,
2014 브르노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3에
참여했다.

강문식

한국

<.>은 하나의 점, 혹은 마침표로 문
앞에 걸어 놓음으로써 <...>의 '순간'을
보장한다.

.
문걸이, 22×9.5 cm, 2015

<...>은 세 개의 점, 혹은 세 개의
초콜릿 또는 줄임표로서 방문자에게
어떠한 '순간'을 제공한다. (세 개의
초콜릿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위스키 봉봉의 제작 방식을 기초로
각 초콜릿마다 다른 한국 술을 넣어
제작되었다.)

...
초콜릿, 12.5×12.5 cm, 2015



383

Gang Moonsick is currently studying
graphic design at Yale University
School of Art and graduated from the
Gerrit Rietveld Academie, Amsterdam
and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He has exhibited at the Brno
International Biennial of Graphic Design
in 2012, 2014 and *Typojanchi* 2013.

Gang Moonsick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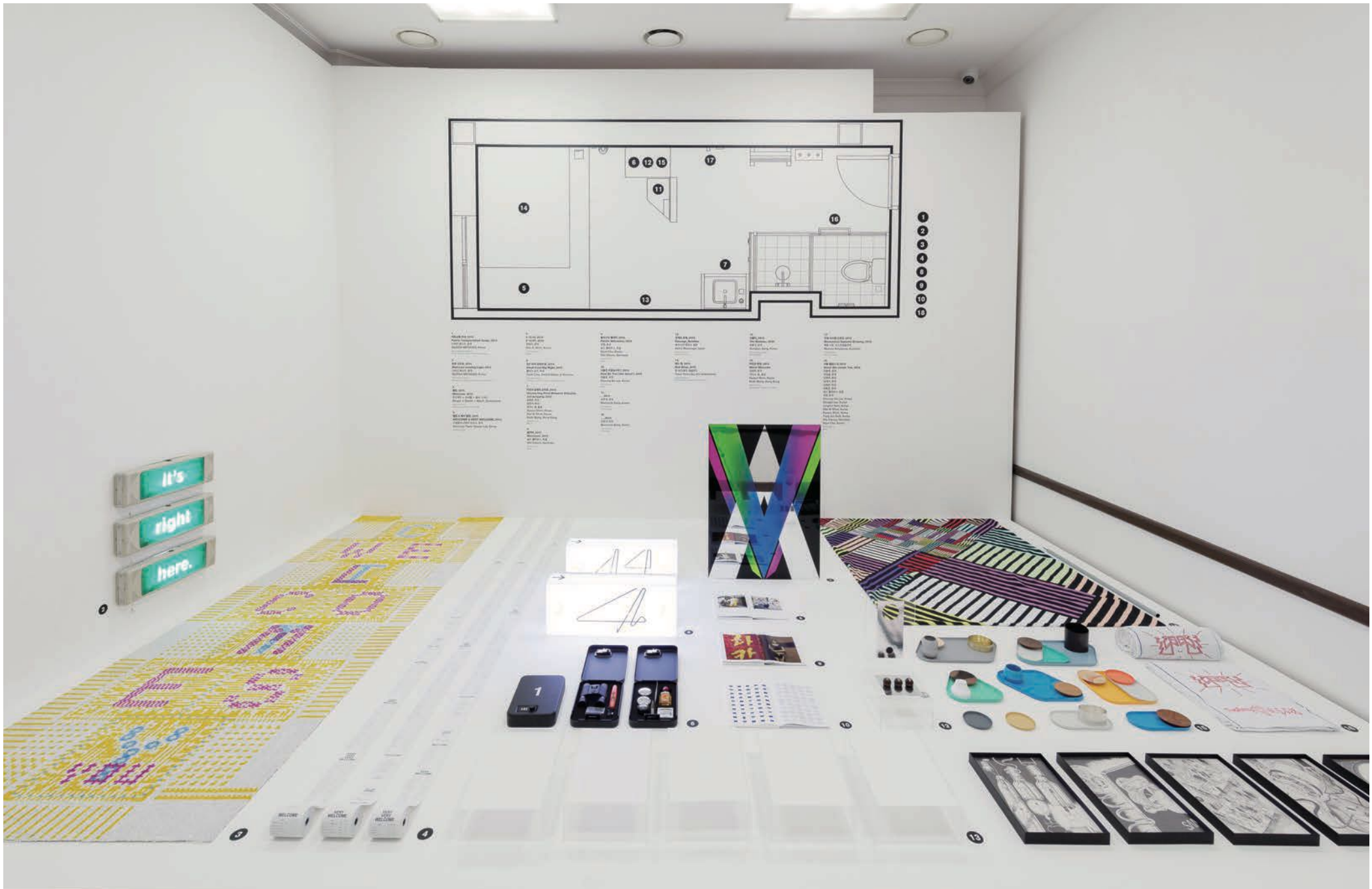
“.” assures the “moment” of “...”
to hang on the door handle.

.
Door hanger, 22×9.5 cm, 2015

“...” is about providing the
“moment” for each visitor as
three dots or three chocolates, or
Ellipses. (Each of three
chocolates contains a Korean
alcohol based “whisky bonbon,”
made for this project.)

...
Chocolate, 12.5×12.5 cm, 2015





A CITY

WITHOUT

워크숍 프로젝트

참여 작가
강민경
권영찬
권예지
김리원
김소희
김태호
도연경
박수현
송민재
윤진
윤충근
이경진
장광석
전다운
홍동오

큐레이터
민병걸

튜터
일상의실천

Participants
Do Yeongyeong
Gwon Yeji, Hong Dongoh
Jang Gwangseok
Jeon Dawoon
Kang Minkyung
Kim Riwon
Kim Sohee
Kim Taehe
Kwon Youngchan
Lee Kyungjin
Park Suhyun
Song Minzae
Yoon Jin
Yun Chunggeun

Curators
Min Byunggeol

Tutor
Everyday Practice

결여의

공모를 통해 모인 이십대 대학생들은, 이 도시를 떠받치는 특정한 축을 선택하여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시와 사람의 본성을 끄집어내어 그 이면으로부터 도시를 관찰한다. 자본과 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 교육이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후대로 전이되는 전형과 관례, 허위와 효율의 양면으로 채워지는 도시의 공간과 시간 등, 도시의 변화 그 아래에서 도시를 단단히 떠받치고 있는 이 요소들을 제거한 도시를 상상함으로써 그 본성에 더 가깝게 접근해보려는 시도이다.

‘일상의실천’ 세 명의 튜터를 중심으로 한 15명의 워크숍 참가자들은, 두 달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된 워크숍 ‘결여의 도시’를 통하여,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욕망들이 나아가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는지 관찰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그것이 제거된 후의 도시를 상상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워크숍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삭제된 욕망들은 결국 또 다른 종류의 욕망이나 갈등으로 대체되며 더욱 왜곡되어가는 도시의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궁극적인 도시의 모습을 일깨운다.

민병걸

Through a public competition,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were able to participate in this project. Students selected a specific axis that supports this city and then later eliminated the axis. As a result, they removed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city and its people while observing the city in this context. This project is an experiment in imagining the elimination of all the supporting elements of a city. These elements can include a desire to further a lust for capital, sex, power, education, and traditions, things, in short, that will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For two months, 15 participants and their three tutors from the studio Everyday Practice participated in a workshop called “A City Without ().” They observed the inherent desire within cities that is related to social phenomena and related discussions. Later, they reconstructed the city after these impulses were removed. The workshop’s results were then exhibited visually, with the artificially removed impulses substituted as different impulses and conflict. This demonstrated a more distorted aspect of the city and the image more clearly.

Min Byunggeol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오래된 것 위로 새로운 것들이 빠른 속도로 쌓이면서 도시의 풍경도 변하고 사람들의 삶도 그에 맞는 모습으로 변해간다. 끝없이 변화하는 도시 표면, 그 아래는 오랫동안 쌓여온 인간들의 욕망과 갈등으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다. 이는 변화의 명분이며 양분이기도 하다. 이런 욕망과 갈등은 문자를 통해 도시 표면으로 배어나고 도시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도시

By living in a city, we are constantly surrounded by change. Old and new pile up rapidly and change the city landscape. This changes the lives of residents and visitors as well. Under the ceaselessly changing city surface, long-accumulated human desires and conflicts are filed up. This is both justification and nutrient for change. Desires and conflicts release themselves through typography on the surface of a city and show quite clearly the kaleidoscopic image of that particular city.

시

금욕 도시

지도: 권준호

‘금욕 도시’는 국가 권력으로 인해 시민의 성욕이 금지당한 디스토피아 세계다. 이 도시는 오랜 시간 남성의 성욕 때문에 발생한 성폭력, 낙태, 성병 등 도시가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성욕을 표출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금욕 도시가 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근거 없는 억압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 비록 그것이 권력이 개입한 여론 조작에 힘입었다 하더라도 —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당선되었고, 금욕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도시의 구성원 권영찬, 권예지, 김리원, 김소희, 홍동호는 일종의 역할극 형식을 차용하고, 금욕도시의 정당성을 알리는 집단과 금욕 도시를 전복하고 자유로운 성욕 표출을 꿈꾸는 집단으로 나누어 팀을 꾸렸다. 또한 특정 공간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전시의 특성을 고려한 설치 작업이 타이포그래피의 형식을 빌려 전시된다.

김소희의 작업 <방역 도시>는 금욕 도시의 정책을 지지하며 ‘성병 없는 도시’를 표방한다. 방역 도시의 시민들은 금욕 도시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를 통해 성병 바이러스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공포의 감정이 ‘방역’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도시 곳곳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했다. 방역 게이트는 금욕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다음의 문구가 당신을 맞이한다. “모든 시민은 보건에 관하여 도시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시민은 법률에 의하여 성병 예방의 의무를 진다.”

권영찬의 작업 <결남 도시>는 금욕 도시의 존재 이유를 주장하는 도시다. 이들은 2015년 발생한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남녀 통계 비율을 근거로, 남성의 성욕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이 저지른 살인, 방화, 강도, 강간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들은 그 통계를 근거로 금욕 도시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성의 성욕을 금하고, 남성성을 거세하는 제도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 판단은 관람객에게 달려 있다.

방역 도시

김소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15

결남 도시

권영찬,
서울시립대학교 3학년
비디오 (60초), 포스터 (29.7×42 cm),
소책자 (15.7×21 cm), 2015



Ascetic City

Tutor: Kwon Joonho

“Ascetic City” is a dystopia where a citizen’s sexual desires are prevented by government powers. This city has for a long time prohibited expression and the sharing of sexual desire to others. It is based on social costs like sexual violence, abortion, and venereal disease, which are a byproduct of male sexual desire. However, Ascetic City does not insist on baseless oppression without legal process. The force dominating the city — even though their power is based on media manipulation — won elections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nd they continue to promote the legitimacy of an abstinence policy.

This city’s members — Kwon Youngchan, Gwon Yeji, Kim Riwon, Kim Sohee, and Hong Dongoh — took on a role-play style and were divided into two teams: one team to inform of validity and the other to overthrow the ascetic city and express sexual desire freely. The installation work exhibited and considered characteristics of the site-specific exhibition while borrowing the form of typography.

Kim Sohee’s project *Quarantine City* is a small town in Ascetic City. This town supports the policy of authorities and claims to advocate a “City without Venereal Disease.” The Quarantine City’s citizens are haunted by the fear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which are constantly promoted by Ascetic City. Their feelings of fear are materialized in the compulsive form of “quarantine,” where the city has set up preventive gates everywhere. These preventive gates are the imperative passage of rites to visit Ascetic city. These words welcome the passengers with “Every citizen has a duty to prevent venereal disease by law.” “The health of all citizens shall be protected by the City.”

Kwon Youngchan’s work, *Men Deficiency City*, is a city that insists on the Ascetic City’s reason for being. This city claims that man’s sexual desires should be prevented based on the statistics of sexual crimes for male and female assailant/victim rates for the year 2015. The male crime rate of murder, arson, robbery and rape appears overwhelmingly higher than females, and this data legitimizes the Ascetic City policy. Can this institution, which prevents men’s sexual desires and eunuchizes masculinity, guarantee the city’s peace? The judgment depends on the audience.

Quarantine City

Kim So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A3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Men Deficiency City

Kwon Youngchan,
University of Seoul BA3
Video (60seconds), poster (29.7×42cm)
and booklet (15.7×21 cm), 2015



홍동오의 '메갈로폴리스'는 <금욕 도시>의 정책을 대변하는 선언문이다. 마치 2015년 한국의 변화가 간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법한, K-타이포그래피를 구사하는 이 선언문은 금욕 도시의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정책의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쓰여진 선언문에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규정”하며, “남성의 주체적 결정과 선택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반면, 김리원의 <숨김의 도시>는 금욕 도시의 정책에 저항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작은 도시이다. 이들은 금욕 정책에 반기를 들었지만 당국의 무자비한 탄압에 지쳐 숨어들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들은 금욕 도시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대자보를 제작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 오직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서만 그 성명문을 접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권예지의 <수색도시>는 '성욕의 자유를 회복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금욕 도시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활동가들에 의해 꾸려진 집단이다. 이들을 이끄는 단체는 '수색 연합'이라는 이름의 젊은 활동가들인데, 이들은 이전 활동가들의 폭력적인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의 형식을 차용한 새로운 운동을 제안한다. 남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박 속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텍스트가 기다리고 있다. '금욕 도시'는 201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의 욕망은 누군가에 의해 조율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율되고 다듬어진, 통제 가능한 적당한 욕망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일까.

메갈로폴리스

홍동오,
건국대학교 3학년
종이에 인쇄, 200×100×16cm, 2015

숨김의 도시

김리원,
중앙대학교 4학년
목재, PVC 골판지, 아크릴, 현수막(4개),
100×100×220cm, 2015

수색도시

권예지,
상명대학교 4학년
천, 실, 목재, 240×120cm, 2015



Megalopo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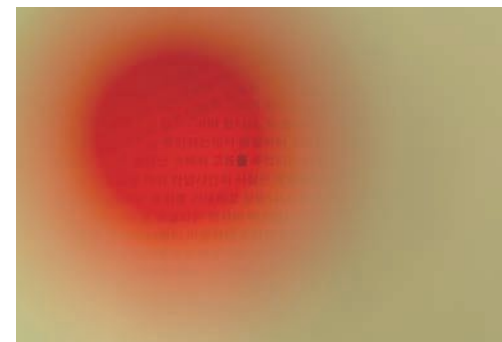
Hong Dongoh,
Konkuk University BA3
Print on paper, 200×100×16cm,
2015

Hiding City

Kim Riwon,
Chung-ang University BA4
Timber, PVC corrugated paper,
acrylic and banner (4 pieces),
100×100×220cm, 2015

Sex and the City

Gwon Yeji,
Sangmyung University BA4
Fabric, yarn and wood, 240×120cm,
2015



Hong Dongoh's *Megalopolis* is a giant billboard standing in Ascetic City. This installation work reminds us of signboards which we can find everywhere in Korea in 2015. It implies a manifesto showing the naked face of Ascetic City. Even though this government looks like a democratic one, this billboard was built by the government's radical supporters, and this specifies Ascetic City's identity clearly: "Men's bodies and sex are only subordinate to women and it should function only for women" and "Men's independent decision-making and selections should all be prevented."

On the other hand, Kim Riwon's *Hiding City* is a small city where a small number of people have gathered to resist Ascetic City's policy. They revolted against the ascetic policy, but had to go underground because of the ruthless suppress of the authorities. They issue a statement which criticizes Ascetic City and produce hand-written posters, but cannot be seen by the public. People can only see the statement through a small hole on a wall and even then the message they want to send is hidden.

Gwon Yeji's *Sex and the City* is a city made by a group of people against the Ascetic City's policy with the slogan "Recover the Freedom of Sexual Desire." This city is led by the young activist group "Sex Union" and suggests a new movement which borrows the form of "play," whereby citizens can participate instead of the old activist's violent struggle method. In the foil which materializes the male genital organ, the text in their voice is waiting. Ascetic City asks all of us who live in 2015 whether our desire is controlled by someone else. Living with the coordinated, trimmed, controllable desire may just be the life for independent individuals.



익숙한 도시

지도: 김어진

우리가 사는 현실은 결여의 혼적으로 가득하다. 시스템과 소통은 부재와 불통으로, 의문과 비판은 강요와 통제로 이어진다. 도시는 하루 사이에 블록 쌓듯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눈부신 성장을 뽐내는 도시 전경과 그 이면에 자리한 누추하고 조악한 면면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익숙한 도시'는 우리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부딪혀 이뤄진 커다란 도시를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도시가 갖는 의미는 충돌과 화해를 반복하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



윤진의 <무념의 도시: 생각이 사라진 도시>는 익숙한 도시의 큰 틀을 이룬다. 생각과 상상이 결여된 도시로, 통제된 언어로 시민들의 행동을 규제한다. 시민(관람객)들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제약된 동선을 따라 도시를 오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언어가 아닌, 강요된 언어(약호)를 기반으로 도시를 안내한다. 도시를 이루는 언어(약호)는 조형 간의 규칙을 통해 언어 자체로서의 당위성을 갖는다. 시민(관람객)들은 강요된 언어(약호)를 익히지 않는 한, 익숙한 도시를 탐험할 수 없다.

장광석의 <그럴듯한 도시>는 관습의 탈맞춤에 기인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권위에 대한 맹신을 비판적 사고의 결여로 규정, 권위와 추종의 틈바구니를 위약적인 시각언어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럴듯한 도시>는 권위를 가리키는 '사전'을 적극 활용한다. 심지어 '타이포그래피 사전'이다. 타이포그래피를 규정하는 수많은 정의 안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거나 익숙지 않은 요소들을 찾아내 '그럴듯한' 왜곡과 변주(패러디)를 반복한다. 이 도시는 현실에서 횡행하는 권위에 대한 맹신을 교묘하게 뒤틀어 선보인다.

무념의 도시: 생각이 사라진 도시

윤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학년
시트지, 가변 크기, 2015



그럴듯한 도시

장광석,
SADI 3학년
종이에 인쇄, 24.5 x 17.1 cm, 2015

Familiar City

Tutor: Kim Eojin

In reality, there are many things absent. Systems and communications are related to absence and miscommunication. Questions and criticism are connected to pressure and control. A city is not built intentionally in a day as building blocks. Surprisingly, developed city panoramas and the humble and shoddy parts of a city on the other side show this.

"Familiar City" refers to a large city established by the conflict of various phenomena everywhere in our lives. In this process, the meaning of every city plays its natural role, repeating conflict and reconciliation.

Yoon Jin's *The City without Thoughts: A Thought Disappearing City* establishes a large frame for Familiar City. As a city lacking thought and imagination, it controls citizen's behavior. A citizen (the audience) only can move by the limited loving line according to a certain set of rules. Therefore, enforced language (abbreviation), not already existing languages, guide this city. The city's constitutional language (abbreviation) has the appropriateness of language itself through rules between the forms. A citizen (the audience) cannot explore Familiar City unless they learn the forced language (abbreviation).

Jang Gwangseok's *Plausible City* is based on the escape from customs. The blind faith underlying us labels the lack of critical thinking, and re-analyzes the crack between authority and its followers with visual language. *Plausible City* actively uses a "dictionary" which indicates authority. Moreover, it is a "Typography Dictionary." Find the unnoticed and unfamiliar elements among enormous definitions identifying typography, repeated with "plausible" distortion and variations (parody). This city shows the distortion of blind faith to rampant authorities.

**The city without thought:
A thought disappearing city**
Yoon 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A4
Vinyl sheet, dimensions variable,
2015

Plausible City
Jang Gwangseok,
SADI 3rd year
Print on paper, 24.5 x 17.1 cm, 2015



윤충근의 〈의문이 사라진 도시〉는 우리를 둘러싼 시스템과 고정관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시스템과 고정관념에 익숙해진 사이, 어느덧 의문이 사라진 현실을 꼬집고 있다. 〈의문이 사라진 도시〉는 의문을 통해 만들어진 질문과 답변의 겹침들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이 겹침들은 얇고 투명한 비닐로 구성돼 일회용품에 가까운 인상을 던진다. 익숙한 도시 한 가운데 세워질 이 도시는 얇은 겹침들이 겹겹이 싸여 커다란 원형 구로 오롯이 세워지는데, 기괴한 현대미술 조형처럼 도시의 랜드마크를 연상시킨다.

강민경의 〈교육이 사라진 도시〉는 휘황찬란한 도시와 대척되는 이면을 주목한다. 교육이 사라진 이 도시는 교육의 부재를 인식한 상황에서 배움을 갈망한다. 하지만 이미 교육이 사라졌으므로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로 교육을 갈구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시위를 방불케 하는 —배움에 대한— 선동을 주도한다.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지라시)와 형형색색의 부착물 그리고 피켓과 바리케이드는 이 같은 면을 여실히 보여줄 도구로 활용된다. 그것에 적힌 내용들은 알 듯 모를 듯한 다양한 언어들의 조합들로, 지극 결핍에 가깝다.

전다운의 〈무언의 도시〉는 말이 사라진 도시이다.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주겠다는 ‘보이지 않는 눈’은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감시와 지배의 눈’이다. 소통과 공유가 활발했던 이 도시는 어느 사이 감시에 의해 말과 행동을 제약받으며 무너진다. 〈무언의 도시〉에서 언어는 완전한 형상을 갖출 수 없다. 자음과 모음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작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한다. 말하고 싶은 욕망과 억눌린 현실이 한 공간 안에서 부딪혀 엇갈리다가 사라지는 모양새를 이룬다. 익숙한 도시의 가장 구석에 자리하게 될 〈무언의 도시〉는 도시 전체를 감시하는 눈이 되기도 한다.

‘익숙한 도시’는 시스템과 소통의 결핍, 권위와 권력으로 강요된 도시로서, 우리가 사는 현실과 명확하게 닿아 있다. 무의식과 무비판 사이를 비집고 새어나오는 익숙한 결여의 흔적이 과연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 도시를 찾는 시민(관람객)들이 한번쯤 곰곰이 생각하길 바란다.

의문이 사라진 도시

윤충근,
홍익대학교 3학년
혼합 매체, 가변크기, 2015

교육이 사라진 도시

강민경,
서울여자대학교 4학년
피켓 (42×59×170 cm),
바리케이드 (41×150×90 cm), 2015

무언의 도시

전다운,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비디오 (60초), 반투명
필름지 (200×60×60 cm), 2015



Yun Chunggeun's *No Doubt City* starts from the question of systems and stereotypes that surround us. This work satirizes the reality of disappearing questions when we become accustomed to these systems and stereotypes. *No Doubt City* is made from the skins of questions and answers that stem from curiosity. These skins are combined with thin transparent vinyl and look like a disposable product. This city will be built in the middle of Familiar City, covered with thin skins over and over, established as a big round sphere, and reminding us of a city landmark like a weird contemporary sculpture.

Kang Minkyung's *Booboisie City* focuses on the backside of a glittering city. This city's disappearing education desires learning, recognizing the absence of education. However, education has already disappeared and people are eager for education with undefined languages. On the other side, young people lead a march for education, almost like a demonstration. Common flyers and colorful extraneous matters, pickets and barricades are used as tools for showing them clearly. The contents written on them are the combination of ambiguous and various languages, making them close to a lack of intelligence.

Jeon Dawoon's *Silent City* is where words disappear. The "invisible eyes" to protect citizens from danger are the "surveillance and controlling eyes" made by powerful majorities. Active communication and sharing the city is ruined by the control of people's speech and behavior. In this *Silent City*, language cannot exist as a perfect form; it is separated as consonants and vowels, randomly appearing and disappearing repeatedly. The desire to speak and pressure reality conflicts in one space and disappears. *Silent City*, which is situated in the deepest corner of the Familiar City, becomes monitoring eyes over the city as well.

Familiar City is a forced city in a lack of systems, communications, authority, and power. This project asks people (the audience) to think where familiar absence comes from and what it means.

No Doubt City

Yun Chunggeun,
Hongik University BA3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Booboisie City

Kang Minkyung,
Seoul Womens University BA4
Picket (42×59×170 cm) and barricade
(41×150×90 cm), 2015

Silent City

Jeon Dawoon,
Ewha Womans University BA4
Video (60 seconds) and translucent
film sheet (200×60×60 cm), 2015



어긋난 시간의 도시

지도: 김경철

현대인에게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정한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시간의 중요성을 외치게 된다. 디지털 기기의 도움 없인 다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넘쳐나는 정보와 콘텐츠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점차 행복이라는 감정이나 정서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분주함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간다.

‘어긋난 시간의 도시’는 시간의 중요성이 극도로 강조되고 시간에 의해 지배당해 버린 미래의 도시를 상상하며 만들어졌다. 이 도시를 이루는 5개의 작은 도시들에서 시간은 일부가 없어지거나 뒤틀려 버리기도 한다.

이경진의 작업 <최종 도시>는 과정이 결여된 결과 중심의 도시이다. 효율성을 위해서 중간 단계가 최소화된 채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며 내용과 의미보다는 물질이 중시된다. 전시장에는 걸로 보기에 화려하지만 우스꽝스러운 ‘최종 도시’라는 가상의 도시 모형이 놓여 있고, 도시의 대표들이 주고받는 가벼운 말들에 의해 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모니터를 통해 보인다.

박수현의 작업 <무예술의 도시>는 과거와 후퇴, 정체를 두려워하며 ‘예술’은 도시의 발전을 방해하는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도시의 고위 권력자들은 기술의 발전과 첨단화된 미래를 지지한다. 무예술의 도시에서는 이 도시만의 시각 문법으로 제작된 포스터를 통해 예술의 쓸모없음을 선전, 선동한다. 명료하고 경제적인 메시지 전달만이 중시되며 모든 장식적 요소는 배제되고, 텍스트와 기호 두 가지만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

최종 도시

이경진,
국민대학교 3학년
비디오(8분), 도시
모형(90×90×30cm), 2015

무예술의 도시

박수현,
홍익대학교 2학년
포스터, 8점, 각 84.1×59.4cm, 2015



A City, Not in Sync

Tutor: Kim Kyungchul

Time control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contemporary people. They emphasize efficiency, productivity,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ime. People living in a lot of information and contents cannot accept all of them without digital gadgets. They lost something in this rush and cannot feel happiness.

“A City, Not in Sync” was made to imagine a future city that over-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ime and is governed by time. In the five small cities that compose this city, time is partly disappearing and twisted.



Lee Kyungjin's *Final City* is a results-centered city without process. For efficiency, this city minimizes the process and the materials are more important than content and meaning. In this exhibition space, splendid and ridiculous imaginary city replica is positioned and the city making process, built by the city representative's light, talks are seen through a monitor.

In Park Suhyun's *No Art City*, people are afraid of the past, retreat and stagnation and “art” are regarded as useless and an interruption of city development. This city's authorities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and advanced futures. In *No Art City*, posters are made with city-owned visual rules, and they promote and instigate the uselessness of art. Simple and economic message delivery is paramount; only texts and signs can be the methods of communication.

Final City

Lee Kyungjin,
Kookmin University BA3
Video (8 minutes), model of a city
(90×90×30cm), 2015

No Art City

Park Suhyun,
Hongik University BA2
Poster, 8 pieces, each 84.1×59.4cm,
2015



송민재의 작업 <기다림이 없는 도시>는 기다림은 곧 시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시간이 생략된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 '책'은 모두 한 페이지로 요약돼 있으며 책 속 인과 관계에 대한 물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도시에서 책의 목적은 빠른 시간 내에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는 것, 책의 내용을 다 안다는 것이다. 전시장에는 한 장짜리 책들과 그것마저도 더욱 빠르고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영상이 재생된다.

김태호의 작업 <상처의 도시>에서 도시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불법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무분별한 낙서 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만 회복되는 시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는 계속 쌓이게만 한다. 사람들은 상처가 한 번 남겨지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거칠고 과격한 표현의 경고문들을 붙이기 시작한다. 이 경고문들에는 그들이 느낀 스트레스와 억울함, 험박과 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연경의 작업 <종이 도시>는 너무 가볍고 빠르게, 혹은 의미 없게 소비되는 디지털 매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생겨난 도시이다. 이 도시는 빠른 흐름을 거부하며 디지털 매체의 가볍고 쉽게 잊히는 특성을 지양한다. 실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매체들을 아날로그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이 도시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모든 매체들이 종이로만 존재하는 이 도시에서 각각의 매체들은 디지털로 존재할 때와는 또 다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어긋난 시간의 도시' 입구에는 이 도시의 상징인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시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시간을 읽을 수 없는 시계와 초침 소리는 '현재'를 잃어버린 '어긋난 시간의 도시'를 형상화한다.

기다림이 없는 도시

송민재,
한성대학교 3학년
비디오(3분 21초),
디지털 인쇄(18×18cm), 2015

상처의 도시

김태호,
인하대학교 4학년
현수막 실사 인쇄(3개, 55×380cm),
실크스크린(30×42cm), 2015

종이 도시

도연경,
단국대학교 3학년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15



Song Minzae's *No Wait City* is where useless time is omitted because waiting is directly related to time. In this city, a "book" is summarized by one page and the questions of the cause-and-effect in a book do not exist. The goals when reading a book in this city are reading a book as soon as possible and knowing as quickly as possible the contents of the book. In this exhibition space, one-page books are exhibited and a movie to be read quickly and understanding contents easily are running.

In Kim Taeho's project, *Wounded City*, people are hurt by acts without thinking (illegal trash dumping, urinating on the street, indiscriminate scribbling, etc.). But because there is no time to recover, pain is added on more and more. Once a scar is left, it is not removed, so more tough and violent warning messages start to take place. In these warning messages, people's stress, depression, threats and appeals are contained undamaged.

Do Yeongyeong's work *Paper City* is made by the problems of digital media, which are consumed too lightly, fast, and meaninglessly. This city refuses the fast flow and deni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edia's lights and easy-to-forget moments. This project changes the existing media of online to the form of analogue media. In this city, all media exists as only paper and each medium takes a different role from digitalized form.

At the entrance of A City, Not in Sync, the symbolic clock of the city is working. It looks like a clock, but we cannot read the time. The clock and the sounds of the sweep-second symbolize "A City, Not in Sync," where lost is the "present."

No Wait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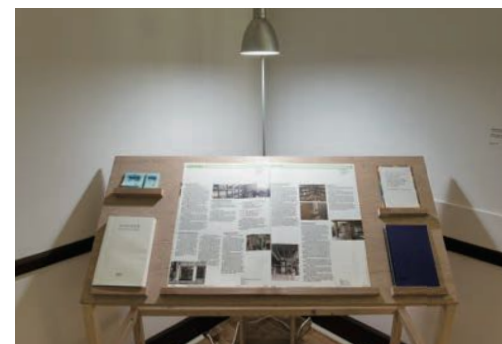
Song Minzae,
Hansung University BA3
Video (3 minutes 21 seconds)
and digital printing (18×18cm),
2015

Wounded City

Kim Taeho,
Inha University BA4
Banner (3 pieces, 55×380cm) and
Silkscreen on paper (30×42cm),
2015

Paper City

Do Yeongyeong,
Dankook University BA3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도시 문자

CITY LETTER

리포터
글: 유지원
디자인: 구트폼

도움
김윤경
남윤지
한동훈

Reporters
Text: Yu Jiwon
Design: Gute Form

Assistants
Han Donghoon
Kim YoonKyeong
Nam Yoonji

리포터지

REPORTAGE

도시 문자 르포르타주 프로젝트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비평적 응답을 다양한 양태의 사례들로 제시한다. 포괄적 사례를 축적하는 ‘아카이브’의 수집품들을 나열하기보다는, 도시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서로 다른 유형과 방식의 글자체들을 선별한 후 수집된 사례들의 실상을 몇 가지 문제의식들에 기반한 축 위에 재배열하며 그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해 들어간다. 도시가 간행한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글자들이 실제로 기능하는 모습과 그 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살핀 결과를 유형별로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고한다. 각 카테고리는 한 종의 대표적인 글자체를 비롯해 여러 글자체로 구성된다.

유지원

The City Letter Reportage project offers critical answers to these questions and in a variety of different cases. Instead of parading around archive collections that bring together comprehensive examples, different types and methods of typefaces have been selected. These cases are then rearranged on an axis of critical thinking, with the meaning then ultimately identified clearly. This project looks into several realistic functions of city typefaces and the messages those typefaces deliver. Research results are then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with each category composed of numerous typefaces including one representative typeface.

Yu Jiwon

‘르포르타주’는 ‘보도’와는 달리 표면적인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보고자가 비평적인 견해를 개입시켜 그 이면을 기술하는 형식이다.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 하지만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아서 질문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시화하며, ‘스펙터클’보다는 ‘진실’에 주목한다. 이렇게 사실과 주관의 혼재된 기록 형식을 통해서, 누군가 알려주는 이가 없다면 묻힐 수도 있었을 이면의 실체들을 드러낸다.

서울서체를 비롯해 국내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시 서체들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의 전용 글자는 필요한 것일까? 도시 글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역할뿐 아니라, 공공시설을 위한 타이포그래피적 기능 역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글자체의 디자인은 전문성이 입증된 책임자가 맡고 있으며, 그 디자이너들의 역량은 잘 발휘되고 있는가? 수용자인 시민들의 정서와 편의는 배려되고 있는가? 선택된 글자체의 양식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도시를 표상하고 도시와 공존하기에 적절한가? 복잡다단한 삶의 양태가 얹혀서 고동치는 대도시를 틀에 박힌 하나의 형용사, 혹은 하나의 글자로 규정짓는 것은 타당한가? 도시 본연의 얼굴을 인위적인 이미지로 치장하여 오히려 부자연스러움을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가?

Unlike a report, reportage is a written account of an event based on direct observation or on thorough research and documentation. Reportage visualizes the questions which often cannot be asked despite curiosity, focusing on the “truth” rather than the spectacle itself. With this factually/subjectively mixed documentation form, an inner truth is revealed which might otherwise be buried without the assistance of those who are informing us.

In addition to Seoul’s typefaces, there are many other local governments in Korea developing their own city’s typefaces. This raises many questions: Do they really need their own typefaces? In which direction should a city typeface be going? Does the typeface work well not only as a brand identity for city advertisements but also as typography for public facilities? Are these typefaces handled by well-qualified people and typeface designers who can showcase their abilities? Do they consider a user’s emotions and level of convenience in handling these typefaces? What are the strengths of the selected typeface’s style and does the available typeface represent and at the same time co-exist with the city? Does it appropriately identify a city as a typical adjective or a letter? Is there any possibility to instigate something unnatural through artificial decoration in the true face of a city?

구트폼은 권오현, 양선희 두 사람이 2012년 서울을 거점으로 시작한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베를린에서 태어나 자란 권오현은 레테 페어라인 베를린의 그래픽디자인과 졸업 후 파리, 시카고, 베를린에서 경력을 쌓았다. 서울 이화여자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한 양선희는 런던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래픽디자인 석사를 마치고 런던, 파리에서 3년 동안 패션 잡지를 발간했다. 구트폼은 에디토리얼, 아이덴티티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한다. 현재 《엘로퀀스》, 《보다》의 아트 디렉션을 맡고 있으며, 가나아트, 플래툰 쿤스트할레, 우영미, 요기요 등의 브랜딩 및 현대백화점, 국립현대미술관 캠페인 작업을 했다. 권오현은 2013년부터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구트폼 + 유지원

독일, 한국

유지원은 책과 글자를 좋아하는 디자이너이다.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민음사에서 북 디자이너로 일했다. 독일 국제학술교류처 DAAD로부터 예술 장학금을 받으며, 라이프치히 그래픽서적 예술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전공했다. 이후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 교수로 타이포그래피와 편집 디자인을 가르치는 동시에, 타이포그래피 연구 및 전시, 북 디자인, 저술과 번역을 한다.

Gute Form is a Seoul-based design studio founded by Kwon Ohyun and Yang Sunhee in 2012. Born and raised in Berlin, Kwon Ohyun studied graphic design at Lette Verein Berlin and has worked in Paris, Chicago & Berlin. Yang Sunhee studied fashion design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did her MA in graphic design at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 She had published a fashion magazine in London and Paris for 3 years. Gute Form works mainly on editorial and identity projects, for example the Art Direction of *Eloquence*, *Boda Magazine*, brand design for Gana Art, Wooyoungmi, Platoon Kunsthalle, Yogiyo as well as campaign designs for Hyundai Department Store &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KNCDC). Since 2013 Kwon Ohyun teaches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Hongik University.

Gute Form + Yu Jiwon

Germany, Korea

Yu Jiwon is a designer who likes books and typography. She studied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orked for Minumsa Publishing Group as a book designer. She received a scholarship from the DAAD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 and studied graphic and typography at 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Leipzig. She teaches typography and editorial design as an adjunct professor in the Visual Communication Department, Hongik University. She does typography research and exhibitions, book design, translating, and writing.



1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도시 전용 글자체는 도시가 정책적으로 주도한 사업을 통해서 의뢰되고 만들어진다. 글자체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유럽 여러 도시들로부터 확산되어왔다. 도시는 글자체를 통해 개성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들의 소속감을 높이고자 한다. 글자체를 통해 도시의 행정·시민들의 복지·도시의 자연·도시 건축 환경 등을 드러내기도 하며, 시민들 뿐 아니라 다른 도시나 국가로부터 찾아온 방문객들에게도 도시의 인상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런 글자체들이 도시의 지속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조형이 일관되지 않고 기능이 분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도시에 자부심을 가질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인 심미적, 조형적, 타이포그래피적 품질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일반 시민들이 그 도시만의 글자체에 어떤 고유한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적으로 식별하지 못한다. 하지만, 도시 전용 글자체는 시민들의 일상의 일부로서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생활 전반에 깊숙하게 개입되고 신체와 인지에 영향을 미치니 글자체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글자체 개발에 초점(집중), 글자체를 할라(배치)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472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2009년, 서울시는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 등 서울시 전용서체를 발표했다. “서울서체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체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의 거대한 공공장소, 공문서나 홍보물 등의 매체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용서체이다.” — 서울세계화이드라인, p.3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함양으로 개발된 서울서체는 크게 물기가 있는 말쑥한 계명의 서울한강체와 물기가 없는 고딕체 계명의 서울남산체로 구성된다. 서울서체는 서울의 도시의 현대 사인, 가리, 지사할 등에 적용되고, 서울시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 배포된다.



0572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서울서체는 지금 한창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치열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높은 완성도와 함께 등장하면 가장 좋지만, 이미 발표된 상태에서 이런 지속적인 개선의 의지를 관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도시의 환경이 계속 변화하기는 만큼, 여기 부흥해서 글자체도 도시 환경의 유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고 또 도시와 글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서체의 향후 운동 방향이라 한다.



0672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2009년, 서울시는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 등 서울시 전용서체를 발표했다. “서울서체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체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의 거대한 공공장소, 공문서나 홍보물 등의 매체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용서체이다.” — 서울세계화이드라인,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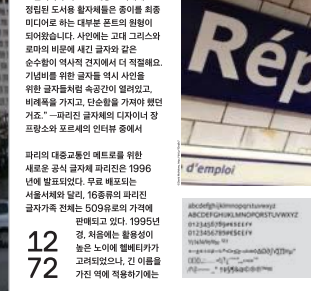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함양으로 개발된 서울서체는 크게 물기가 있는 말쑥한 계명의 서울한강체와 물기가 없는 고딕체 계명의 서울남산체로 구성된다. 서울서체는 서울의 도시의 현대 사인, 가리, 지사할 등에 적용되고, 서울시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 배포된다.



1172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서울서체는 지금 한창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치열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높은 완성도와 함께 등장하면 가장 좋지만, 이미 발표된 상태에서 이런 지속적인 개선의 의지를 관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도시의 환경이 계속 변화하기는 만큼, 여기 부흥해서 글자체도 도시 환경의 유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고 또 도시와 글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서체의 향후 운동 방향이라 한다.



1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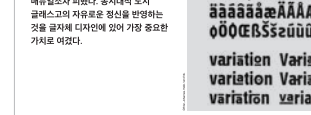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2009년, 서울시는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 등 서울시 전용서체를 발표했다. “서울서체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체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의 거대한 공공장소, 공문서나 홍보물 등의 매체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용서체이다.” — 서울세계화이드라인,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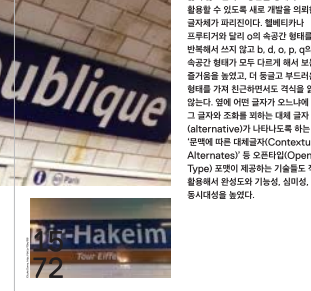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함양으로 개발된 서울서체는 크게 물기가 있는 말쑥한 계명의 서울한강체와 물기가 없는 고딕체 계명의 서울남산체로 구성된다. 서울서체는 서울의 도시의 현대 사인, 가리, 지사할 등에 적용되고, 서울시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 배포된다.



1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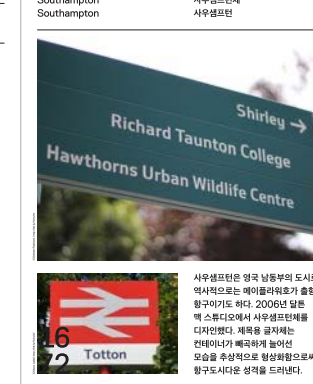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서울서체는 지금 한창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치열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높은 완성도와 함께 등장하면 가장 좋지만, 이미 발표된 상태에서 이런 지속적인 개선의 의지를 관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도시의 환경이 계속 변화하기는 만큼, 여기 부흥해서 글자체도 도시 환경의 유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고 또 도시와 글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서체의 향후 운동 방향이라 한다.



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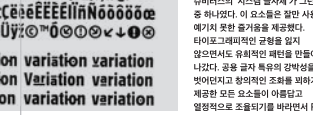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2009년, 서울시는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 등 서울시 전용서체를 발표했다. “서울서체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체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의 거대한 공공장소, 공문서나 홍보물 등의 매체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용서체이다.” — 서울세계화이드라인,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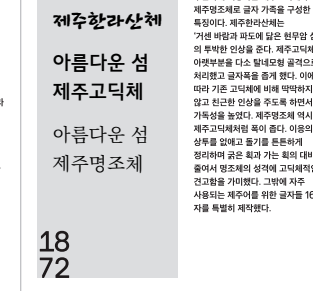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함양으로 개발된 서울서체는 크게 물기가 있는 말쑥한 계명의 서울한강체와 물기가 없는 고딕체 계명의 서울남산체로 구성된다. 서울서체는 서울의 도시의 현대 사인, 가리, 지사할 등에 적용되고, 서울시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 배포된다.



1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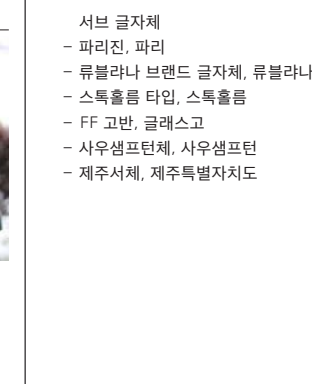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서울서체는 지금 한창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치열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높은 완성도와 함께 등장하면 가장 좋지만, 이미 발표된 상태에서 이런 지속적인 개선의 의지를 관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도시의 환경이 계속 변화하기는 만큼, 여기 부흥해서 글자체도 도시 환경의 유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고 또 도시와 글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서체의 향후 운동 방향이라 한다.



1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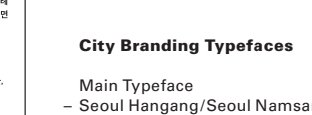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2009년, 서울시는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 등 서울시 전용서체를 발표했다. “서울서체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체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의 거대한 공공장소, 공문서나 홍보물 등의 매체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용서체이다.” — 서울세계화이드라인,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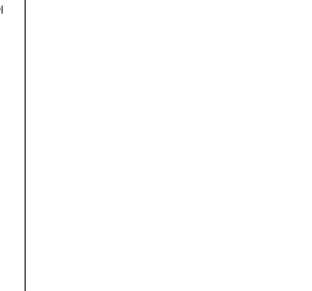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함양으로 개발된 서울서체는 크게 물기가 있는 말쑥한 계명의 서울한강체와 물기가 없는 고딕체 계명의 서울남산체로 구성된다. 서울서체는 서울의 도시의 현대 사인, 가리, 지사할 등에 적용되고, 서울시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 배포된다.



1772

Typefaces commissioned by city authorities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Seoul typeface	서울서체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서울서체는 지금 한창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치열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높은 완성도와 함께 등장하면 가장 좋지만, 이미 발표된 상태에서 이런 지속적인 개선의 의지를 관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도시의 환경이 계속 변화하기는 만큼, 여기 부흥해서 글자체도 도시 환경의 유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고 또 도시와 글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서체의 향후 운동 방향이라 한다.



1872

도시를 브랜드링하는 글자들

- 메인 글자체
- 서울서체: 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 서울

- 서브 글자체
- 파리진, 파리
- 류블라나 브랜드 글자체, 류블라나
- 스톡홀름 타입, 스톡홀름
- FF 고반, 글래스고
- 사우샘프턴체, 사우샘프턴
- 제주서체, 제주특별자치도

City Branding Typefaces

- Main Typeface
- Seoul Hangang/Seoul Namsan, Seoul

- Sub Typefaces
- Parisine, Paris
- Ljubljana Brand Typeface, Ljubljana
- Stockholm Type, Stockholm
- FF Govan, Glasgow
- Southampton, Southampton
- Font of Jeju Isl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도시를 잘 기능하게 하는 글자들

메인 글자체

- 딘서체, 여러 도시들

서브 글자체

- 브리스톨 트랜지트, 브리스톨
- 영국 도로 사인 시스템
- 뉴 레일 알파벳, 영국 국영 철도
- 한길체, 한국도로공사
- 프루티크, 여러 도시들
- 아브니르, 여러 도시들
- 유니버스, 여러 도시들
- 헬베티카, 여러 도시들
- FF 메타, 여러 도시들
- 인터스테이트, 미 연방 고속도로
- 페드라 산스, 빈 국제공항
- FF 인포, 뒤셀도르프 공항 등 여러 곳

2. Typespec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 도시를 잘 기능하게 할 기능체계 하는 글자들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글자들이 있는 반면 도시를 움직여 잘 기능하게 하는 글자들이 있다. 이 글자들의 특성을 잘 알아두면 다들 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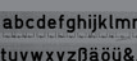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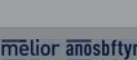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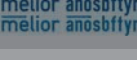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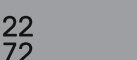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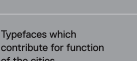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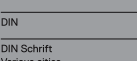
첫째, 특정 도시 지역을 위해서 등장한건, 기능이 뛰어난 본 아니라 기능을 잘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집단 보다는 글이 의미 있는 글자이고 의미와 글자간의 시너지 효과로 시정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집단 보다는 글자간의 시너지 효과로 만들어진 글자집단이다. 글자간의 시너지 효과는 다른 모든 개념들 본은 화에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때 다른 글자 가족들이 어떻게 발라진 글의 속도에 부응하여 인간의 눈으로 빠른 관측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대를 잘 할 것이다.

둘째, 시에서 글들이 있는 도면을 보면서 모든 시정부를 움직여 움직여 달라는 글자, 글자속도의 질은 한 도시를 움직여 달라는 글자속도이므로 글자속도도 개념적으로 정확히는 질이 있어야만 글자속도 글의 속도에 부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글자속도 글자속도 한 도시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글자, 이 글자들은 대부분 레퍼토리 같은 산스크립트라는 것이 있는데, 글 20개까지 산스크립트라는 기호만 발라도 발라진 글의 속도에 부응하여 인간의 눈으로 빠른 관측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대를 잘 할 것이다.

셋째, 글속도의 질은 한 도시를 움직여 달라는 글자속도이므로 글자속도도 개념적으로 정확히는 질이 있어야만 글자속도 글의 속도에 부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글자속도 글자속도 한 도시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글자, 이 글자들은 대부분 레퍼토리 같은 산스크립트라는 것이 있는데, 글 20개까지 산스크립트라는 기호만 발라도 발라진 글의 속도에 부응하여 인간의 눈으로 빠른 관측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대를 잘 할 것이다.

넷째, 글속도의 질은 한 도시를 움직여 달라는 글자속도이므로 글자속도도 개념적으로 정확히는 질이 있어야만 글자속도 글의 속도에 부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글자속도 글자속도 한 도시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글자, 이 글자들은 대부분 레퍼토리 같은 산스크립트라는 것이 있는데, 글 20개까지 산스크립트라는 기호만 발라도 발라진 글의 속도에 부응하여 인간의 눈으로 빠른 관측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대를 잘 할 것이다.

19
72

Type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	도시를 잘 기능하게 하는 글자체
DIN	단서체
DIN Schrift Various cities	단서체 여러 도시들
History of DIN	단서체와 주요 이점들
	1931 독일산업표준화회의에 의해 단1451에 표준 사례로 제정
	1938 독일 내 교육청과 교통 표지판에 적용
	1970년대 제트와 함께 단1451 제타팅 시트 출시
	1985 엘스나&클레이크 디자인 시트류도, 단1451 EF 출시
	1995 몬트폰트에서 알베르트 안 볼프 디자인사의 순간적 천연적으로 거대한 FF-DIN 출시
	2009 라이노타입에서 아귀라 고바야시와 산드라 플러타 디자인한 단서체 라운드 출시
	2009 라이노타입에서 아귀라 고바야시와 산드라 플러타 디자인한 단서체 라운드 출시

Type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
 DIN
 DIN Schrift
 Various types

ASGER
 다양한
 글꼴
 다양한
 글꼴
 다양한
 글꼴

독일 도로 위 문만 아니라 프랑스
 만화기군 등에서도 ASGER 적용되는 곳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Type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

DIN

DIN Schrift

Various cities

도시를 잘 기능하게 하는 글자들

한글

한글

도시들

도시의 글자들

28

72

Type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	도시를 잘 기능하게 하는 글꼴들
2.5 The other typefaces by Adrian Frutiger	2.5 아드리안 프루티거가 디자인한 다른 글꼴들
모던 타이포그래피에 여러가지 폰트들이 어떻게 계속 사용되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아르노스와 프루티거는 20세기 후반을 호환화시키며 왔고, 그 영향은 지금과도 비슷하다 반경일치 아니라고 해도 아드리안 프루티거가 디자인한 글꼴에서 그의 구배에 아르노스트와 아드니 도스올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Avenir <i>Variants cities</i>	아비르느 <i>Various cities</i>
만약하고 싶은 어떤 분야에 호출하는 것임. 또한 구급함의 공공장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니스 <i>Various cities</i>
	
"프루티거는 타이포그래피에서 아비르네제와 아비르느 텍스트들의 지면에 대해 프래테타이슬을 썼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공공용"의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에서는 시애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략하는 것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거의 주목받은 글꼴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덜 알려진 것은 유니스입니다. 당시 신생 도시들은 아베르네제를 본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가맹점 생겼지만 유니스 각 가족의 체계적인 발전 전까지 이는 글자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프루티거는 프루티거를 통해 혁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31 72	

Typeface
contrib
of the c

2.8
More el
maintain

Fedra S
Vienna



34
72

Typefaces which contribute to a city's functionality rather than its branding



Main Typeface

- DIN Schrift, used in various cities

Bristol Transit.

- British road sign system
- New Rail Alphabet, British Railway
- Hangil,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 Frutiger, various cities
- Avenir, various cities
- Univers, various cities
- Helvetica, various cities
- FF Meta, various cities
- Interstate, US Federal Highway
- Fedra Sans, Vienna International Airport
- FF Info, Düsseldorf Airport and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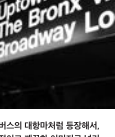

Types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	도시를 잘 기능하게 하는 글꼴들
DIN	디자인세
DIN Schrift Various cities	디자인세 여러 도시들
<p>최후 2차 대전과 관련된 사실은 아니지만, 도시의 이름이 독일어보다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수호하는 글꼴체계의 대표적 사례로서 디자인세를 소개한다.</p>	
<p>디자인세는 모든 것을 청결정돈하여 축척화하여서는 독일국가 표준화위원회가 인정하는 독일의 국가 공식 글꼴체제이다. 그 배열 방법이나 구조는 DIN 즉, 독일규격표(Deutsche Industrie Nor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도시 이름이나 공적기관이 적혀있는 모든 표지판에 사용될 수 있다. 디자인세는 일반적으로 '자주노선(Autobahn)' 글꼴체라는 한 형식으로 통용되기도 한다.</p>	
<p>디자인세 초기 모델은 1905년으로 거슬러간다. 알베르트 안 에른스트 하르만, 프로코피 에른스트 뢰크스라는 두 예술가들의 표지판에 사용되었다. 이 글꼴을 통용하기 위한 글꼴체제 역시 두 사람의 손을 거쳐서 그 수적인 정확성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글꼴이 통용되면서, 이름이 붙은 1915년 도시의 도로 표지판에 통용된 145종의 글꼴체 디자인에 개입되어, 하나의 독일국가표준화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지겐의 벤치너나 루벤스의 글꼴이 채택됨을 알았다.</p>	
<p>1933년과 1934년 디자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기능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이 글꼴체제에는 디타고르-제이더의 개입은 없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의견이 반영되었는데, 이후부터 부분적인 확장에 관한 글꼴 디자이너들의 손을 거쳐, 타이트노르제제에 준하는 가독성에서 디자인세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디자인세와 폰트노르프가 각각 이 글꼴체제를 세게 디자인했으므로 인정받았다. 이후 독일공화국의 FF 디자인 세대의 통용을 위해서, 지겐은 이들을 스웨덴의 디자인사를 통해 이미 1677년에 이</p>	

<p>Types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p>	<p>도시를 잘 기능하게 하는 글자들</p>
<p>DIN</p>	<p>단사체</p>
<p>DIN Schrift Various cities</p>	<p>단사체 여러 도시들</p>
<p>History of DIN</p>	<p>단사체의 주요 이점들</p>
	<p>2010 폰트몬트에서 알베르트 만 홀이 디자인한 FF딘 라운드 시</p>
	<p>2011 라이노타입에서 나딘 사비니가 디자인한 아델모자 버전 단사체도 아직까지 출시</p>
	<p>2012 라이노타입에서 산스크림리이어 원디어를 위한 단사체도 대박이거라 출시</p>
	<p>2014 라이노 타입에서 아카리 고파이어, 롱 그제스트, 신드와 원과가 디자인한 솔링베르크 버전 단사체도 출시</p>
	<p>2015 폰트몬트에서 알베르트 만 홀이 디자인을 개선한 FF딘 라운드 시</p>

23
72

[illegible]

Typefaces which combine for function of the cities	도시를 잘 가짜해 하는 글꼴들
2-4 Frutiger everywhere	2-4 어디든 자기, 프루티거
Frutiger Various cities	프루티거 어디 도처들
	가짜 프루티거체는 유나이티드의 가짜체라 하여 민간에서 맛없는 글꼴처럼, 열린 드림을 주시든 이미 흔한 듯하고 꽤 데일이 관례화 되어있다.
	1929년부터 2015년에 하한 이었던 프루티거가 아직 잘 쓰이고있다. 파리 메트로에서 만난 (만년 짜리)가 지출 지도들에도 일로 잔존 했다)가 결국 프루티거가 드림을 흔한 것이 되었다고 한다. 그 지도들 프루티거는 사적인 내로 노은 커넨 서인 앞에서 배려조차 느껴지지 않는 오작한 타이포그래피에 본래가 출현한다. 그런 글꼴의 속에서 타이포그래피의 미적 감각은 보 사람들에게 완전히 고전미에 찬탄하 고있는 계층이다. 그 프루티거체는 다른 글꼴들보다 그렇다. 특히 전 세계 글꼴에서 환영받는다. 알스데인 스위스 글꼴, 열린 히르스 로코 글꼴, 노르웨이, 노르웨이 로코 글꼴, 노르웨이 로코 글꼴 글꼴들, 노르웨이 로코 글꼴 글꼴들이다. 그런 국제글꼴에 영문 외국에서는 프루티거가 사용되어
프루티거체는 공항을 교통을 위한 장소, 도시에서 여러 도처들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간, 글자로서 가장 노 여워 쓰는 글자이다. 서용하는 사람 들 글꼴의 시선을 글자로서. 1968년	
29 72	내로 개조되었다. 공항의 타이포그래피 목적에 함여되면 뿐 아니라, 멀리도 타이어에 노 여워 쓰는 글자로서 능여

<p>Types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p>	<p>도시를 잘 기능하게 하는 글꼴들</p>
<p>2.6 Helvetica and other typesfaces is nicknamed Helvetica</p>	<p>2.6 헬베티카라는 이름의 글꼴</p>
<p>Helvetica Various cities</p>	<p>FF Meta Various cities</p>
<p>헬베티카 여러 도시들</p>	<p>FF 메타 여러 도시들</p>
	
<p>유니바스의 대량타입화 등장해서, 중앙집중되고 균질하게 되어 널리 보급되어서 세계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뉴욕과 지붕, 시가지 교통표, 워싱턴 교통표 등 미국의 공공장소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인종의 국제감각에서 유니바스를 쓰면, 나라와 문화에서 모든 국가에 헬베티카를 쓴다.</p>	<p>본래 독일 역방위문자를 위해 만들어진 글꼴제이다. 새롭고 예쁜 미는 신장식과 유사하다. 특히 헬베티카와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미는 조형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준다. 헬베티카와 같은 영향이 있다. 헬베티카와는 종이에 쓴 크롬 인쇄에도 잘 읽을 수 있고, 다른 표지에도 알뜰 수 있어서는 다른 조형도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일반적인 인쇄도'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독일 방위문자에서는 '불완전'을 유발한다. 는 이유를 미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다이나미] 예쁜 슈타인만은 이 글자체를</p>

Typelad
contribu
of the c

2.6
Helveti
is nickn

KUNGS
TUNNEL
R C

더 다...
이렇게
효율성, 인
외형으로
갖추어 '9
별명으로
세리프체
글자가족

35
72

Types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	도시를 잘 기능하게 하는 글자들
DIN	단체세
DIN Schrift Various cities	단체세 여러 도시들

눈은 가족식과 편리한 기능, 깨끗한 외관을 가진 단체세는 오늘날 파리 폰트와 센트, 뉴욕 시티 폰트, 현대 디자인 베스트셀러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독일공급규격이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프랑스 폰트와 거의 뉴욕, 런던 등 영국과 미국과 인도의 디자인 사들이자 다 이 이름 독일만의 글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용되는 보편성을 획득한 것이다. 거대한 글자감을 지닌 디지털 폰트도 해를 거듭하며 흥성해가기는 단체세는 그 폭넓은 스타일 선택과 적용의 가능성을 말만아, 디자이너들이 만물이연 해와 광고 등 수많은 작업에서도 우선적인 지지를 받으며 채택되고 있다. 독일의 힘토와 고독스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 곳곳의 실례와 일상 속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된 셈이다.

<p>Types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p>	<p>도시를 활기 넘치게 하는 글꼴들</p>
<p>2.1 Becoming the exemplary case of public design</p>	<p>2.1 물려져서 없었던 도시가 공공디자인의 오랜 모델로 부상하기까지</p>
<p>Bristol Transit Bristol</p>	<p>브리스틀을 트랜짓 브리스틀</p>
	<p>「특색있는 도시 브리스틀(Bristol: Bristol Legacy City)」에서는 슬로도를 만들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부터, 도시 당국이 주도한 장터에서는 앞에서 그 번째 캐네리외와 승객들 을 움직여준다. 트랜짓부터는 가계성 확보에 집중적으로 주력한 사례라는 점에서 이 캐네리외에 더 적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브리스틀은 제2 차 세계대전 후 목장을 당국에 반환 할 일없이 다른 승객들을 위한 만 능 디자인이다. 서양에서 중요한 몇 가지는 이 캐네리외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 메타디자인사 가 디자인을 얻은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가 시민을 얻은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를 공적개발로 디자인했다. 그리고 물론은 만 아니라, 그들의 디자인이 특정 물체들의 안과외적인 디자인을 모델로 삼아 도시가제, 안과외적인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전반을 세계적으로 인용해왔다. 그 결과, 브리스틀은 세계 도시 디자인의 모범 사례로 유명해지 는 단계에 있다.</p>

Typespec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	도시를 기능화케 하는 요소들
2.3 The speedy-read font on the road	2.3 빠른 속도의 도로에 맞춰 빠르게 읽히는 글자
Hangil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한길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 표지규격이다. 기존 도로 표지판의 혼용영어인 글자가 위치한 쪽을 삭제하고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한길 공구 상의 제철판 위쪽 홀을 통해 양으로 보인 글자(한글)는 원본 글자(영어)와 곱을 한 글자(한글)를 함께 글자세로와 설치이 고지 디자인 했다.	
그런데 토정길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은 한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글 시 제철판이 주위에 철도모빌 글자세로와 정면 달리 없어 눈뜨기 시작했다. 철도모빌 글자세로: 여러 측면에서 도로 교통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보인다.	
첫째, 기존 토정길 모습에서는 '한'처럼 획수만 있는 글자이다. 획수가 적은 글자나 짧은 한 획의 선만을 차지한다. 이런 철도모빌 도로를 제철판이 한 획이 있는 글자로는	아래쪽으로 길여지기 때문에 획이 많아지고 글자 치가 치라는 공간 차지하기 내로와 필요다 공문화해 해결한다. 이로써 글자가 옹호는 한성이 때문이다.

<p>inter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p> <p>2.3 The speedy-read front on the road</p> <p>Hangil Korea Expressway Corporation</p>	<p>도심을 잘 기능하게 하는 골목들</p> <p>2.3 빠른 도로의 속도 앞면 빠른 자리는 골짜기</p> <p>한길에 한국도로공사</p> <p>요즘세상은 내로 공간만 부족한 도시. 중심·중심과 자살을 억지로 가약하며 녹아 있는 도로 폭은 비밀정부를 위한 공간이 따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국외의 왕상을 줄 수 있게 된다. 다시, 한길에서 잃는 것은 느린 배속 반향성 상태에 도달한다.</p> <p>첫째, 전원일출적인 도로를 외국에 비해 한정된 일노니 일노에 따라 갖고 단위와 외국 발파가 일노도로, 외국에 한길에 한길에 차이를 두며 때때로 한길에서 도로를 만든다.</p> <p>둘째, 자살의 형태가 빠르지만 갖고 정면 및 가약할 줄에 가까운 한길은 유지하는 것은 한길적인 안상을 줄 한길의 한길성을 늦게 한다.</p> <p>죽, 도로를 위한 한길 교차적인 한길에서 한길에 한길한 도로를 정서적 한길과 가까운 한길에 있는 두 가지 한길에 도로 표지판은 한길에 한길한</p>
---	---

Typefaces which contribute for function of the cities	도사를 잘 기능하게 하는 글자꼴들
2.7 On the American highway	2.7 넓게 뻗은 미국의 고속도로 위해서
Interstate US Federal Highway	인터스테이트 미 연방 고속도로로
	
미국 고속도로 마다를 달리는 도처에서 눈에 들어오는 글자꼴이다. 그만큼 넓은 지역, 나라의 어느 곳에 부화하는 형상을 갖추고 있다. 토비아이스 프레스 본스가 1993~99년에 디자인한 인터스테이트는 전세대로 자신이 넘겨주고, 국가가 유관한 크게 일정한 독특한 문양의 크기 특징이다. 이	모든 오스돌들이 빠른 속도도 달리는 도로 위에서 관측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독일 도로의 인샤를을 디지털 폰트판 콘콘프로시스의 FF 단타형, 콘콘워프시의 인터스테이트는 동시에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자랑광으로서 1990년대 이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 본 이미지 여러 곳에 녹입해 적용되었

Typeface
contribution
of the c

2.9
The b
on the

FF Info
Düsseld

1996년

36
72

[illegible]

Letters which get along with cities naturally	도시와 자연스럽게 어울려온 글자들
Gill Sans	길 산스
Gill Sans London	길 산스 런던
	
Letters which get along with cities naturally	도시와 자연스럽게 어울려온 글자들
3.1 Rome, the serifs' hometown	3.1 세리프의 고향은 로마
Capitulum	카피톨리움
Roma	로마
<p>로마는 2000년 새로운 활자=typemaking을 위한 카피톨리코도들을 가리키 위한 시민 시립을 계획했다. 버티칼은 근거를 둔 원형화가 발족되었고, 공모 입찰을 통해 네덜란드의 헤라르트 뢰터가 글자치 디자인을 맡았다.</p> <p>오늘날 한글 자판과 나란히 보이는 문자체(writing system)의 이름은 '리던 알파벳' 혹은 '로만 알파'이다.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대량적인 유럽어 통어 나라(미국 제외),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자체이다. 알파벳은 그리스 알파벳, 페니키아어 알파벳, 키릴 알파벳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고대 로마 시대, 로마인들, 라틴어를 쓰기 위해 직접 제작된 오늘날까지 영웅 뒤편에 거창한 그로토 사용자는 알파벳을 '라틴 알파벳' 혹은 '로만 알파'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로마자'라고도 부른다.</p>	 
<p>3.2 The black letter road signs in Germany</p>   	<p>3.2 독일의 블랙레터 도로표 표지판</p> <p>오늘날 한국인인 우리 눈에는 이탈리아에서 접했던 로만체가 익숙하다. 로만체가 알프스 이남에서 전한한 문명을 받들고 활판습자들에 의해 널리 퍼지고 있었다. 알프스 이북에는 이들과 뚜렷한 블랙레터가 있어 활판습자처럼 '책판체'라고 불리고 있다. 로만체는 속궁금치 크고 획이 상대적으로 가늘고 우아해서 맑게 보였으므로 블랙레터의 대안체로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로만체는 가로획과 세로획이 평행함을 바를 때 둥글고 부드럽게 이어서 쓰면 블랙레터는 각이 지게 써서 쓰므로 '형식상의 글자체(broken script)'라고도 부른다. 블랙레터의 양식 중에는 '크트 텍스투르(Texture, 로트다(Rotunda), 프락투어(Fraktur), 슈바비허(Schwabacher)'가 있다. 물론 네 가지 양식 각각에도 로만체에서만큼이나 다양한 글자체들이 있다.</p>   

[illegible][illegible]

<p>도시와 자연스럽게 어울려온 글자들</p> <p>메인 글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산스, 런던 <p>서브 글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피톨리움, 로마 - 텍스투라, 마인츠 구텐부르크 박물관 - 슈바바허, 레겐스부르크 - 언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등 켈트 문화권 - 막시마, 구 동독 - 일본 도로의 둥근 고딕들 	
<p>Typefaces which have been naturally harmonized with their environment</p> <p>Main Typefa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ll Sans, London <p>Sub typefa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itolium, Roma - Textura, Street signage near Gutenberg Museum in Mainz - Schwabacher, Regensburg - Uncial, Celtic cities including Scotland - Maxima,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Rounded sans serifs on Japanese street signs 	

메인 글자체

- 홍콩북위해서(香港北魏真書計劃), 홍콩

서브 글자체

- 뉴 마야 글리프스, 중앙 아메리카
- FF CST 동베를린/서베를린, 베를린
- 홍콩 도로 글자체, 홍콩
- 산돌 시티체 중 상하이체, 상하이
- 채타입, 채터누가

4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도시가 정책적으로 주도한 사업을 통해 의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영감을 받거나 도시에 글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 디자이너들이 자발적으로 글자제 디자인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 도시의 형상으로부터 글자제를 아이디어를 얻었으나 공공 디자인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개인 글자제들도 있고, 개인이 글꼴 만든 것은 도시와도 공을 같이하여 하는 것을 개념에서 이 지점에서 변화하여 글자제들도 있고, 단순히 개인적 관심사로서 디자인을 진행하기도 있는 글자제들도 있고, 사회가 주는 도시의 의미 글자를 디자인으로 복해해서 영감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글자제들도 있다.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제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여러 매체에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전시와 작품에 적용하기도 한다.

52

72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한 시대를, '해서'는 글자의 양식을 지칭한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시 글자들



Typefaces which are suggested by individuals inspired by cities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beiwai kaishu
Hong Kong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시대에 산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진, 사치,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조합하는 행위와 글꼴의 형식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모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근간인 물성의 진실함과 물성의 정합성이 드러나는 간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픽, 회화, 음악, 문학, 그리고 태도 등 우리 시대에 대한 규율들과 타이포그래피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일 대학, 1942-

예드니인 편지. 홍콩북쪽위새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예문. 20세기 후반, 20대 초반엔 편지 디자인이 예드니인 편지 문풍의 간판문화에서 이 도시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인 관공 문풍을 일컫는다. 그리고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자발적인 흥미에서 이를 현대적 디자인 형태와 제작방식에 알맞게끔 글꼴에서 홍콩베이웨이카슈, 즉 홍콩북쪽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콩'은 자칫하면, '북쪽'은 시대를 잘못 언급하기 기묘

유연한 발상에서 나온 괴짜 글자들을

메인 글자체

- 트윈 시티체, 미니애폴리스/세인트 폴

서브 글자체

- 아인트호펜, 아인트호펜

Eccentric Typefaces

Main Typeface

-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Sub Typeface

- Eindhoven, Eindhoven

5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유연한 발상에서 나온 괴짜 글자들

도시 자체를 브랜드하기보다는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일반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글자체가 과연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도발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프로젝트가 있다. 네덜의 디자인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가장한 실제 제품과 데칼코마니, 프로젝트들 담당한 인물들의 활동상과 유명장갑에는 판단이 돋보이 사이다. 브랜딩, 정체성 가치, 기능과 효율만이 전부는 아니다. 도시를 위한 글자는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기후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본과 정서를 고취시키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나는 예컨대 폰 볼로클란트의 유스트 판 로숨의 그물인 제타(Lett>Error)의 시선이 가진 불확실성이 마음에 듭니다. 폰트 자체도 좋으나, 유색적이면서도 친화적이어서, 흥미롭습니다. 레터러의 글자체는 나를 웃게 만드는군요." — 트윈 시티체 프로젝트 심사위원들의 대화 중에서

미완성인 듯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도시 전용서체도 있다. 도시를 미화하고 치장하고 유희하는, 특정 방향을 지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지향 속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끌어내는 것도 도시를 위해 글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도시와 글자, 그리고 그들이 공존하는 관계는 실로 복잡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64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글자체가 과연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가?"

마네스타대학 디자인 연구소가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 폴의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건물 글자체 디자인 프로젝트를 다섯 팀의 경쟁을 글자체 디자이너들을 초청하면서 그 의뢰서의 첫머리에 단언 질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자체를 브랜드하기보다,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일반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실험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주자와 참여 디자이너들이 인터뷰는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라는 책을 기록되었다. 다음은 이 책에 실린 사진과 참가자 인터뷰를 발췌한 내용이다.

에릭 올슨 Eric Olson (미니애폴리스, 마네스타) "중국적으로 글자체 디자인은 프로젝트의 그래픽 디자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도출해야 합니다."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에릭 올슨 Eric Olson (미니애폴리스, 마네스타) "중국적으로 글자체 디자인은 프로젝트의 그래픽 디자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도출해야 합니다."

65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남비 올슨 에릭 디자인 진행한 글자체에 형제는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디자인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한계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가?

"레터러의 유연성과 표현력이 높은 글자를 원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나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조로 타이포그래피 도시 풍경에 알맞은 한 줄기 산산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 133쪽.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체 양식들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식들을 모두 조합이 다 제대로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고, 몇몇 대예글자들의 형제는 일반적인 건지의 이름과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만 따로 적절하지 않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식들이 서로 늘 조화되어주는 것은 해답이요, 바로 그런 도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에릭 판 볼로클란트

66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남비 올슨 에릭 디자인 진행한 글자체에 형제는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디자인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한계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가?

"레터러의 유연성과 표현력이 높은 글자를 원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나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조로 타이포그래피 도시 풍경에 알맞은 한 줄기 산산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 133쪽.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체 양식들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식들을 모두 조합이 다 제대로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고, 몇몇 대예글자들의 형제는 일반적인 건지의 이름과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만 따로 적절하지 않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식들이 서로 늘 조화되어주는 것은 해답이요, 바로 그런 도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에릭 판 볼로클란트

67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남비 올슨 에릭 디자인 진행한 글자체에 형제는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디자인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한계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가?

"레터러의 유연성과 표현력이 높은 글자를 원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나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조로 타이포그래피 도시 풍경에 알맞은 한 줄기 산산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 133쪽.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체 양식들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식들을 모두 조합이 다 제대로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고, 몇몇 대예글자들의 형제는 일반적인 건지의 이름과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만 따로 적절하지 않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식들이 서로 늘 조화되어주는 것은 해답이요, 바로 그런 도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에릭 판 볼로클란트

68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남비 올슨 에릭 디자인 진행한 글자체에 형제는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디자인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한계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가?

"레터러의 유연성과 표현력이 높은 글자를 원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나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조로 타이포그래피 도시 풍경에 알맞은 한 줄기 산산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 133쪽.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체 양식들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식들을 모두 조합이 다 제대로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고, 몇몇 대예글자들의 형제는 일반적인 건지의 이름과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만 따로 적절하지 않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식들이 서로 늘 조화되어주는 것은 해답이요, 바로 그런 도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에릭 판 볼로클란트

69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남비 올슨 에릭 디자인 진행한 글자체에 형제는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디자인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한계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가?

"레터러의 유연성과 표현력이 높은 글자를 원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나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조로 타이포그래피 도시 풍경에 알맞은 한 줄기 산산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 133쪽.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체 양식들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식들을 모두 조합이 다 제대로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고, 몇몇 대예글자들의 형제는 일반적인 건지의 이름과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만 따로 적절하지 않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식들이 서로 늘 조화되어주는 것은 해답이요, 바로 그런 도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에릭 판 볼로클란트

67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남비 올슨 에릭 디자인 진행한 글자체에 형제는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디자인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한계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가?

"레터러의 유연성과 표현력이 높은 글자를 원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나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조로 타이포그래피 도시 풍경에 알맞은 한 줄기 산산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 133쪽.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체 양식들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식들을 모두 조합이 다 제대로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고, 몇몇 대예글자들의 형제는 일반적인 건지의 이름과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만 따로 적절하지 않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식들이 서로 늘 조화되어주는 것은 해답이요, 바로 그런 도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에릭 판 볼로클란트

68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남비 올슨 에릭 디자인 진행한 글자체에 형제는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디자인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한계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가?

"레터러의 유연성과 표현력이 높은 글자를 원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나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조로 타이포그래피 도시 풍경에 알맞은 한 줄기 산산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 133쪽.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체 양식들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식들을 모두 조합이 다 제대로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고, 몇몇 대예글자들의 형제는 일반적인 건지의 이름과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만 따로 적절하지 않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식들이 서로 늘 조화되어주는 것은 해답이요, 바로 그런 도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에릭 판 볼로클란트

69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남비 올슨 에릭 디자인 진행한 글자체에 형제는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디자인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한계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가?

"레터러의 유연성과 표현력이 높은 글자를 원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나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조로 타이포그래피 도시 풍경에 알맞은 한 줄기 산산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 133쪽.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체 양식들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식들을 모두 조합이 다 제대로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고, 몇몇 대예글자들의 형제는 일반적인 건지의 이름과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만 따로 적절하지 않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식들이 서로 늘 조화되어주는 것은 해답이요, 바로 그런 도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에릭 판 볼로클란트

70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남비 올슨 에릭 디자인 진행한 글자체에 형제는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디자인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한계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가?

"레터러의 유연성과 표현력이 높은 글자를 원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나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조로 타이포그래피 도시 풍경에 알맞은 한 줄기 산산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 133쪽.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체 양식들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식들을 모두 조합이 다 제대로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고, 몇몇 대예글자들의 형제는 일반적인 건지의 이름과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만 따로 적절하지 않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식들이 서로 늘 조화되어주는 것은 해답이요, 바로 그런 도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에릭 판 볼로클란트

71

72

Eccentric typefaces which show humorous spirit of the city

Twin City

Twin City Minneapolis/St. Paul

남비 올슨 에릭 디자인 진행한 글자체에 형제는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디자인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한계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가?

"레터러의 유연성과 표현력이 높은 글자를 원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나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조로 타이포그래피 도시 풍경에 알맞은 한 줄기 산산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메트로 글자들: 병음이 도시들을 위한 글자체 (Metro Letters: A Typeface for the Twin Cities), 133쪽.

"우리가 만든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글자체 양식들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식들을 모두 조합이 다 제대로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고, 몇몇 대예글자들의 형제는 일반적인 건지의 이름과는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만 따로 적절하지 않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식들이 서로 늘 조화되어주는 것은 해답이요, 바로 그런 도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에릭 판 볼로클란트

72

72



COLLABOR-

ATING

Participants
City Type Exploration
Dappertutto Studio
Doosung Paper Design Lab
E Roon Kang
Lee Chae
Mediabus x Shinshin
Nolgong
Plat
rebel9
Zero Lab

참여 작가
강이룬
놀공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도시 문자 탐사단
두성종디자인연구소
레벨나인
미디어버스 x 신신
이재원
제로랩
플랏

ARTISTS

협업

작가님

2014 / 2015

도시와 타이포그래피,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 존재하는 문자 생산 장소, 문자 기억 장소, 문자 활용 장소 등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 표층 시각 체험 여행으로 문화역서울 284 외 종로, 강남 일대, 종로 세운상가와 홍은동 유진상가, 명동 및 신촌 일대 도시를 탐사하였다.

웰컴 투 서울: 도시 문자 탐사
2014

페이퍼 시티
장소: 서울역 — 수송동 or 당주동 — 종로3가 — 장교동 — 서울역
강연: 김형재, 박재현 (2014년 10월 20일)

밤의 타이포그래피
장소: 서울역 — 가로수길 — 신사역 — 강남역 —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 서울역
강연: SoA (Society of Architecture) — 강예린, 이치훈 (2014년 10월 21일)

서울이란 텍스트에 새겨진 거대 타이포그래피 — 상가 건축의 명과 암
장소: 서울역 — 유진상가 — 세운상가 — 서울역
강연: (故)구본준 (2014년 10월 22일)

프랜차이즈 패턴 랭귀지
장소: 서울역 — 명동 — 이대, 신촌 — 홍대입구 — 상수역 — 서울역
강연: 박해천 (2014년 10월 23일)

기획 및 코디네이션: 김형재
포스터 및 웹사이트 디자인: 권아주, 김형재
도시 문자 버스 디자인: 이재원

The city and typography, this is a program which travels the city of Seoul with the perspective of "city and typography." It discovers a places of production, memory, and of utilization, of typography. With a focus on urban visual surface, this journey explored the city through Culture Station Seoul 284, Jongno, Gangnam area, Jongno Seun Sangga and Hongseun-dong Yujin Sangga, Myung-dong and Shinchon.

Welcome to Seoul: City Type Exploration
2014

Paper City
Location: Seoul Station — Susong-dong or Dangju-dong — Jongno 3-ga — Jangju-dong — Seoul Station
Talk: Kim Hyungjae, Bahk Jaehyun (20 October, 2014)

Typography of Night
Location: Seoul Station — Garosu-gil — Sinsa Station — Gangnam Station — Express Terminal underground shopping area — Seoul Station
Talk: SoA (Society of Architecture) — Kang Yerin, Lee Chihoon (21 October, 2014)

Massive Typography Engraved On The Text Called Seoul: The Light And Shadow Of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Seoul Station — Yujin Sangga — Seun Sangga — Seoul Station
Talk: Goo Bonjoon (1964–2014) (22 October, 2014)

Franchise Pattern Language
Location: Seoul Station — Myung-dong — Ewha Womans University, Sinchon — Hongik University Entrance — Sangsu Station — Seoul Station
Talk: Park Haecheon (23 October, 2014)

Project Planning & Coordination: Kim Hyungjae
Poster & Website Design: Kwon Ahjoo, Kim Hyungjae
City Type Bus: Lee Chae



420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친 후, 워커아트센터와 S/O 프로젝트를 거쳐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재원은 그래픽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연구를 넘어서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보 디자인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재원

한국

도시를 기호, 텍스트, 그리고 컨텍스트로 해석하고자 했다. 계획된 구조물, 거리의 패턴, 독특한 건물, 켜켜이 쌓인 시간, 걷고 있는 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도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미지이거나 시각 형식이다. 도시에서 이동을 가능케 하는 지시 수단인 도로 기호와 텍스트를 이동 주체인 버스가 흡수하여 도시를 경험한다. 서로 다른 장소들을 이어주는 ‘도시 문자 탐사’ 프로젝트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여러 방향에서 읽어가면서 공간을 시간화하는 기회이다. 그리고 이것은 의미의 ‘전환’, ‘표류’ 그리고 ‘전복’ 속에서 새롭게 도시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도시 문자 버스

2014



421 After completing her MFA study at Yale University, Lee Chae worked at the Walker Art Center and S/O Project. She assumed her current position a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Visual Design of the Seoul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She is currently working to broaden her scope of projects from graphic design and typography research into informatio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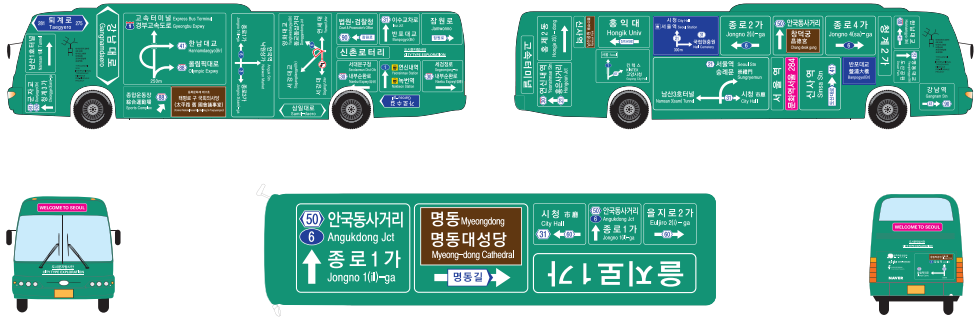
Lee Chae

Korea

Symbols, text, and context are the key elements to interpret the city. The city is composed of planned grids, patterns of streets, characteristic buildings, historical layers, the pedestrians, etc., which could be read as images or visual forms (by its inhabitants). The bus, a moving object, itself experiences the city by absorbing the road signs and texts with which people move in the city. The project “City Type Exploration” is a chance to read the Seoul city from multiple dimensions, while connecting different places. And this communicates a new method to interpret a city with “converting,” “drifting” and “oversetting” meanings.

City Letter Bus

2014



플랏은 서울에 위치한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이다. 대학에서 만난 이화영, 임은지, 조형석, 황상준이 2014년부터 함께 작업하고 있다. 인쇄물을 중심으로 전시, 웹, 아이덴티티, 설치 등의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생산하며, 지역 기반의 작은 협업에서부터 넓은 영역의 미해결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안을 모색하고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다.

플랏

한국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행사의 포스터는 2년 주기로 열리는 타이포잔치 본 행사 사이에 열리는 사이사이 행사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행사의 과도기적 특성을 색과 면으로만 구성된 공간의 분리와 혼합을 통해 제시한다.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포스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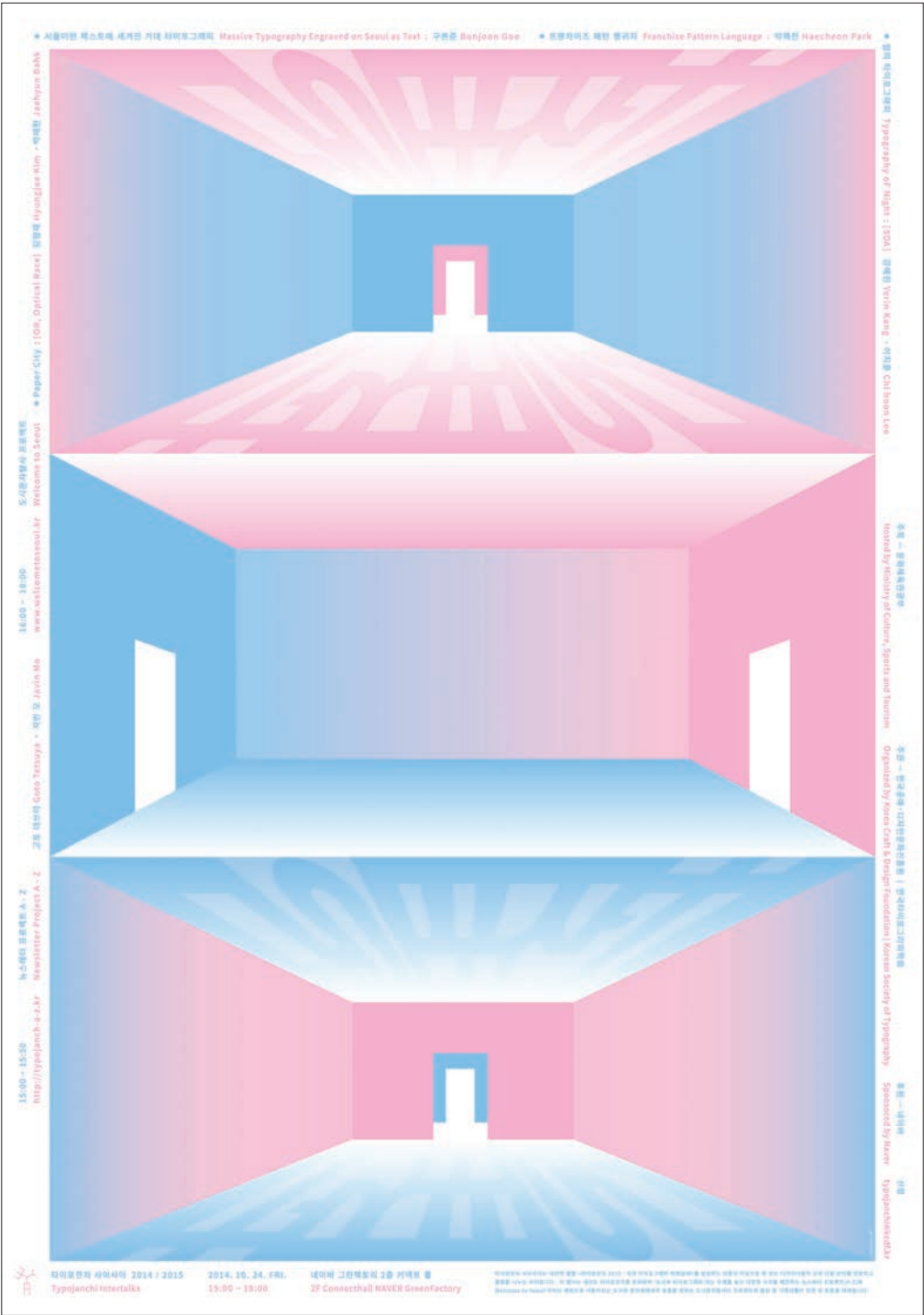
Plat is a graphic design studio established in Jan 2014 by Lim Eunji, Lee Hwayoung, Cho Hyungseuk, and Hwang Sangjoon. They have been working on various projects including printed matters, exhibitions, webs, identities, installations. They are interested in producing narratives from versatile perspective, and offering solutions for a diverse range of projects ranging from those in small local cooperation to large scale commercial work.

Plat

Korea

The *Typojanchi Pre-Biennale Poster* has a role in promoting the pre-biennale event between *Typojanchi*. By dividing and mixing an image of space consists of colors and surfaces, the poster suggests a transitional feature of the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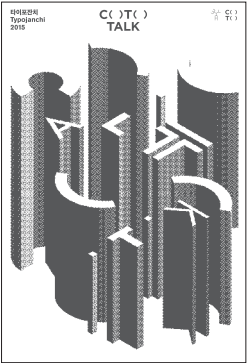
Typojanchi Pre-Biennale Poster
2014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스튜디오 fnt를 설립했다. 《벨트포르마트 15》, 《코리아 나우! 한국의 공예, 디자인, 패션 그리고 그래픽디자인》, 《그래픽 심포니아》, 《타이포잔치 2011》 등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극단, 서울레코드페어 조직위원회 등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와 공연을 위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는 정림문화재단과 함께 건축, 문화, 예술 사이에서 교육, 포럼, 전시, 리서치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도시, 주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이재민

한국



〈타이포잔치 2015 커뮤니케이션 포스터〉는 공식 포스터와는 별도로, 개전식과 토크 및 파티를 위해 만들어졌다.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들은 수많은 문자들 틈을 거닐며 그 행간 속에 숨은 의미를 찾아 서성인다. 그리고 어렵사리 발견해낸 단서들을 쌓아 올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다양한 도시에서 온 작가들의 이야기 사이를 거니는 일이 타이포잔치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타이포잔치 2015 커뮤니케이션 포스터
2015

타이포잔치 2015 커뮤니케이션 포스터 — C () T () TALK
2015

타이포잔치 2015 커뮤니케이션 포스터 — C () T () PARTY
2015

Graphic Designer. Lee Jaemin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ounded “studio fnt” in 2006. He took part in several exhibitions such as *Weltformat 15: Plakatfestival Luzern, Korea Now! Craft, Design, Fashion and Graphic Design in Korea, Graphic Symphonia* and *Typojanchi 2011*, and worked with clients lik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and Seoul Records & CD Fair Organizing Committee on many cultural events and concerts. Since 2011, he has actively worked with Junglim Foundation on projects about architecture, culture, arts and education, forum, exhibitions and research in order to explore meaningful exchanges with the public about subjects like the social role of architecture and urban living. He also teaches graphic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Seoul.

Lee Jaem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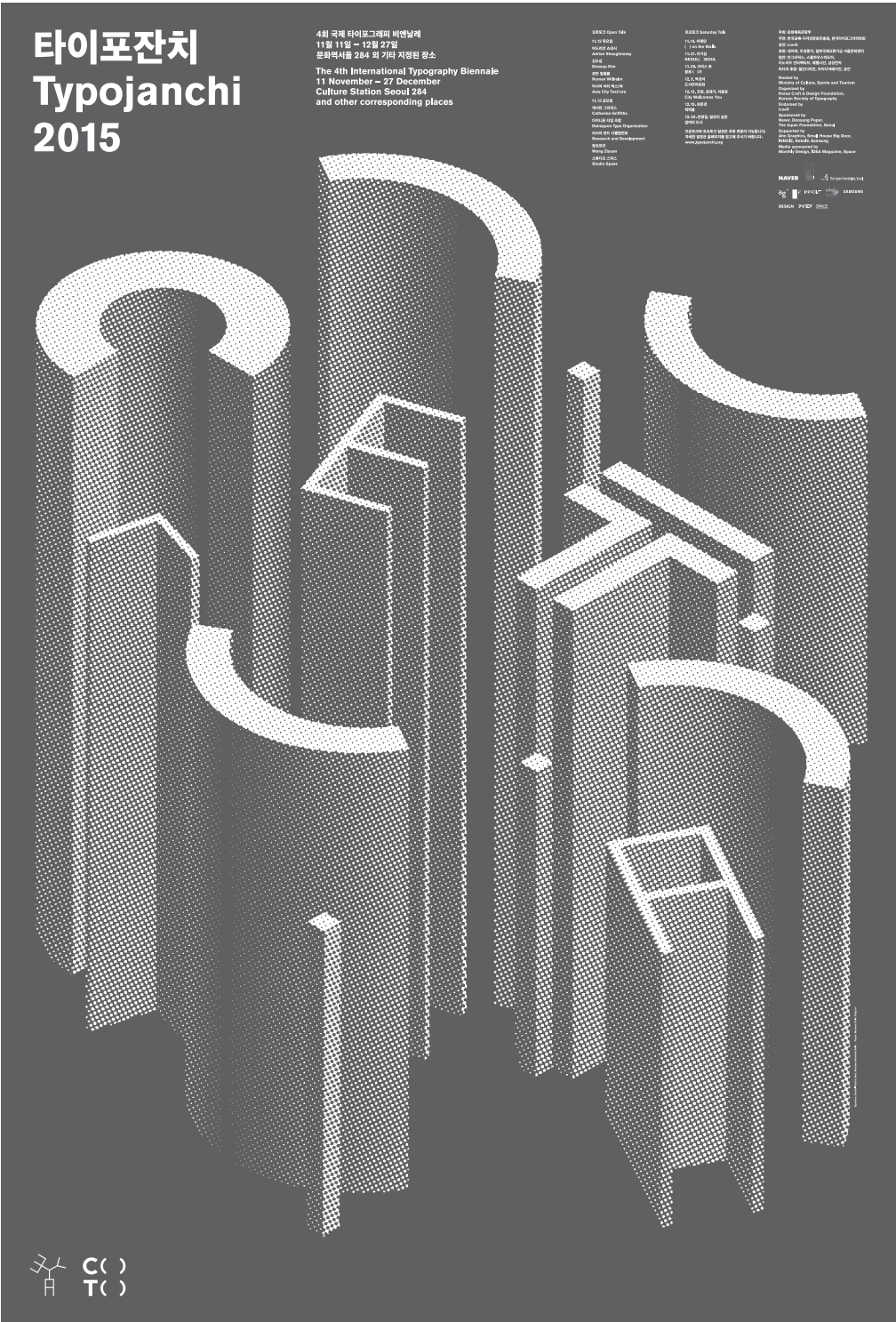


Communication Posters for Typojanchi 2015 was created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xhibition's opening ceremony, talks and opening party. As we live in a city, we stroll through countless letterforms and discover hidden meanings behind them. With these discovered clues, we create our own unique stories. As such, *Typojanchi 2015* hopes for its visitors to gain this pleasant experience from strolling through works of artists from different cities from all around the world.

Communication Poster for Typojanchi 2015
2015

Communication Poster for Typojanchi 2015 — C () T () TALK
2015

Communication Poster for Typojanchi 2015 — C () T () PARTY
2015



다페르튀토 스튜디오는 이탈리아어로 '어디서나, 어디에나 흐르는'이라는 뜻으로 탈 장소성을 의미하는 '다페르튀토'와 장소 특정성을 의미하는 '스튜디오'의 합성어이다. 팀 명이자 공연명인 '다페르튀토 스튜디오'는 연출가 적극이 이끌고 있으며, 연극의 내용과 형식을 고민, 다양한 장르의 작가와 협업하여 '무용적 연극', '음악적 연극'이라는 대안을 모색해왔다.

다페르튀토 스튜디오

한국

타이포그래피 연극 <암세포 삼 형제>는 '한국의 전통굿놀이—영감놀음'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다만 이 공연은 애초의 굿놀이처럼 노래와 춤, 재담이 주를 이루지는 않는다. 그동안 놀이 바깥에서 놀이를 기록해왔던 문자가 이번 공연의 첫 번째 요소이다. 공연은 실시간 자막으로서의 문자가 최초의 공연 향로를 결정하면, 나머지 공연의 모든 총체들이 이를 뒤따르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무대화가 되면 사라지는 희곡의 운명과 달리, 사라지지 않는 문자는 문자 이외의 것들과 대립하고, 공존하고 함께 놀이를 벌인다. 문자가 이끄는 도시의 찰나적 풍경을 통해 인간의 삶을 진술하는 기능을 넘어 진술할 수 없는 것들과 공존하는 문자의 본질을 사유해보고자 한다.

개막식 공연

타이포그래피 연극: 암세포 삼 형제

시간: 2015년 11월 11일 17시

장소: 문화역서울284

공연 시간: 13분

제작: 다페르튀토 스튜디오

연출: 적극

출연: 밝닝쿨, 박한결, 이문영 외



Dappertutto, which means "everywhere, flowing anywhere," is also the stage name of a contemporary experimental performer. Named after the artist, Dappertutto Studio is a theater group that produces a variety of collaborative projects in experimental theater including dance and musical plays, led by Zuck-geuk.

Dappertutto Studio

Korea

The typographic theater, *Three Cancer Cell Brothers* has been developed with a "traditional Korean gut (exorcism) theatrical — a performance for elder men" motif. However, in this performance, singing, dancing and jokes are not the main contents as was with original "Korean gut theatricals." Traditionally, typographic characters were used outside of the performance for documentation, but now take center stage as the main element for this performance. During the performance, in real time, subtitles and typographic characters will at first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performance. For the rest of the performance all of the remaining elements will follow this format. It is normal destiny for the playwright to disappear when the performance transitions to stage. Even though the playwright disappears, the typographic characters do not disappear but they remain to conflict, co-exist and play together with the other elements. Typographic characters construct the instant landscape of the city and these letterforms describe human life. But going beyond this description of human life, the typographic characters often co-exist with that which we cannot easily describe and through this performance we re-examine the very essence of these typographic characters.

Opening Performance

Typographic Theater:

Three Cancer Cell Brothers

Time: 11 November, 2015, 5 p.m.

Venue: Culture Station Seoul 284

Running Time: 13 minutes

Production: Dappertutto Studio

Director: Zuck-Geuk

Performers: Park Neongcool, Park Hankyul, Lee Munyoung et al.



제로랩은 김도현, 김동훈, 장태훈으로 이뤄진 디자인 그룹으로 제품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외에도 전방위 문화 활동과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실험적 디자인과 상업적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협의점을 찾고자 한다. 다양한 축제나 전시의 그래픽디자인 개발, 가구/집/공간의 개발 및 제작, 워크숍, 전시 등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로랩

한국

타이포잔치 전시 공간 디자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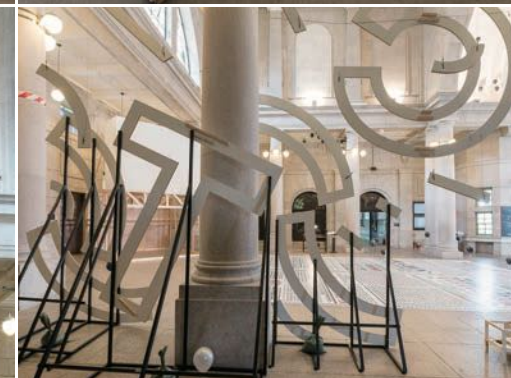


Zero Lab is a design group, composed of Kim Donghoon, Jang Taehoon and Kim Dohyun. The studio specializes in product design, graphic design, and many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They explore both experimental and commercial design, and try to find the balance between reality and ideal practice in the design world. They not only participate in many festivals and exhibitions as a graphic and space designers but also as artists. Zero Lab designs and makes furniture and spaces by themselves and do many workshops as well.

Zero Lab

Korea

Typojanchi
Exhibition Space Design
2015



뉴욕 스크 오브 비주얼 아트와 예일 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하고, MIT의 도시 계획과 산하 센서블 시티 연구소에서 특별 연구원으로 일했다. TED 펠로우로 활동하며 미국 TED 콘퍼런스와 칸라이언즈 국제 크레이티비티 페스티벌 등에서 강연했고, 독일 바우하우스 바이마르 대학교, 뉴욕 대학교 ITP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파슨스 스크 오브 디자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뉴욕에서 학제간 디자인 및 리서치 스튜디오 매스 프랙티스를 운영하고 있다.

강이론

한국

온라인 지도의 익숙한 형식을 빌어 제작된 <타이포잔치 웹사이트>는 각 프로젝트들의 개념적 이웃 관계와 각자 관련된 지리적 위치들을 지도로 엮어, 타이포잔치의 전시를 경험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 온라인 지도는 오픈스트리트 맵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이자 개발자인 소원영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다.

타이포잔치 웹사이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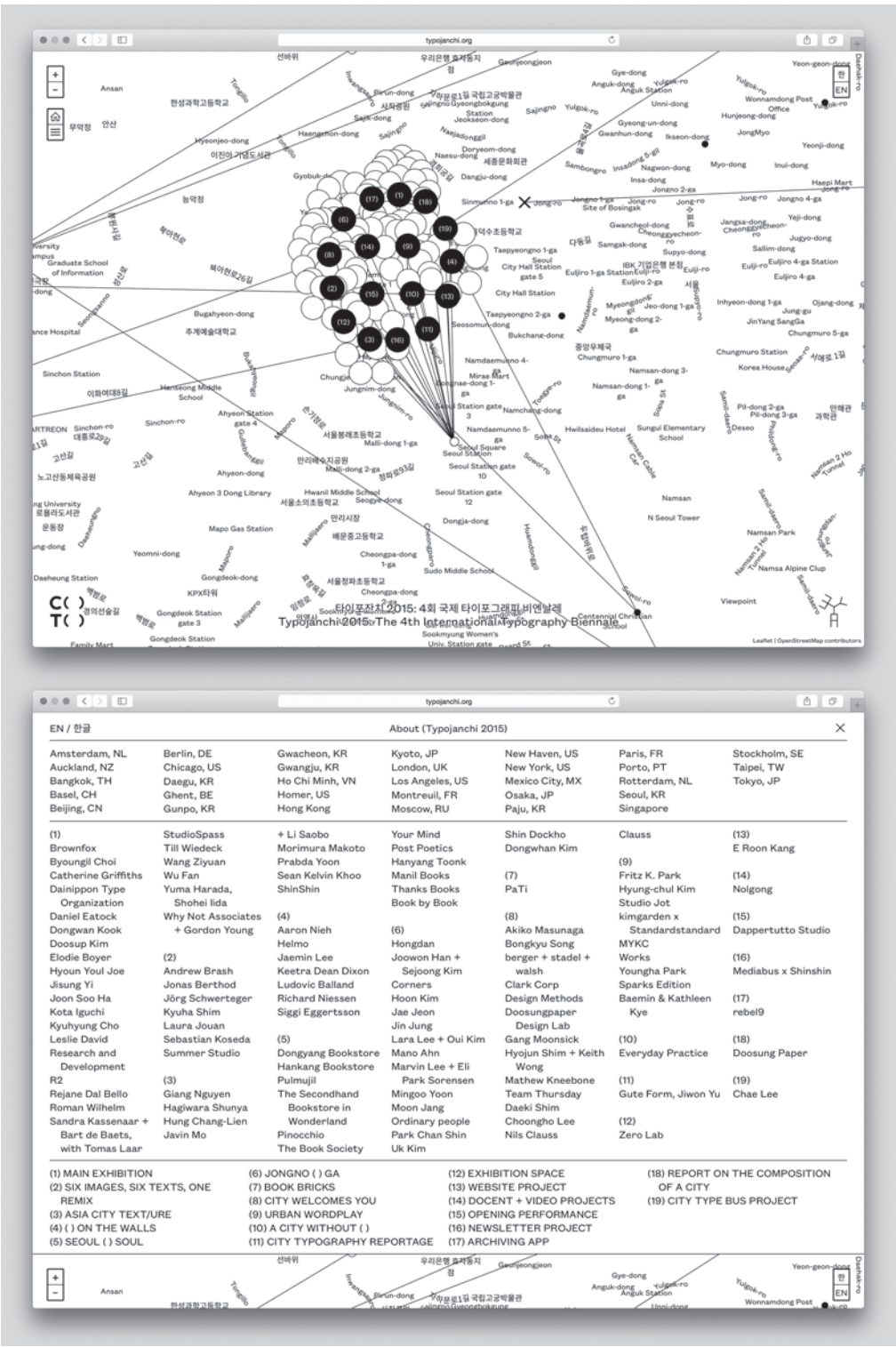
E Roon Kang

Korea

E Roon Kang lives and works in New York, where he operates Math Practice – an interdisciplinary design and research studio. E Roon is a TED Fellow, was previously a research fellow at SENSEable City Laboratory at MIT. He gave talks and lectures at MIT, TED Conferences and Cannes Int'l Festival of Creativity, among others, and taught courses at Bauhaus-University Weimar, NYU ITP. He current teaches at Parsons School of Design and holds an MFA in graphic design from Yale.

The *Typojanchi Website* maps each of the participating projects with their contextual relationship and associated geographic locations. By appropriating the familiar user interface of online maps, the website suggests a unique vantage point in experiencing the exhibition. The base map is constructed with the data from OpenStreetMap, and the website is realized with help of So Wonyoung.

Typojanchi Website
2015



2011년 설립된 놀공은 예술, 문화, 교육, 사회 공헌 분야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접목한 게임 기반의 참여형 문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다. 15~20년 경력을 가진 게임, 교육공학, 컴퓨터 개발 전문가들이 회사를 이끌며 주한 독일문화원,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C Program, 하자센터, 삼성그룹, 두산그룹,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다.

놀공

한국

방문자 A는 C () T ()에 들어선다.
이곳의 소통 방법은 문자와 기호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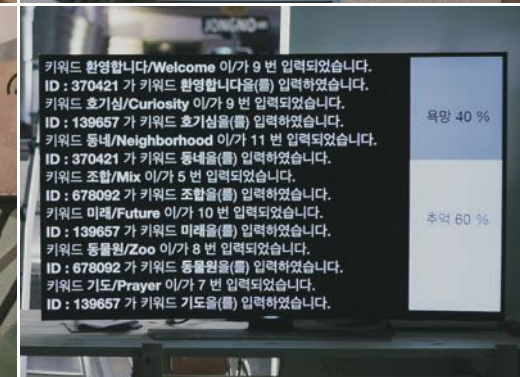
방문자 A는 이 도시의 시민이 되기 위해
입국 심사와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밋는다.

도시에 첫발을 내딛던 시민 A.
저마다 다른 표식을 한 시민들과 시선이
오가고 도시의 ()들을 통과한다.

시민 A는 자신이 가진 도구를 길잡이로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질문을 받으며,
C () T ()를 욕망하거나 추억한다.

Welcome to C () T ()
이제 당신 차례.

C () T () 가이드
경험 가이드 프로그램,
1층 중앙 홀 및 전시관 전체,
약 30분, 2015



Nolgong is a creative studio founded in 2011. The studio makes game-based cultural participation education contents by grafting digital and analogue in the fields of arts, culture, educ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With 15 to 20 years of experienced game, educational technology, computer developing specialists leading this company, they have been working with the Goethe-Institut Korea, Unicef, Save the Children, C Program, Haja Center, Samsung Group, Doosan Group, Hyundai Motors, and variou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Nolgong

Korea

Visitor A goes into C () T ().
The only way to communicate is
with typography and symbols.

Visitor A clears immigration and
is in a simple few processes able
To be a citizen in this city.

Citizen A makes the first step.
Exchanges glances with citizens
who have all different signs
Passing through () s.

Citizen A uses his/her tools as a guide
Gets questions by unknown people,
Desires or recollects the C () T ().

Welcome to C () T ()
Now, it's your turn.

C () T () Guide
Experiential guide program,
the 1st floor concourse and whole
exhibit hall, approx. 30 minutes,
2015

미디어버스는 2008년에 설립된 출판사이자 기획 집단으로 더 북 소사이어티라는 서점과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신은 신해옥과 신동혁으로 구성된 디자인 공동체로 주로 예술적 맥락 안에서 디자인적 실천을 보여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디어버스와 신신은 이번 타이포잔치 뉴스레터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물학 II: 제작자들의 도시》(2015), 《제록스 프로젝트》(2015)와 같은 전시와 책, 디자인 작업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버스 × 신신

한국

타이포잔치 뉴스레터는 도시를 타이포그래피 아카이브로 간주한다. 집단 거주지인 도시와 집단 소통 방법인 문자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고 발전되었다. 문자 문화로서 타이포그래피 개념은 도시 안에서 다양성을 획득하고 확장될 수 있었고,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 뉴스레터에 참여한 디자이너와 예술가, 비평가, 이론가, 건축가 등은 자신만의 관점과 방법론으로 도시와 문자, 타이포그래피를 가로지르며 이미 도시에 두텁게 쌓여 있는 문자 아카이브를 발굴한다.

타이포잔치 뉴스레터 《A-Z》

1호: 질서—무질서

2호: 과거—현재

3호: 개인—집단

4호: 정적—동적

5호: 도시—타이포그래피

윤전 인쇄, 39 × 26.5 cm,
2014–2015

Mediabus is a publishing company and a planning group, they run a book store and a project space named The Book Society. ShinShin (Shin Donghyeok, Shin Haeok) is a design community and they show design practice in the context of Art. Mediabus and ShinShin have been working on the “Typojanchi Newsletter” project, the exhibition *Objectology II: Make* (2015), *XEROX Project* (2015), and many books and design works together.

Mediabus × Shinshin

Korea

The Typojanchi Newsletters regard the city as an archive of typography. A city is a residential community and a letter is a public communication method. These are both made and developed at almost the same time. The concept of typography as a culture of letters has the potential to achieve diversity and expansion in the city. It can become an effective medium which can approach a history of city and placeness. The participants are designers, critics, theorists, and architects who will discover letter archives that have deep layers “already” in the city with their own perspectives and methodologies.

Typojanchi Newsletter A-Z

Issue 1: Order—Disorder

Issue 2: Past—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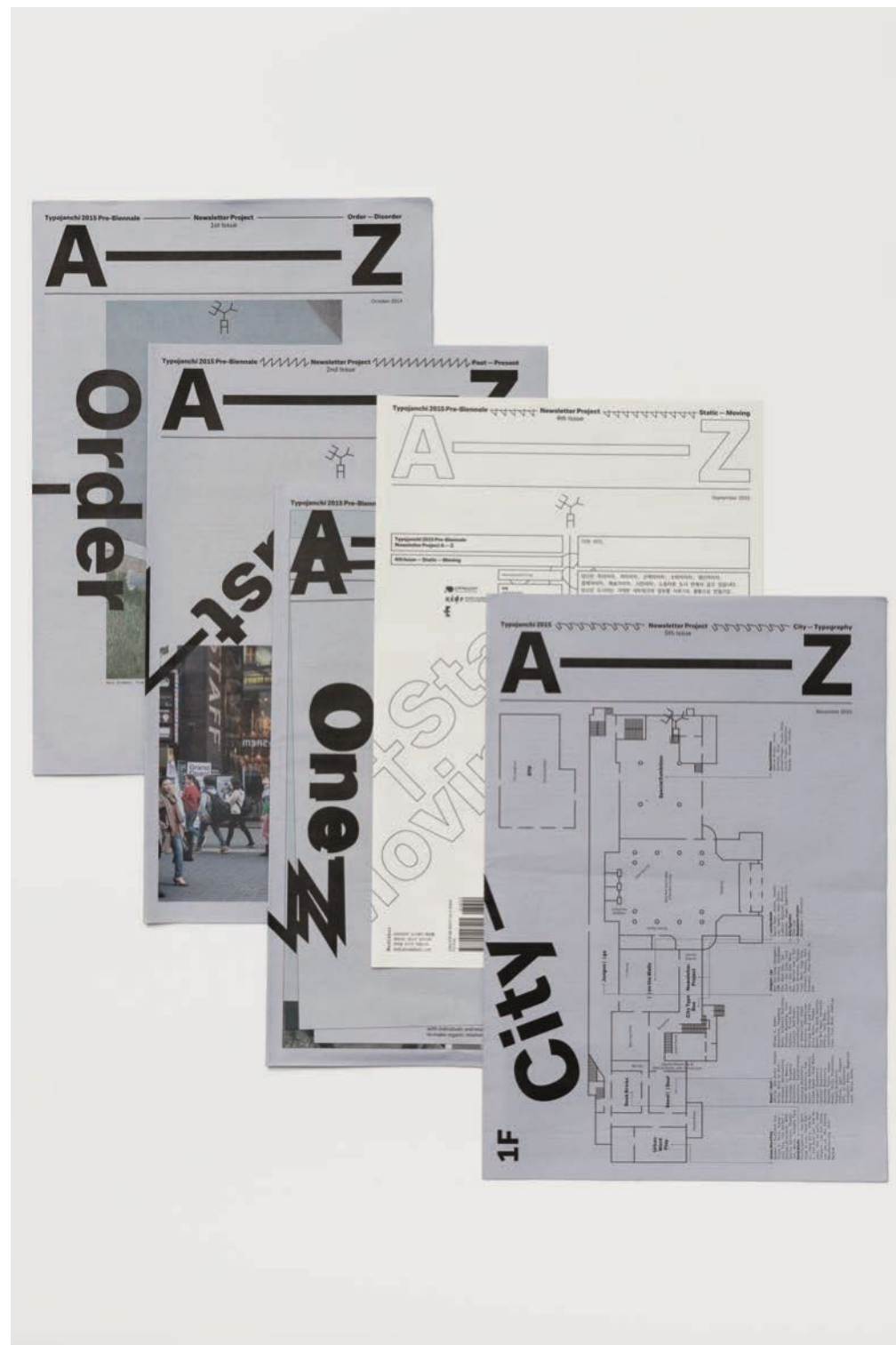
Issue 3: One—Collective

Issue 4: Static—Moving

Issue 5: City—Typography

Rotary printing, 39 × 26.5 cm,

2014–2015



두성종이 디자인연구소는 두성종이의 디자인 체계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 전통 및 현대 색상 연구 개발, 특수지 표면 가공 연구, 종이 제품 개발 등을 위해 2009년 설립되었다. 두성종이의 전체적인 공간 및 컬러 디자인, 디자인 관련 외부 기업 및 단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디자인 사업 진행, 페이퍼 굿즈 시리즈 등 종이 상품 디자인,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여, 사내 디자인 교육 등을 통해 두성종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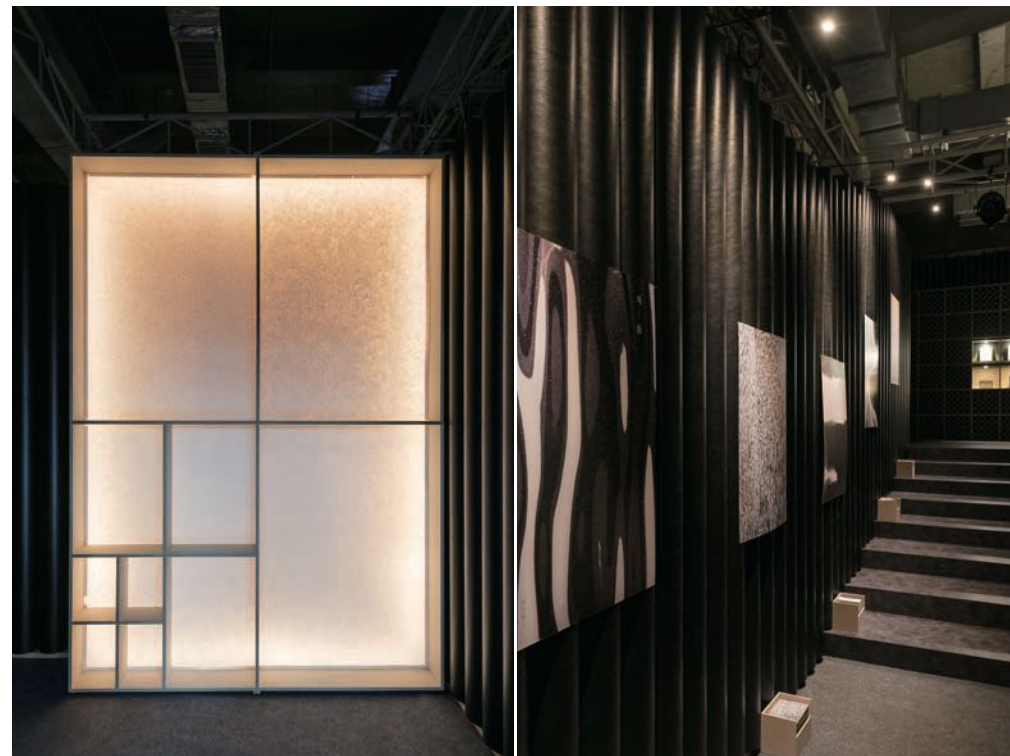
두성종이 디자인연구소

한국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작동하고 있는 도덕과 규율, 즉 시민의 대표적 의무인 세금, 끊임없이 생성되는 신조어, 도로교통법처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과 질서 등을 그래픽 작업으로 시각화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늘 곁에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매순간 숨 쉬며 살지만 너무 당연해 그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공기처럼 말이다.

도시 구성 리포트

2015



Doosung Paper's design lab is an attachment institution of Doosung Paper. Established in 2009, it researches and develops the design system and identity of Doosung Paper, Korean traditional color tones as well as modern color tones, develops surface finishing of specialty papers, and develops paper stationery. It consists of graphic design research team, online communication design team, and design consortium team. By performing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designing the overall color and space of the Doosung Paper building, businesses related to designs and hosting consortiums with other design firms, designing paper products such as the Paper Goods series, participating various domestics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hosting in-house design seminars, they take an important role in transforming and innovating Doosung Paper.

Doosung Paper Design Lab

Korea

Of the many aspects that constitute a city, there are some things which always function on their own, but are not visible present — Rules that we all must abide by, such as morals, ethics, obligation of tax as a citizen, endless reproduction of new words, traffic safety laws, were all graphically visualized. As such, there are countless numbers components in the city that do not reveal itself, but is always around us. It is like air that we breathe every day. We don't notice them because it's taken for granted.

**Report on
the Composition of a City**
2015



레벨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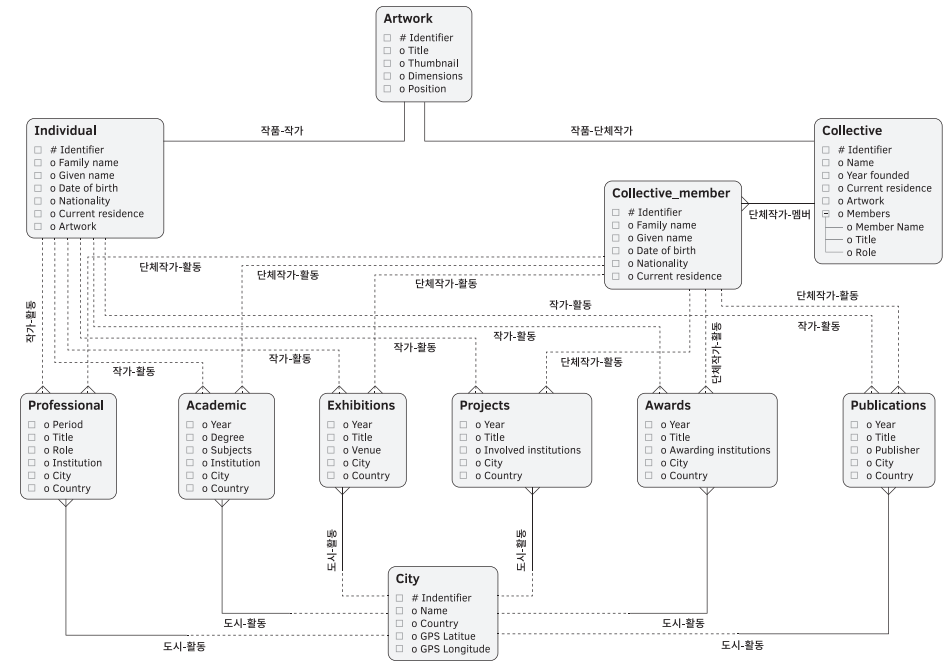
한국

2013년 설립된 레벨나인은 문화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리빙 랩이다. 문화 자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활용과 관련된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아카이브와 데이터', '문화 공간과 박물관', '창조적 미디어'를 키워드로 문화재청, 콘텐츠진흥원, 서울여자대학교, 카이스트,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전시 미디어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동-서-남-북, 도시 나침반〉은 이번 타이포잔치에 참여한 작가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와 그 도시를 해석하는 작가의 관계를 아카이브한다. 타이포잔치의 여타 프로젝트가 '도시-작가' 사이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조명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작가 개인의 도시 경험을 매개로 하여 관람객과 그 도시들을 잇는다. 타이포잔치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작가들은 '도시와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에 따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계 어느 도시로 달려가 문화적 흔적을 창조한다. 그러나 제인 제이콥스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1961)에서 지적했듯, 우리가 무언가 새로움을 창조할 때에 도시는 역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주는 주체가 된다. 즉 작가가 도시를 새롭게 창조할 때, 그 도시 역시 한 명의 작가를 길러내는 것이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작가들과 관련된 도시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으로 구축된, 나침반이 탑재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 기반의 도시 인포그래픽 경험과 마주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의 정보)로 작가(와 작품)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메타적' 성격을 띠며, 동시에 '탈공간적' 성격을 지닌다. 즉 문화역서울 284라는 전시 공간을 벗어나 타이포잔치에 참여한 작가 개인의 경험이 깃든 도시로 떠나는 가상의 여행을 제안한다.

동-서-남-북, 도시 나침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OS), 2015



rebel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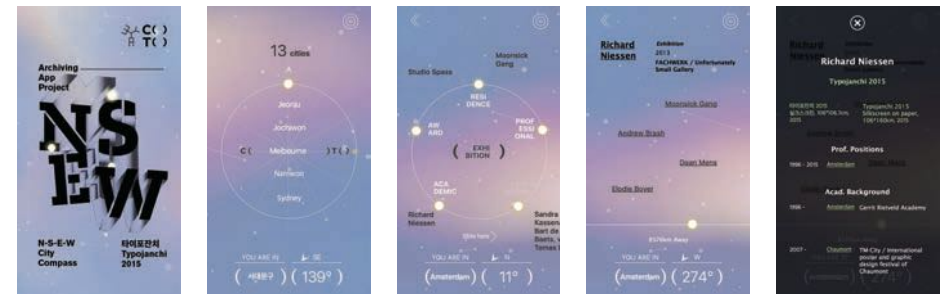
Korea

rebel9 is a Living Lab making new cultural resources of value founded in 2013. Their specialty is archive application and database projects based on cultural assets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Archive & Data" and "Creative Media" currently stand out in their work. rebel9 have been doing archive system development and exhibition media projects wit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Seoul Women's University, KAI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many organizations.

The *N-S-E-W, CITY COMPASS* archives the city and the relationship of the artists who analyze the city based on the *Typojanchi 2015* artists roster information. If the *Typojanchi*'s other projects focus on the "results" from "city-artist" relationships, this project links the audiences and the cities with the artist's personal city experiences. Through *Typojanchi*, artists from all over the countries rush to the city and create a cultural trace in their own ways. However, as Jane Jacobs pointed out in her book,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the city become a subject that gives us new experiences of spaces conversely. In other words, when an artist creates a city newly, the city also can raise one artist. The audience who visits the exhibition, faces to the city location-based infographic experiences through a compass on board the mobile application, constructed by a database system with artist-related city information. This project explains the artists (and the art works) by the artist ('s information) therefore, it has "meta" and "off the space"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suggests an imaginary trip outside of Culture Station Seoul 284 to the city where the artist's personal experience dwelt.

N-S-E-W, CITY COMPASS

Mobile Application (iOS), 2015



타이포잔치 2015

C () T ()

토크 프로그램

오픈 토크

장소: 네이버 그린팩토리

2층 커넥트홀

11월 12일(목) 15:00-15:20
등록 및 개최
15:20-16:10
에이드리언 쇼너시/보기와 안-보기
16:30-17:00
김두섭/도시와 타이포그래피
17:00-17:30
로만 빌헬름/타이포무자크
17:30-18:00
고토 테츠야, 자빈 모, 하기와라 순야/
아시아 시티 텍스트/처

11월 13일(금) 15:00-15:30
캐서린 그리피스/죽음의 문자
15:30-16:10
다이니폰 타입 조합 / '자(字)'에 대하여
16:30-17:00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어제의 뉴스
17:00-17:30
왕초위안 /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17:30-18:00
스튜디오 스파스 /
그래픽디자인 아트-디렉션,
그 이상을 위한 창의적 스튜디오

토요 토크

장소: 문화역서울 284 RTO

일시: 11월 14일-12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11월 14일(토) 이재민 / 포스터 프로젝트
'() on the Walls'
11월 21일(토) 이기섭 / 서울의 동네 서점
11월 28일(토) 크리스 로 / 종로 ()가
12월 5일(토) 박경식 / 도시 언어 유희
12월 12일(토) 조현, 심대기, 이충호 /
도시 환영(幻影/歡迎) 문자
12월 19일(토) 최문경 / 책 벽돌
12월 26일(토) 민병걸, 일상의실천 / 결여의 도시

해외 토크

장소: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니시구 에노코지마 2-1-21
마크 스튜디오(OOO 프로젝트)
일시: 11월 21일(토),
오후 5시-6시 30분
강연자: 고토 테츠야,
쿠지 타츠야, 야마모토 카나코

시티 토크(오픈+토요+해외 토크)는
《타이포잔치 2015》행사의 일환으로,
전시 공간 밖에서 참여 작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Typojanchi 2015

C () T ()

Talk Program

Open Talk

Venue: Naver Green Factory

2F Connect Hall

11. 12. Thu. 15:00-15:20
Registration and Opening
15:20-16:10
Adrian Shaughnessy/Seeing
and Not-seeing
16:30-17:00
Kim Doosup/City and Typography
17:00-17:30
Roman Wilhelm/TYPOMUZAK
17:30-18:00
Tetsuya Goto,
Javin Mo, Shunya Hagiwara/
Asia City Text/ure

11. 13. Fri. 15:00-15:30
Catherine Griffiths/A Type of
Improvisation
15:30-16:10
Dainippon Type Organization/
Talk about "字"
16:30-17:00
Research and Development/
Yesterday's News
17:00-17:30
Wang Ziyuan/Running water
never gets stale
17:30-18:00
Studio Spass/Creative Studio
for Graphic Design Art-direction
and More

Saturday Talk

Venue: RTO, Culture Station

Seoul 284

Date and time: 11. 14-12. 26,
every Sat, 15:00

11. 14. Sat. Lee Jaemin / () on the Walls
11. 21. Sat. Lee Kiseob/SEOUL () SOUL
11. 28. Sat. Chris Ro/Jongno () Ga
12. 5. Sat. Fritz K. Park/Urban Wordplay
12. 12. Sat. Cho Hyun, Shim Daeki,
Lee Choongho/
City Welcomes You
12. 19. Sat. Kelly Moonkyung Choi/
Book Bricks
12. 26. Sat. Min Byunggeoul,
Everyday Practice/
A City without ()

Overseas Talk

Venue: Mark Studio
(OOO Projects) 2-1-21 Enokojima,
Nishi-ku, Osaka, Japan
Date and time: 21 November,
17:00-18:30
Speakers: Tetsuya Goto,
Tatsuya Kuji, Kanako Yamamoto

C () T () Talk (Open+Saturday+
Overseas Talk) is a program
of Typojanchi 2015 through which
you can interact with designers
and typographers outside
exhibition venues.



442 **감독 및 큐레이터 소개**

김경선, 한국
건국대학교와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하고, 제일기획과 홍디자인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래픽 디자이너 클럽 진달래 동인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옮긴 책으로 《타이포그래피의 탄생 — 구텐베르크부터 디지털 폰트까지》(2010)가 있다.

고토 테츠야, 일본
고토 테츠야는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대안적 사무 공간 'OOO(아웃 오브 오피스)'와 '다학제적 에이전시' 'OOO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편집자, 저술가, 큐레이터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일본 타이포그래피 학회지인 《타이포그래픽스 티아이:》 263호부터 270호까지 편집을 맡으며 아시아의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풍경을 소개하는 글을 기고했다. 현재 긴키 대학교와 오사카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일본 《아이디어》지에 '옐로우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그래픽디자인 풍경을 소개하는 글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민병걸,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 안그래픽스 디자이너, 논디자인 디자인 디렉터로 일했으며 진달래 동인이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글의 모습을 현대적,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박경식, 한국
박경식은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경영을 공부했다. 현재 앤앤코라는 1일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타이포그래피 개간지 《ㅎ》의 편집장으로 일했다. 또한, 삼성디자인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각각 2008년, 2006년부터 줄곧 강의하고 있다. 여러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고, 2012년 홍콩에서 ATyPI 학회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 회원이며 학회지 《글짜씨》에 기고하고 있다. 서울 동부 끝자락에서 아내와 아들 셋이서 작은 연립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가로 등산, 공포 영화 관람, 미국 만화와 철인 28호 피규어를 모은다.

심대기, 한국
디에이앤컴퍼니의 공동 창립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심대기는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하고, 런던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에서 인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폴드 갤러리, 슬레이드 미술학교, 쇼어디치 타운 홀, 레프트뱅크, 라운드 하우스 런던,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뉴욕 PS 35 갤러리, 제로원 디자인센터, 서울 시청,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디자인 작업을 선보였으며, 최근 작업 〈지금 & 여기〉는 중국, 대만, 한국에서 열린 실험적인 포스터 전시회 '2015 아시아 넥스트'에 초대되었다. 또한 《어떠세요?》, 《첫 번째 공연 사이》, 《사이 #2》 등의 디자인 전시를 큐레이팅하기도 했다. 그의 작업은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 등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 제10회 한국 타이포그래피학회 전시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안병학, 한국
안병학은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 하고, 동 대학원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했다.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고, 2002년부터는 자신의 스튜디오 '디자인사이'를 운영하며 주요 회사, 공공기관, 갤러리 등을 위한 포스터, 책, 시각 아이덴티티, 웹사이트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시각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후부터는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을 가르치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래픽디자인의 역할을 다시 만드는 사의성 있는 이슈들을 탐험하고 있다.

에이드리언 쇼너시, 영국
디자이너이자 저술가. 1989년 디자인 스튜디오 인트로를 공동 설립해 15년 동안 아트 디렉터로 일했다. 현재는 인트로를 떠나 쇼네시웍스를 운영하며 디자인과 아트 디렉팅, 편집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영혼을 잃지 않는 디자이너 되기》를 비롯해 다수의 책을 썼으며, 직접 디자인과 시각문화에 대한 책을 내는 유닛 에디션스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디자인 잡지 《아이》, 《디자인 위크》, 《크리에이티브 리뷰》, 《디자인 옵서버》 등에 글을 쓰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다.

443 **About Director & Curators**

Kymn Kyungsun, Korea
Kymn Kyungsun studied graphic design at Konkuk University and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He also worked for Cheil Worldwide and Hong Design as a designer. He is a member of the graphic designer club, Jindallae and now he teaches in the Department of Design at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translated the book, *From Gutenberg to Opentype* (2010).

Adrian Shaughnessy, UK
Adrian Shaughnessy is a designer and writer. In 1989, he co-founded the Intro design studio, and worked as an art director for fifteen years. After leaving Intro, he now runs his own studio ShaughnessyWorks and does design, art-directing, editing, and consulting. He has authored many books including *How to be a Graphic Designer Without Losing Your Soul* and he co-founded Unit Editions which publishes book on design and design culture. He also writes for the design publications: *Eye*, *Design Week*, *Creative Review*, and design blog *Design Observer* and he also gives lectures all over the world.

Ahn Byunghak, Korea
Ahn Byunghak studied Visual Communication and typography in graduate school at Hongik University. He has gained experience as a graphic designer and started to run his own studio, "DesignSAI," in 2002 experimenting numerous posters, books, magazines,

visual identity and websites for major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and galleries. After graduation from MA course in Visual Communication at the Royal College of Art, London, he explores relevant issues that are reshaping the role of graphic design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ety, and culture for the future teaching typography and graphic design at Hongik University, Seoul.

Cho Hyun, Korea
Between 2001 and 2002, the designer Cho Hyun was deeply absorbed with trash. In 2002, he and Choi Sungmin developed the FF Tronic typeface based on the rules of objects encountered in daily life, and this led to his work as a registered font designer with FSI (Font Shop International, Germany). That same year, he earned a Master of Fine Arts degree in graphic design from Yale University, and in 2004 he established his S/O Project studio in Seoul. With a name meaning "Subject and Object Project in everyday life," this effort sees him making continued attempts at work incorporating perspectives on daily life and everyday objects into typographic expression. In particular, the studio's efforts are focused on combining and expanding the relationship of subject and object into different media. This design methodology has led him to produce unique and experimental results even when cooperating with very commercial enterprises, and his various media and

communication approaches, which represent a departure from established methods, have met with considerable praise, including honors from the Red Dot Awards, TDC New York, TDC Tokyo, ADC, and the ARC Awards. Cho's experiments with the subject/object in everyday existence are also realized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he results of his work with students based on everyday themes and areas of interest have been honored by the Red Dot Awards.

Chris Ro, USA
Chris Ro is a graphic designer and currently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He is a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 He studied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 and earned his MFA from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He is living and working in Korea since 2010. He has organized a student research project devoted to Korean visual culture called the "Ondol" project and has published three issues so far. He is currently interested in the subjects of "Flow" and "Digital Craftmanship." He has been involved in research within design writing, graphic design and typography. As a practitioner, he works across various media including book design, branding, advertising and motion graphics.

Everyday Practice, Korea
Everyday Practice is a graphic studio founded by Kwon Joonho, Kim Kyung

chul, Kim Eojin and a small community which is thinking about the role of design and how design acts in reality. Based in graphic design, they do not restrict themselves to strictly two-dimensional design. They research various design methods and make it happen.

Fritz K. Park, Korea
Fritz K. Park studied Communication Design at the Milwaukee Institute of Art & Design in Milwaukee, Wisconsin and received his MFA in Design Management at Hongik-IDAS. He wears many hats. His fedora is principal of a one-man graphic design studio named N&Co. specialising in design consultancy, branding and print, while the Stetson he interchanges with a hard hat when he lectures on typography, editorial design and design process at 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Konkuk University among many other schools. His green eyeshade is his thinking cap for when he writes or edits work based on design and cultural trends, or when he does translation work in varying capacities. With so many hats, Fritz has worked with many talented individuals as well as for many reputable clients such as Interbrand, Designesprit, Design House, gColon, KT, Hyundai/Kia, Asiana Airlines, Songdo IBD, 5by50, DY and Pacific Star, among others. He has presented papers at ATyPI (Association Typographique International) as well as for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Of special note is his Windsor cap

이기섭,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 그림책 작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홍디자인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서울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동네서점 땡스북스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스마일 서커스》(2005), 《모두 웃어요》(2006), 《인디자인, 편집 디자인》(공저, 2009) 등이 있다.

이재민,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스튜디오 fnt를 설립했다. 《벨트포르마트 15》, 《코리아 나우! 한국의 공예, 디자인, 패션 그리고 그래픽디자인》, 《그래픽 심포니아》, 《타이포잔치 2011》 등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극단, 서울레코드페어 조직위원회 등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와 공연을 위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는 정림문화재단과 함께 건축, 문화, 예술 사이에서 교육, 포럼, 전시, 리서치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도시, 주거 문제에 대해

(seasonal) which he saves for exhibition and show openings that he has participated in throughout the years. In his free time, he likes to go hiking (bucket hat), or watch horror movies (face guard visor). He collects comic books and vintage Tetsujin 28 figures and memorabilia (magnifier visor with LED lighting). Fritz lives on the outskirts of Seoul with his wife and three boys.

Kelly Moonkyung Choi, Korea Kelly Moonkyung Choi is a graphic designer. She studied graphic design at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typography at Basel School of Design. She worked as a researcher at Hongik University and during that time, she wrote her master thesis, “A Study on the education at Basel School of Design.” She has translated books such as *Designing with type* (2010), *While You’re Reading* (2013). Kelly Moonkyung Choi has taught typography at Hongik University an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urrently, she teaches at Paju Typography Institute (PaTI).

Lee Choongho, Korea Lee Choongho is an art director and graphic designer graduated from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in London with a BA (Hons) in graphic design. He also received an MA in graphic design from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 He founded his own graphic design studio SW20 which works on a wide range of projects across

고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서울시립 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이충호, 한국 아트 디렉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이충호는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으로 학사 학위를, 런던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에서 같은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디자인 스튜디오 SW20을 운영하며 그래픽디자인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의 작업은 뉴욕 ADC, 뉴욕 TDC, 도쿄 TDC 등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였으며 국내외 잡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다.

일상의실천, 한국 일상의실천은 권준호, 김경철, 김여진씨 운영하는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소규모 공동체다. 그래픽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평면 작업에만 머무르지 않는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을 탐구하고 있다.

a variety of media. He currently teaches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University of Seoul and Ewha Womans University. His works were awarded by multiple awards including New York Art Directors Club, New York Type Directors Club, Tokyo Type Directors Club etc. His works have been exhibited and published in magazines and books across the world.

Lee Jaemin, Korea Graphic Designer. Lee Jaemin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ounded “studio fnt” in 2006. He took part in several exhibitions such as *Weltformat 15: Plakatfestival Luzern, Korea Now! Craft, Design, Fashion and Graphic Design in Korea, Graphic Symphonia* and *Typojanchi 2011*, and worked with clients lik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and Seoul Records & CD Fair Organizing Committee on many cultural events and concerts. Since 2011, he has actively worked with Junglim Foundation on projects about architecture, culture, arts and education, forum, exhibitions and research in order to explore meaningful exchanges with the public about subjects like the social role of architecture and urban living. He also teaches graphic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Seoul.

Lee Kiseob, Korea Lee Kiseob is a graphic designer and

조현, 한국 경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서울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스튜디오 ‘S/O 프로젝트 (Subject and Object Project in everyday life)’를 설립한 후, 스튜디오 이름에서 드러나듯 일상과 일상 사물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미디어에 접목하고, 확장하며,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는 실험적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문경,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 바젤 디자인학교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전공했다. 홍익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바젤 디자인학교 디자인 교육 연구》로 석사 논문을 썼다. 옮긴 책으로 《타이포그래피 교과서》(2010), 《당신이 읽는 동안》(2013)이 있다. 홍익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가르쳤고, 현재 파주타이포 그래픽학교 스승으로 일하고 있다.

children’s book writer.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Textile Art-Fashion Design at Hongik University College of Arts and later worked for Hong Design as a designer. He has been teaching in the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at Seoul Women’s University as an adjunct professor and also running a local book store, Thanks Books, since 2011. He has written the books, *Smile Circus* (2005), *Laugh All* (2006), *InDesign, Editorial Design* (2009).

Min Byunggeol, Korea Min Byunggeol is a graphic designer and educator. He worked for Ahn graphics as a designer and Noondesign as a design director. He is a member of the graphic designer club, Jindallae. Now he teaches in the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Seoul Women’s University as a professor where he designs Hangul contemporarily and in three dimensions.

Shim Daeki, Korea Shim Daeki is a co-founder and graphic designer at D. A & Company. He received a bachelor degree in graphic design from Central Saint Martins,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and a master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from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University of London. His design works have been shown at the Fold Gallery, Slade School of Fine Art, Shoreditch Town Hall, Left Bank, UCL Quad, Round House London,

크리스 로, 미국 그래픽 디자이너. 홍익대학교 교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2세로, 버클리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디자인 글쓰기 및 타이포그래피 리서치 작업을 하는 한편 학생들과 함께 한국 시각문화를 탐구하는 ‘온돌’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디자이너의 행복’과 ‘디지털 공예’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작업해오고 있다

London Design Festival and the PS 35 Gallery as well as the Zero One Design Center, Seoul Citizens Hall, Sejong Art Center and among others. Recently, his work titled “Now & Here” was invited to the 2015 Asia Next which is a Poster Experimental Design Exhibition in China, Taiwan and Korea. Moreover, he also curated and directed several design exhibitions such as *How is it going?, Between the First Show and Between #2*. His works were selected in the Korea Design Awards, Red Dot Awards among others. Most recently, his work was awarded the Grand Prize from the 10th exhibi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in June 2015. He currently teaches at Seoul Women’s University.

Tetsuya Goto, Japan Tetsuya Goto is a graphic designer based in Osaka, Japan. He is running an alternative workspace named “OOO(Out Of Office).” And he also runs a multidisciplinary creative agency “OOO Projects.” Goto works not only as a graphic designer, but also as an editor, a writer, a curator and so forth. And, he is a lecturer at Kindai University and Osaka University of Arts. He edited *typographics tic*, the publication of the Japan Typography Association, as the editor in chief from the issue 263 to 270 that introduce the graphic design and typographic scene in Asia. Goto currently writes a series of articles about the graphic design scene in Asia entitled, “Yellow Pages” in *IDEA Magazine*.

타이포잔치 2015

주제
도시와 문자

본전시
개막: 2015년 11월 11일
폐막: 2015년 12월 27일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공인
ico-D

조직위원회
안상수 (위원장), 네빌 브로디,
라르스 뮐러, 폴라 셰어, 왕위, 하라 켄야,
김용섭, 최정철, 한재준

추진위원회
최성민 (위원장), 이병주, 정진열,
정재완, 박수진, 박성태

후원
네이버, 두성종이,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협찬
안그래픽스, 스몰하우스빅도어, 우아한 형제들,
이노이즈 인터랙티브, 레벨나인, 삼성전자

미디어 후원
월간디자인, 아이디어매거진, 월간 공간

총감독
김경선

특별 전시 디렉터
에이드리언 쇼너시

책임 큐레이터
이기섭, 이재민, 크리스 로, 최문경

큐레이터
고토 테츠야, 민병걸, 박경식, 안병학,
조현 (심대기, 이충호)

사무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미연, 이홍규, 윤현정

타이포잔치 사무국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전화 02 398 7900
팩스 02 398 7999
이메일 typojanchi@kcdf.kr

코디네이터
손영은, 이다은, 아세치 키미, 강연

그래픽디자인
손영은, 홍강원, 이다은

디자인 어시스턴트
양도연, 한예지, 임혜은, 김소희

전시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에프앤티

전시 공간 디자인
제로랩

웹사이트 디자인
강이론

공식 포스터 디자인
루도비크 발란트, 리카르트 니션,
시기 에게르트손, 에런 니에, 옐모,
이재민, 키트라 딘 딕슨

커뮤니케이션 포스터 디자인
이재민

사진
싸우나스튜디오

Typojanchi 2015

Theme
City and Typography

Main Exhibition
Opening
11 November, 2015
Closing
27 December, 2015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d by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Authorized by
ico-D

Organizing Committee
ahn sang-soo (Chairman), Neville Brody,
Lars Müller, Paula Scher, Wang Xu,
Hara Kenya, Kim Yongseob,
Choi Jeongcheol, Han Jaejoon

Promotion Committee
Min Choi (Chairman), Lee Byungju,
Jung Jinyeoul, Jung Jaewan, Park Sujin,
Park Seongtae

Sponsor
Naver, Doosung paper, Woowa Brothers,
The Japan Foundation, Seoul

Support
Ahn graphics, Small house big door,
INNOIZ, rebel9, Samsung

Media sponsor
Monthly Design, Idea magazine,
SPACE magazine

Director
Kymn Kyungsun

Special Exhibition Director
Adrian Shaughnessy

Chief Curator
Lee Kiseob, Lee Jaemin, Chris Ro,
Kelly Moonkyung Choi

Curator
Tetsuya Goto, Min Byunggeol,
Fritz K. Park, Ahn Byunghak,
Cho Hyun (Shim Daeki, Lee Choongho)

Committee (KCDF)
Jun Miyeon, Lee Hongkyu,
Adele Yoon Hyunjung

Typojanchi Administration Office
5F, 53 Yulgok-ro, Jongno-gu,
Seoul 03060, Korea

tel +82 2 398 7900
fax +82 2 398 7999
email typojanchi@kcdf.kr

Coordinator
Sohn Youngeun, Lee Daeun,
Asechi Kimi, Jiang Yan

Graphic Design
Sohn Youngeun, Kang Hong,
Lee Daeun

Design Assistant
Yang Doyeon, Han Yeji,
Leem Hyeeyun, Kim Sohee

Exhibition Graphic Design
Studio fnt

Exhibition Space Design
zero-lab

Website Design
E Roon Kang

Official Poster Design
Aaron Nieh, Helmo, Lee Jaemin,
Ludovic Balland, Keetra Dean Dixon,
Richard Niessen, Siggi Eggertsson

Communication Poster Design
Lee Jaemin

Photography
SSSAUNA STUDIO



타이포잔치 2015
프리비엔날레 프로젝트

도시 문자 탐사단 프로젝트

기획 및 코디네이션
김형재

연사
김형재, 박재현, 강예린, 이치훈,
(故)구본준, 박해천

포스터, 웹사이트 디자인
권아주, 김형재

도시 문자 버스 디자인
이재원

뉴스레터 프로젝트

자문위원
에이드리언 쇼너시(위원장), 롬 지암피에트로,
피터 빌락, 캐서린 그리피스, 고토 테츠야

운영위원
구정연, 박성태, 정진열, 크리스 로

발행
미디어버스

편집
임경용

디자인
신동혁, 신해옥

번역
김연임

인쇄
미디어이, 서울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4/2015

그래픽디자인
플랏

Typojanchi 2015
Pre-Biennale Project

City Type Exploration Project

Planning & Coordination
Kim Hyungjae

Speaker
Kim Hyungjae, Bahk Jaehyun,
Kang Yerin, Lee Chihoon,
Goo Bonjoon (1964–2014),
Park Haecheon

Poster & Website Design
Kwon Ahjoo, Kim Hyungjae

City Type Bus Design
Lee Chae

Newsletter Project

Advisory Committee
Adrian Shaughnessy (Chairman),
Catherine Griffiths, Rob Giampietro,
Tetsuya Goto, Peter Bilal

Management
Goo Jungyeon, Park Seongtae,
Jung Jinyeoul, Chris Ro

Publishing
Mediabus

Editing
Lim Kyungyong

Design
ShinShin (Shin Donghyeok, Shin Haeok)

Typojanchi Intertalks 2014/2015

Graphic Design
Plat

Translating
Kim Yunim

Printing
Midii, Seoul